

사적 제499호

# 함양 남계서원

종합정비 기본계획

2015



함양군







# 제 출 문

함양군수 귀하

2015년 4월 14일 귀 군으로부터 의뢰받은  
『2015년 함양 남계서원 종합정비 수립 용역』 용역의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15. 08.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단 장 남 태 현

---

## 연구원

책임연구원	고영훈	경상대학교 교수
연구원	송지환	박사수료
연구보조원	민철상	석사과정
	정연승	석사과정
	권희철	
	송재혁	
	이환희	

---



# 목 차

## I.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19
1-1. 계획의 배경 .....	19
1-2. 계획의 목적 .....	19
2. 계획의 범위 및 방법 .....	20
2-1. 계획의 범위 .....	20
2-2. 계획의 방법 .....	21
3. 계획의 수행과정 및 연구진 .....	25
3-1. 계획 진행과정 .....	25
3-2. 관계기관 및 관계자 .....	26

## II.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29
1-1. 자연지리환경 .....	29
1-2. 인문사회환경 .....	32
1-3. 역사문화적 환경 .....	38
2. 관련계획 및 법규 .....	56
2-1. 관련계획 검토 .....	56
2-2. 관련법규 .....	62
2-3. 세계 유산 협약 .....	71

## III. 함양 남계서원 현황

1. 함양 남계서원의 개요 .....	75
2. 함양 남계서원의 역사와 문화 .....	76
2-1. 함양 남계서원의 연혁 .....	76
2-2. 함양 남계서원 배향인물의 생애와 학문 .....	92
2-3. 함양 남계서원의 건축관련 연혁 및 지정내용 .....	109
2-4. 남계서원의 향사 .....	128
2-5. 자료 현황 .....	139
3. 서원현황 .....	162
3-1. 입지 .....	162
3-2. 남계서원의 건축 .....	166
3-3. 서원의 입지 경관 .....	221
3-4. 방재시설 .....	227

3-5. 주변 토지이용계획 .....	228
3-6. 주변문화재 현황 .....	229
<b>4. 관리현황</b> .....	232
4-1. 관리조직 및 현황 .....	232
4-2. 건축물 관리현황 .....	235
<b>5. 활용현황</b> .....	236
5-1. 남계서원 운영 프로그램 .....	236
5-2. 서원 문화 관광 자원화 사업과의 연계 .....	236

#### IV. 기본구상

<b>1. 기본방향</b> .....	239
1-1. 기본개념 .....	239
1-2. 경관 정비에 관한 구상 .....	243
1-3. 시설물 정비에 관한 구상 .....	244
<b>2. 기본구상</b> .....	245
2-1. 기본구상 .....	245
2-2. 활용계획 .....	245
2-3. 단계별 정비 .....	248

#### V. 종합정비계획

<b>1. 서원정비계획</b> .....	251
1-1. 개요 .....	251
1-2. 건축물 정비 .....	252
<b>2. 경관 정비계획</b> .....	260
2-1. 경관정비의 방향 및 체계 .....	260
2-2. 경관 보존구역 설정 .....	266
2-3. 광역 경관 관리 .....	270
2-4. 식생 정비 .....	271
<b>3. 주변 정비계획</b> .....	273
3-1. 서원 전면공간 정비 .....	273
3-2. 동선 계획 .....	276
3-3. 주차장 정비 .....	277
3-4. 화장실 정비 .....	279
3-5. 서원 주변 기타 정비 .....	280
3-6. 경관 범위 내 시설물 정비 .....	281
3-7. 기타 시설물 정비 .....	282
3-8. 소방방재시설 정비 .....	282

## VI. 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


1. 서원문화의 활용 필요성과 현황 .....	287
1-1. 서원문화의 특성과 계승가치 .....	287
1-2. 활용 현황과 과제 .....	289
2. 서원문화자원의 활용 방향 .....	290
2-1. 서원문화 콘텐츠 활용 방향 .....	290
2-2. 서원문화 특화 프로그램 유형(예시) .....	292
3. 남계서원 문화자원의 특성과 활용 경쟁력 .....	297
3-1. 남계서원의 특성화 자원 .....	297
4. 남계서원 특화 프로그램 계획안 .....	302
4-1. (1안) - 남계서원의 정신과 문화유산 체험 .....	302
4-2. (2안) - 일두 정여창의 자취를 따라서 .....	304
4-3. (3안) - 남계서원 유생의 하루 .....	306
5. 연계 프로그램 계획안 .....	308
5-1. 연계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 .....	308
5-2. 연계 프로그램 운영의 기본 방향 .....	309
5-3. 연계 프로그램 예시 .....	309
6. 서원자원 활용 활성화와 지원책 .....	311
6-1. 지원 정책과 지원체제의 확립 .....	311
6-2. 후속 세대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력 풀 .....	312
6-3. 적극적인 활용 지원정책 .....	312
6-4. 평가, 교육, 지원 연계 .....	312

## VII. 사업추진계획

1. 사업추진방향 .....	315
1-1. 기본방향 .....	315
1-2. 단계별 추진방향 .....	316
2. 사업투자계획 .....	318
2-1. 사업내용별 투자계획 .....	318

## 표 차례

[표 I-1] 과업수행 체계도 .....	25
[표 II-1] 함양군 위치 .....	29
[표 II-2] 미철서원 일람표(47개소) .....	34
[표 II-3] 함양군 문화재현황 .....	47
[표 II-4] 함양군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	47
[표 II-5] 함양군 도지정문화재 현황 .....	48
[표 II-6] 함양군 관광객 수 및 관광수입 .....	53
[표 II-7] 함양군 주요관광지 및 관광객 수 .....	53
[표 II-8] 함양군 체험프로그램 .....	54
[표 II-9] 함양군 축제 및 행사 .....	54
[표 II-10] 함양군 관광코스 .....	55
[표 II-11] 경상남도 종합계획 .....	57
[표 II-12] 함양군 문화관광과 전략 목표 및 단위산업 .....	59
[표 II-13] 2015년 지정문화재 보수액 .....	59
[표 II-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	63
[표 II-15] 문화재보호법 .....	64
[표 II-1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65
[표 II-1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66
[표 II-18] 함양군 문화재 관련 조례 .....	67
[표 II-19] 사적 제499호 함양 남계서원 현상변경허용기준 .....	70
[표 III-1] 함양 남계서원 개요 .....	75
[표 III-2] 함양 남계서원의 연혁 .....	109
[표 III-3] 함양 남계서원 문화재지정 현황 .....	111
[표 III-4] 함양 남계서원 건축물 현황 .....	111
[표 III-5] 서원의 장소성 .....	163
[표 III-6] 식생 목록 .....	220
[표 III-7] 서원경관의 분류 .....	222
[표 III-8] 함양 남계서원 주변 문화재 .....	230
[표 III-9] 함양 남계서원 건축물 보수내역 .....	235
[표 III-1] 함양 남계서원 개요 .....	75
[표 III-2] 함양 남계서원의 연혁 .....	109
[표 III-3] 함양 남계서원 문화재지정 현황 .....	111
[표 III-4] 함양 남계서원 건축물 현황 .....	111
[표 III-5] 서원의 장소성 .....	163
[표 III-6] 식생 목록 .....	220



[표Ⅲ-7] 서원경관의 분류 .....	222
[표Ⅲ-8] 함양 남계서원 주변 문화재 .....	230
[표Ⅲ-9] 함양 남계서원 건축물 보수내역 .....	235
[표Ⅳ-1]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준 .....	240
[표Ⅳ-2] 서원 문화의 활용 및 프로그램의 개발유형 .....	248
[표Ⅴ-1] 고직사복원 계획 .....	257
[표Ⅴ-2]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안) .....	269
[표Ⅴ-3] 서원관광화자원사업 기본계획 시 산정된 주차소요 면적 .....	277
[표Ⅴ-4] 방재시설 법규 검토 .....	283
[표Ⅵ-1] 서원문화의 활용, 프로그램 개발유형 .....	292
[표Ⅵ-2] 서원별 특화 프로그램 연계 .....	310
[표Ⅶ-1] 단계별 추진방향 .....	316
[표Ⅶ-2] 사업내용별 투자계획(단위:천원) .....	318




## 그림 차례

[그림 I-1] 함양 남계서원 .....	20
[그림 II-1] 대동여지도 상의 함양 .....	29
[그림 II-2] 비변사인 방안지도 함양부 .....	29
[그림 II-3] 해동지도(함양군) 상의 남계서원 .....	30
[그림 II-4] 남계서원 위성사진(출처:다음지도) .....	31
[그림 II-5] 성균관 명륜당 .....	32
[그림 II-6] 강릉향교 .....	32
[그림 II-7] 함양 남계서원 항공사진 .....	33
[그림 II-8] 남계서원 전경 .....	36
[그림 II-9] 함양 남계서원 내부 전경 .....	39
[그림 II-10] 함양 관광지도 .....	51
[그림 II-11] 물레방아골 축제 .....	53
[그림 II-12] 산삼 축제 .....	53
[그림 II-13] 벚꽃 축제 .....	53
[그림 II-14] 국토형성의 기본골격, 국토해양부 .....	56
[그림 II-15]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2012~2020) .....	58
[그림 II-16] 계획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	61
[그림 II-17] 함양 남계서원 현상변경허용기준 .....	70
[그림 III-1] 사적 제499호 함양 남계서원 지정구역현황 .....	75
[그림 III-2] <명종실록>권33 .....	77
[그림 III-3] 남계서원기 .....	112
[그림 III-4] 남계묘정비 .....	114
[그림 III-5] 풍영루기 .....	117
[그림 III-6] 풍영루중건기(기정진) .....	120
[그림 III-7] 풍영루중건기(민병승) .....	123
[그림 III-8] 남계서원원규 .....	124
[그림 III-9] 분향 .....	128
[그림 III-10] 제수구입 .....	129
[그림 III-11] 제수근봉 .....	130
[그림 III-12] 분정기 .....	131
[그림 III-13] 성생례 .....	131
[그림 III-14] 축문 작성 .....	132
[그림 III-15] 변에 담긴 제수 .....	136
[그림 III-16] 변 .....	136
[그림 III-17] 두 .....	136

[그림 III-18] 보 .....	136
[그림 III-19] 궤 .....	136
[그림 III-20] 정위 시성 .....	136
[그림 III-21] 배위 시성 .....	137
[그림 III-22] 작(爵) .....	137
[그림 III-23] 비(篚) .....	137
[그림 III-24] 일두문집 .....	161
[그림 III-25] 남계서원지 .....	161
[그림 III-26] 개암집 .....	161
[그림 III-27] 무이구곡도(이성길) .....	162
[그림 III-28] 관암도, 고산구곡 제1곡(김홍도) .....	166
[그림 III-29] 무이구곡도(이방운) .....	166
[그림 III-30] 소수서원 .....	167
[그림 III-31] 도동서원 .....	167
[그림 III-32] 도산서원 상덕사 및 전사청 .....	170
[그림 III-33] 도동서원 중정당 .....	171
[그림 III-34] 돈암서원 응도당 .....	171
[그림 III-35] 도동서원 동재(거인재) .....	172
[그림 III-36] 옥산서원 경각 .....	172
[그림 III-37] 옥산성원 외삼문 .....	172
[그림 III-38] 병산서원 만대루 .....	172
[그림 III-39] 도동서원 고직사 .....	173
[그림 III-40] 병산서원 고직사 .....	173
[그림 III-41] 성생단 .....	174
[그림 III-42] 관세대 .....	174
[그림 III-43] 망료위 .....	174
[그림 III-44] 정료대 .....	174
[그림 III-45] 남계서원 배치도(1998년) .....	175
[그림 III-46] 남계서원 배치도(2015) .....	175
[그림 III-47] 강학공간 .....	176
[그림 III-48] 풍영루와 연지 .....	177
[그림 III-49] 동재 .....	177
[그림 III-50] 제향공간 .....	178
[그림 III-51] 가례의 사당과 신위(삼재도회) .....	180
[그림 III-52] 남계서원의 사우영역 .....	180
[그림 III-53] 大夫士房室圖(江永에 의거한 張惠言의 복원) .....	183
[그림 III-54] 함양 남계서원의 공간구성 .....	187
[그림 III-55] 제향공간 .....	188

[그림 III-56] 사당 .....	189
[그림 III-57] 사당의 공포 .....	191
[그림 III-58] 전사청 .....	192
[그림 III-59] 내삼문 .....	193
[그림 III-60] 강학공간 .....	194
[그림 III-61] 강당 .....	195
[그림 III-62] 강당 처마1 .....	197
[그림 III-63] 강당 처마2 .....	197
[그림 III-64] 문설주 흔적 .....	198
[그림 III-65] 동재 .....	199
[그림 III-66] 서재 .....	201
[그림 III-67] 장판각 .....	203
[그림 III-68] 호작도, 조선후기 .....	204
[그림 III-69] 경판각 호작도 .....	205
[그림 III-70] 묘정비각 .....	206
[그림 III-71] 유식공간 .....	207
[그림 III-72] 풍영루 .....	209
[그림 III-73] 부속지원공간 .....	211
[그림 III-74] 고직사 .....	212
[그림 III-75] 정여창선생추모비 .....	217
[그림 III-76] 홍살문 .....	218
[그림 III-77] 조경현황도 .....	219
[그림 III-78] 겸재 정선 .....	221
[그림 III-79] 남계서원의 단면구성 .....	223
[그림 III-80] 풍영루에서의 전망경관 .....	226
[그림 III-81] 사당에서의 전망경관 .....	226
[그림 III-82] 방재시설 현황 .....	227
[그림 III-83] 남계서원 주변 토지이용계획 현황 .....	228
[그림 III-84] 함양 남계서원 주변 문화재 위치도 .....	229
[그림 III-85] 문화재청 행정조직도 .....	232
[그림 III-86] 경상남도 행정조직도 .....	233
[그림 III-87] 함양군 행정조직도 .....	234
[그림 V-1] 시멘트 바닥 마감 .....	253
[그림 V-2] 사당 담장 파손 .....	253
[그림 V-3] 외벽 박락 .....	253
[그림 V-4] 천장 훼손 및 퇴락 .....	253
[그림 V-5] 외벽 박락 및 문살 파손 .....	254
[그림 V-6] 방재시설 전원공급장치 노출 .....	254

[그림 V-7] 내부 단청 퇴락 .....	255
[그림 V-8] 청판 뒤틀림 .....	255
[그림 V-9] 부재 열화 .....	256
[그림 V-10] 기둥 하단 부후 .....	256
[그림 V-11] 남계서원도(남계서원지) .....	258
[그림 V-12] 한국의 서원건축, 김은중, 1994 .....	259
[그림 V-13] 고직사 평면도(현황) .....	259
[그림 V-14] 고직사 평면도(보수) .....	259
[그림 V-15] 고직사 정면도(현황) .....	259
[그림 V-16] 고직사 정면도(보수) .....	259
[그림 V-17] 중국 백록동 서원(당나라) .....	260
[그림 V-18] 중국 송양서원(후주) .....	260
[그림 V-19] 중국 아호서원 입지 .....	261
[그림 V-20] 도산서원 입지(겸재 정선) .....	261
[그림 V-21] 내부에서 외부를 바라보는 경관(남계서원) .....	262
[그림 V-22] 보존 범역 .....	263
[그림 V-23] 한국의서원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완충구역 설정 .....	264
[그림 V-24] 경관보존구역 설정(위성) .....	265
[그림 V-25] 함양 남계서원과 주변 경관 .....	266
[그림 V-26] 코어존 경관 .....	267
[그림 V-27] 버퍼존 경관 .....	268
[그림 V-28] 구역설정과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교 .....	268
[그림 V-29] 함양남계서원 현상변경허용기준 재조정(안) .....	270
[그림 V-30] 함양 남계서원 광역경관 .....	271
[그림 V-31] 서원 주변 축사 .....	272
[그림 V-32] 보식 대상지 .....	272
[그림 V-33] 풍영루에서 바라본 서원 전면 (우, 좌) .....	273
[그림 V-34] 농경지 조성 공사 중 .....	273
[그림 V-35] 농경지 조성 공사 완료 .....	273
[그림 V-36] 전면공간 현황도 .....	275
[그림 V-37] 전면공간 계획안 .....	275
[그림 V-38] 동선 계획안 .....	276
[그림 V-39] 주차장 정비 계획안 .....	278
[그림 V-40] 차폐조경 예시 .....	278
[그림 V-41] 잔디블럭 예시 .....	278
[그림 V-42] 화장실 계획안 .....	279
[그림 V-43] 서원과 축사 이격 현황 .....	280
[그림 V-44] 방음벽 철거 계획안 .....	281



[그림 V-45] 재난 감시 연락망 .....	282
[그림 V-46] 수막설비 .....	284
[그림 V-47] 이동식 소화장비 .....	284
[그림 V-48] 소화전함 현황 .....	284
[그림 V-49] 소화전함 정비 예시 .....	284
[그림 VI-1] 누마루에서 보이는 연지 .....	299
[그림 VI-2] 양정재(동재)와 애련헌 .....	300
[그림 VI-3] 보인재(서재)와 영매헌 .....	300
[그림 VI-4] 개평마을 일두 정여창 고택 .....	301
[그림 VI-5] 안의현감시 중건한 광풍루 .....	301
[그림 VI-6] 군자정 .....	301
[그림 VI-7] 동계 정은 생가 .....	301

## I 계획의 개요





# I . 계획의 개요

##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1-1. 계획의 배경

-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사학(私學) 교육의 전형으로서,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한국 특유의 공간유형과 건축양식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제향의례와 강학 및 사회교육 등 서원 본연의 기능을 오늘날까지 수행하고 있는 탁월한 문화유산이다.
- 함양 남계서원은 정여창의 효행과 덕행, 학문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서원이며, 서원 배치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어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 2012년 1월 10일 조선시대의 대표적 서원 9개소로 구성된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가 확정됨에 따라 목록에 포함된 서원들의 충분한 연구와 자료 축적을 통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 1-2. 계획의 목적

- 함양 남계서원 및 주변환경을 보존하고 역사적, 문화적 보전계획을 제안하며, 관람객에게 함양 남계서원과 관련된 내용과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 계획을 구상한다.
- 또한 충실한 조사·연구를 통해 정비의 방향과 방법을 계획하고 현재 정비된 유적의 지속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이에 본 용역에서는 함양 남계서원에 관한 철저한 고증과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보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함양 남계서원이 한국의 서원 중 하나로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세계유산 등재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제시하고, 진정성(Authenticity)과 완전성(Integrity)에 부합되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2. 계획의 범위 및 방법

### 2-1. 계획의 범위

#### 2-1-1. 공간적 범위

- 함양 남계서원 일원
  - － 함양 남계서원(咸陽 濫溪書院) : 사적 제499호(2009. 05. 26.)
  - －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남계서원길 8-11 일원(원평리)
  - － 문화재구역 면적 : 4,810m<sup>2</sup>
- 그 외 남계서원 보존을 위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역



[그림 1-1] 함양 남계서원

#### 2-1-2. 시간적 범위

- 2015년 04월 14일 ~ 2015년 8월 22일

### 2-1-3. 내용적 범위

- 연구의 개요
- 환경 및 정비여건 분석
- 사례조사 및 분석
-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 사업추진계획

## 2-2. 계획의 방법

### 2-2-1. 문헌조사

- 함양 남계서원 및 관련 선현에 대한 고문헌 및 기록 조사 정리
- 기존 보고서 및 관련 연구내용 조사 정리
- 함양 남계서원 및 관련 선현의 역사적 배경 정리

### 2-2-2.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 함양군의 일반현황 조사
  - 입지 및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역사문화환경 등
- 함양 남계서원 현황조사
  - 현존 건물에 대한 파악 및 배치, 건물 구조와 양식 조사
  - 기존 건물에 관한 도면은 기존 도면을 활용하고, 누락 부분은 간이 실측을 통한 도면 작성

- 토지이용 및 시설물 현황 파악
  - 주변의 교통이용과 경관 현황 검토
- 주변 문화유적자원 조사
  - 주변 역사문화환경 및 관광문화환경 등
- 관련 계획 및 법규검토
  - 관련 계획 : 국토종합계획 및 상위계획을 조사하고, 상위계획에서부터 부처별 관련계획을 검토
  - 관련 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함양군 조례 등
- 여건분석
  - 현황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각종 문제점 및 잠재력 등 분석
  - 자료분석을 통한 보존, 활용, 개발 등 정비계획 여건분석
  - 각종 의견 수렴 및 반영

### 2-2-3. 기본구상 및 지표설정

- 지표설정 및 기본구상
  - 기본방향 설정
  - 기본구상
  - 기본구상에 따른 각종 세부계획에 대한 지표설정 및 기본계획안 설정
  - 역사문화 환경 연계계획 : 주변 역사문화 환경, 관광자원과의 연계계획

#### 2-2-4.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 정비 기본도면 작성
- 토지이용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 함양 남계서원의 정비계획
  - 함양 남계서원의 원형고증에 따른 복원 또는 철거 등의 시설물 정비계획
  - 동선계획 수립 - 보행자 및 관람동선계획 등
  - 조경계획 - 서원 내·외부 식생 조사 및 보완 등
  - 각종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을 최소화하여 계획
  -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계획
-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진정성 및 완전성 제고 방안 제시
  -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구역설정에 근거하여 핵심지대(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와 완충지대(경관보호구역-500m) 내에 있는 시설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이진 계획을 수립)

#### 2-2-5. 투자 및 관리운영계획 수립

- 추진방향 설정
  - 사업추진에 따른 전제조건 검토 및 추진방향 설정
- 활용방안 수립
  - 정비 후 나타날 파급효과를 예측하여 함양 남계서원에 대한 다각도의 활용 방안 제시

- 교육자원으로서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주변 문화유산과 연계방안 모색
- 사업추진계획
  - 연차별, 단계별 사업추진방안 제시
  - 추정사업비 및 단계별 투자방안 제시
- 관리운영계획
  - 시설물 관리방안 및 운영방안 제시
  - 관리 및 운영체계 제시

#### 2-2-6. 기타 사항

-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유네스코 권고사항을 충실히 연구에 반영

#### 2-2-7. 보고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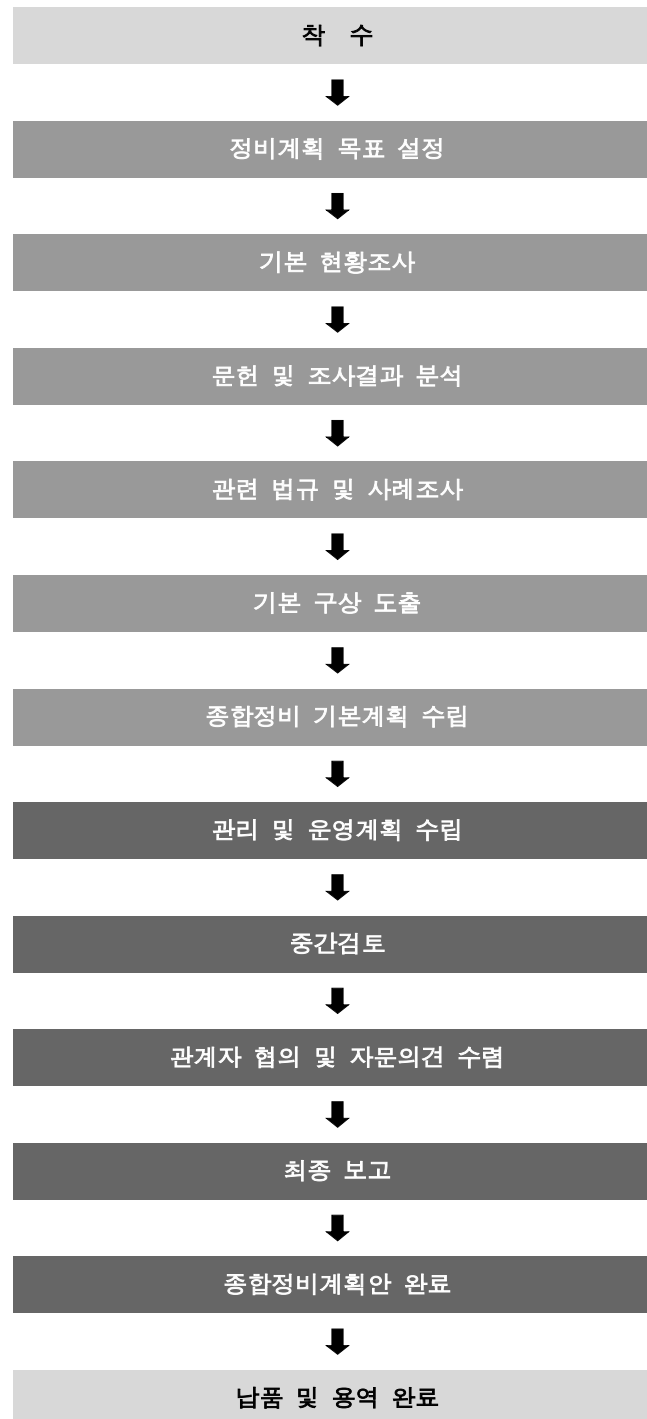
- 보고서 원고는 감독관과 협의 후 집필자 및 감수자 선정
- 주변현황, 연혁, 관련인물, 당해 문화재에 관계된 각종 문헌내용, 건축 구조적 특성 및 양식, 조경에 대한 관계전문가의 고찰내용 등을 수록

### 3. 계획의 수행과정 및 연구진

#### 3-1. 계획 진행과정

##### 3-1-1. 계획의 수행과정

[표 1-1] 과업수행 체계도



### 3-2. 관계기관 및 관계자

#### 3-2-1. 감독기관 : 함양군청

함 양 군 수	임 창 호
문 화 관 광 과 장	정 대 훈
문 화 재 담 당	서 점 용
문 화 재 담 당 자	김 정 삼

#### 3-2-2. 용역수행기관 :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단 장	남 태 현
책 임 연 구 원	고 영 훈
연 구 원	송 지 환
연 구 보 조 원	민 철 상
	정 연 승
보 조 원	권 희 철
	송 재 혁
	이 환 희

#### 3-2-3. 자문위원

자 문 위 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함양 남계서원 유림 및 관계자

## Ⅱ 일반현황







## II.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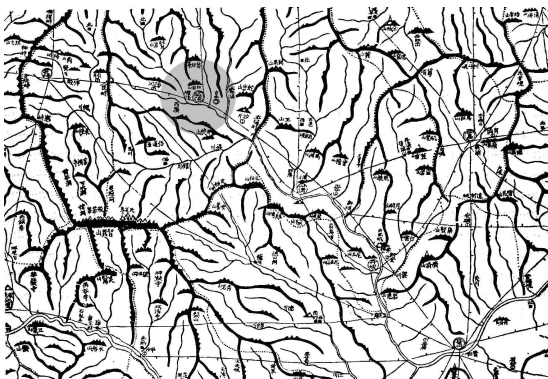
### 1. 일반현황

#### 1-1. 자연지리환경<sup>1)</sup>

함양군은 경상남도의 서북단(西北端)에 위치하여 동으로 산청군(山淸郡), 서로 전북 남원과 장수군, 남으로 하동군(河童郡), 북으로 거창군(居昌郡)에 연접(連接)하고 있다. 지형은 북쪽으로 남덕유산(南德裕山:1,507m), 남쪽으로 지리산(智異山)과 경계를 이룬 고위 평탄면으로 이밖에 깃대봉(1,015m)·월봉산(月峰山:1,279m)·황석산(黃石山:1,080m)·삼봉산(三峰山:1,187m) 등 산지로 둘러싸여 있다. 소백산맥이 영남지방과 호남지방의 경계를 이루고 있어 육십령과 팔랑치 등을 제외하면 예로부터 교통이 불편하였으나 88올림픽고속도로가 함양을 통과하여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로의 교통이 편리해졌고, 현재 대전통영고속도로가 개통되어 함양군의 인근 도시로 통하는 도로 교통이 편리해졌다.

[표 II-1] 함양군 위치

소재지	단	경도와 위도의 극점		연장거리
		지명	극점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1-2	동단	안의면 초동리 477	동경 127° 44"	동서간 25km 남북간 50.5km
	서단	백전면 대안리 217	동경 127° 35"	
	남단	마천면 강청리 산103	북위 35° 15"	
	북단	서상면 상남리 9-1	북위 35° 46"	



[그림 II-1] 대동여지도 상의 함양



[그림 II-2] 비변사인 방안지도 함양부

1) 함양군 통계연보, 2014

함양의 진산은 향교 뒤쪽에 있는 백암산(白巖山)이며, 남쪽의 화장산(花長山, 華藏山)이 안산(案山)의 역할을 한다. 대동여지도에는 읍성의 동쪽에 고읍(古邑)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곳에 고려시대의 읍치(邑治)가 있었다. 1380년(고려 우왕 6)에 왜구의 침입으로 인해 성을 함락 당한 후 지금의 위치로 읍치를 옮겼다고 한다. 1916년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근세 한국지형도에는 함양 남계서원이 있는 마을의 이름이 원촌동(院村洞)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림 II-3] 해동지도(함양군) 상의 남계서원

함양은 예로부터 선비의 고장이라 일컬을 정도로 유명한 유학자가 많이 배출된 고장이다. 사액서원의 체재(制裁)가 강화된 18세기 중반까지 함양지방에서 사액을 받은 서원은 남계서원 외에도 당주서원, 구천서원, 백연서원, 도곡서원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성리학자가 배출되어 문향을 숭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함양 출신 유학자 중 함양을 대표하는 이는 도학(道學)으로 명성이 높은 일두 정여창이며, 그의 사후(死後) 서원이 일찍 건립될 수 있었던 것은 성리학적 향풍(鄉風)이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중 함양 남계서원은 조선후기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도 훼손되지 않은 전국 47개 서원 중의 하나이며, 경남에서는 훼손을 면한 유일한 서원이다.

함양 남계서원은 함양군 수동면 남계서원길 8-11(원평리 586-1)에 자리 잡고 있으며, 1972년 2월16일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91호로 지정되어 보호, 관리되어 오다가 2009년 5월 26일 학술적·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사적 제499호로 지정되었다.

서원은 산청과 함양을 잇는 3번 국도 남계사거리에서 수동2길로 들어서면 우측으로 낮은 구릉 아래 남서향으로 배치되었는데, 지형은 뒤가 높고 앞은 낮다. 주변을 살펴보면 동측의 연화산을 주산으로 좌우로 뻗어 나온 산줄기가 위요하고 있고, 서원의 맞은편에는 덕유산에서 발원한 남계천이 오른쪽으로는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으며, 그 앞 넓은 들판 너머로 안산인 백암산이 서원을 마주하고 있다.



[그림 II-4] 남계서원 위성사진(출처:다음지도)

## 1-2. 인문사회환경

### 1-2-1. 조선시대 서원

서원의 기원은 중국 당나라 말기부터 찾을 수 있지만 정제화(定制化)된 것은 송나라에 들어와서이며, 특히 주자가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을 열고 도학연마의 도장으로 보급한 이래 남송·원·명을 거치면서 성행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543년(중종 38)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이 고려 말 학자 안향(安珦)을 배향하고 유생을 가르치기 위하여 경상도 순흥에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창건한 것이 그 효시이다. 조선의 서원은 그 성립과정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기는 하였으나 기능과 성격 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중국의 서원이 관인 양성을 위한 준비기구로서의 학교의 성격을 고수하였다면, 조선의 서원은 사람의 장수처(藏修處)이면서 동시에 향촌사림의 취회소(聚會所)로 정치적·사회적 기구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서원의 명칭은 원래 당나라에서 비롯되었는데, 조정의 도서관 혹은 개인의 서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나라 현종 때 궁중에서 서적을 편수하기 위해 설립하였던 여정전서원(麗正殿書院), 집현전서원(集賢殿書院)에서 유래하였다. 당나라 때는 서적만을 편수하였으나 송나라 초기에 조정에서 지방의 사숙(私塾)에 서원의 이름을 사명(賜名)함으로써 교육기관의 명칭이 되어 수양서원(睢陽書院), 석고서원(石鼓書院), 악록서원(嶽麓書院),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 등의 4대 서원이 생겼으며, 주자(朱子)가 강론하던 백록동서원이 특히 유명하였다.<sup>2)</sup>



[그림 II-5] 성균관 명륜당



[그림 II-6] 강릉향교

2) 이호일, 『조선의 서원』, 가람기획, 2006, p.6.

서원의 성립 배경은 조선 초부터 계속되어온 사림의 향촌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사림들은 향촌사회에 있어서 자기세력기반 구축의 한 방법으로 일찍부터 사창제(社倉制)·향음주례(鄉飲酒禮) 등을 개별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정계진출이 가능해진 성종 이후 교육과 교화를 표방하며 향촌활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 구심체로 서원이 성립·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16세기 중엽 이후 문묘종사(文廟從祀)와 교학체제의 혁신을 통해 서원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즉 조광조(趙光祖)로 대표되던 신진사류의 문묘종사운동을 통해 사림계 유학자인 김굉필(金宏弼)·정여창(鄭汝昌) 등의 종사를 추진하면서 서원이 발생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반면 사림계는 도학정치를 담당할 인재의 양성과 사문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위기지학(爲己之學) 위주의 새로운 교학체제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사림의 강학(講學)과 장수(藏修)를 위한 장소로서 서원 건립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서원은 명종 대까지는 건립상황이 미미한 상태였으나, 17~18세기에 양반료 사이에서 당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자당(自黨)의 선사(先師), 선배를 경쟁적으로 봉사하면서 서원 수는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이후 서원이 남설(濫設)되기 시작하면서 수적 증가에 반비례해 질적 하락을 가져오면서 서원에 대한 폐단과 비판이 커지게 되었고, 결국 고종 8년 대원군에 의해 서원철폐령이 내려지게 되어 47개 서원만을 남기고 모두 철폐되었다.



[그림 II-7] 합양 남계서원 항공사진

[표 II-2] 미철서원 일람표(47개소)

서원명	지정별	주향인	소재지	건립연대	사액연대
금오서원(金烏書院)	시도기념물 60	충절공 길 재(忠節公 吉 再)	경북 선산	1570	1566
남계서원(藍溪書院)	사적 499	문헌공 정여창(文獻公 鄭汝昌)	경남 함양	1552	1566
노강서원(鷺江書院)	시도기념물 41	문열공 박태보(文烈公 朴太輔)	경기 의정부	1695	1697
노강서원(魯岡書院)	시도유형 30	문정공 윤 황(文正公 尹 煌)	충남 논산	1687	1742
노덕서원(老德書院)	-	문충공 이항복(文忠公 李恒福)	함남 북청	1627	1687
덕봉서원(德峰書院)	시도유형 8	문정공 오두인(文貞公 吳斗寅)	경기 안성	1695	1700
도동서원(道東書院)	사적 488	문경공 김굉필(文敬公 金宏弼)	대구 달성	1604	1610
도산서원(陶山書院)	사적 170	문순공 이 황(文純公 李 滉)	경북 안동	1574	1575
돈암서원(豚巖書院)	사적 383	문원공 김장생(文元公 金長生)	충남 논산	1634	1660
무성서원(武城書院)	사적 166	문창후 최치원(文昌侯 崔致遠)	전북 정읍	1615	1696
문회서원(文會書院)	-	문성공 이 이(文成公 李 珥)	황해 연백	1599	1628
병산서원(屏山書院)	사적 260	문충공 류성룡(文忠公 柳成龍)	경북 안동	1613	1863
봉양서원(鳳陽書院)	-	문순공 박세채(文純公 朴世采)	황해 은율	1695	1696
사충서원(四忠書院)	-	충헌공 김창집(忠獻公 金昌集)	경기 하남	1725	1726
서악서원(西岳書院)	시도기념물 19	홍유후 설 충(弘儒侯 薛 聰)	경북 경주	1561	1623
소수서원(紹修書院)	사적 55	문성공 안 향(文成公 安 珦)	경북 영주	1543	1550
송양서원(崧陽書院)	-	문충공 정몽주(文忠公 鄭夢周)	경기 개성	1573	1575
심곡서원(深谷書院)	-	문정공 조광조(文正公 趙光祖)	경기 개성	1650	1650
옥동서원(玉洞書院)	시도기념물 52	익성공 황 희(翼成公 黃 喜)	경북 상주	1714	1789
옥산서원(玉山書院)	사적 154	문원공 이언적(文元公 李彦迪)	경북 경주	1573	1574
용연서원(龍淵書院)	시도유형 70	문익공 이덕형(文翼公 李德馨)	경기 포천	1691	1752
우저서원(牛渚書院)	시도유형 10	문열공 조 헌(文烈公 趙 憲)	경기 김포	1648	1675
창절서원(彰節書院)	시도유형 27	충정공 박팽년(忠正公 朴彭年)	강원 영월	1685	1699
충렬서원(忠烈書院)	-	충렬공 홍명구(忠烈公 洪命耆)	강원 김화	1650	1652
파산서원(坡山書院)	문화재자료 10	문간공 성 혼(文簡公 成 渾)	경기 파주	1568	1650
필암서원(筆巖書院)	사적 242	문정공 김인후(文正公 金麟厚)	전남 장성	1590	1662
흥암서원(興巖書院)	시도기념물 61	문정공 송준길(文正公 宋浚吉)	경북 상주	1702	1705
강한사(江漢祠)	-	문정공 송시열(文正公 宋時烈)	경기 여주	1785	1785
기공사(紀功祠)	-	장렬공 권 울(莊烈公 權 慄)	경기 고양	1841	1841
무열사(武烈祠)	-	상 서 석 성(尙 書 石 星)	평남 평양	1603	1709
삼충사(三忠祠)	-	무향후 제갈량(武鄉侯 諸葛亮)	평남 영유	-	-
수충사(酬忠祠)	-	서산대사 휴정(西山大師 休靜)	평북 영변	-	-
창렬사(彰烈祠)	-	문정공 윤 집(文貞公 尹 集)	충남 부여	1717	1721
충렬사(忠烈祠)	-	문충공 김상용(文忠公 金常容)	인천 강화	1642	1658
충렬사(忠烈祠)	-	충렬공 송상현(忠烈公 宋象賢)	부산 동래	1606	1624
충렬사(忠烈祠)	-	충무공 이순신(忠武公 李舜臣)	경남 통영	1614	1723
충렬사(忠烈祠)	-	충민공 임경업(忠愍公 林慶業)	충북 충주	1697	1727
충민사(忠敏祠)	-	충장공 남이흥(忠莊公 南以興)	평남 안주	1681	1682
태사사(太師祠)	-	장절공 신승겸(壯節公 申崇謙)	황해 평산	고려	조선정조
포충사(褒忠祠)	-	충렬공 고경명(忠烈公 高敬命)	전남 광주	1601	1603
포충사(褒忠祠)	-	충강공 이술원(忠武公 李述原)	강원 철원	1665	1668
포충사(褒忠祠)	-	충무공 김응하(忠武公 金應河)	경남 거창	1738	1738
표절사(表節祠)	-	충렬공 정 시(忠烈公 鄭 蓄)	평북 정주	-	-
표충사(表忠祠)	-	충민공 이봉상(忠愍公 李鳳詳)	충북 청주	1731	1736
현절사(賢節祠)	-	문정공 김상헌(文正公 金常憲)	경기 광주	1688	1693
청성묘(淸聖廟)	-	청혜후 백 이(淸惠侯 伯 夷)	황해 해주	1691	1701

조선시대 건립 기록이 남아있는 서원은 935곳인데, 그 중 경상도가 352곳(37.6%), 전라도가 194곳(20.7%), 충청도가 111곳(11.9%), 경기도가 83곳(8.9%) 등으로 경상도의 건립 서원수가 월등히 많다.<sup>3)</sup> 이는 퇴계를 중심으로 한 영남학파의 학문적 발전상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주세붕이 최초의 서원을 건립한 이래, 초창기 이황(李滉)은 서원 건립 운동에 적극적이었다. 이황은 향교(鄕校)와 국학(國學)은 나라의 제도와 규정에 얽매이고 과거(科擧)와의 관련에서 올바른 학문에 심잠(心潛)할 수 없는 반면, 서원에서는 출세주의나 공리주의(功利主義)를 떠나 순수한 학문연구에 몰두할 수 있기 때문에 서원제도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황은 서원을 통해 성리학의 토착화에 심혈을 기울였고, 적지 않은 서원이 이황과의 관련 속에서 건립되고 명명되었다.

이러한 서원의 건립에는 크게 인적 환경요소와 지리적 환경요소 2가지의 장소성이 나타난다.<sup>4)</sup> 첫째, 인적 환경요소에 의한 서원의 입지는 존경받을 만한 선현의 일정한 연고지로 한정되거나, 주향자 자신이 세운 강학장소가 서원이 되기도 한다. 둘째, 지리적 환경요소에 의한 서원의 입지는 전반적으로 은둔적 성향이 강하고, 풍수지리상 풍광이 빼어난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부분의 서원은 주향자와 관련이 있는 산기슭이나 중턱에 배산임수(背山臨水) 혹은 배산임야(背山臨野)하여 입지하고 있다. 이들 서원 중에는 옥산서원, 남계서원처럼 조선시대 서원건축 배치의 전형(典型)을 잘 보여주는 예가 있는가 하면, 필암서원, 홍암서원처럼 전형적인 배치 형식을 변화시켜 새롭게 구성한 예, 수림서원, 죽정서원처럼 전형에서 벗어난 배치를 보이는 예도 있다.

또 많은 서원들은 병산서원, 도동서원처럼 서원을 앉힐 땅과 그 주변 자연경관을 잘 이해하며 해석하여, 그 속에 자연과 어울리는 탁월한 건축공간을 읽어내고 있다. 이들 서원은 주변 자연환경의 중요한 한 부분을 구성하며, 동시에 주변환경이 서원의 한 부분이나 중요한 특징으로 작용되게 한다. 건축은 그것이 들어서는 터, 즉 장소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일면이다. 그 중에는 소수서원, 목계서원, 화양서원처럼 중국 송나라 주희(朱熹, 1130~1200)의 무이구곡(武夷九曲)을 연상케 하는 입지를 갖춘 계곡이나 강을 낀 곳을 찾아 세운 서원도 있다.

이러한 서원들은 모두 조선시대 사대부의 정신세계와 자연관을 잘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을 둘러싼 산천경계가 어떻게 건축 공간미학으로 재구성되어 되살아날 수 있는가를 보여, 한국 서원건축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크게 작용

3) 최미경, 「영남지방 書院樓의 건축계획」,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p.36.

4) 옥선호, 「서원건축의 立地와 向에 관한 연구」, 동서대학교동서논문집, 2002, p.376.



하고 있다.<sup>5)</sup>

서원은 관학인 향교와는 달리 읍내에 위치하여 번잡한 곳이 아니라 주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자리 잡았다. 사대부들은 골짜기가 있어 물이 흐르고, 산이 있어 풍월(風月)을 가까이할 수 있는 자연에 서원을 건립해 학문을 연마하고 후학을 양성하였는데, 이는 유생들이 산수가 수려하고 조용한 곳에서 학문을 닦음으로써 교육적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림 II-8] 남계서원 전경

#### 1-2-2. 서원의 역사문화적 가치<sup>6)</sup>

조선시대 서원은 복잡한 성격변화를 거치면서 400여 년을 존속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교육기관으로, 성리학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향촌문화의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 하였다. 또한 사설기관으로서 성현들을 모시는 사당 또는 사묘의 역할과 더불어 향약 등의 향촌 질서를 정하고 백성들을 계도하는 역할, 단순한 교육이 아닌 학문 연구와 발전을 선도했다.

유교문화는 인물과 사상, 철학과 정신, 학문과 가치관을 중시하는 정신사적 문화이다. 다시 말하면 서원의 가치는 유형의 건축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서 생활하며 향유했던 사람과 정신, 그리고 문화적 시스템에 있다. 이는 모두 눈

5) 이상해, 『서원』, 열화당, 1998, p.9.

6) 서원 보존정비 관리 방안 연구보고서, 문화재청, 2010, p10~12.

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문화이자 복합적인 가치로서, 서원문화의 본질이 바로 그것이었다고 보면 좋을 것이다. 이밖에도 서원은 향촌 지성들의 집회소로서 다양하고 중첩적인 기능들을 지니고 있었다.

현재 서원의 문화유산적 가치는 인물사와 고건축 분야에 국한되어 있고, 또한 서원 본연의 교육적 기능보다도 전통제례, 또는 원론적 유학의 본산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서원이 지녔던 기능은 무엇보다도 교육적 기능이 중심이다. 즉 서원은 역시 지방교육의 상징적 기구로 강학(講學)과 장수(藏修)를 근본으로 삼은 사학기구인 것이다. 그리고 각 서원은 저마다 교육의 방식과 운영의 모습들이 약간씩 다르며, 이는 서원별로 특별한 교육방침이 엄연히 존재했던 개성적 공간이었다는 점이다. 지역별 학맥의 개성적인 특성은 서원의 운영과 교육방침에 그대로 투영되었다.

또 서원은 조선시대 각 지방의 고급 인재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접촉·교류했던 상징적 기구로, 서원 내에서 젊은 인재들과 그들의 선배들은 강론과 학문 토론의 장을 형성하였고, 때로는 여론과 공론을 결집하는 집회소를 꾸리기도 하였다. 집회소로서 서원의 기능은 서원에서 배출한 인물들이나 서원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던 수많은 명칭의 각종 조직들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결국 이들 지성들 간의 유대와 결속력의 토대는 지연과 학연을 배경으로 하는 정치세력의 거점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조선 중기 이후 유교문화가 확산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서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였다. 조선 초기 소학의 보급과 향약 실시 등의 일련의 노력이 대부분 향교를 기반으로 정착되었다면, 조선중기 이후에는 서원으로 그 주도권이 넘어 왔다. 사족활동의 거점은 바로 서원이었고, 서원에서 이루어지는 제향의례나 강학의례, 기타 여러 형태의 생활의례들은 서원이 사회교육의 실현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다. 즉 서원에서의 교육은 보편타당한 가치관을 형성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는 향촌사회의 교화에 크게 공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서원은 교육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도서의 보존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는데, 경서(經書)를 기본으로 유가(儒家), 역사(歷史), 전기(傳記) 등 원생들의 교육을 위해 소장 된 도서 외에 각 서원의 제향인물이나 그의 학맥을 잇는 인사들의 문집류 등의 자료들이 보존되어 있었다. 또한 서원의 운영과 관련 된 실무적인 고문서 자료들도 많이 보관되어 있는데, 당시 장서의 관리와 점검은 서원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였다. 한편 여러 서원에서는 경쟁적으로 서적을 출판하기도 하였는데, 서원이 도서의 보존기능에 더하여 서적의 출판과 배포라는 새로운 기능을 겸하게 된 것이다. 이는 임진왜란 이후 상당량 소실 된 서적에 대한 보강과, 추배 된 제향인물에 대한 유고(遺稿)나 문집 등을 간행해야 하는 사명에서 비롯

된 것이다.

서원은 유교문화의 대표적 공간임과 동시에 유학자 개인에게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인(仁)과 ‘천리절문(天理節文)’의 예(禮)를 실천하는 장소였다. 서원에서 유학자들은 배우며 쉬고 노닐며 축적하면서 그들의 가치관·세계관·자연관을 체득 인식하고자 했다. 이에 적합하도록 서원 입지를 선정하고, 경관과 장소를 조성하였다. 서원의 입지는 대체로 연고(선현의 강학처, 유허지, 씨족마을)가 있으면서도 배산임수에 천석(泉石)이 있는 경승지를 선택하였다. 자연전망을 통해서 천인합일을 체득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원 전면에 생기 있는 안(案)을 설정하였으며, 경사 있는 자연지형은 상승감을 주는 진입로로 활용하였다. 누문과 강당에서 보이는 자연전망을 확보하고 주위 자연환경과의 조화(형국)를 각별히 중시하여 건물을 배치하였으며, 예의 실천 장소로 서원 내부공간을 만들고자, 위계에 따른 당하·계하의 차별, 비움과 채움의 장소, 오행의 순서, 우회로 활용 등으로 장소경관을 구성하였다.

이처럼 서원문화는 한국 유교문화의 다양성과 특성이 집약된 문화유산이며, 서원은 조선시대 선비의 학문성, 도덕적 실천성, 개성을 보여주며, 지역 문화의 역사성과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곳이다. 그리하여 서원은 유·무형의 다양한 문화유산(역사, 교육, 제향, 건축, 기록, 경관 등)들이 존재하며, 의례, 도서, 출판, 문화예술, 정치 등 복합적인 문화사가 이루어졌던 거점이었다. 서원은 한국 고유의 유교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것이다.

### 1-3. 역사문화적 환경

#### 1-3-1. 서원의 성립 배경

사학(私學)인 서원은 관학(官學)인 향교와 더불어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이었다. 조선을 건국한 지배세력인 신홍사대부들은 숭유정책(崇儒政策)을 국시로 내세워 중앙에는 성균관과 사학(四學)을, 지방에는 향교를 세워 관학을 크게 장려하였다. 그들은 새로운 통치질서의 근간인 성리학적 덕목을 향촌사회에 보급하고 풍속을 교화하기 위하여 일읍일교(一邑一校)의 원칙하에 각 군현마다 향교를 설립하였다. 각 지방 관에게는 향교를 설립해야 하는 책임감과 학교를 부흥시키는 의무가 주어졌으며, 조정에서는 향교에서 강학을 담당하는 교수관을 파견하는 등 향교 진흥책을 강구하였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교의 강학기능은 그렇게 개선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조선초기에는 아직 관료나 위정자들의 성리학적 이해도가 성숙되지 않았으며, 혼란스런 정치적 상황에서 향교에 대한 일관된 재정적 지원은 어려웠다.



[그림 II-9] 함양 남계서원 내부 전경

조선 초기 이후 성리학적 탐구가 심화되는 시기의 유학자들은 향교가 아닌 자신들의 학문적 성취를 이룰 수 있는 한적한 곳에 별서(別墅)나 정사(精舍)를 조영하여 학문을 연마하였다. 이런 유학자들은 주로 조선의 건국을 반대하던 고려 말의 성리학자인 정몽주(鄭夢周), 길재(吉再) 등의 제자로 향촌에서 성리학에만 전념하던 신진 사람들이었다.

성종 대에 오면 사림세력은 향촌문제에 대한 그들의 요구를 공식화하여 국가정책으로 정립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이를 추진할 중심기구로서 세조 대에 혁파된 유향소(留鄕所)의 복위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유향소를 통해 향사례(鄕射禮)와 향음주례(鄕飲酒禮) 등 유학적 실천운리를 향촌에 보급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조선시대 중앙 집권화에 따라 재지사족(在地士族)들의 기반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sup>7)</sup>

당시 성종은 조선초기의 공신들인 소위 훈구세력의 권력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였다. 지방향교의 보급과 교학진흥책에 힘입어 성리학적 이념으로 무장된 신진사람들이 과거제도를 통해 중앙정계에 진출할 수 있었으며, 이들은 성종의 총애를 받게 된다. 이들은 주로 언론기관인 삼사에 소속되어 기존 훈구세력의 부패와 전횡(專橫)을 비판하면서 대립하였다. 중종대에 왕도정치를 주창하면서 급진적 개혁을 단행했던 조광조(趙光祖)는 도학(道學)을 높이고, 사

7) 이상선, 「한국 서원건축의 조영에 관한 연구」, 조선대, 2009. p. 24.

람의 마음을 바로 잡으며 성현(聖賢)을 본받고 어진 정치로 나라를 흥하게 하는 것이 학자가 해야 할 본분이라고 하였다. 이는 당시 관학이 과거 공부 위주로만 운영되면서 명리만을 추구하여 오히려 사습(士習)을 부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사림들의 학문방법은 존현을 숭모하면서 학문적 연원을 완성하고자 하였으며, 종종 때 동방 이학의 시조라 일컬어지는 정몽주의 문묘종사운동(文廟從祀運動)으로 전개되었다. 사림(士林)들에게 고려충신 정몽주는 충절의 귀감이었지만, 그보다도 정몽주에서 김굉필(金宏弼)로 이어지는 도학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

비록 조광조 일파를 사소한 기묘사화는 사림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지만 이후 성리학자들에게 성리학에 대한 더 깊은 철학적 성찰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네 차례의 사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개혁에 부정적인 정치현실에 대한 실망으로 정계를 떠나 지방으로 낙향하였다. 그들은 향약의 보급을 통한 지방교화에 힘쓰거나 성리학을 탐구하여 후학을 양성하면서 재지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었다.

이후 조정에서는 관학을 대신할 새로운 교육기관의 설치가 논의되기도 하였다. 지방의 교육체제 진흥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향교의 쇠퇴로 새로운 교육체제인 중국의 서원제 도입이 처음 제기된 것은 백운동서원이 설립되기 1년 전인 중종 37년 공신계 관료인 어득강(魚得江)에 의해서였다. 어득강은 중국에서 송대의 주자(朱子)가 무이정사(武夷精舍)를 세우고 이발(李渤)의 구기(舊基)에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을 세운 사실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정사·서원 등이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유림들이 학문에 정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충청, 강원, 전라도에는 한 곳, 경상도에는 좌·우도에 큰 사찰을 하나씩 지정하여 도내의 명유(名儒)와 유생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몇 달간 독서토록 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식량과 제반 정비는 주군의 학전(學田)에서 마련토록하고, 부족한 양은 관(官)에서 보조하게 하여 수령(守令)과 교수를 시험관으로 세워 우수자에게 과거 응시의 특전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로 학문 진흥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8)</sup> 그러나 어득강이 제시한 이 같은 방안은 유생의 수기지학(修己之學)보다 과거 위주의 위인지학(爲人之學)에 치중한 것으로 관학의 예측기관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당시 사림계열의 교화론과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서원 설립의 기초가 이러한 조정의 분위기와 향촌사회의 관학에 대한 위기의식 속에서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본격적인 서원의 건립이 시작된다. 1543년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은 경상도 순흥(영주의 옛 지명)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창건하게 된다. 그는 고려후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주자학

8) 『중종실록』 98권, 37년(1542) 7월 27일

을 전한 안향(安珦)의 사당인 회현사(晦軒祠)를 세우고, 주자(朱子)의 백록동학규(白鹿洞學規)를 본받아 사림 자제들의 교육기관으로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세웠다.<sup>9)</sup>

주세붕의 《죽계지》 「학전록발(學田錄跋)」에서는 “이미 문성공(안향)의 사묘(祠廟)를 세워 영정을 봉안하였던 바, 사묘가 있는데 서원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서원을 세운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 주세붕에 의해 처음 세워진 백운동서원은 사묘가 먼저 세워진 뒤 서원이 건립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당시 백운동서원이 선현에 대한 숭모가 학문적 탐구보다 더 우선시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정사나 별서의 개념을 뛰어넘어 서원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여 엄격한 학규(學規)에 의해 운영되는 서원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관학(官學)의 부진에 대한 새로운 교육체계를 모색하던 시대 상황과 재야 사람들의 학문적 성숙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주세붕이 처음으로 백운동서원을 건립하면서 그 설립의 근거를 주희의 백록동서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백록동서원은 송대 초기의 악록서원(嶽麓書院)과 함께 중국 서원의 효시로 알려져 있다. 《속문헌통고(續文憲通考)》에 의하면 송원(宋元)시대(AD960~1368)에는 백록동(白麓洞), 악록(嶽麓), 응천부(應天府), 숭양(嵩陽)의 사대서원(四大書院)을 비롯하여 수백 개의 서원이 있었다고 한다. 주희는 1175년에 한천정사(寒泉精舍)에서 강학하고, 1179년(淳熙)에는 오현당(五賢堂)을 세워 주렴계(周濂溪) 등을 봉사하였다. 아울러 백록동서원을 건립하여 송 효종의 친필 원액(院額)을 하사받게 하였으며, 1183년에는 무이정사(武夷精舍)를 세우고, 1194년에는 악록서원을 중건하고, 다시 죽림정사(竹林精舍)를 건립하여 후진 양성에 전력하였다.<sup>10)</sup> 즉 주세붕은 백운동서원을 창건하면서 백록동서원이 사액을 받은 역사적 사실과 조정에서 논의되고 있던 서원의 필요성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처음에는 서원의 건립에 대해 지역사림의 호응은 호의적이지 않았음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주세붕은 1549년(明宗) 황해 감사로 있으면서 그 곳 해주에 또 다시 고려의 문신인 최충을 봉사하는 수양서원(首陽書院)을 세웠다.

백운동서원을 설립한지 5년 후인 1548년 이황(李滉)이 풍기군수로 부임하여 사액을 청원하였고, 2년 후인 1550년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편액이 하사됨에 따라 처음으로 사액서원이 되었다. 해주에 세워진 수양서원도 1555년에 문헌서원(文憲書院)으로 사액되었다. 이러한 사액은 피봉사자(被奉祀者)의 학문적 지위

9) 주세붕의 『죽계지(竹溪志)』에는 주희의 『백록동부(白鹿洞賦)』와 주세붕의 『백운동경차주문공백록동부(白雲洞敬次朱文公白鹿洞賦)』를 실어 설명을 자세하게 붙이고 있다. 따라서 이 백운동서원이 주자가 세운 백록동서원을 모본으로 하여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10) 김학권, 한국 서원의 기원과 발달,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Vol.10 No.2, 2009, p. 219

와 공헌도를 국가와 사회가 인정함으로써 선현에 대한 봉사와 교화사업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사액서원에는 면세(免稅)되는 토지와 향사에 필요한 물품과 서적을 공급받았으며, 병역이 면제되는 노비인 원노(院奴)도 제공받았다. 이런 소수 서원의 사액에는 문정왕후의 섭정기에 있었던 사화로 인한 정치적 부담감과 지방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선비들의 불만을 줄이고자하는 의도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주세붕이 백운동서원을 창건할 당시는 사묘를 서원보다 우선적으로 건립함으로써 사묘를 우선한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퇴계는 스스로 서원의 건립과 보급에 주력함으로써 서원을 학문하는 장소로서 굳건히 세우고자 하였다. 퇴계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새로운 인격형성과 가치관 및 행동기준으로써 도학적 이념과 원리를 제시하였다. 퇴계는 또한 사림에 의한 도학적 질서에 바탕을 둔 사회체제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서원을 통하여 자신의 교화론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퇴계는 국학(國學), 향교가 국가에 의해 운영되므로 학령(學令)에 구애받게 되고 또 출세에 마음을 두게 되어 선현의 도를 소홀히 하는 반면, 서원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도학(道學)을 공부하고 의리(義理)를 익힘으로써 덕(德)과 인(仁)을 쌓고 기를 수 있다고 하였다. 퇴계의 이러한 입장은 조선 건국 이래 계속된 중앙통제 방식의 관학적 교화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향촌 사림 위주의 새로운 교화체제인 서원의 건립을 지지하였던 것이다. 퇴계는 이와 같이 서원을 조선사회에 보급 및 정착시키고 그 성격을 규정하여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퇴계는 사람의 학교라는 관점에서 관학의 존재를 부정했으며 이를 대신할 학교로서 서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서원은 지치(至治)실현을 목표로 하는 곳, 즉 사림에 의한 명도술(明道術)의 구체적 실천의 현장으로서 학교였다. 퇴계는 조광조의 도학정치론에 동조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교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퇴계는 당시의 병폐인 관학의 쇠퇴와 사풍(士風)의 부정을 바로 잡고 학자들이 학문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원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은 왕화(王化)를 위해서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퇴계의 주장은 사람을 위한 교학진흥책의 마련에 부심하던 당시의 조정에서 서원을 교학진흥책 방안의 하나로 강력히 제안한 것이었으며 서원의 존재 가치에 대한 명분을 세운 것이라 할 수 있다. 퇴계는 서원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장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서원에 대한 국가의 인정과 지원을 요구하는 퇴계의 논리적 근거는 당시의 붕괴된 교학을 진흥시키고 사풍(士風)을 바로잡기 위하여 서원의 보급이 시급하며 그것은 국왕의 장려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단데 있었다. 그러나 퇴계는 이러한 요

구를 곧 바로 조정에 청하지 않았다. 퇴계는 그의 요구를 관찰사 심통원(沈通源)에게 상서하여 그의 판단 하에 조정에 청하여 지기를 원하였다. 퇴계의 서원보급운동의 첫걸음인 사액의 요구는 국가의 송유정책에 부합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국가로부터 인정과 지원을 획득하는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 퇴계의 이러한 활동에 근거하여 서원은 향촌사회 의 단순한 교학기구에서 국가의 공인 하에 운영되는 사설교육기관으로서 그 위상을 높이게 되었다.<sup>11)</sup>

이렇게 이황의 노력으로 백운동서원이 소수서원(紹修書院)으로 사액을 받은 이후 1554년에 정몽주를 모신 임고서원(臨臯書院), 1566년에는 정여창을 모신 함양의 남계서원(濫溪書院)이 각각 사액을 받게 된다. 이황이 1599년 작성한 《이산서원원규(伊山寶院院規)》에는 서원의 기본적인 교재의 범위와 학습 순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원규는 서원제도가 자리 잡는데 큰 역할을 하며 영남지역 서원 운영의 정형이 되었다. 특히 이산서원원규는 서원의 배치에서도 강당이 서원의 중심공간이 되는 전형을 형성하였다. 이후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각지에서 서원의 설립이 이루어졌다. 1610년(광해군 2)에는 유림의 계속된 노력으로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이황이 문묘에 종사되면서 성리학적 계보가 확립되었으며, 서원의 설립도 확산되어 나갔다.

서원의 건립이 본격화되면서 명종 대에 설립된 것이 29개소에 이르게 되었으며, 선조 대에 들어와서는 사림이 정치의 주도권을 쥐게 됨에 따라 본격적인 서원의 건립이 이루어진다. 선조 때 세워진 서원은 70여개소가 넘으며, 그 중 당대에 사액을 받은 것만도 20개였다. 선조 대에 들어 사액을 청하는 서원이 증가하자 선조는 이에 대한 질책을 하게 되고, 신하들은 늘어난 서원들에 따른 폐단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건의를 하기 시작한다. 이에 선조는 건의를 받아들여 긴요하지 않은 서원은 혁파하려 하였지만<sup>12)</sup>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 사액서원의 피봉사자도 명종 때에는 주로 고려시대의 인물이었으나 선조 때에는 사화기(士禍期)의 인물들을 비롯해 이황, 이이, 조식 등 성리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들이 망라되고 있다.

17세기 후반에 들어와 서원은 향촌의 여론을 형성하는 언로로서 정치·사회·문화적으로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중앙의 정치문제에 대하여 향촌사림의 여론을 수렴하는 일차적 거점이 되었으며, 또한 통문(通文)을 통하여 의론을 교환하고 조정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정치는 서원을 통해 수렴된 사림의 공론이 사림출신 관료를 통해 중앙정치에 반영되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하여 점차 서원은 봉당정치 하에서 자파지지 세력의 확산을 꾀하는 당인

11) 이상선, 「한국 서원건축의 조영에 관한 연구」, 조선대, 2009. p.27~ 29 참조

12) 이상해, 『서원』, 열화당 1998, p.342



들과 중앙으로의 진출을 회구하는 향촌사림 세력 사이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 주는 매개체 구실을 하게 된 것이다. 또한 정쟁에서 희생된 인물을 제향 함으로써 각 정파는 명분의 정당성과 여론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고, 향촌사림은 이를 통하여 중앙 관료와 연결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서원은 사림공론에 의한 봉당정치 실현의 기반이 되는 셈이었다. 현종, 숙종 대의 명분론 중심의 봉당정치 전개는 바로 이런 서원에 기초했던 것이며, 따라서 서원의 설립도 이시기에 가장 활발하였던 것이다.<sup>13)</sup>

이러한 현상은 효종, 인종 대를 거쳐 숙종 대에 이르면 서원의 폐해로 나타나고, 국가에서는 서원남설 및 첩설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를 하게 된다. 먼저 인조 대의 서원 통제책을 보면, 봉향자에 대하여 한 곳에만 사액을 내리도록 제한하고 있다. 인조 22년(1644)에 서원 설립을 정부의 허가제로 만들어 서원을 새로 설립하는 곳은 미리 예조(禮曹)에 보고하여 조정에서 논의한 다음에 허락을 받아 세우게 하였다. 효종 대에 이르면 서원의 폐단은 점점 심해져 갔다. 충청감사 서필원(徐必遠)은 1657년 서원의 폐단에 대한 4개조를 말하며, 그 폐단을 제때 막고 서원과 향사 중에서 서원으로 짓기 부족한 것은 향사로 강등하고 향사로 짓기 부족한 것은 즉시 철거케 하도록 청하고, 또한 도안에 서원을 중첩하여 세우는 것을 금지하는 장계를 올린다. 이에 효종은 서원을 금지하는 법을 강구케 하고 허가제로 하도록 명한다. 또 현종은 서원의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동일한 봉향자에 대하여 중복해서 사액을 내리지 않았다.

효종 대와 현종 대의 서원 억제책으로 주춤하던 서원의 신설은 숙종 대에 이르러 봉당정치의 혼란과 함께 다시 남설되기 시작한다. 사우를 제외하고 숙종 대에 설립된 서원만 하더라도 160여 개소에 달하며, 그 중 사액을 받은 것은 100여 개소였다. 이러한 현상의 기저에는 서원의 남설과 함께 봉향인물이 학문적으로 인정받는 선현보다는 관직에 오른 인물이 포함되었다. 또 임진왜란 이후 동족마을이 활발하게 형성되면서가 문중 중심의 서원건립이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가문중심의 서원건립에 이르러서는 서원의 기능이 봉사에 치우치게 되어, 서원과 사우, 사묘를 동일시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sup>14)</sup> 이러한 사림의 의식이 학문의 성취도보다 가문을 앞세우게 되었다는 것은 유림들 스스로 성리학의 본질에서 이탈하여 권위만을 추구함으로써 경직되는 향촌 지배층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서원의 양적인 증가는 자연스레 질적 저하로 이어졌다. 서원의 건립·유지비용을 지방관에게 요구하고, 양정(良丁)을 불법적으로 모으고 피역(避役)시킴으로

13) 김학권, 「한국 서원의 기원과 발달」,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Vol.10 No.2, 2009, p. 225 재인용

14) 이상해, 『서원』, 열화당, 1998, p. 343 재인용

써 양정(良丁) 부족현상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낳기도 하였으며, 서원에 부속된 서원전(書院田)이 늘면서 재정에도 부담이 되었다.

이와 같이 숙종 대에도 서원의 폐단에 대한 조정의 위기의식은 계속되고 있었으며, 서원의 신설에 대한 억제정책도 병행하고 있었다. 1713년 민진원(閔鎭遠)은 1703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에 사사로이 건립된 서원에 대하여는 정리할 것을 상소하게 된다. 1714년에 숙종은 1703년 이전에 조정의 허락을 얻고 창건한 것 외에 그 뒤 새로 세운 서원은 관찰사로 하여금 조사하여 보고하게 하였고, 1719년에는 각 도에 조사하게 하여, 훼손 혹은 보존시킨다. 이때 훼손된 수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전국적으로 상당수에 달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현종과 숙종 대에 이루어진 서원 금지령과 철폐령에도 불구하고 서원의 첩설과 남설은 용인되었고 사액도 많이 되었다.

숙종을 이어 영조는 서원, 사우가 더 이상 증설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제재를 가한다. 영조 대에는 기본적으로 숙종이 처분한 것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영조는 1727년에는 금령을 어기고 새로 첩설된 서원, 사우에 대해서는 비록 도학이 높은 사람이라도 다만 서원하나만을 허용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철폐 조치를 취하고, 이듬해에는 서원에 대한 사액을 일절 불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의 남설과 첩설이 줄지 않자, 마침내 영조는 1741년 (영조 17) 4월 8일 우의정 조현명(趙顯命)의 상소에 따라 팔도의 서원과 사묘 가운데 1714년 이후 조정에 아뢰지 않고 사사로이 건립한 것 및 사사로이 제향 하는 것을 없애게 한다. 그리고 위반한 도신은 모두 파직하도록 하고, 수령은 나처(拿處)하도록 했다. 4월 20일에는 차사원(差使員)을 보내어 서원의 훼손을 감독하게 하고, 아울러 향현사와 영당을 새로 짓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였다.<sup>15)</sup> 이때 훼손된 원우는 무려 170여 개소에 달하고, 영조 대에 혁파된 것은 무려 300여 개소에 달한다.

영조 때의 서원에 대한 제재조치는 왕권 강화정책이 본 궤도에 오른 1743년에 이르러 보다 강력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영조 때의 조치는 어디까지나 정비와 신설 억제 의미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지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억제 정책이 유지되는 가운데 신설이 22개, 사액이 13차례나 있었던 것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이런 추세는 정조대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

그 후 순조에서 철종에 이르는 시기는 서원 건립이 전대보다 줄어드는데, 이 시기는 세도정치시기로 그 기반은 사림과 무관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 서원의 신설이 거의 없어진 것은 통제의 성과라기보다는 세도정치 자체가 서원제도를 통한 어떠한 정치적 성과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더 강하게

15) 이상해, 앞의 책, p.343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비록 이 시기에 서원과 사우의 수적인 증가는 없었다 하더라도 기존 서원들의 폐해는 더욱 심했을 것이다.

조선 후기 고종의 즉위와 함께 흥선대원군이 섭정하자 곧바로 1864년(고종 1)에는 서원과 향현사, 생사당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명하고, 이듬해 3월에는 노론계의 대표적인 서원으로 폐해가 심했던 만동묘(萬東廟)를 철폐하였다. 1868년 9월에는 미사액 서원을 철폐시키는 서원철폐령(書院撤廢令)을 내렸으며, 결국 1871년 사액서원 중 문묘 종사자 및 충절대의의 사표가 될 만한 선현을 일인일원(一人一院)의 원칙 아래 47개의 서원만을 남겨 놓고 600여소의 서원을 훼손(毀撤)함으로서 서원건축은 완전히 위축되었다. 이 가운데 현재 34곳이 남아 있어서 향교와 함께 아직도 지방 유림들의 시회(詩會)나 강회(講會)가 열리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지만, 건립과 운영은 주로 후손이 담당하고 있으며 서원의 본래적 기능은 거의 사라졌다.

### 1-3-2. 함양군 문화유적

함양군의 역사문화자원은 삼국시대에 대한 뚜렷한 시대적 특징이 있는 곳이다. 특히 산성은 함양 곳곳에 분포하고 있어 이곳이 전략적 요충지였음을 밝혀주고 있다. 또한 조선시대 유교 관련 문화재가 다수 산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역사문화자원의 개발이 효과적일 것이며, 타 지역과의 차별성 및 교류와 시대적 특징을 부각시킬 수 있는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 정체성 확립 및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함양은 주변 시군에 비해 사찰 관련 문화재가 적어 문화재 수가 많은 편은 아니나, 지리산과 황석산 등의 명산과 일두로 대표되는 조선 유교 관련 문화재, 삼국시대 관련 성곽 등의 문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아 이를 대표하는 지역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함양군 소재 문화재로는 국가지정문화재가 17건으로, 이 중 보물 6건, 명승 2건, 사적 3건, 천연기념물 4건, 중요민속문화재가 2건이다. 이 중 보물은 모두 불교와 관련된 것들로 불상과 석탑이 주를 이룬다.

도지정문화재는 총 78건으로 유형문화재 38건, 기념물 11건, 민속문화재 2건, 문화재자료 27건이다. 경남 타 시군에 비해 다소 많은 수가 지정되어 있는데, 서원, 향교, 누정을 비롯한 조선시대 유교 관련 시설과 석불, 석탑 등 불교 관련 시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성곽으로는 사근산성, 황석산성, 미안산성, 팔령산성, 방지산성 등이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표Ⅱ-3] 함양군 문화재현황

구분	합계	국 가 지 정							도 지 정						등록문화재
		소계	국보	보물	명승	사적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소계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문화재자료	
수량	106	18	0	6	3	3	4	2	87	43	1	10	2	31	1

[표Ⅱ-4] 함양군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지정별	지정번호	문화재 명칭	소재지	등재일
보물	1691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안의면 금천리 법인사	2010.12.21
	294	함양 승안사지 삼층석탑	수동면 우명리 263	1963.01.21
	206	함양 덕전리 마애여래입상	마천면 덕전리 768-6	1963.01.21
	376	함양 교산리 석조여래좌상	함양읍 함양배움길 11 (교산리)	1963.01.21
	474	함양 벽송사 삼층석탑	마천면 추성리 산18-1 벽송사	1968.12.19
	1731	함양 법인사 감로왕도	안의면 금천리 법인사	2011.1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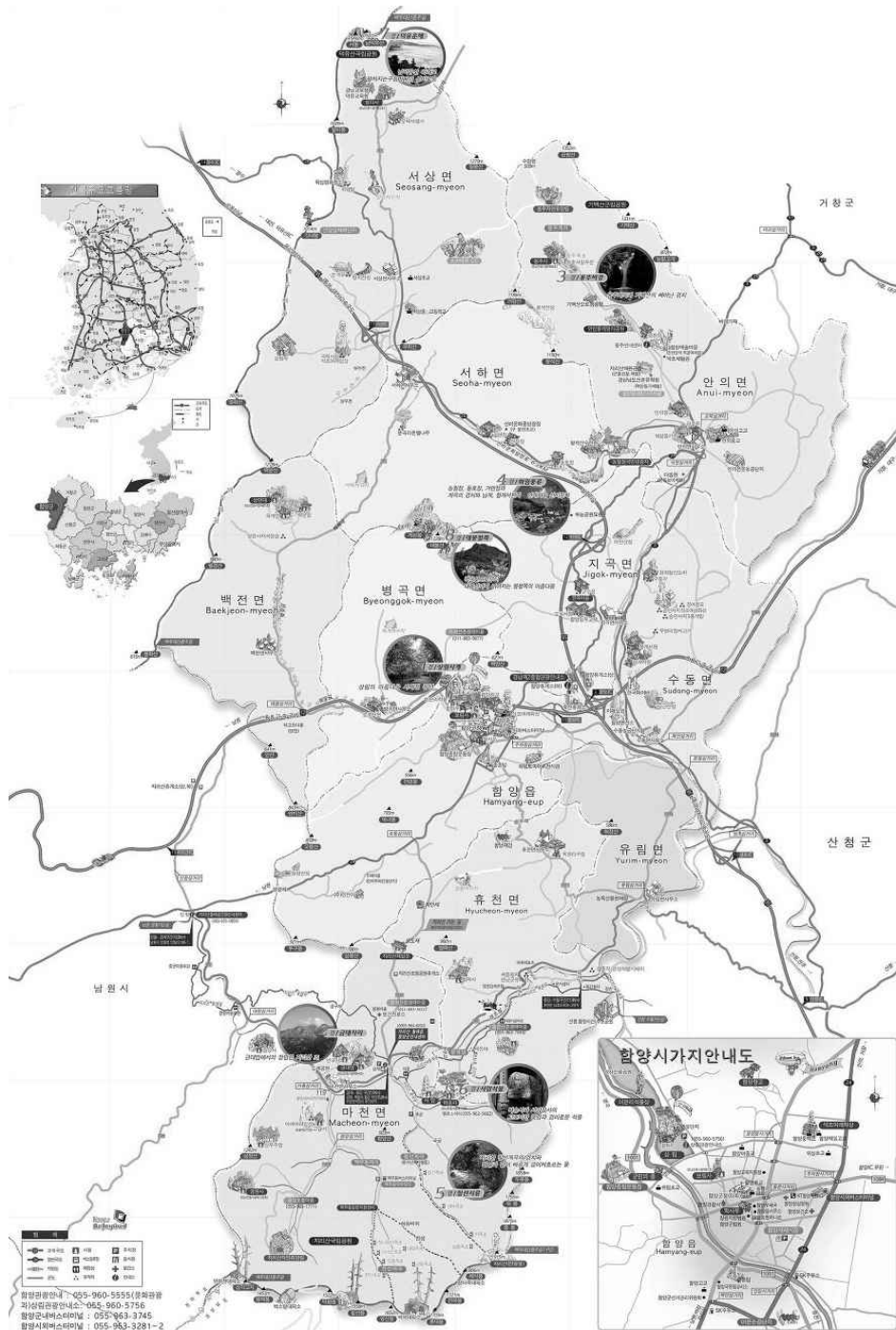
명승	72	지리산 한신계곡 일원	마천면 강청리 산100	2010.08.18
	85	함양 심진동 웅추폭포	안의면 상원리 산 16-4	2012.02.08
	86	함양 화림동 거연정 일원	서하면 봉정리 844	2012.02.08
사적	152	함양 사근산성	수동면 원평리 산60	1966.12.19
	322	함양 황석산성	서하면 봉전리 산153-2	1987.09.18
	499	함양 남계서원	수동면 원평리 586-1	2009.05.26
천연 기념물	154	함양 상림	함양읍 운림리 349-1	1962.09.08
	358	함양 목현리 구송	휴천면 목현리 854	1988.04.30
	406	함양 운곡리 은행나무	서하면 운곡리 779	1999.03.31
	407	함양 학사루 느티나무	함양읍 운림리 27-1	1999.03.31
중요 민속 자료	186	함양일두고택	지곡면 개평리 262-1	1984.01.10
	207	함양허삼돌가옥	안의면 허삼돌길 11-7(금천리)	1984.12.24

[표Ⅱ-5] 함양군 도지정문화재 현황

지정별	지정번호	문화재 명칭	소재지	등재일
유형 문화재	32	함양이은리석불	함양읍 운림리 354-1	1972.02.02
	33	승안사지석조여래좌상	수동면 우명리 산10	1972.02.02
	34	금대사삼층석탑	마천면 가흥리 산17-1	1972.02.02
	35	안국암부도	마천면 가흥리 1131	1972.02.02
	44	극락사지석조여래입상	서상면 옥산리 377	1972.02.02
	54	웅추사일주문	안의면 상원리 960	1972.02.02
	90	함양학사루	함양읍 운림리 31-15	1974.02.16
	92	안의광풍루	안의면 금천리 49-19	1974.02.16
	166	일두선생문집책판	수동면 원평리 586-1	1972.12.29
	167	개암선생문집책판	수동면 원평리 586-1	1972.12.29
	225	함양향교	함양읍 교산리 793	1983.08.06
	226	안의향교	안의면 교북리 148-2	1983.08.06
	258	함화루	함양읍 운림리 349-1	1986.08.06
	300	함양평촌리옥계신도비 및 부부묘표	지곡면 평촌리 산32	1994.07.04
	313	김교적개공신공고서	함양읍 용평리 714-9	1997.01.30
	314	경암집책판	마천면 추성리 산18-1	1997.01.30
	315	묘법연화경책판	마천면 추성리 산18-1	1997.01.30
	316	벽송당지엄영정	마천면 추성리 산18-1	1997.01.30
	317	청향당실기책판	병곡면 송령리 547	1997.01.30
	318	함양용산사지석조여래입상	함양읍 운림리 289	1997.01.30
	319	함양대덕리마애여래입상	함양읍 대덕리 159-21	1997.01.30

유형 문화재	333	함양대대리마애여래입상	안의면 대대리 산30-1	1997.12.31
	334	용성세고책판	지곡면 공배리 525	1997.12.31
	337	안국사은광대화상부도	마천면 가흥리 1131	1998.09.28
	341	남양홍씨병신보판책	함양읍 백천리 602	1998.09.28
	379	함양옹추사건룡18년천룡탱	안의면 상원리 962	2002.10.24
	380	함양옹추사지장시왕상	안의면 상원리 962	2002.10.24
	407	함양오담고택	지곡면 개평리 217-1	2004.03.18
	433	함양거연정	서하면 봉전리 2006	2005.10.13
	444	함양안국사목조아미타여래좌상	마천면 가흥리 131	2006.07.20
	445	함양영원사부도군	마천면 삼정리 산161	2006.07.20
	445-1	영암당부도	마천면 삼정리 산161	2006.07.20
	445-2	설파당부도	마천면 삼정리 산161	2006.07.20
	445-3	중봉당부도	마천면 삼정리 산161	2006.07.20
	445-4	청계당부도	마천면 삼정리 산161	2006.07.20
	445-5	벽허당부도	마천면 삼정리 산161	2006.07.20
	456	함양상연대목조관음보살좌상	백전면 백운리 78-1	2008.01.10
	481	함양 도천리 하륜부조묘 소장 삼공신회맹록 등 고문서 일괄	병곡면 도천리 441	2009.03.05
	498	함양 백운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백전면 백운리 51-1	2010.03.11
	499	함양 백운암 건륜삼십이년 동종	백전면 백운리 51-1	2010.03.11
	504	함양 도솔암 목조관음보살좌상	마천면 삼정리 954	2010.10.07
	520	함양평촌리신고당신도비 및 부부묘표	지곡면 평촌리 산32	2012.07.12
	525	함양 서운암 신중도	함양군	2012.11.29
무형 문화재	35	함양 송순주		2012.03.08
기념물	165	세종왕자한남군묘역	함양읍 교산리 755-11	1997.01.30
	171	함양백천리고분군	함양읍 백천리 산11	1997.12.31
	172	함양팔령산성	함양읍 죽림리 산308-1	1997.12.31
	173	함양마안산성	지곡면 창평리 산3	1997.12.31
	174	함양방지산성	서상면 금당리 산47, 산51	1997.12.31
	212	함양금대암전나무	마천면 가흥리 산17-1	1998.11.13
	213	함양 도천리 소나무	마천면 도천리 717	1998.11.13
	229	함양백용성선사화과원유허지	백전면 백운리 50외	1998.11.13
	254	함양개평리소나무군락지	지곡면 개평리 250외	2004.10.21
	268	일두정여창묘역	수동면 우명리 산10-9	2008.02.05
민속 문화재	2	벽송사목장승	마천면 추성리 산18-1	1974.12.24
	19	영은사지석장승	백전면 백운리 1153	1996.03.11

문화재 자료	56	청계서원	수동면 원평리 669-1	1983.08.06
	75	문창후선생신도비	함양읍 윤림리 354-1	1983.08.06
	76	교수정	지곡면 개평리 142	1983.08.06
	121	함양우명리정씨고가	수동면 우명리 777-1	1985.02.13
	209	송호서원	병곡면 송평리 503	1994.07.04
	239	일두정여창선생사당비	안의면 봉산리 805-1	1997.01.30
	240	일여학생일술회처유인밀양박씨지려	함양읍 백연리 111-69	1997.01.30
	264	함양 척화비	함양읍 윤림리 349-1	1997.12.31
	265	상무좌우사접장하경순포선불망비	안의면 금천리 49-19	1997.12.31
	268	금대암동종	마천면 가흥리 산17-1	1998.11.13
	269	금대암신중탱화	마천면 가흥리 산54-1	1998.11.13
	326-1	함양옹추사무학대사영정	안의면 상원리 962	2002.10.24
	326-2	함양옹추사청허대사영정	안의면 상원리 962	2002.10.24
	326-3	함양옹추사송운대사영정	안의면 상원리 962	2002.10.24
	326-4	함양옹추사각영대사영정	안의면 상원리 962	2002.10.24
	343	풍천노씨대종가	지곡면 개평리 264	2004.03.18
	356	함양 도천리 하륜 부조묘	병곡면 도천리 441	2004.07.01
	360	함양개평리노참판택고가	지곡면 개평리 307-1	2004.10.21
	361	함양개평리하동정씨고가	지곡면 개평리 213	2004.10.21
	380	함양군자정	서하면 봉전리 2006	2005.10.13
	381	함양동호정	서하면 황산리 842	2005.10.13
	382	함양심원정	안의면 하원리 1353	2005.10.13
	397	함양법인사지장탱	안의면 금천리 177-3	2006.04.06
	429	함양안국사목조관음보살좌상	마천면 가흥리 1131	2008.01.10
	460	함양영각사산신탱	서상면 상남리 1047	2009.03.05
	474	함양하륜부조묘소장향로및향합	병곡면 도천리 441	2009.08.06
	486	함양 도천리 경충재	병곡면 도천리 525	2009.11.19
	503	함양 백운암 영은사지 부도군	백전면 백운리 51-1	2010.09.02
	546	함양 도촌리 구줄암공 신도비	지곡면 도촌리 214	2012.03.08
	547	함양 등구사 삼층석탑	마천면 구양리 산 30-5	2012.03.08
	554	함양 서운암 산신도	함양군	2012.11.29
등록 문화재	37	함양 구 임업시험장 하동함양지장	함양읍 함양로 1072 (백연리)	2002.05.31



[그림 II-10] 함양 관광지도

### 1-3-3. 함양군 관광현황

함양군 관광자원은 지역 상 크게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나눌 수 있다. 북부권은 남덕유산 권역으로 용추사, 거연정, 동호정, 농월정 등의 역사문화유적과 함께 남덕유산국립공원에서 용추계곡으로 이어지는 수려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풍부한 관광자원이 분포되어 있다. 중부권은 함양군 중심권역으로 일두 정여창 고택이 있는 개평 한옥마을을 비롯하여 청계서원, 남계서원 및 사근산성 등의 문화유적과 함양 상림공원 등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이 분포하고 있다. 남부권은 지리산 북측권역으로 지리산 국립공원 내 칠선계곡, 추성계곡 등의 자연관광자원과 벽송사, 금대암 등의 문화관광자원이 분포되어 있다.

함양군은 이러한 자연·역사 관광자원을 토대로 지리산둘레길 및 선비문화탐방로 등의 관광코스를 운영 중이며 이 외에도 물레방아축제, 산삼축제, 벚꽃축제 등의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지리산둘레길은 함양을 대표하는 테마관광으로 지리산을 감싸고 있는 3개도(전남·전북·경남), 5개 시군(구례·남원·하동·산청·함양) 100여개 마을의 지리산 옛길, 고갯길, 숲길, 강변길, 논둑길, 마을길을 이어 하나의 길로 연결한 장거리 보도길이다. 함양군을 통과하는 구간은 제방길과 농로, 임도, 숲길 등이 전 구간에 골고루 걸쳐 있어 마을과 산, 계곡을 두루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물레방아축제는 함양의 옛 지명인 천령을 축제명으로 1962년부터 천연기념물 제154호인 함양 상림을 비롯한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하여 오다가 2003년 물레방아축제로 명칭을 바꾼 후 각종 크고 작은 행사를 통합하여 함양의 가장 중요한 축제로 실시하고 있다. 신라시대 고운 최치원 선생이 함양의 태수로 부임하여 이룩한 치산치수(治山治水)의 유업(遺業)을 추모하고 선현의 유덕을 계승·발전시키며 지역 문화예술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실시하는 함양군의 대표적인 축제 행사이다. 전통놀이 및 각종 문화행사들이 함께 실시되고 있는데, 특히 농업축제의 행사를 통해 전통약초 및 게르마늄 농산물 등의 홍보와 판매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 외 함양군 내 주요관광지는 상림공원, 백무동, 추성계곡, 농월정, 일두고택, 용추계곡 등이며 이러한 관광프로그램과 관광지 운영을 통해 약 330만명 정도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67억원의 관광수익을 올리고 있다.

관광객 증가와 복원 사업이 다양한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방지산성 뿐 아니라 사근산성, 황석산성, 팔령산성 등 주변의 유적들이 서로 연계되어 함양의 특수성을 새로이 창출해야 한다. 최근의 관광 동향은 문화와 관광을 접목한 문화관광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관광과 지역의 특수성이 결합하여 상품화한 것이 문화관광 축제라 할 것이다. 즉 문화관광이란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자원화 하고 이를 통해 지역활성화를 꾀하는 관광형태인 것이다.

[표 II-6] 함양군 관광객 수 및 관광수입

연별 및 월별	집계관광지수	관광객(명)			관광수입(천원)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화	외화
2009	5	2,480,157	2,477,560	2,597	4,960,314	4,955,120	5,194
2010	5	3,085,950	3,068,294	17,656	6,171,900	6,136,588	35,312
2011	5	3,380,939	3,363,837	17,102	6,761,878	6,727,674	34,204
2012	5	4,509,125	4,489,453	19,672	9,018,250	8,978,906	39,344
2013	5	4,055,835	4,036,055	19,780	9,018,250	8,978,906	39,344

[표 II-7] 함양군 주요관광지 및 관광객 수

연별 및 월별	위치	지정일자	특색	관광객(명)		
				계	내국인	외국인
상림공원	함양읍대덕운림리	61.5.20	천연기념물제154호	2,604,238	2,589,661	14,577
백무동	마천면강창리	83.3.11	국립공원	160,827	160,349	478
추성계곡	마천면추성리	67.12.29	국립공원	114,555	114,242	313
농월정	안의면월림리	93.11.9	산악계곡형휴양지	139,037	138,582	455
일두고택	지곡면개평리	2011.01.01	중요민속자료제186호	103,928	103,653	275
용추계곡	안의면상원리	83.11.18	국립공원	258,354	257,350	1,004

#### 1-3-4. 관광프로그램

함양에서 지리산 및 선비문화 그 외 문화재, 관광지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그림 II-11] 물레방아골 축제



[그림 II-12] 산삼 축제



[그림 II-13] 벚꽃 축제

[표 II-8] 함양군 체험프로그램

체험행사명	주관기관	프로그램 내용
한옥문화 체험	개평마을회	우리 음식 만들기 목판을 활용한 책 만들기 한옥 및 우리문화의 이해와 마을 돌아보기 세시풍속(달집태우기) 명소 방문하기(상림공원 남계서원)
지리산 애완곤충 체험	함양군	농원둘러보기 곤충체험학습
레프팅 체험	파워레포츠 엄천강레프팅	엄천강 레프팅 지리산 문화권 관광
물레방아 떡마을	함양물레방아떡마을	연암선생배우기 물레방아체험 물레방아 관광 및 민박
전통놀이 체험	다송헌	전래놀이감 만들기 전래놀이 체험 숲 체험 기타 세시별, 특별체험
다별자연학교	다별자연학교	22가지 심신 수련 체험

한편 현재 함양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관련 축제 및 행사는 다음과 같다.

[표 II-9] 함양군 축제 및 행사

축제·행사명	축 제 내 용
물레방아골축제	신라시대 고운 최치원 선생이 고을 태수로 부임하여 이룩한 치산 치수의 유업을 추모하고 선현의 유덕을 계승 발전시키며 또한 지역 문화예술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함양의 옛 지명인 천령을 축제명으로 하여 1962년부터 천연기념물 제154호인 함양상림을 비롯한 공설운동장 등지에서 개최하여 오다가 2003년 축제의 명칭을 물레방아골축제로 바꾸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던 각종 크고 작은 축제 및 행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다. · 기간 : 매년 9월 · 장소 : 상림다목적광장 외
산삼축제	국내 유일의 건강웰빙체험 축제를 통해 가족의 사랑을 나누며, 고려 산삼의 역사와 전통을 발굴하여 국제 건강패키지 관광상품을 육성하고 산양삼 수출 시장을 확보하여 차세대 건강 벤처산업을 주도하고자 한다. · 기간 : 매년 8월 · 장소 : 상림공원, 팔봉산 일원
벚꽃축제	매년 4월 중에 백운산을 중심으로 한 벚꽃 축제를 펼치고 있으며, 다양한 체험행사와 공연으로 다채롭고 풍성한 볼거리가 펼쳐진다. · 기간 : 매년 4월 · 장소 : 백운공원 일원
천왕축제	우리 민족의 영산인 근대 지리산의 암울했던 시절을 뛰어넘어 희망의 역사를 만드는 장으로 가꾸어 나가 함양의 지리산으로 발돋움하고자 민간 주체로 2000년도부터 개최하고 있다. · 기간 : 매년 10월 · 장소 : 백무동주차장 일원
군민체육대회	체육 인구 저변 확대를 통한 국민의 체위향상과 화합 인정 질서의 명량한 사회 기풍을 조성함으로써 체육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도민체전을 대비한대표 선수 선발을 목적으로 한다. · 기간 : 물레방아축제기간 중 · 장소 : 공설운동장 및 보조경기장
연암문화제	함양연암문화제는 조선조 실학의 대가 연암 박지원 선생이 안의현감을 역임하며 물레방아 상용화 등 평소 연구한 실학을 실천적으로 구현한 연암 실학의 성지인 이곳에 그 업적을 재조명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하여 자연과 인간,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축제이다. · 기간 : 매년 10월 · 장소 : 안의면 오리숲 일원

[표 II-10] 함양군 관광코스

코스명		코스 내용
지리산 둘레길	인월-금계 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와 경남 함양군 마천면 금계마을을 잇는 19km의 지리산숲길.</li> <li>· 인월-금계 구간은 지리산숲길 시범구간 개통지인 지리산북부지역 남원시 산내면 상항마을과 함양군 마천면 창원마을을 잇는 옛 고갯길 등구재를 중심으로 지리산 주능선을 조망하고, 넓게 펼쳐진 다랭이논과 6개의 산촌 마을을 지나 엄천강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제방길, 농로, 차도, 임도, 숲길 등이 전 구간에 골고루 섞여 있고, 또한 제방, 마을, 산과 계곡을 고루 느낄 수 있다.</li> </ul>
	금계-동강 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금계마을과 함양군 휴천면 동강리를 잇는 11.1km의 지리산 숲길로 금계-동강 구간은 지리산 자락 깊숙히 들어온 6개의 산중 마을과 사찰을 지나 엄천강을 만나는 길이다.</li> <li>· 사찰로 가는 고즈넉한 숲길과 등구재와 법화산 자락을 조망하며 엄천강을 따라 걷는 옛길과 임도 등으로 구성된다.</li> </ul>
	동강-수철 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동강리와 산청군 금서면 수철리를 잇는 12km의 지리산 숲길로 동강-수철 구간은 아름다운 계곡을 따라 산행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걷는 길로, 4개의 마을을 지나 산청에 이르는 길이다.</li> <li>·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며,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추모공원이 조성되어 있다.</li> </ul>
지리산자락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길을 걷고 물길을 걷고 고갯길을 넘고 마을길을 걸으며 웅장한 지리산을 바라보면서 가족, 연인, 친구, 또는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수 있도록 조성한 길이며, 지리산 마을의 정겨운 풍경과,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느끼고, 보고, 감상하면서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li> <li>· 지리산 자락길은 앞으로 지리산 둘레길과 더불어 걷는 이와 자연과 사람과 마을이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li> </ul>
선비문화탐방로		거연정(군자정) ~ 영귀정 ~ 동호정 ~ 경모정 ~ 남천정 ~ 농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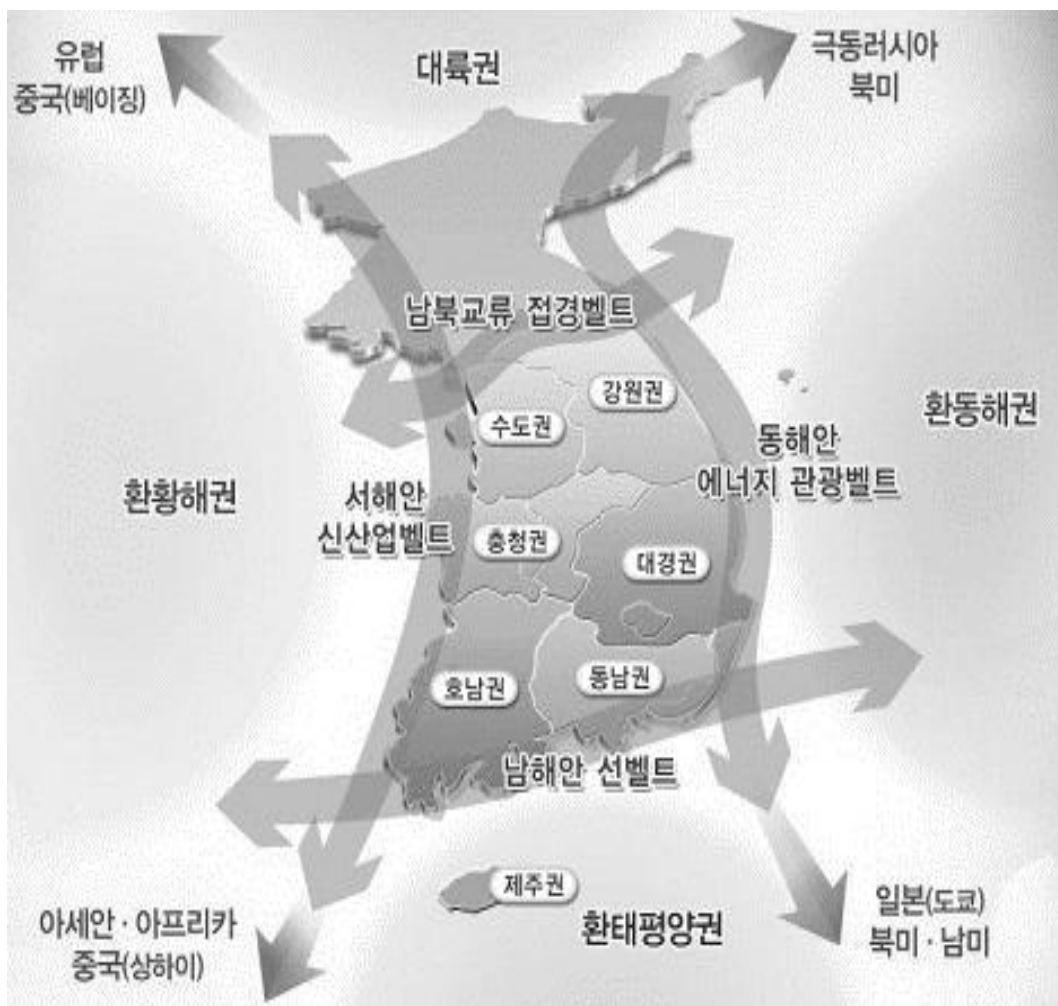
## 2. 관련계획 및 법규

### 2-1. 관련계획 검토

#### 2-1-1. 도시계획 검토

##### 가) 201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11-2020)

■ 본 계획은 2005년 현 국토해양부에 의해 세워진 계획의 수정계획으로서, 6대 기본 추진 전략아래에서 권역별·시도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함양 남계서원이 위치하고 있는 동남권의 발전방향은 환태평양 시대의 해양, 물류 및 첨단기간산업 중심지라는 대전제 아래에서 동북아 국토 개방 및 국제교류 중심지, 동북아 항만물류경제권 중심, 동북아 국제무역, 금융, 영상, 컨벤션산업 중심지, 동북아 해양문화과학생태관광의 중심지,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지식기반산업 중심지, 환태평양 녹색에너지 성장 거점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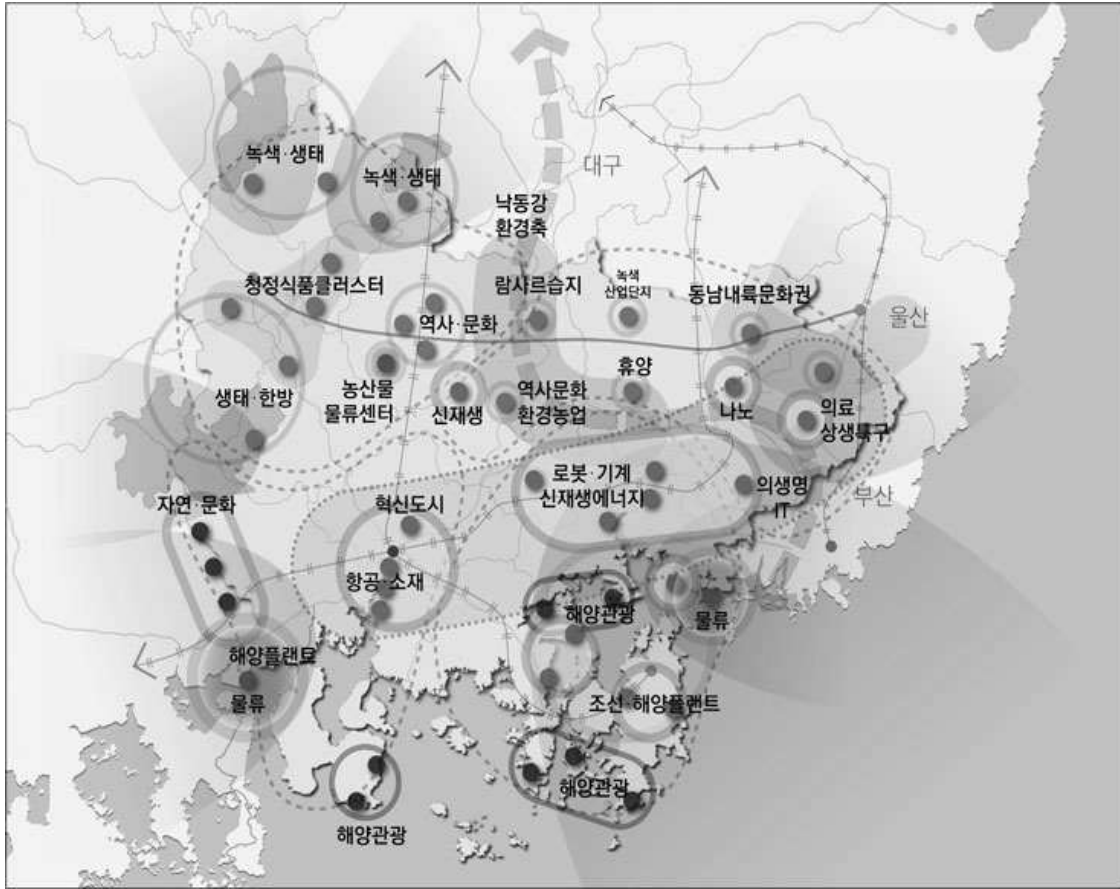
[그림 II-14] 국토형성의 기본골격, 국토해양부

## 나) 2008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 경상남도 종합계획은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창의력과 개발 잠재력을 극대화하며, 유·무형의 자원과 자산을 효과적으로 이용·개발·보존하기 위한 장·단기의 정책방향과 지침을 설정·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수립한다.
- 2011년 1월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2011~2020) 등 상위계획의 기조와 정책을 경상남도 지역차원에서 구체화하고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를 지역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지역차원의 균형개발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 지역 내부적으로는 지역 간 이동성 제고와 문화·관광, 생태체험학습등 다양한 욕구증대에 대응한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의 창의적 활용과 잠재력 극대화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생태에 대한 관심과 삶의 질 추구 등 지역주민들의 의식과 생활패턴 변화추이를 수용하는 쾌적한 삶의 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
- 산업적으로는 조선·기계·항공등 국가성장을 견인해 온 기간산업의 지속적인 구조고도화와 풍력·연료전지·태양광 등 새로운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산업 구조를 적극적으로 개편하고자 한다.
- 이상의 다양한 외생적 여건변화와 지역 내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21세기 새로운 미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생협력의 혁신적인 지역발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중장기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전략을 설정하도록 한다.

[표II-11] 경상남도 종합계획

계획의 비전	성장과 복지의 순환,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사회 경남
계획의 목표	건강하고 안전한 녹색환경 더불어 나아가는 균형발전 다함께 누리는 복지 세계 속으로의 도약 지속가능한 성장 매력적인 문화창조
추진전략	다축환상형 공간구조 구상 권역별 발전전략 및 발전거점의 육성 광역적 공간구조 개선 경남 내부 도시권 기능강화 발전거점의 육성



[그림 II-15]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2012~2020)

#### 다) 함양군 2015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계획<sup>16)</sup>

-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자원화
  - 함양의 위상을 드높인 옛 선현과 관련한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인적자원의 관광자원화로 관광객 유치증대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추진방향
  -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건축물 등의 예술성을 높여 볼거리 제공
  - 치밀한 계획으로 예산절약
- 문화예술진흥 및 참여 확대
  -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제공, 행복지수 고양
- 추진방향
  - 우수한 전통 문화예술 계승 발전 및 새 문화 창조
  - 군민들에게 삶의 여유를 즐기고 상생소통하는 장 마련

16) 함양군청 홈페이지 [www.hygn.go.kr](http://www.hygn.go.kr)

-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창작 안전망 구축
  - 21세기 문화융성의 시대를 맞아 국가시책에 발맞추어 문화예술인 복지 확충 및 단체지원으로 국민의 문화수준 향상
- 문화유산보전
  -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로 문화유산 보존 세세손손 전승
  - 나라를 위해 산화한 순국선열 제향 공간 마련, 애국충의 정신 고취
- 추진방향
  - 문화재 보수 : 원형보존, 기존자재 사용, 문화재보수 전문업체 시행
  - 문화유적지 정비 : 훼손, 멸실 방지를 위한 행정과 소유자의 관리 방안 도출

[표Ⅱ-12] 함양군 문화관광과 전략 목표 및 단위산업

전략목표	
문화참여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문화유산 보존 강화 및 활용증진	
연 3백만 관광객 유치시대 개막	
고부가, 고품격 관광산업 집중 육성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단위산업	
휴식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문화 조성	함양물레방아골축제, 토요무대 운영 등
문화 기반시설 확충	최치원 역사공원, 황석산성 성역화 등
문화유산 보전 관리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등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관광명소 조성	남계서원, 사근산성 추모사당 등
전략적 관광 홍보	팸투어, 인센티브제 등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농월정관광지 등
스포츠 레저산업 전진기지 육성	스포츠 파크, 전천후 족구장 등
스포츠마케팅 강화	전국규모 체육경기대회 개최, 전지훈련 유치등

● 추진계획

①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표Ⅱ-13] 2015년 지정문화재 보수액

(단위:백만원)

계		국 가		지 방		전통사찰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23	2,681	8	785	10	598	5	1,298



- 국가 : 남계서원, 상림, 용추폭포, 황석산성, 식물 문화재 4건
- 지방 : 학사루, 구졸암공 신도비, 송호서원, 영은사지 석장승, 하륜부조묘 고문서, 용추사 일주문, 우명리 정씨고가, 안의향교, 식물 문화재 2건
- 전통사찰 : 영원사, 금대암, 용추사, 벽송사, 영각사

## ② 문화유적지 정비

- 대 상 : 문태서의병장 생가 정비, 광풍루 부지 추가매입, 초가지붕 정비, 재난대비 긴급 보수

## ③ 사근산성 추모사당 건립

- 위 치 : 수동면 원평리 산 53번지 일원
  - 사 업 량 : 부지 4,985㎡, 제향공간 1식, 진입도로 확포장
- ※ 2015 제향 본소 추진계획

## 2-1-2. 관광계획 및 관련사업 검토

### 가) 2012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sup>17)</sup>

- 이 계획은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 산업국이 세운 계획으로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한국의 관광정책이 지향해야할 기본 목표와 개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 녹색한국을 선도하는 품격 있는 선진관광’으로 설정하고, 경남관광권의 경우 ‘지리산권 관광개발의 거점’으로 역사문화 관광컨텐츠를 육성, 백두대간 및 동해안을 연계한 녹색관광을 실현하며, MICE산업 및 지역산업 연계형 산업관광 육성을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 나) 2012 제5차 경남권 관광개발계획(2012~2016)

-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계획적 위상 재정립
  - 20년간 4차례에 걸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정책 여건, 관광환경 등 다양한 변화로 인해 계획이 지니는 성격과 역할 등이 변화되어 왔음
  -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법리적·행정적으로 수립되어지는 계획이 아닌 권역 내 관광개발계획의 종합적·실천적 계획 등으로 성격, 역할 및 절차와 방법 등 계획위상을 재정립해야 함
- 합리적,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내용상 세부 요령을 제공
  - 제5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합리적·효율적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계획의 수립방향, 내용 등을 구체화하여 계획수립 내용상 세부요령을 작성

17) 문화체육관광부, 2012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

하여 제공함

- 계획수립 방향과 내용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내용 작성 요령과 권역계획 수립 역할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함
- 중립적, 객관적 계획조정을 위한 절차상 조정 체계를 제시
  - 제5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중립적·객관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정기준, 방법, 절차 및 일정 등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종합적 조정 체계를 제시함
  - 관광개발기본계획과의 연계성 강화와 권역계획간 중복 최소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조정 방안을 제시
- 수립 지침 및 조정방안 제시를 통한 체계적 계획수립을 지원
  - 제5차 권역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 수립 요령 등을 제시하여 수립주체 간 상이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향후 조정 일정, 체계 등을 고려한 계획수립을 지원하기 위함



[그림 II-16] 계획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 2-2. 관련법규

서원의 보존·관리에 대한 문제 해결은 해당 법 제도를 근거로 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관계법령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며 참조하도록 한다. 참조해야할 법령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이용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함양군 도시계획 조례

- 문화재 관련법규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현상변경허용기준

- 문화유산 운영 관련법규

- 함양군 문화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2-2-1. 토지이용 관련법규

#### 가) 토지이용 관련법규에 의한 보존 관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다.

[표 II-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관련법	조항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7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p>①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 [별표 22] &lt;개정 2009.7.16.&gt;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 제1항제21호관련)</p> <p>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p> <p>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p> <p>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p> <p>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p> <p>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p> <p>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p> <p>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시설;군사시설 중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p> <p>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p> <p>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p>

## 2-2-2. 문화재 관련법규

### 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존 관리

함양 남계서원은 사적 제499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은 원형 유지를 중심으로 문화재를 보호 관리하는 주체의 설정, 역할과 권한, 각종 규제 등을 포함하여 문화재 관리 방법과 수단을 기술하고 있다.

[표 II-15] 문화재보호법

관련법	조항	내용
문화재 보호법	제6조 (문화재기 본계획의 수립)	1.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전의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3.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문화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문화재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7. 문화재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①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문 화재 보존시행 계획수립)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과 그 시행 결과의 제출대상, 시기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의한 보존 관리

함양 남계서원은 사적 제499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 II-1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관련법	조항	내용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4조 (문화재보 존 시행계획 의 수립절차 등)	<p>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li> <li>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li> <li>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li> <li>4.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 및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제20조(문 화재별 종합정비 계획의 수립)	<p>① 법 제34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도록 지정된 관리단체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비계획은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li> <li>2.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사항</li> <li>3. 문화재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li> <li>4. 문화재의 보수·복원 등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li> <li>5. 문화재의 관리·운영 인력 및 투자 자원(財源)의 확보에 관한 사항</li> <li>6. 그 밖에 문화재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li> </ol> <p>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방법 및 내용과 그 시행 등에 관하여 문화재의 종류별 또는 유형별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p>
	제42조 (권한의 위임)	문화재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함양 남계서원은 사적 제499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 법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실측설계·감리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표 II-1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관련법	조항	내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문화재수리등의 기본원칙)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문화재 수리 등”이라 한다)는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 등으로 인하여 지정 문화재와 그 주변 경관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문화재수리등의 계획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① 문화재의 소유자(「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포함한다)가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 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직접 문화재수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가 없는 분야의 문화재수리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수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⑤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보호 또는 동산문화재분야의 실측설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계획과 시공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 2-2-3. 문화유산 운영 관련법규

### 가) 함양군 문화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표 II-18] 함양군 문화재 관련 조례

관련법	조항	내용
함양군 문화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원"이란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이하"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도지사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함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지방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비의 지원범위)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경비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
제9조(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법 제16조에 따른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지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함양문화원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역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군수가 지명하는 군 문화행정 관련 실과공무원 1명 이상 2.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3.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④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문화원장이 관리한다. ② 기금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③ 기금사용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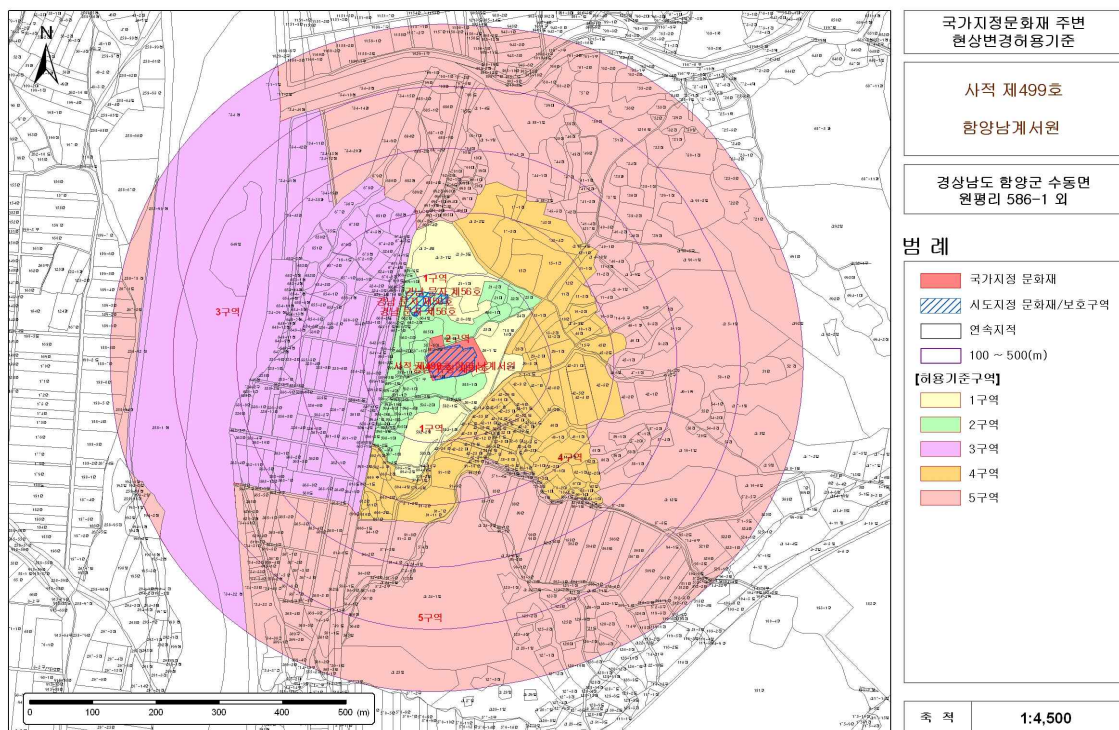
	④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국채·공채·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p>①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금의 운용규모</li> <li>2. 당해연도 기금의 사용계획</li> <li>3. 기금의 대상사</li> <li>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제13조(회계관리)	<p>①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군의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p> <p>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감사를 선임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기금의 운용상황에 따른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기금운용이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금의 출연을 거부할 수 있다.</p>
제14조(결산 및 보고)	<p>①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 폐쇄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p>
제15조(예산에의 계상)	군수는 매년 예산에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및 기금에의 출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p>① 군수는 문화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화원에 군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보조금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문화원장이 지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p>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나)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은 개별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계획적으로 보존·관리·회복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국가지정문화재인 함양 남계서원은 반경 500m 범위까지 영향범위를 가진다.

[표Ⅱ-19] 사적 제499호 함양 남계서원 현상변경허용기준

문화재보호법 근거조항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3조 3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1구역	보존구역
		2구역	-기 허가된 남계서원 주변 서원 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에 한함 -사업 변경 시 개별 심의
		3구역	-최고높이 5m 이하 -농가 창고 용도의 건물만 허용
		4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5구역	최고높이 11m이하
		공통사항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재·개축 허용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농가 창고 외관 색상은 무채색, 저채도 계열로 하여 돋보이지 않도록 한다.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그림Ⅱ-17] 함양 남계서원 현상변경허용기준

## 2-3. 세계 유산 협약

### 2-3-1. 세계 유산 협약의 실행을 위한 운영지침

1.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은 소유국가뿐만 아니라 지극히 소중하고 대치할 수 없는 전 인류의 공동재산이다. 이러한 귀중한 유산이 훼손이나 소멸로 상실된다면 인류전체의 유산이 그 만큼 빈곤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유산의 일부는 그들의 뛰어난 특성으로 인하여 탁월한 전 세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나날이 높아가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값어치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2. 이 위험한 상황을 개선하고 가능한 한 더 많이 전 세계의 대치할 수 없는 유산을 제대로 밝혀내고 보호하고 보존하고 공개(presentation)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1972년에 UNESCO 회원국은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칭함)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각국의 유산보존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와 세계유산기금(World Heritage Fund)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유산위원회와 세계유산기금은 1976년에 업무를 시작하였다.

3. 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는 아래와 같은 네 가지 기본임무를 가지고 있다.

- (i) 협약에 의하여 보호받고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할 뛰어난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체약국(States Parties)이 제출한 등재신청자료에 기초하여 선정한다.
- (ii)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의 보존상태를 평가(monitor)한다.
- (iii)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중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에 올릴 유산을 결정한다.(보존을 위하여 대대적인 작업이 필요하고 그 작업지원을 협약에 따라 신청한 유산만이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 (iv) 체약국이 자기들의 탁월한 세계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보호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세계유산기금을 가능한 한 가장 유익하게 사용하는 방법과 조건을 결정한다.

4. 본 운영지침은 협약 체약국에 『세계유산목록』과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의 작성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과 세계유산기금의 국제적 지원제공에 관하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지침은 협약운영에 관계되는 자세한 절차를

밝히고 있다.

5. 위원회는 위원회가 내리는 결정은 할 수 있는 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검토에 기초한 것이어야만 하며 위원회를 대리하여 내리는 평가는 철저히 책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위원회는 그 목적과 사려 깊은 결정은 다음 세 가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 사려 깊게 마련한 기준
- 철저한 절차 및 추정
- 자격 있는 전문가에 의한 평가 및 전문평가 심판가의 위촉





### Ⅲ 함양 남계서원 현황







### Ⅲ. 함양 남계서원 현황

#### 1. 함양 남계서원의 개요

[표Ⅲ-1] 함양 남계서원 개요

일반현황	명 칭	함양 남계서원
	건립년도	1552년(명종7년)
	사액년도	1566년(명종21년) 남계서원
지정현황	종 목	사적 제499호
	분 류	유적건조물/교육문화/교육기관/서원
	면 적	4,810㎡
	지정(등록)일	2009.05.26
	소 재 지	경남 함양군 수동면 남계서원길 8-11
	시 대	조선시대
	소유/관리자(관리단체)	남계서원 / 함양군



[그림Ⅲ-1] 사적 제499호 함양 남계서원 지정구역현황

## 2. 함양 남계서원의 역사와 문화

### 2-1. 함양 남계서원의 연혁

#### 2-1-1. 서원 건립의 배경<sup>1)</sup>

남계서원은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 때 현 소수서원을 뒤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설립된 서원이다. 백운동서원의 설립과정을 지켜 본 함양의 유림들은 남계서원의 설립에 그 형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이 설립과정에서 함양 유림들은 서원의 설립에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지방관을 포함한 관변 층의 절대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남계서원은 백운동서원이 건립되고 9년 뒤인 1552년(명종7)에 함양 유림들의 주도로 건립되었다. 개암 강익이 주도하고 소고 박승임, 사암 노관, 매촌 정복현, 남계 임희무 등이 적극 참여하여 일두 정여창을 위한 서원 건립을 결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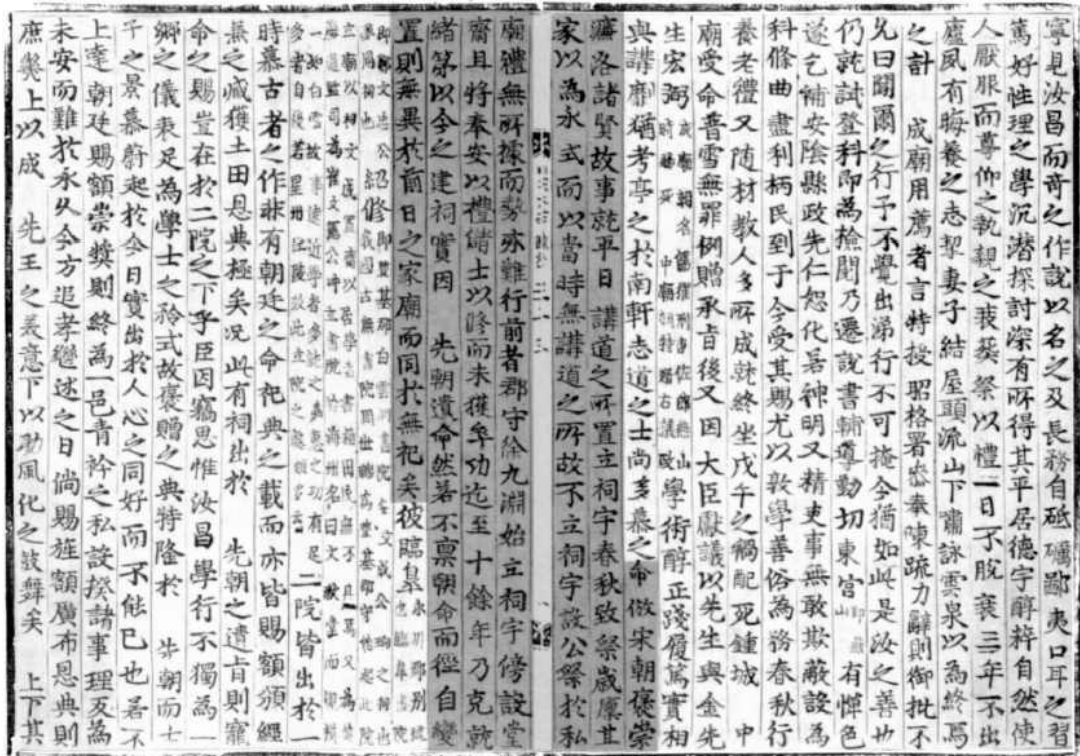
우선 향내의 유림들이 쌀과 곡식을 부조하면서 건립을 위한 여론을 환기하였고, 동시에 당시 군수로 재직 중이던 서구연이 강당 건립을 위한 물력을 지원하였다. 강당을 조성 하던 중 서구연의 체직으로 중단되기도 했으나, 공사를 재개한지 7년 만인 1559년(명종14)에 마침내 완성하였다. 물론 남계서원의 설립은 함양 유림들의 발의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보이지만, 서원이 출현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은 성종 대 이후 중앙정치 권력을 둘러싼 훈구세력과 사림세력의 오랜 대립 과정에서 이미 배태(胚胎)되었다. 즉 남계서원이 백운동서원에 이어 두 번째로 건립 될 수 있었던 것은 성종조 이래 꾸준히 성장한 사림과의 종사논의에서 연유된 것이다. 정여창은 정필재, 김종직의 문하라는 사실에서 이미 사림의 일원으로 주목을 받았다. 또한 평생의 지기인 한훤당 김굉필을 비롯하여 탁영 김일손, 추강 남효온, 임계 유호인 등과 함께 기존의 훈구세력에 대항하면서 새로운 학풍을 만들고 있었다.

남효온은 정여창에 대해 “오경(五經)에는 정통하면서도 유독 시를 전공하는 선비는 취하지 않았다”<sup>2)</sup>라고 하여 경학을 중시하는 그의 학문태도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그의 학문적 위상은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를 거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문묘 종사의 대상자로 주목받게 되었다. 정여창은 사화에 피화된 후 중종반정에 의해서 비로소 복관되었다.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사림세력은 사화로 인해 희생된 인물들에 대한 복권운동의 일환으로, 김굉필과 정여창에 대한 문묘 종사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러나 수부(守夫) 정광필을 포함한 당시 조정의 중신들은 이들 두 사람의 도학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들어 문묘 종사

1) 서원향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p12~p18.

2) 추강집(秋江集) :조선 전기의 학자·생육신의 한 사람인 남효온(南孝溫)의 시문집.

를 반대하고, 그 대신 자손들이 사가에서 치제하도록 하였다. 물론 이 시기는 아직 서원이 등장하기 이전이었지만, 치제를 둘러싼 사림세력과 조정 훈구대신과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새로운 형식의 사우와 제향의식이 발현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안의 하나가 곧 선현이 도를 강론하던 곳에 사당을 세워서 치제하는 형식이었다. 훈구파로서는 양대 사화로 희생된 김굉필과 정여창 등을 향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신진사림들이 자신들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치적 동기가 있는 것으로 치부하고 그들에 대한 제사는 관이 주도하는 ‘공제’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사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남계서원은 이러한 중앙 정계의 움직임에 촉발된 함양 유림들의 주도로 건립된 것이다. 백운동서원이 수령인 주세붕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남계서원은 향내의 유림들이 먼저 주도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서원 설립의 명분을 예조의 계문<sup>3)</sup>에서 찾고 있다.



[그림 III-2] <명종실록>권33

왕명을 내려 송조에서 염락제현을 포승하던 고사를 모방하여 그가 평일 강도한 장소에 사우를 세워 봄, 가을로 제사를 지내게 하고 해마다 그 집에 연봉을 주는 것을 영원한

3) 명조실록, 33권, 21년6월15일 “命倣宋朝褒崇濂洛諸賢故事, 就平日講道之所, 置立祠宇, 春秋致祭, 歲廩其家, 以爲永式. 而以當時無講道之所, 故不立祠宇, 設公祭於私廟, 禮無所據, 而勢亦難行. 前者郡守徐九淵, 始立祠宇, 傍設堂齋. 且將奉安以禮, 儲士以修, 而未獲卒功. 迄至十餘年, 乃克就緒. 第以今之建祠, 實因先朝遺命, 然若不稟朝命, 而徑自變置, 則無異於前日之家廟, 而同於無祀矣.”

규식으로 삼게 하였습니다. 당시 강도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사우를 세우지 못하였는데, 그렇다고 공제를 사묘에 베풀자니 예벌에 근거할 바가 없을 뿐더러 형편 역시 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전에 군수 서구연이 비로소 사우를 세우고 곁에 당재를 설립하여 장차 예로써 신위를 봉안하고 선비를 모아 학업을 닦게 하려 하였으나 그 일을 성취하지 못하였는데 10여 년 후에 와서야 성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날의 사우 건립은 실로 선조의 유명을 따른 것입니다. 조정에 품달하지 않고 변조한다면 전일의 가묘와 다를 게 없어 제사지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위의 기록을 보면, 정여창에 대한 제사는 왕명에 따른 ‘공제(公除)’라는 것이 함양 유림들의 주장이다. 즉 중종의 왕명에 의해 정여창을 문묘에 종사하는 대신, 그가 강도한 장소에 사우를 세워 봄·가을로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것을 영원한 규식으로 삼게 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공제(公除)’라고 하는 것은 문맥으로 보아 조정에서 내린 제수로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그러나 위 계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중종 대에는 미처 사우를 세우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례상 사묘에서 ‘공제’를 지낼 수 없었으므로 정여창에 대한 향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수서원의 건립은 함양 유림들에게 정여창의 향사를 위한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사관은 남계서원의 설립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숨기지 않고 있다. 사관은 우선 정여창과 김굉필을 중종이 추증한 일로 보아 역시 근대의 큰 선비였을 것이니, 서원을 세워 제사지내는 것이 불가하지 않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들이 학문을 전한 것이 많지 않다는 점과 당시의 선비들이 서원을 분분하게 설립하여 새로운 뜻을 창출하기에 급급하니 오래갈 수 없을 것 같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 놓았다. 이미 서원이 각 지역 사림들의 정치, 경제적 욕구를 실현하는 도구로써 기능하고 있다는 날카로운 비판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관들의 이러한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남계서원은 함양 사람들의 바람대로 설립되었다. 당시 함양지역은 막 남명문도들이 영향력을 확대해 가던 시기였다. 당시 서원 설립을 주도하던 함양 개평의 풍천노씨, 효리와 개평을 근거지로 하는 하동정씨, 함양 목현의 진주정씨, 함양 거평과 국계의 진주강씨, 함양 우동과 죽장지역에 세거하던 진주하씨 등의 가문들은 모두 넓은 범위에서 남명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 남명문도들이 그들의 성리학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남계서원 건립을 추진하였고 그 대상 인물이 바로 정여창이었다. 남계서원 설립 이후 1563년(명종 18)에는 남명 조식과 여러 문생들의 강론이 있었다.

1564년(명종 19)에는 남명의 고제로 함양군수에 재임하였던 김우흥이 동, 서재 건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1565년(명종 20)에는 남명의 고제 오건이 남계서

원에서 주자의 연보 등을 강론하는 등 이 지역 남명문도들의 강회와 회합의 장소로 남계서원이 적극 활용되었다. 함양의 유림들은 남계서원이 설립되고 난 뒤, 이 서원이 일읍의 사설 서원으로 고착될 것을 우려하여, 바로 조정에 사액 청원을 하였다. 강익을 중심으로 한 함양의 사람들은 사액을 청하기 위해 조정에 상소문을 올렸는데, 여기에는 사액을 받고자 하는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실려 있다.

被臨臯紹修二院，皆出於一時慕古者之作，非有朝廷之命，祀典之載，而亦皆賜額頒經，兼之臧獲土田，恩典極矣。況此有祠，出於先朝之遺旨，則寵命之賜，豈在於二院之下乎 臣因竊思惟，汝昌學行，不獨爲一鄉之儀表，足爲學士之矜式，故褒贈之典，特隆於先朝，而士子之景慕，蔚起於今日，實出於人心之同好，而不能已也。若不上達朝廷，賜額崇獎，則終爲一邑青衿之私設，揆諸事理，反爲未安，而難於永久。今方追孝繼述之日，倘賜旌額，廣布恩典，則庶幾上以成先王之美意，下以助風化之鼓舞矣。”上下其議于禮曹，禮曹請賜額賜書，以示獎勵。上從之。賜號曰濫溪書院(禮)。4)

“저 임고와 소수 두 서원은 모두가 한 때 옛 어진 이를 추모하는 자의 마음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조정의 명이 있거나 또는 사전에 실린 것도 아닌데 역시 모두 사액하고 반경 하였으며 검하여 장획과 토전을 하사하였으니 은전이 지극하였습니다. 더구나 이 사우는 선조의 유지에 의해 세워진 것인데 총명의 하사가 어찌 저 두 서원의 밑에 놓일 수 있겠습니까. 신은 삼가 생각하건대. 정여창의 학행은 한 고을의 의표가 될 뿐만 아니라 학사의 모범이 될 만합니다. 그런 때문에 포종의 은전은 선조에서 특별히 높았고 사자의 추모는 오늘날에 성하게 일어났으니 실은 인심이 다 함께 좋아해서 하는 일로 말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위로 조정에 주달하여 사액 승장케 아니한다면 끝내는 한 고을 선비들이 사사로 설립한 서원이 될 것이니, 사리로 볼 때 도리어 미안하고 영구히 유지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계술의 효도를 극진히 하시는 날에 혹 정액을 하사하여 널리 은전을 퍼신다면 위로는 선왕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고 아래로는 풍화의 고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하였다. 상이 그 건의를 예조에 내리니. 예조가 편액과 서책을 하사하여 권장하는 뜻을 보이기를 청하였다. 상이 그에 따라 이름을 남계서원이라고 하사하였으니, 예(禮)이다.

우선 함양 사람들은 이미 사액을 받은 임고서원과 소수서원의 예에 따라 노비와 전토를 획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결과적으로 사액을 받고자 하는 이유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제사를 관이 인정하는 ‘공제(公除)’로 설행하겠다는 것과 함께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을 받고자 한 것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계서원 측이 1554년(명종 9) 소수서원(백운동서원)에 뒤이어 사액을 받은 임고서원에 대

4) 명조실록, 33권, 21년 6월 15일

해 거론한 이유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고서원은 1553년(명종 8) 이 지역의 퇴계문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의 품관과 유생들이 주도하여 포은 정몽주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설립한 서원이다. 설립 사실이 경상도 관찰사 정언각의 장계(狀啓)로 조정에 알려지자 승정원에서는 곧바로 정몽주의 사당에 노비와 전결을 지급해 줄 것을 청하는 상언을 하였다. 바로 이어서 명종이 편액을 하사하고 서책, 노비, 전결을 하사하는 일들을 소수서원의 예에 의해 시행하라는 전교를 하달하였다. 남계서원의 사람들도 이렇게 빠른 기간 내에 사액이 이루어지길 기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남계서원은 약간 늦은 1566년(명종 21년, 병인)에야 ‘남계’로 사액되었다. ‘남계’는 서원 결의 시내 이름이다.

## 2-1-2. 함양 남계서원의 연혁

남계서원은 1552년(명종 7년) 강익(姜翼, 介庵, 1523-1567)을 중심으로 한 양지역 사람(士林)이 연산군 때 죽임을 당한 일두 정여창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대현서원(大賢書院)으로, 명종 5년(1550년) 풍기군수 이황의 주선으로 백운동서원이 ‘소수(紹修)’라는 최초의 사액을 받은 이후 가장 먼저 설립이 추진된 서원이었다. 이후 설립 과정이 지체되어 영천의 임고서원(명종 9년, 1554년), 해주의 수양서원(명종 10년, 1555년)에 이어 조선에서 4번째로 사액을 받게 되지만 경상우도에 최초로 세워진 사액서원이다. 남계서원은 경상우도 사람의 공론을 이끄는 중심 서원으로서 역할을 해나가지만, 임란 이후 향론의 분열과 시기별 정치상황의 추이에 따라 부침(浮沈)을 겪으며 서원의 입지와 성격 또한 변화를 겪는다.

### 남계서원의 주요연혁

1552년(명종 7년) 강익(姜翼)을 중심으로 한 함양지역 사람들에 의해서 건립 착수.

1559년(명종 14년) 군수 윤확(尹確)의 도움으로 강당 완공.

1561년(명종 16년) 묘우(廟宇) 완공, 정여창 선생 위판 봉안.

1566년(명종 21년) 사액(賜額).

1597년(선조 30년) 정유재란으로 서원 소실. 1603년(선조 36년) 나촌(羅村)에 복원,

1612년(광해군 4년) 현 위치로 옮겨 중건.

1635년(인조 12년) 별묘(別廟)를 짓고 강익(姜翼)을 향사.

1643년(인조 20년) 정온(鄭蘊)과 김종직의 유호인(兪好仁)을 별묘에 강익과 병향(並享).

1674년(숙종 원년) 강익과 정온의 정묘(正廟) 배향 청원.

1676년(숙종 3년) 정온 승향(陞享)

1690년(숙종 15년) 강익 승향(陞享)

1742년(영조 19년) 경원장제(京院長制)

1820년(순조 20년) 정홍서(鄭弘緒) 별묘 봉안

1868년(고종 5년) 별묘훼철

1871년(고종 8년) 서원철폐령, 남계서원은 정여창을 향사한다는 이유로 존립

### 2-1-3. 함양 남계서원의 건립과정과 사액

남계서원의 건립을 발의하고 주동한 인물은 함양 선비이자 남명 조식의 제자였던 강익(姜翼)이었다. 명종 7년 진사 강익이 함양의 몇몇 선비들과 협의하여 백운동서원을 모범으로 일두 정여창을 주향하는 서원을 세우기로 결의하고 함양군수 서구연의 협조를 얻어 공사를 시작하지만 서원건립에 대한 지역 사람들의 이해부족과 비방 및, 반대도 만만치 않아 서원의 실제 건립은 10여년 이상 소요된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남계서원지(濫溪書院誌)》에 나오는 서원 건립 경위에 관한 기사는 다음과 같다.

1552년(명종 7년) 개암(介庵) 강익(姜翼)이 박승임(朴承任), 도암(徒庵) 노과(盧祿), 매촌(梅村) 정복현(鄭復顯), 남계(濫溪) 임희무(林希茂)와 함께 의논하기를 “우리 고을은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 선생의 고향이나 선생이 서거하신지 이미 50년이 지났건만 아직 건원입사(建院立祠)의 움직임이 없으니 우리 고을의 수치다”라고 하니 모두 “그렇다”하고 이에 서원을 창립하였다. 이 당시 우리나라에 서원은 오직 주무릉(周武陵, 주세붕의 별호)이 죽계(竹溪)에 세운 서원(백운동 서원을 지칭) 외에는 없었다. 보고 들은 바가 없어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개암이 주도하여 일을 추진하였고, 고을의 유사(儒士)들이 다투어 곡식을 보내오고, 인근 고을의 협조자(協助者)도 많았다. 군수(郡守) 서구연(徐九淵)이 진심으로 도와서 강당



이 세워졌지만 군수 서구연이 체임(遞任)하고 흉년이 들어 강당에 기와를 올리지 못하고 마침내 역사(役事)가 정지되었다. 남은 재산을 증식하여 재정이 넉넉하기를 기다려 일을 마치기로 하였다<sup>5)</sup>

위 내용 중 고을 사람들이 보고 들은 바가 없어 의견이 분분하였다는 부분과 다른 자료에서 보이는 “서원 건립이 알려지자 비방이 크게 일어나고(誹謗朋興), 원근에서 듣는 자들이 놀라고 비웃었다(駭笑)”<sup>6)</sup>라는 기사로 미루어 볼 때 당시 함양의 재지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향소와 사마소 같은 기존의 향촌기구와 성격이 다른 서원이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혹여 그들의 안정된 기득권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반대론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주세붕이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인 백운동서원을 건립할 당시 풍기 사람들이 보인 부정적인 태도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반대 때문이었는지 서원공사는 처음 의견을 낸지 3년이 지난 명종 10년이 되어서야 함양 군수 서구연의 적극적인 지원과 인근 고을의 수령, 함양사람들의 재원기부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서구연이 상(喪)을 당해 체임되고 마침 닥친 흉년과 후임 수령의 미온적인 지원으로 서원 공사가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남계서원 공역에 현물을 기부한 사람들은 지례(知禮), 거창(居昌), 부안(扶安), 함양(咸陽), 산음(山陰), 안음(安陰), 단성(丹城)의 수령과 함양, 산음, 거창 지역 사람이 대다수로서 이것은 남계서원이 함양지역 사람과 지방관이 주체가 되어 지역 연고의 선현인 일두 정여창에 대한 봉사(奉祀)와 지역 사족의 장수(藏修)와 강학(講學)을 위해 설립이 추진되었음을 뜻한다.<sup>7)</sup> 또한 지례, 부안 등지에서 서원 설립에 도움을 준 수령들도 함양지역 출신자들이었는데, 이것은 그들의 재지기반인 함양지역에 대한 지원의 성격도 띤다. 일시 중단되었던 남계서원 건립이 본격적으로 다시 추진된 것은 군수(郡守) 윤확(尹確)이 부임하면서부터였다.

1559년(명종 14년) 개암이 군수 윤확(尹確)과 더불어 비로소 원역(院役)을 마치니 그 강당은 광대하였다. 담을 두르고 곳간과 부엌 등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다. 또한 묘우(廟宇)를 강당 동쪽 언덕에 세우기로 하였다. 1561년(명종 16년) 묘우 공사가 완성되었다. 2월 16일 유림(儒林) 크게 모여 선생의 위판을 봉안했다.<sup>8)</sup>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건립을 추진한지 10년 만에 남계서원은 강당과 사우(祠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문서집성24-남계서원편, 남계서원지 권1, 서원사실, 1995, pp6~7.

6) 경상도 함양의 남계서원 연구, 남명학연구 Vol. 26(2008) 367쪽에서 재인용.

7) 송준식, 남명학과의 서원건립 운동, 남명학연구원총서 Vol.2, 2008, p237.

8) 고문서집성 24-남계서원편, 서원보부록 p27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宇)가 마련되고 정여창의 위판(位板)이 봉안됨으로써 일단 서원으로서의 기본적인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소수서원의 예를 따라 서원의 제사와 유생들에 소용되는 물품을 확보하기 위해 경상도 관찰사에게 소청하여 소금, 어물, 종이 등 필수 품목들을 지정된 바닷가 고을로부터 춘추로 제공받고, 노비, 정철(正鐵) 등도 지급받는 등 서원의 경제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해갔다.<sup>9)</sup>

남계서원은 10년에 걸친 오랜 건립과정을 통하여 서원의 대강의 외형은 갖추었으나, 반드시 필요한 유생들의 기숙사격인 재사(齋舍)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 문제 역시 지방관의 도움으로 해결되었다. 명종 19년(1564년) 함양군수 김우홍(金宇弘)의 원조로 동재(東齋)와 서재(西齋)를 건립하고 재(齋) 아래 작은 못을 파고 못 주변에 매죽(梅竹)을 심고 못 가운데는 홍백련을 심는 것으로 기숙시설과 조경을 마무리하고 각 건물마다 편액을 걸게 된다. 강당은 明誠(명성), 좌우 협실에는 居敬(거경), 集義(집의), 동·서재는 養正(양정), 輔仁(보인), 軒(헌)은 愛蓮(애련), 詠梅(영매), 문은 遵道(준도)라고 편액을 걸었는데, 각 편액은 강익이 이름 붙이고 글씨는 남명의 문도로서 명필로 이름난 조식(曹湜)이 썼다.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인 백운동서원 이후 잇달아 설립된 서원들은 설립주체와 설립경위에 있어서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백운동서원이 수령, 감사 등 지방관들이 설립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지역 사람이 협조하는 양상이었다면, 뒤이은 남계서원이나 영천 임고서원 등은 사람이 서원의 설립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이제 서원을 그들의 향촌지배와 학문적 기반을 위한 새로운 제도로써 주목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사람들의 자발적이고 주동적인 향론에 의해 건립된 서원은 해당 지역의 수령이나 감사 등 지방관의 협조와 지원을 얻고는 있었지만, 사람들이 사적으로 세운 교육기관이었기에 서원이 사람들의 연수처(淵藪處)로서 항구적인 지위와 권위를 갖기 위해서 국가의 공인, 즉 사액(賜額)이 필요했다. 백운동서원이 명종 5년(1550년) 풍기군수로 있던 이황의 청원으로 ‘소수(紹修)’라는 사액을 받고 조선 최초의 서원으로 발전하였고, 남계서원보다 한 발 늦은 명종 8년 건립을 시작한 임고서원도 이듬해 사액서원이 되었다. 당연히 남계서원도 사액서원이 되고자 관찰사에게 서원 건립 취지와 과정을 설명하고 사액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함양출신으로 중앙정계에 진출해 있던 관료들을 동원해서 사액을 받을 수 있도록 승정원과 예조에 청탁을 넣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1566년(명종 21)에 다행히 수령 김우홍(金宇弘)이 부임하고 또 상공 박계현의

9) 고문서집성24-남계서원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p272.

관풍(觀風)을 만나 처음 사액 청원을 상달할 수 있었다. 가을 7월에 사액을 베풀니 남계서원이라고 이름 하였고 춘추로 치제(致祭)하게 하였다. 그간 주선할 때 옥계(玉溪), 구줄(九拙), 청련(靑蓮) 이 실질적으로 힘을 썼다.<sup>10)</sup> 이들은 모두 과거에 급제해서 중앙정계에 진출한 인물들로, 여러 고을의 지방관을 역임하고 홍문관 의정부 등 국가의 중추기구에서 관료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서원 건립 초기부터 미곡, 서적, 노비 등을 서원에 제공하는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낙동강 동쪽 경상우도는 남명(南冥) 조식(曹植)의 학풍이 위세를 떨치고 있던 지역이었다. 남계서원 건립을 주도한 강익과 처음 설립 논의에 참여했던 인물의 대다수는 남명의 문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암 강익이 남계서원 건립을 추진하고 완공시킨 시기는 남명이 생존하고 있었던 것은 물론, 후일 남명은 제자들과 함께 남계서원을 찾아 참배하고 강학까지 한다.

3월에 남계서원에 가서 일두선생 사당에 배알하고 여러 문생의 강론을 들었다. 선생께서 하항, 하응도, 유종지, 진극경을 데리고 남계에 갔는데, 강익, 정유명, 정복현, 임희무와 많은 선비가 모여 강학했다. 이에 정선생에게 이야기가 미치자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학술이 깊고 독실하여 한 점 하자가 없는데, 화를 못 면한 것은 천운이었다.”고 하였다.<sup>11)</sup>

그런데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남명 자신이나 혹은 남명학파의 차원에서 남계서원 건립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남명 조식과 강익은 스승과 제자로서 많은 만남을 가졌고 서신도 여러 차례 오갔지만 서원관계에 관한 것은 없다. 조선 초기 서원의 건립에는 봉당 혹은 학과간의 계열의식이 없지는 않았으나 그것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이 시기 서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향(一鄕) 또는 일도(一道) 사람의 공론에 의해 피봉사자의 문인, 향인, 후손 등이 협력하여 건립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남계서원 또한 이러한 일반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 2-1-4. 사림의 교육기관으로의 발전

남계서원 역시 선현에 대한 제례와 지역 사림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본 기능을 수행하였다. 주세붕이 최초로 백운동서원을 건립했을 당시 《국조오례의》나 《경국대전》 같은 국가 공법 및 공식예규에는 서원의 제식(祭式)에 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향교 석전제나 주자가례 등을 바탕으로 새로이 서원의 제식을 만

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문서집성24-남계서원편, 남계서원지 권1, 1995, p10.

11) <남명선생문집> 남명선생편년, 덕천서원, 두류문화연구소, 1980, p388.

들었다. 후에 이황이 개정한 백운동서원의 제식 또한 향교의 석전제를 참고하여 만든 것이다. 남계서원의 제례의식은 강익이 직접 정했다고 하는데, 당시 다른 서원들의 그것과 대동소이했을 것이다.

서원의 제례는 크게 정기적인 제례와 부정기적인 제례로 구분할 수 있다. 남계서원의 경우 춘추제향과 매달 초하루 보름에 거행되는 삭망분향제(朔望焚香祭), 그리고 정초에 유생들이 서원에 모여 묘우를 참배하는 정알(正謁)만이 정기적인 제례에 속하고 그 외의 것은 모두 때에 따라 거행되는 제례였다. 서원의 제례가 서원 유생들의 정신적인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초기 서원의 주된 기능은 교육에 있었다. 서원에서의 제사는 도덕에 보답하고자 하는 표식이고, 향사(享祀) 없이 서원을 세운 곳이 많았다는 언급들은 서원의 교육기능의 우선적인 지위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한다. 서원에 마련된 교육과정으로는 달이나 보름 정도 10명 내외의 유생들을 서원에 모아 제술(製述)과 독서를 하면서 과거를 준비시키는 거접(居接)과 짧은 기간에 많은 유생을 참여시키고 제술보다는 독서와 의리를 탐구하는 강회(講會) 등이 있었다. 그리고 이 강회 안에는 춘추제향과 삭망분향제 후 그 자리에서 경전을 강독하는 교육이 베풀어졌는데, 이를 통독(通讀)이라고 했다.

가정 41년 임술(1562년, 명종 17년) 선생 40세, 제생들을 이끌고 춘추로 서원의 향사를 지낸 뒤에 집경논변하기를 수일 동안 하였다. 멀리 있는 선비들로 학문에 뜻을 둔 사람들이 다투어 따르면서 배움을 이었다. 선생은 유생들의 통독하는 규칙을 정하여 매달 초 제생들을 모아 강독을 하니 선비들 가운데 성취한 사람들이 많았다.<sup>12)</sup> 10월 25일에 노진의 아들 노사회가 편지를 가지고 찾아와서 남계서원에서의 강학을 청하였다. 11월 25일에 한규, 정윤이 와서 지곡(절이름)서 회합을 갖자고 청하였다. 9일에 부곡향리의 원로 이나주선생과 최당장 두 사람을 위한 부곡사 경로연에 참석하여 헌시하고 10일에는 남계서원으로 향했는데, 임희무, 강익, 오준 등도 도착하였다. ..... 25일에는 《주자연보》 중권과 《연평문답》 1권을 중심으로 강론하였다.<sup>13)</sup>

서원은 도서를 보관하고 간행하는 기능도 수행하였다. 남계서원도 도서를 구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남계서원의 《서원보부록》에는 지방관과 중앙관료, 함양지방 사람으로부터의 기증, 서원 자체에서 구입하는 원비, 국가가 사액을 내릴 때 하사하는 내사의 세 가지 경로로 서책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유재란 때 왜군에 의해 서원이 파괴되면서 약탈되거나 소실되기 전까지 남계서원이 소장하고 있던 서적의 상당수는 특히 지방관들이 기증한 것들이었는데, 이들은 부임할 때 서원에 알묘하면서 서책을 기증하거나 서원에 봉안된 선현의 후

12) 강익, 개암집, 권하 부록연보

13) 吳健 「歷年日記」

손이나 외손 등 혈연관계가 있는 고을의 수령들이 책을 기증하기도 하였다.<sup>14)</sup> 각 도의 감영과 관아에서는 국가적인 시책으로 서적간행을 담당하였으므로 많은 서적을 보관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을 것이다. 서원의 건립에도 막대한 재원이 충당되어야 하지만, 일단 서원 성립 후 그것을 유지 운영하려면 항구적인 경제기반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남계서원이 완성되고 사액 서원이 된 이후 서원에서는 건물의 유지 보수, 제례 거행에 소용되는 비용과 유생들의 강회나 거접 등 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해 서원전을 경영하는 한편, 건립과정부터 시행해온 식리 또한 계속 운영하였다. 명종 21년 원장 강익은 쓰고 남은 곡식의 운용을 모색하던 중 원로 노진과 양희 두 향선생과 의논한 끝에 서원 근처 동리와 4개 면의 서당에 나누어 주되, 원래의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절반의 이자만 받기로 했다.(이를 「병진정규(丙辰定規)」라고 불렀다). 이렇게 마련된 이자 곡식으로 서원이 중심이 되어 춘추로 강신례를 거행하여 향촌 교화에 힘쓰고, 마을 사람들의 혼인과 상사(喪事) 비용에 도움을 주어 서원의 위상을 높이려고 노력하였고, 동시에 서원과 서당을 연계시켜 교육 효과를 높이려고 하였다.<sup>15)</sup>

서원이 건립되면서부터 재지사족의 향촌교화와 지배의 중심은 유향소, 사마소로부터 점차 서원으로 옮겨지게 된다. 서원은 사족들의 공론이 형성되고 과거준비를 위한 교육과 사림이 추앙하는 도학의 전승처 역할을 담당해 나갔고, 남계서원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이다.

#### 2-1-5. 함양 향론(鄕論)의 분열과 남계서원의 정치적 성격 변화

정유재란 때 함양까지 들어온 왜군에 의해서 남계서원이 불타버렸다. 다행히 땅속에 묻어둔 정여창의 위판은 손상되지 않고 보존되었기에 임시로 두 칸의 사우를 지어 봉안하고 제례를 이어가기는 했다. 전란이 끝난 후 남계서원을 재건하기로 한 함양 사람들은 새로운 서원 터를 마련하여 이건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후 함양 사람 사이에는 남계서원 다음으로 함양에 건립된 신계서원(新溪書院)이 퇴락하였으니 차제에 신계서원도 같이 새로 짓는 남계 서원 옆으로 나란히 옮겨 짓자는 공론이 일었다. 그러나 이 남계(蘆溪), 신계(新溪) 양 서원의 이건문제는 그것을 둘러싸고 함양 사림 간에는 격렬한 의견대립과 다툼이 벌어져 이른바 향론의 분열이라는 엄중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

신계서원은 남계서원의 건립과정에서부터 사액을 받기까지 물심양면으로 큰 공헌을 한 노진을 주향으로 하는 서원이었다. 노진 사후 선조 12년(1579) 함양 사림과 노진의 문인들이 노진을 모시는 서원건립을 추진하여 선조 13년 서원을 완

14)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의 도서관 기능연구, 역사학보 186, 2005

15) 윤희면, 경상도 함양의 남계서원 연구, 381쪽

공 하였다. 그런데 노진의 조카이자 남계서원 원장을 역임한 노사예가 강익을 함께 모시자는 의견을 냈고, 이웃고을인 안음의 향(鄕)선생 갈천 임훈의 의견을 들어 노진과 강익의 위차를 노진을 주향(主享), 강익을 배향(配享)으로 정해 함께 위판을 모시게 되었다.

위차를 이렇게 정한 것은 노진이 강익보다 5년 위고, 강익이 진사에 합격하고 학행자로서 사포서 봉사(奉祀)에 그친 것에 비교하면 노진은 관찰사, 대사헌, 이조판서를 역임하였던 벼슬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연유에서였다. 강익의 후손과 문인들은 내심 승복하지 못했지만 신계서원이 노진을 모시는 서원이고, 향선생 임훈의 견해도 그러했기 때문에 그대로 덮고 말았다. 남계서원과 신계서원을 새로운 터로 이진하려는 남계서원 원임들과 사람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노진의 후손과 문인들은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그 이유는 물론 신계서원이 남계서원에 흡수되거나 앓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종래 주향과 배향으로 정해졌던 노진과 강익의 위차가 이진추 진자들에 의해 동격인 병향(並享)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이었다. 당시 조선 예학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한강 정구도 “옥계(노진)와 개암(강익)은 봉우로 서로 존경했지 사생(師生)의 나눔은 보지 못했다” 고 하며 병향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다.

남명의 제자로 이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던 정인홍 역시 병향 의견을 내어 놓았다. 노진의 주향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병향 추진에 대해 격렬히 반대했고, 이에 따라 함양의 사론은 두 의견으로 갈라져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다. 병향 반대파는 이웃고을에 통문을 돌려 반대 여론을 불러일으키려고 했고,<sup>16)</sup> 반대파들의 의견을 들은 수령은 이진 추진자들을 관아로 불러 예전 그대로 하라는 당부하기도 했다.<sup>17)</sup> 병향 의견을 개진한 정구, 정인홍을 비난하고, 심지어는 남계서원의 원장과 유사를 자신들의 사람으로 임명하여 자신들의 목표를 관철시키려고 까지 하였다.

결국 노진과 강익의 위차문제는 함양 사림의 분열이라는 엄중한 지경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 같은 분열과 대립은 이후의 중앙의 정국변화와 맞물려 계속 이어진다. 결국 주향 주장자들은 노진의 위패를 남계서원에서 철거하여 집으로 가져갔고, 그러는 사이 광해군 2년 정여창이 문묘에 종사되게 됨에 따라서 남계서원의 위상이 한결 제고되고, 또 이듬해인 광해군 3년 신계서원이 다시 건립되면서 위차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일단 해결되었다.

신계서원이 건립된 후 남계서원도 이진계획을 철회, 광해군 4년 옛 자리에 서원 건물을 짓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 함양에서는 북인이 중심이 된 남계서원과

16) 고대일록권4, 계묘년(선조36년)

17) 고대일록권3, 임인년(선조35년)

서인으로 기울어진 신계서원이 서로 대립하게 되었다. 인조반정으로 광해군과 함께 정인홍을 중심으로 한 대북정권이 몰락하자 서인정권 하에서 신계서원은 그 위상을 점점 높이고 있었던 반면, 북인계가 위주였던 남계서원은 존립 기반조차 위태로워졌다. 인조반정으로 북인 당색은 거의 궤멸되고 말았기 때문에 남계서원은 존립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점차 남인계 서원으로 성격을 변화시켜 나갔는데, 그 표현의 하나가 별묘의 건립이었다.

신계서원이 재건된 이후 노진과 강익의 위차는 다시 주향과 배향으로 복원되었고, 이에 강씨 문중은 불만을 품고 인조 12년 향론을 일으켜 병향으로 고치자고 주장했지만 노씨 문중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에 함양 사림은 향회를 개최, 남계서원이 강익이 주동하여 건립하고 운영한 서원이라는 점을 들어 강익을 남계서원에 배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의하고 이 같은 사정을 안의(安義) 출신 동계 정온에게 품의하였다. 정온은 본디 정인홍의 문인으로 북인이었지만 광해군의 ‘폐모살제(廢母殺弟)’를 반대하다가 10여년을 제주도에 유배당한 전력이 있었다. 그는 광해군의 ‘폐모살제’에 동조한 북인과 결별하고 남인으로 처신하고 있었다. 인조반정 후 집권에 성공한 서인 공신세력은 정국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 대북을 제외한 소북과 남인세력의 일부를 등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조가 직접 나서서 일차로 발탁한 인물이 근기 남인 이원익과 영남 남인 정온이었다. 정온은 또 선조 39년부터 광해군 원년까지 남계서원의 유사를 맡기도 했었다. 정온은 강익을 남계서원에 모시되 정묘 아닌 별묘에 모실 것을 권했다. 정온의 권유대로 강익의 위패를 본원 동쪽에 별묘를 짓고 봉안 향사하였고, 이에 따라 강익의 후손들은 선조의 향사를 위해서 신계서원에 납부했던 전답을 돌려받아 남계서원에 기부하고 신계서원과의 관계를 단절했다. 남계서원은 인조 20년 남계서원의 원임을 역임한바 있고, 임란으로 불타버린 서원의 사액 현판을 다시 받는데 앞장 선 공로자인 정온과 함양 출신으로 김종직의 문인이었던 유호인을 별묘에 강익과 병향하게 되었다.

정온의 병향으로 남계서원의 남인계 서원으로서의 면모가 더욱 강화되었다. 별묘에 향사된 인물들은 ‘승향(陞享)’ 절차에 의해서 본원에 배향되기도 하는 것이 통례이다. 남계서원의 유생들은 숙종 원년 강익과 정온을 본원에 배향해 줄 것을 조정에 청원하였다. 남계서원은 사액서원으로 국학과 같은 범주로 간주되고 있었기 때문에 ‘승향’에도 국가의 공식적 허락이 있어야만 했다. 이런 배향 청원에 숙종 3년 정온이, 숙종 15년에는 강익의 배향이 인가되었고, 남계서원은 정여창을 주향으로 하고, 정온과 강익을 배향으로 하는 체제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 2-1-6. 이인좌의 난과 노론 서원으로서의 변신

함양을 포함한 경상우도는 진주를 중심으로 학파를 형성한 남명 조식의 학통이 근간을 이루는 북인의 본향이었다. 인조반정은 중앙의 대북정권 뿐만 아니라 대부분 남명의 문인들인 경상우도의 북인 전체에 결정적인 타격을 준 사건이었다. 더욱이 인조반정은 함양의 노진과 강익의 위차 논쟁에서 강익의 병향을 주장한 북인계열에 대한 반발로 기존의 당색을 버리고 서인서원으로 성격을 바꾸고 있던 동향의 신계서원에 위세와 힘을 실어주었다. 이에 따라 함양의 당색 성향도 역전되게 되는데, 과거 미미한 세력에 불과했던 서인계열들이 득세하면서 남계서원은 존립 자체의 위협을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는 가운데 남계서원은 존립을 위한 자구책으로 점차 북인계 서원에서 남인계 서원으로 당색을 전환시켜 나갔다. 인조 20년 영남 남인의 영수 격인 정운을 별묘에 모시는 조치가 이를 잘 말해준다. 경상도(영남) 전체, 특히 함양이 속해 있는 경상우도에 인조반정보다 더 큰 정치사회적 파문을 몰고 온 것은 영조 4년(1728년)에 발생한 이인좌의 난이었다.

이인좌의 난은 경종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를 위협받게 된 박필현(朴弼顯), 이유익(李有翼), 심유현(沈維賢) 등의 과격 소론측이 갑술환국 이후 정권에서 배제된 남인들을 포섭해 영조와 노론의 제거를 계획하고 일으킨 난으로, 남계서원에 배향된 정운의 4대 손인 정희량(鄭希亮)이 영남의 주모자로 조묘의 천장(遷葬)을 구실로 민정(民丁)을 모집해, 이웅보(李熊輔 : 이인좌의 동생)와 더불어 3월 20일 안음의 고현창(古縣倉)에서 일어나 안음현감과 거창현감을 투서로 위협해 쉽게 두 지역을 장악했다. 이어서 합천에 거주하는 정희량의 인척인 조성좌(曹聖佐) 일족의 도움으로 합천, 함양 등 4개 군현을 석권하여 기세를 올렸다. 이에 경상감사 황선(黃璿)은 성주목사 이보혁(李普赫)을 우방장으로, 초계군수 정양빈(鄭陽賓)을 좌방장으로 삼아 주변의 관군을 통솔해 토벌하였다. 이인좌의 난이 일어나자 정여창의 후손인 하동 정씨들이 정희량을 진압하려고 창의(倡義)하였고, 큰 공을 세우지는 못했으나 노론의 입장을 더욱 분명히 할 수 있었다.<sup>18)</sup> 함양의 하동 정씨가 이인좌 난 이후 영남의 대표적인 서인, 노론 가문으로 변신함에 따라 자연히 남계서원은 남인계 성향에서 벗어나 노론계 서원으로 변모해갔다. 이러한 모습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노론계 서원의 특징의 하나인 정원장(京院長)제도를 남계서원이 채택한 사실이었다. 영남의 남인계 서원의 원장은 향중(鄉中)에서 학덕과 명망을 갖춘 생원, 진사, 참봉 등의 하급관료와 유학 등에서 선출하였지만, 유학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기호지방

18) 이재철, 18세기 경상우도 사림과 정희양란, 대구사학31, 1984, p65.



노론계 서원의 경우에는 중앙의 고위관료들이 원장을 담당하였고, 향중 인물인 장의를 두어 그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하였다.

남계서원에 경원장이 최초로 보이는 것은 영조 19년이다. 이조판서 이재가 경원장이 된 후 영의정 유척기, 영의정 김치인, 찬선 김이, 판서 이민, 사부 송환기, 영의정 남공철, 영의정 조인영등이 연이어 경원장에 취임했는데, 이들은 모두 노론의 핵심인물이자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이었다.<sup>19)</sup> 영남의 다른 남인계 서원이 임기가 정해져 있거나 경우에 따라서 지방관이 여러 서원의 원장을 겸임하고 있던 것과 달리 경원장의 임기는 종신제였으며, 경유사(京有司)가 보이는 등 원임의 구성 또한 다른 노론계 서원과 동일하게 이원적으로 구성되었다.

### 2-1-7. 남계서원의 문중 서원화

영조 정조대에 오면 서원과 중앙정치와의 연결을 매개해주던 봉당정치가 퇴색하게 되면서 중앙정치와의 관련 속에서 종래 서원이 가지고 있던 역할과 의의도 점차 중요성을 잃어가게 되었다. 또한 조선후기의 신분제 변동은 향촌사회의 양반사족의 분열을 촉진하고 과거의 하나의 통합된 지배공동체로서의 양반의 결속력을 약화시켰다. 여기서 사족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기가문 자기문중의 위세를 높여 향촌에서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8, 19세기에 이르면 각 문중마다 자신들의 문중서원을 더욱 경쟁적으로 건립하는 서원 남설(濫設)의 폐단이 심해졌다. 기존의 서원들도 향사되는 선현의 문중 자손들에 의해서 문중 서원화된 모습을 보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현상은 군소서원은 말할 것도 없고 대현서원(大賢書院)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sup>20)</sup> 조선 후기에 오면 서원에 모셔진 선현의 후손들이 원임을 맡아 서원 운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특히 서원의 재정적 운영에 깊이 관여하는 것이 점점 증가하는데, 서원 내에 별고(別庫)를 두고 별유사(別有司)를 따로 두어 맡는 경우가 많았다. 남계서원에도 정조 20년 별유사라는 직임이 처음 보이고, 이후 하동 정씨 본손(本孫)들이 계속 맡고 있는데, 이는 별고의 설치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남계서원이 점차 하동 정씨의 문중서원처럼 변모해가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은 묘정비(廟庭碑) 건립이었다. 정여창의 봉사손 정덕제(鄭德濟)가 1779년(정조 3년) 묘정비를 세우면서 비문 작성을 노론 관료인 김종후(金鍾厚)에게 맡겼는데, 그가 작성한 비문의 내용이 문제가 되어 함양 유림이 들고 일어나 비판하고 나섰다.

19) 윤희면, 경상도 함양의 남계서원 연구, p393.

20) 이수환, 조선후기 서원 연구, 일조각, 2001, p116~117.

사도(斯道)를 위하여 땅에 떨어진 유학의 실마리를 중국에서 이어온 이는 실로 한훤(寒暄) 김선생과 일두(一蠹) 정선생을 필두로 하여 이를 이은 정암(靜庵), 퇴계(退溪), 율곡(栗谷), 우계(牛溪), 사계(沙溪), 우암(尤庵), 동춘(同春) 등 여러 선생이 대대로 일어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크게 빛나서 천하의 도통(道統)이 우리나라에 돌아왔으니 아름답고도 훌륭하구나.<sup>21)</sup>

성리학의 도통(道統)을 언급하면서 남인이 영남 남인이 존송하는 회재(晦齋) 이언적을 의도적으로 도통 계보에서 빠뜨리고 자기 당색의 입장에서 성혼(成渾), 김장생(金長生), 송시열(宋時烈), 송준길(宋浚吉) 등을 언급한 것이 영남 남인의 학통을 무시한 처사로 비쳐졌고, 서원 건립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을 배제하면서 유독 강익만을 비문에 넣은 것이 다른 후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문제를 야기한 것이다. 노진의 후손이 비에 새겨진 김종후의 이름을 도끼로 찍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정덕제는 그를 관아에 고발해서 그가 옥에 갇히는 등 큰 물의를 빚기도 했다.

정여창 후손의 서원 운영 간여는 1820년 정여창의 현손인 정홍서(鄭弘緒, 1717~1648)를 남계서원 별묘에 봉안한 일에서도 잘 나타난다.<sup>22)</sup> 정홍서는 한강 정구의 문인으로 동계(桐溪) 정온, 우복(愚伏) 정경세와 도교지우(道交之友)로 인조 20년 강익을 별묘에 봉안할 때 봉안문(奉安文)을 작성한 인물이다.<sup>23)</sup> 과거 같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하동 정씨들이 주동하여 지역 유림의 공론의 취합 없이 독단으로 정홍서를 별묘에 봉안한 것은 남계서원과 같은 대현서원의 운영에 있어서도 후손들의 입김과 간여가 얼마나 강해졌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일 것이다. 그리고 1849년 남계서원의 문루인 풍영루(風詠樓)를 정여창의 후손인 정환필이 앞장 서 증건한 것도 하동 정씨 후손들과 남계서원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

실추된 왕권의 권위를 높이며 강력한 중앙집권 하에 국가체제의 정비를 꾀하던 흥선대원군은 서원의 일대 정리에 착수하였다. 서원의 사회 경제적 폐단을 정리하려는 대원군의 첫 번째 조치가 1865년(고종 2년) 당시 작폐서원의 상징과도 같았던 만동묘(萬東廟)의 철폐였다. 그리고 이어서 1868년(고종 5년) 8월 “대원위분부(大院位分付)”의 형식으로 미사액서원(未賜額書院)의 철폐를 단행하였다. 1870년 사액서원으로서 제향자의 후손에 의하여 주도되면서 민폐를 끼치는 서원에 대한 훼손을 명하였다.

21) 김종후, 本庵集 권 藍溪書院廟庭碑, 1779년.

22) <남계서원지>권1, 別廟사적.

23) 강익 『개암집』 卷下 부록藍溪書院奉安時告文丁丑(정홍서), 奉安時告文獻公文.

지난번 각도 소재 사설향사(私設鄉祠)를 훼손하도록 하고 사액서원의 원장은 해당 지방관이 주관토록 하교(下敎)한 바 있다. 대저 유현(儒賢)의 제향(祭享)은 조정이 장려하고 사림이 떠받드는 일이어서 사액을 내리는데, 근래 서원의 사무를 본손(本孫)이 주관하고 각기 봉당을 이루어 소민(小民)에 미치는 피해 또한 많다고 한다. 이러한 서원은 사액서원이라고 하더라도 국체(國體)를 해이하게 하고 화합을 해치니 그대로 둘 수 없다. 한결 같이 대원군(大院君)의 분부(分付)를 받들어 거행하라.<sup>24)</sup>

이러한 조치에 이어 서원문제에 대한 정부의 마지막 결단은 이듬해(1871년) 내려진다. 즉 문묘 중향인(從享人) 이외를 향사하는 서원은 철향(撤享)하고, 한 사람에게 대해서 첩설(疊設)한 서원도 철폐하도록 지시를 내리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지시에 의거하여 예조는 존속시킬 47개의 사액서원을 보고함으로써 철폐서원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이후 이 확정안에 따른 훼손은 서원철폐에 항의하는 유림들의 항의와 반발로 인해 단시일 내에 용이하게 추진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서원을 철폐하여 모든 폐단을 없애야겠다는 대원군의 확고한 태도 앞에서는 별무소용이었다. 「신미존치(辛未存置)」 47개의 사액서원은 「廟 1, 院 26, 祠 20」로 남계서원은 1868년(고종 5년) 별묘가 훼손되기는 했지만 문묘에 종사된 정여창의 가향(家鄉)인 함양에 있고, 주향(主享)이자 독향(獨享)으로는 유일한 사액서원이었던 까닭에 정묘(正廟)는 철폐를 면할 수 있었다.

## 2-2. 함양 남계서원 배향인물의 생애와 학문

### 2-2-1. 일두 정여창의 생애와 학문

정여창(1450~1504)은 조선조의 인물로는 최초로 문묘에 배향된 동방오현 중 한명이다. 정여창은 조선 도학의 조종(祖宗)이라 할 수 있는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으로서 그의 ‘지동도합(志同道合)’의 일생의 도반(道伴)이자 벗인 한훤당, 김굉필과 함께 우리나라 도학의 정맥을 계승하여 퇴계와 율곡이라는 대학자의 출현으로 조선 중기 이래 만개했던 조선 성리학의 서장을 연 유종(儒宗)이었다. 그러나 정여창은 참혹한 사화로 희생된 학자였고, 평소 독행(篤行)을 통한 실천적인 학문을 중시하였던 터라 후대의 성리학 융성기의 학자들에 비해 질과 양에서 비견될 만큼의 학문적 성과를 담은 저작을 내놓진 못하였고, 그나마 많지 않은 저술들마저도 사화(士禍)를 겪는 동안 후환을 두려워한 가족에 의해서 불 속에 던져져 전하지 않는다.

정여창 사후 오랜 세월이 흐른 후 국왕 선조는 미암(眉巖) 유희춘(柳希春) 등에

24) 『일성록』, 고종7년 9월 10일

게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등 4현의 사적과 저술을 엮은 《유선록(儒先錄)》 4권을 편찬하도록 명함으로써 선유들에 대한 국가의 관심을 표했다. 이후 정여창의 지우 김굉필의 외증손인 한강(寒岡) 정구(鄭逯)가 《문헌공실기(文獻公實記)》 1책을 엮음으로써 소략하나마 정여창의 유문과 행적이 수습되어 한데 모아지게 되었다.

#### ■ 출생과 수학

정여창의 자는 백옥(白勗)이고 호는 일두(一蠹) 혹은 수옹(睡翁)이다. ‘일두’는 정이천(程伊川, 1033~1077, 북송때의 유학자)의 ‘천지간 한 마리 좀벌레(天地間一蠹)’라는 말에서 따온 것으로 겸양의 뜻으로 취한 것이다. ‘수옹’은 ‘즐거워 잘 하는 늙은이’라는 뜻이다. 일두는 세종 23년(1450) 경상도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介坪里)에서 절충장군(折衝將軍)으로 함길도병마우후(咸吉道兵馬虞侯)를 지낸 육을(六乙)공의 3남 1녀 중 맏이로 태어났다. 본관은 하동(河東)이다. 부친 육을공은 일찍이 세조가 잠저(潛邸)에 있으면서 명나라에 사신으로 갈 때 행호군(行護軍)으로 시종한 바 있으며, 세조가 계유정난(癸酉靖難)으로 왕위를 찬탈할 때 즉위에 공을 세워 정난원종공신(靖難原從功臣)에 봉해졌다. 뒤에 한성부 좌윤(佐尹)에 추증되었다.<sup>25)</sup>

여창(汝昌)이라는 이름을 득명하는데는 사연이 있다. 1460년(세조 6) 정여창이 11세 때 명나라에서 예과장과사(禮科掌科事) 급사중(給事中) 장녕(張寧)이 사신으로 왔다.<sup>26)</sup> 당시 육을공은 의주통판(義州通判)으로 있었는데, 일두는 동생과 함께 부친의 임소에 따라와 있었다. 육을공이 장녕에게 두 아들의 작명을 청하니 장녕이 ‘여창(汝昌)’과 ‘여유(汝裕)’라 이름을 지어주며 이를 풀이한 설(說)을 지어주었다고 한다.<sup>27)</sup> 정씨 집안이 ‘창성(昌盛)’하고 그 후손이 넉넉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의미였다.

일두 나이 18세에 이시애(李施愛)의 난을 진압하러 출전했던 부친이 전사하자, 일두는 반란이 평정된 뒤 아버지의 시신을 고향으로 반장(返葬)하고 지극 정성으로 집상(執喪)하였다. 조정에서는 아버지가 순절하였으므로 전례에 따라 군직에 서용하려고 했다. 그러나 일두는 “아비의 죽음으로 자식이 영광을 누리는 것은 나라의 은혜가 비록 중할지라도 차마 하지 못할 일이다”라고 하고는 끝내 벼슬을 사양했다.

일두는 점필재, 김종직의 제자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가 처음 나아가 배움을 청한 이는 경기도 이천에서 일민(逸民)으로 명망이 높던 율정(栗亭) 이관의(李寬

25) 최영성, 일두 정여창의 생애와 학문역정-諸家記述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Vol.38, 2004, p12.

26) 『세조실록』, 6년3월2일, 己卯條.

27) 『명종실록』, 21년6월15일, 甲戌條.

義)였다. 그가 어떤 계기로 이관의에게 수학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일두는 스승 이관의를 기리는 시를 남기기도 했다.<sup>28)</sup> 23세(1472년, 성종 8) 때 일두는 평생의 도우(道友) 김굉필과 함께 한 해 전 함양군수로 부임해 있던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의 문하에 들어가 집지문인(執贄門人)이 되었다.<sup>29)</sup> 일두는 친구들과 교유하기를 즐기지 않아서 허여(許與)한 벗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sup>30)</sup> 김종직 문하 중 김굉필, 김일손, 남효온 등이 절친한 관계였다. 김일손(金駟孫)은 일두보다 14년이나 연하였지만 나이를 상관하지 않는 벗(忘年之交)이 되었다. 이밖에 윤희인(兪好仁), 윤효손(尹孝孫) 등과도 마음을 터놓는 사이였다.

김종직의 여러 문도들 사이에서 일두는 단연 도학(朱子性理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일찍이 스승 김종직은 경술(經)과 문장이 서로 다른 두 갈래(二岐)가 아니라고 하면서 ‘도문일치(道文一致)’를 주장하였다.<sup>31)</sup> 그는 문장이 단지 ‘채도지기(載道之器)’ ‘로서의 문장이 아닌 경술, 도학에 종속되지 않는 문장의 영역과 가치, 공효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일두는 스승의 이러한 시문관(詩文觀)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일두의 동문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은 일두의 이런 점을 비판하고 자신은 스승 김종직의 설을 지지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백옥은 주정장주(周程張朱)에 대해 본 바가 있고 오경(五經)에 정통하면서도 유독 시(詩)를 전공하는 선비는 취하지 않았다. “시(詩)란 정성(情性)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어찌 자잘하게 억지로 공부한단 말인가”라고 하였다. (...) 백옥은 시를 이단으로 여겼다. 그렇다면 주자(朱子)와 소자(邵子)가 이단이란 말인가. 회암(晦菴)이 이단이란 말인가. 점필재 선생이 말씀하시를 “시는 성정을 도야(陶冶)한다”고 하셨으니, 나는 스승의 말씀에 따른다.<sup>32)</sup>

그러나 일두가 시를 비롯한 문학 자체를 통째로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종래의 사장학(詞章學)을 비판하는 차원에서, 정감에 호소하는 시(詩)가 치심양성(治心養性)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냈을 뿐이다. 여기서도 도학자로서의 일두의 면모가 잘 드러난다.<sup>33)</sup> 일두가 도학에 밝았던 것은 그 스스로 근처의 지리산에 들어가 수학하면서 고요히 우주의 이치를 궁구하고 사색하는 위기지학(爲己之學)의 온축을 이루어냈기 때문이다. 남효온의 《사우명행록(師友名行錄)》에 의하면, 일두는 일찍이 발분하여 뜻을 가다듬고 지리산에 들어가 3년 간 나오지 않고 오경(五經)을 밝혀서 온오(蘊奧)를 다했다고 한다.

28) 『일두집』 속집 권1, 謹次栗亭李先生韻.

29) 『점필재문집』, 연보. 成化 8년, 壬辰條.

30) 金堉 『해동명신전』 권1 「鄭汝昌」 “公不喜交遊, 獨與金宏弼, 許爲知己, 論道講書, 未嘗相離.

31) 『점필재문집』 권, 「尹先生祥詩集序」

32) 『추강집』 권7, 「冷話」.

33) 최영성, 일두 정여창의 생애와 학문 역정-諸家記述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Vol. 38, 2004. p16.

또 일두의 문집에도 일두가 37세(성종 17년, 1486) 때 3년 동안 지리산에 입산 수학하고 있던 중 모친상을 당하여 돌아와 거상(居喪)하였고, 3년 거상이 끝나자마자 처자도 보지 않은 채 두 아우와 다시 지리산으로 들어갔는데, 도(道)를 체득함이 더욱 돈독하였다고 한다. 산 속에서의 공부를 통해 성리학에 대한 일두의 학문은 점점 깊어졌다.

#### ■ 태학(太學) 생활과 출사(出仕)

평소 과거를 보아 입신출세하는 데 뜻이 없던 일두는 37세의 늦은 나이에 소과에 급제하여 진사(進士)가 되었고, 41세(1490년, 성종 21) 때 별시문과(別試文科) 병과(丙科)에 제7인(第七人)으로 급제했다. 마흔이 넘은 나이에 문과에 응시하여 급제한 것은 아들의 급제를 보길 소망했던 어머니 최씨의 소원을 풀어주려는 효심에서였다고 한다. 태학(成均館)에 유학하면서 그는 태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일찍이 태학에 유학할 때 장관(長官)이 유생들을 모아 《중용(中庸)》, 《대학(大學)》을 강론하였다. 정여창이 의심스럽고 어려운 것을 강문(講問)하니, 장관이 대답을 잘하지 못했다. 학궁(學宮)의 노비가 항상 조석으로 소를 잡아서 유생들을 먹이자, 정여창이 의리에 어긋난다 하여 홀로 먹지 않으니, 여러 동류가 공경하고 어려워 하였다.<sup>34)</sup>

백육은 성품이 단아하고 정중하며 술을 마시지 않았다. 냄새나는 훈채(葷菜, 마늘 등)를 먹지 않았고 쇠고기 말고기도 먹지 않았다. 늘 이야기 하면서도 안으로는 정 신이 깨어(惺惺) 있었다. 젊을 때 성균관에 있으면서 남들과 같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코만 골고 잠은 자지 않았다. 남들은 이 사실을 몰랐는데 어느 날 밤 최하림(崔河臨)에게 들켰다. 관중(館中)에 널리 소문이 나기를 “정아무개는 참선(參禪)을 하느라 잠을 자지 않는다.”고 하였다.<sup>35)</sup>

지리산에서 오랫동안 공부한 경험을 가진 일두는 절의 승려들의 공부법을 자주 대면할 수 있었을 것이고 나름대로 그것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점은 한때 태학생들 사이에 문제가 되었던 것 같다. 문과에 급제한 일두는 예문관 검열(檢閱)에 보임되는데 이 때 일두를 그 직에 추천한 이가 평생지우 중 한 사람인 탁영(濯纓) 김일손(金駟孫)이었다. 이듬해(성종 22년)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설서(說書)가 되어 동궁을 가르치는 중책을 맡았다. 하지만 훗날 연산군이 될 동궁은 사부인 조지서(趙之瑞), 정여창 등을 좋아하지 않았다. 일두에게 있어서도 연산군과의 만남은 악연으로 이어진다.

34) 『성종실록』 21년 7월 26일 丙子條 <史臣評>.

35) 『추강집』 권7 「師友名行錄」.

이후 외직(外職)을 자청하여 1494년(성종 25) 일두의 고향 함양 옆 안음현감(安陰縣監)으로 나갔다. 평생 ‘위기지학(爲己之學)’을 위주로 도학을 도야해 온 일두였지만, 안음현감으로 재직하면서는 ‘위인지학(爲人之學)’의 치인자(治人者) 관료로서도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안음을 왕도정치의 이상향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일두는 먼저 《소학(小學)》으로 백성들을 교화하고 풍속을 선량하게 하며 효제(孝悌)의 기풍을 일으켰다. 또 학문을 권장하고 교육에 힘쓰게 하여 안음을 문풍이 살아 있는 고을로 변모시켰으며, 편의수십조(便宜數十條)를 만들어 민생을 위한 각종 어진 정사를 펼쳐 백성들이 심열성복(心悅誠服)하였다고 한다. 이 때문에 안음 사람들은 정여창 사후 80여 년 만에 사당을 세워 그의 공덕을 기렸다.<sup>36)</sup> 한참 세월이 지난 후 김안국(金安國)은 경상도 관찰사로 재직하고 있는 중에 안음, 함양향교의 제생(諸生)에게 보낸 시에서 목민관으로서 일두의 공적을 다음과 같이 높이 현창하였다.

淵源性理鄭先生  
欽賞當時政化成  
餘裕定應敦德行  
須將小學益修明  
金公治化鄭公鄉  
庠塾薰風盡善良  
小學工夫須更勉  
兩賢遺範宜忘

성리학에 연원한 정선생이시여!  
당시 정치와 교화가 제대로 되었던 것을 흠상하네.  
넉넉한 풍속, 응당 덕행에 돈독할 것이지만  
모름지기 『소학(小學)』으로 더욱 닦고 밝혀 나가라  
점필재 김공께서 치화를 퍼신 정공의 고향(함양)  
학교에 훈풍이 불어 모두가 선량하구나  
모름지기 소학 공부에 다시 힘쓰라  
양현께서 남긴 모범 어찌 잊으랴<sup>37)</sup>

#### ■ 사화(士禍)와 유배(流配)

안음현감으로 치화(治化)에 힘쓰고 있던 일두는 연산군 4년(1498) 사초(史草) 문제가 발단이 되어 일어난 무오사화를 당해 김종직의 문도라는 이유로 연좌되어 긴급 체포당하였다. 스승 김종직은 부관참시에 처해지고 동문인 김일손(金駟孫), 권오복(權五福), 권경유(權景裕)는 봉당을 결성 대역을 범했다는 죄목으로 능지 처참되었으며, 표연말(表沿末), 홍한(洪瀚), 정여창 등은 난언을 범했거나 난언임을 알면서도 고하지 않은 죄로 장(杖) 100대에 3천리 밖으로 정배(定配)되었고, 김굉필(金宏弼)을 포함한 많은 선비들이 원지부처(遠地付處)에 처해졌다. 일두의 유배지는 함경도 종성(鍾城)이었고, 김굉필은 평안도 희천(熙川)이었다. 종성으로 귀양 간 이듬해 일두는 동문 이수공(李守恭)에게 보낸 답서에서 귀양살이의 고달

36) 林薰, 『葛川集』 권3, 「文獻公一先生祠堂記」.

37) 金安國, 『慕齋集』 권1 「勘咸陽學者」

품을 토로하면서도 거백옥(遽伯玉)의 고사에 비추어 지난 49년의 생애 동안의 잘못을 조용히 되돌아 볼 기회로 삼겠노라고 말한다.

등잔불을 돋우고 밤을 지새며 말없이 앉았노라니 바보 같네. 훌륭한 선물(瓊琚)을 받고 보니 뜻밖에도 따뜻한 별이 나의 나태함을 채찍질 하네. 기쁨을 진정시킬 수가 없구만. ... 하얗게 센 머리에 여관 신세를 지고 있는데 서캐와 이가 옷에 득실거린다네. 과연 지난 49년 동안 저지른 잘못을 알겠으니, 근심스러운 모습으로 무엇을 곡(哭)하리오.<sup>38)</sup>

일두는 종성에서 7년 간 귀양살이를 하면서 광기어린 세상이 지나가고 좋은 세상이 오기를 기다렸다.

待風風不至	바람을 기다려도 바람은 달지 않고
浮雲蔽青天	뜬 구름이 푸른 하늘 가리었네
何日涼飈發	어느 날 서늘한 회오리바람 불어
掃却群陰更見天	못 그늘 다 쓸어버리고 다시 맑은 하늘을 보네 <sup>39)</sup>

훗날 양재역 벽서사건에 연루되어 일두와 마찬가지로 종성에서 오랜 귀양살이를 했던 유희춘(柳希春)은 당시 종성에서의 생활을 〈종성기문(鐘城記文)〉에 기록했는데, 여기에는 그보다 한참 전 종성에 귀양 왔던 일두의 행적도 기록되어 있다. 유배지 종성에서 일두의 모습은 겸허하고 진중한 도학자다운 풍모를 결코 잃지 않았다고 한다. 항상 이연(怡)한 모습으로 원망과 후회의 기색 없이 편안하고 고요하게 자수(自守)하며, 유배자로서의 말은 바 직임에도 충실하게 복무했다고 한다. 무오사화 당시 유배형에 처해진 사람들은 모두 봉수군(烽戍軍)이나 정로간(庭爐干)의 일을 맡도록 조치되었는데, 정로간은 관아의 뜰에서 불을 피우거나 햇불을 밝히는 일에 종사하는 하예로서 일두는 사신이 공관에 들 때마다 햇불을 잡고 불을 밝히는 일을 매우 공손히 했다고 한다.<sup>40)</sup>

중종반정 이후 무오,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죽음을 당한 이들의 신원과 관직복구가 이루어지는데, 일두는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承政院) 도승지(都承旨) 겸 경연(經筵) 참찬관(參贊官) 상서원정(尙書院正)에 추증되었다가 중종 12년(1517) 정1품 대광보국(大匡輔國) 승록대부(崇祿大夫) 의정부(議政府) 우의정(右議政) 겸 영경연(營經筵) 감춘추관사에 가증 승품되었다. 사람이 세력을 얻은 선조 대에 들어와서는 이전부터 논의가 있어온 동방사현(東方四賢)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에 퇴계 이황을 추가하여 이른바 동방오현(東方五賢)의 문

38) 『일두집』 속집권 「答李仲平」

39) 『일두집』 속집 권1 「鞍嶺待風」

40) 『일두집』 유집 권3 「讚述」 <柳希春 鐘城記文> 최영성, 앞 논문에서 재 인용



묘종사(文廟從祀) 운동이 팔도 유림, 특히 성균관 유생들을 중심으로 벌어졌다. 이 와중에 선조 8년 일두에게는 ‘문헌(文獻)’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선조 연간 끈질기게 계속된 동방오현의 문묘종사 운동은 계속 왕의 비답을 받지 못하다가 광해군 2년 (1610)에 가서야 유림의 숙원인 문묘종사가 이루어졌다.

#### ■ 일두의 학문 경향

일두가 활동했던 시기는 조선 중기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형이상학적 성리학의 융성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아직 계몽적인 개래기(開來期)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두의 학문도 힘써 실천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실천유학이 중심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두는 김종직 문하에서 수학할 때부터 스승으로부터 ‘소학(小學)’의 중요성에 대해 깊은 가르침을 받았으며 김종직의 교과 과정 또한 ‘소학’으로부터 ‘사서’, ‘오경’으로 순차적인 단계를 거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그가 안음현감으로 백성을 치화(治化)할 당시 ‘소학’을 특히 강조한 것도 소학이 갖는 기본 유교윤리의 실천성에 주목했기 때문일 것이다.

일두의 효행은 유명해서 때로는 민자건(閔子騫)이나 증참(曾參)에 비유되기도 했다. 그는 이른 나이(18세)에 부친을 잃은 것을 매우 애석해 했다. 그래서 홀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했다. 젊은 시절 술을 즐긴 일두가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 들 가운데 쓰러져 밤을 새고 들어오자 어머니가 책망하기를 “너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믿을 건 너 뿐이 없는데 지금 이 꼴이니 누구를 믿고 살란 말이나”고 하였다. 이에 깊이 깨우친 일두는 임금이 내린 어주(御酒)나 제사 후 음복주를 제외하곤 술을 입에 대는 일이 평생 없었다고 한다.<sup>41)</sup>

유희춘은 그의 〈중성기문(鐘城記文)〉에서 말하기를 일두의 학문은 ‘독실(篤實)’로써 근본으로 삼고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不自欺)’으로 주를 삼았다고 했다. 일두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자질이 미비하므로 더욱 독실하게 노력해야만 성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나는 바탕이 남들보다 낮다. 만약 십분의 공이 없다면 어찌 털끝만한 효과라도 보겠는가. 비유컨대, 씨를 심어 기르는 것과 같으니, 메마른 자갈밭에는 좋은 벼라도 잘 자라지 않고, 기름진 땅에는 강아지풀이라도 쉽게 자라는 법이다. 만약 북돋우고 호미질하여 잘 가꾸는 노력이 없다면 비록 좋은 땅이 있다고 한들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sup>42)</sup>

일두가 말한 ‘부자기(不自欺)’는 사서 중 《대학》에 나오는 ‘성의(誠意)’를 말한다. 후에 일두를 주벽(主壁)으로 모신 남계서원에 배향되는 인물인 동계(桐溪) 정온(鄭蘊)은 일두

41) 『大東野乘』 권3, 최영성, p33

42) 『일두집』 유집 권3 「讚述」 <柳希春 鐘城記文> “公之，以篤實爲，以不自欺爲主”

에 대해 말하기를.

선생의 학문은 정주(程朱)로써 준적(準的)을 삼았다. 독서는 궁리(窮理)로써 우선을 삼고, 처심(處心)은 불기(不羈)로써 주를 삼았으며, 일용공부는 성(誠), 경(敬)을 벗어나지 않았다. 치평(治平)하는 율령(律令), 격례(格禮)에 있어서는 그 극점까지 궁구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외방 고을을 다스림에 있어서는 이미 그 단서를 보였다.<sup>43)</sup>

즉 일두의 학문은 수기(修己, 爲己之學)와 치인(治人, 爲人之學)을 모두 겸비했다는 말이다. 앞서 일두의 수학시절에 대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두 학문의 기본 지향은 문장(詞章)이 아니라 도학(道學) 즉 경학(經學)과 성리학(性理學)이었다. 경학의 경우 오경(五經)의 뜻을 탐구하되, 특히 《중용(中庸)》과 《대학(大學)》을 정밀히 공부하여 이미 이 분야에서는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었다. 《중용》과 《대학》의 권위자라고 하는 것은 주자학의 권위자라는 말과 동격이다. 원래 《중용》과 《대학》은 원래 《예기(禮記)》 속에 들어 있었으나, 주자가 주자학의 체계 속에서 비로소 독립된 책으로 삼음으로써 사서(四書)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사서의 중시는 곧 주자학의 중시를 의미하고, 더구나 《중용》과 《대학》에 정통하고 밝다는 말은 주자학 내지 성리학에 정통하다는 말과 통한다.<sup>44)</sup>

## 2-2-2. 개암 강익의 생애와 학문

남계서원에 배향된 개암 강익은 일두 정여창의 위판을 봉안하고 향사하는 남계서원을 건립하는데 있어 최대 공로자였다. 실제의 사액(賜額)은 조금 늦어졌지만 서원건립의 역사가 일천했던 당시에 함양 사람의 공론을 형성시키고 10여년에 걸친 서원건립 과정을 주도해서 완공시킨 그의 공적은 작지 않다.

### ■ 생애

개암(介庵) 강익(姜翼)은 향년 45세로 비교적 짧은 삶을 살았다. 개암의 생애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는 문집인 《개암집(介庵集)》에 수록된 만장(挽章)과 제문(祭文)이 있다. 이 두 자료는 개암이 생애와 시기적으로 가장 가까운 기록이라는 의미가 있으나 글의 성격상 개암의 생애의 소상한 부분까지는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그가 몰(沒)한 시점에서 다소 멀어지기는 하나 일생을 보다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자료로는 역시 문집에 수록된 행장(行狀)과 연보(年譜)가 있다. 개암의 자는 중보(仲輔)이고, 호는 개암 외에 송암(松庵)으로도 쓴다. 본관은 진주이다.

43) 『동계집』 권4

44) 안재순, 일두 정여창의 수양론, 동양 철학연구 Vol 38, 2004. p97

아버지 강근우(姜謹友)는 승사랑(承仕郎) 경기 참봉을 지냈고 어머니는 남원 양씨다.

개암은 1525년(중종 18년) 함양군 동쪽 효우촌(孝友村) 본가에서 출생했다. 개암은 어릴 때부터 병약하여 당시로서는 다소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해서 15세 경에 부친의 권유로 향리의 유학자 당곡(唐谷) 정희보(鄭希輔)의 문하에 들어갔다. 이후 개암은 학문 연마에 매진했으나 정작 관직에 나아가는 데에는 뜻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종일토록 앉아 침식을 잊을 정도로 공부에 전념했는데, 자질이 뛰어나 책 한권으로도 문리가 통할 정도여서 스승 당곡이 이를 두고 “용이 날고 봉이 우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능한 것인데, 이 아이의 변화기질이 이처럼 빠르다”<sup>45)</sup>라고 칭찬하였다. 개암은 27세가 되어 처음 과거를 보았다. 모 부인(母夫人)의 명으로 나아가 진사시 3등 18인에 들었다. 이듬해 다시 한 번 과거에 응시한 후로는 다시는 과장(科場)에 나가지 않고 대신 인근 승지(勝地)에 재사(齋舍)나 누정을 만들고 원근 선비들과 교유하며, 학문에 전념하고 내칙(內飭)에 힘쓰는 전형적인 도학자의 삶을 살았다. 26세 되던 해 집 남쪽에 숙야재(夙夜齋)라는 재사를 짓고 인근의 문사 학인들과 교유하였는데, 다음해 덕계(德溪) 오건(吳健)과 동강(東岡) 김우옹(金宇顙)이 개암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 며칠을 함께 유숙하면서 ‘지심(知心)의 우(友)’를 허(許)하였다고 하였다. 31세 되던 해 오건과 함께 지리산을 유람하였는데, 이 때 지리산 북쪽 기슭 등구동(登龜洞)이라는 곳이 마음에 들어 땅을 매입하고 작은 서재를 지어 ‘양진재(養眞齋)’라 불렀다. 원근의 학인들이 소문을 듣고 모여들어 배움을 청했다고 한다.

30세를 전후하여 그의 문명이 높아지자 그를 찾는 제자들이 많았다. 31세에 세운 양진재는 동학 동류들이 교유하는 곳이기도 했지만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학당으로도 이용되었다. 34세 이후 후학양성에 전념하여 문전이 붐볐다고 한다. 그가 주도하여 건립을 추진한 남계서원 역사(役事)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39세 이후에는 남계서원에서 직접 유생들을 가르쳤다. 통독하는 규칙을 정해 매월 초 하루에 문도를 모아 강독을 했다. 일두 정여창의 위판을 봉안한 남계서원의 건립은 개암 강익의 일생의 사업이자 그의 가장 큰 공적이다. 30세 되던 해 개암의 주도로 향중 유림의 공론을 모아 역사를 시작한 후, 42세 되던 해 동재와 서재를 세움으로써 비로소 서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서원이 완공되자 개암은 원장의 직임을 맡아 제향을 주관하고, 원근 학자들의 강학을 주선하기도 하며, 후학교육에 힘썼다. 45세 되던 해 오건(吳健)의 천거로 소격서 참봉을 제수 받고 한양으로 떠날 행장을 꾸리던 중 발병하여 회복하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다.

45) 『介庵集』, 하 「行狀-강위수」 龍之飛 鳳之鳴 固不待習熟而能 此子之變化氣質 若是之速也

선생은 기쁨과 노여움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고, 시비를 입에 올리지 않았으며, 침잠하고 고요했으며 행동은 고인(古人)의 법도를 따랐다. 술을 즐기지 않고 성색(聲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며 일체의 세상일에 담박하였다. 몸가짐은 간명하고 진중하였으며, 사람을 대하는 것이 온화하고 일정하였다.

어버이를 섬길 때는 양지(養志)를 우선으로 삼아 터럭만큼도 의롭지 않은 것으로 마음을 거스르지 않았으며, 집을 다스릴 때는 예경(禮敬)을 주로 하여 천하고 비루 한 것으로 의례를 어지럽히지 않았다.

배움에 있어 스승에게 이어받은 바가 없었으나 스스로 능히 분발하여 깨달았으며, 자나 깨나 성리학을 공부하여 생명의 원천을 탐구하였으며.. 46)

요약하면 개암은 재야의 은일(隱逸)한 선비로서 학문에 전념하면서 후학을 가르치고, 자연 속에서 성정을 기르며, 인근 문사들과 도의(道義)로 교유하는 것을 일생의 즐거움으로 삼았던 인물로 보인다.

#### ■ 사승(師承) 및 교유(交遊) 관계

개암이 처음으로 스승으로 모신 이는 함양의 향유(鄉儒) 당곡 정희보였다. 당곡은 인근의 유생들을 모아 가르쳤는데, 그의 문하에서 급제자가 많이 배출되었다고 한다.<sup>47)</sup> 그러나 후일 개암의 행장을 쓴 동계(桐溪) 정온(鄭蘊)이 지적한 바와 같이 당곡은 개암의 지적요구를 충족시킬만한 경지에 오른 학자는 아닌 것 같다. 따라서 개암의 학문은 상당 부분 자수(自修)와 독학으로 이룬 것으로 보인다.

경상우도(慶尙右道)에 있어서 남명(南冥) 조식(曹湜)의 학문적 권위와 영향력은 매우 컸다. 경상우도 사림의 대다수는 남명의 문도이었거나 남명의 문도임을 자처하고 있었다. 개암은 29세 때 남명을 처음 만났다. 개암이 남명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실은 두 차례가 확인 가능한데, 첫 번째는 개암이 32세 되던 해(명종 9년, 1554) 덕천동에 우거하고 있는 남명을 배알하고 여러 달을 머물고 돌아왔고, 두 번째는 36세 때로 몇 달을 머물면서 남명에게 주역을 배웠다고 한다.<sup>48)</sup>

위 두 차례 외에도 개암이 41세 되던 해(명종 18년, 1563) 남명이 제자들을 대동하고 남계서원을 방문해서 참배하고 강학한 기록이 남아있다. 이때가 서원이 완공되고 일두선생의 위판이 사당에 봉안된 바로 이듬해의 일이었다.

3월에 남계(藍溪書院)에 가서 일두(一蠹) 선생 사당에 배알하고 여러 문생의 강론을 들었다. 선생께서 하항(河洸), 하응도(河應圖), 류종지(柳宗智), 진극경(陳克敬)을 데리고 남

46) 『介庵集』 하 「行狀강위수」

47) 문범두, 개암 강익의 학행과 문학, 한민족어문학 Vol.56, p279.

48) 문범두, 개암 강익의 학행과 문학, 한민족어문학 Vol.56, p280.

계에 갔는데, 강익, 정유명, 정복현, 임희무와 많은 선비가 모여 강학했다. 이에 정선생(鄭先生)에게 이야기가 미치자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학술이 깊고 독실하여 한 점 하자가 없는데, 화(禍)를 못 면한 것은 천운(天運)이었다.”고 하셨다.<sup>49)</sup>

개암(介庵)이 스승 남명보다 앞서 세상을 떴을 때, 남명도 만장(輓章)을 적어 제자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개암이 구체적으로 남명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실제로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개암집(介庵集)》에는 개암이 남명에게 보낸 편지와 남명의 답신이 실려 있다. <상남명조선생서(上南冥曹先生書)>라는 제목의 이 편지에서 개암은 남명이 교지를 받은 것에 대해 한편으로 시세의 혼탁함을 걱정하면서도 사문(斯文)을 위해 출사하실 것을 간곡히 청한다.

임금의 명이 바야흐로 도착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은 고답무민의 즐거움에 있어 조금도 경중을 따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크게 사문(斯文)을 우리 동방에 밝히려나 봅니다. ... 단지 근래 소란이 분분하여 숙손이 성인을 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파리가 똥을 싸도 어찌 옥의 흰색에 해가 되며, 조각구름이 비록 어둡게 하나 어찌 해의 밝음을 덜겠습니까? 바라건대 준괘(蠱卦) 상구(上九, 임금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일을 고상하게 여김)의 뜻을 이루지 마시고 예괘(豫卦) 구사(九四, 예정대로 하면 크게 얻음이 있을 것이라는 괘)를 얻음을 의심치 마십시오.

개암과 교유하며 우의를 나눈 당대의 문사로는 옥계(玉溪) 노진(盧縝), 덕계(德溪) 오건(吳健), 동강(東岡) 김우옹(金宇顙), 개암(開巖) 김우굉(金字宏), 매암(梅庵) 조식(曹湜), 사암(徙庵) 노관(盧祿), 매촌(梅村) 정복현(鄭復顯), 사계(沙溪) 김우용, 사암(思庵) 양홍택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일부 향리의 유생들이고 대개는 남명의 문인들이었다. 이들 중 가장 깊은 친교를 나눈 이는 노진, 오건, 김우옹을 들 수 있다. 특히 노진은 한 마을에서 당곡 정희보를 스승으로 동문수학한 개암의 절친한 벗이었다. 하지만 개암과 옥계의 세교는 훗날 정유재란으로 불타버린 남계서원의 이건을 둘러싸고 이웃한 신계서원과 벌인 양자의 위치 배정 다툼으로 두 벗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큰 오점이 남게 된다. 개암은 이러한 문사들과 자유롭게 교유할 수 있었던 데는 무엇보다 남명 학통이라는 동류의식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들과 교류하면서 개암은 자신의 학문의 방향성을 정립하여 갔다.

49) 『남명선생문집』 「남명선생편년」, 덕천서원, 두류문화연구소, 1980, p388.

## ■ 개암의 학문

「행장(行狀)」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다.

선생이 말하기를 “선비의 학문이 어찌 다만 과학(科擧)의 글뿐이겠는가. 자하(子夏)는 말하기를 옛날의 학자는 ‘위기(爲己)’의 학문을 하였으나, 지금의 학자는 ‘위인(爲人)’의 학문을 한다고 하였다. 선비로서 학문에 뜻을 두었다면 마땅히 ‘위기(爲己)’의 학문을 할 것인가, ‘위인(爲人)’의 학문을 할 것인가”라고 하였다<sup>50)</sup>

‘위기지학(爲己之學)’이란 ‘존천리 거인욕(存天理 去人慾)’, 즉 천리를 구현하고 인욕을 억제함으로써 인간 본성의 바탕인 성(性)을 발현하려는 것으로 맹자의 존심양성(存心養性)에 근거를 둔 함양 성찰의 공부를 말한다. 특히 성종 대 사림의 학풍은 실천적 경향이 매우 강했다. 이 시기 사람들은 유교의 기본적인 실천윤리서인 《소학(小學)》이나 《주자가례(朱子家禮)》 등을 중시하였다.

‘위기지학(爲己之學)’ 공부가 함양 성찰의 공부라는 점에서 이것은 사람들이 중시하였던 도학과도 맞닿아 있었다. 특히 남명은 출사하여 치인(治人)하는 것보다 산림으로서 존양 성찰하는 것에 더 큰 의의를 두고 있었다.

全身四十年前累	온 몸에 두른 사십년의 허물
千斛清湍洗盡休	천 섬 맑은 물로 모두 씻어낸다
塵土能生五內	오장 안에 만약 티끌이 생긴다면
直今割腹付歸流	지금 배를 갈라 흐르는 물에 띄우리 <sup>51)</sup>

이러한 남명의 수기(修己) 의식은 강익의 시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仰天慙白月	하늘을 올려다보니 흰 달에 부끄럽고
臨水愧清流	물을 대하니 맑은 흐름에 부끄럽네
多少心身累	조금이라도 심신에 쌓인 것
何能刮盡休	어찌 능히 다 닦아 낼 수 있으랴 <sup>52)</sup>

개암의 학문적인 지향은 주자학의 본체론이나 심성론 같은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문제에 천착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개인의 성찰을 통한 개인적인 역행에 중점이 두어진 수기록적(修己論的) 실천적 유학을 지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에게는 자신과 교감할 수 있는 자연의 존재가 중요했으며, 그러한 자연의 품 안에서 서재와 재사를 짓고 벗들과 교유하는데서 질박한 처사(處士)로서의 즐거움을 찾

50) 『介庵集』 下, <행장-강위수>.

51) 『남명선생문집』 卷 <浴川>

52) 『介庵集』 上<月夜玩溪有感>

은 듯하다.

### 2-2-3. 동계 정온의 생애와 학문

#### ■ 생애

정온의 호는 동계(桐溪), 자는 휘원(輝遠)이다. 1569년(선조 2) 경상도 안음현(安陰縣)에서 아버지 정유명(鄭惟明, 進士)과 어머니 진양강씨(晉陽姜氏) 사이의 둘째로 태어났다. 정온의 초년시절 스승은 석곡(石谷) 성팽년(成彭年)이었는데, 정온은 자신의 ‘오늘’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성팽년의 훈도 덕분이이라고 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정온에게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친 스승은 그의 나이 31세에 입문한 정인홍으로서 정온은 그와 사제의 연을 맺고 동시에 남명학통에 들어가게 된다.

동계가 24세 되던 해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객재우, 정인홍, 김면을 비롯한 남명문하의 학인들은 의병을 일으켜 왜군과 싸웠다. 동계 역시 왜란이 일어난 직후부터 부친 정유명과 함께 의병장 김면의 막하에서 활동했다. 이 때 동계는 병력을 모으기 위해 창의할 것을 촉구하는 완의(完議)를 초(草)하기도 하고,<sup>53)</sup> 1593년 명군(明軍)이 왜군(倭軍)을 쫓아 영남지역으로 들어오자 지역 사민(士民)들에게 명군을 접대하는데 성의를 다하라는 통문(通文)을 돌리기도 했다.<sup>54)</sup>

임진왜란 이후부터 선조 말년까지 동계의 행적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전쟁 때문에 무너진 강상질서(綱常秩序)를 회복하고 사람들에게 ‘의(義)’의 중요성을 일깨우려는 노력이었다. 동계는 정인홍의 제자가 되면서 남명학파의 사승(師承)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동계 자신도 남명과 마찬가지로 ‘의(義)’를 강조하고 그 실천을 중시했다.

정인홍과 사제의 연을 맺은 이후부터 동계는 정인홍의 충실한 추종자였다. 1608년 북인 중 소북의 영수 영의정 유영경이 왕세자인 광해군을 견제하여 그의 즉위를 막으려했고 이 때문에 정인홍을 중심으로 한 대북파와 소북파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벌어지게 되었다.

정인홍은 이 때 장문의 상소를 올려 유영경을 공박했고, 이것이 선조의 노여움을 사서 이이첨, 이경전 등과 함께 유배에 처해지게 되었다.<sup>55)</sup> 동계는 미출사(未出仕)한 유생의 신분으로 상소하여 정인홍을 옹호하고, 유영경이 왕세자를 교체하려 한다고 공박했다. 1608년 2월 선조가 승하하자 정국은 급변하여 정인홍, 이

53) 『桐溪集』 「年譜」 萬曆 20년 4월

54) 『桐溪集』 「年譜」 萬曆 21년

55) 구덕회, 「선조대 후반(1594~1608) 정치체제의 재편과 정국의 동향」, 한국사론 20, pp262~263.

이첨 등은 죄인에서 ‘공신’으로 신분이 급변하게 되었는데, 바야흐로 대북정권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광해군이 즉위하면서 동계 역시 본격적인 출사 길로 나서게 되었다. 그는 시강원(侍講院) 설서(說書)를 거쳐 사간원(司諫院) 정언(正言)에 임명되었다. 하지만 광해군 초반 동계는 거침없는 그의 간쟁 때문에 광해군에게 노여움을 사는 경우가 잦았다. 기축옥사가 발생하자 동계는 이이첨 등 공신 대신들의 토역설(討逆說)에 반대하여 왕실의 핏줄을 함부로 죽일 수 없으니 목숨만은 살리자는 전은설(全恩說)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폐모살제(廢母殺弟)에 반대하는 상소(甲寅封事)를 올린 동계는 치죄되어 1614년 유배형에 처해진 이후 1623년 인조반정 직후 풀려날 때까지 10년간의 긴 세월 동안 제주도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되었다.

인조반정 이후 동계는 인조의 부름을 받고 조정에 복귀했다. 동계는 ‘혼조(昏朝, 광해군대)에서 절의를 세우다가 유배된 인물’로 평가되어 청요직(淸要職)에 곧바로 등용되었다. 반정에 성공한 서인계 공신들은 대북정권의 중심 세력들을 거의 예외 없이 숙청하고 중앙정치를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그들을 보조하는 형태로 재편하였다. 남인출신 영의정 이원익은 이름만 영의정이지 권한은 거의 없는 구색 맞추기 임명이었다. 동계는 인조반정 이후에도 정인홍의 제자였던 자신의 과거를 결코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반정 직후 처형된 정인홍의 시신을 수습하여 매장했고, 헌납(獻納)에 제수된 직후 올린 사직소(辭職疏)에서도 과거 정인홍이 유영경을 공격했다가 곤경에 빠졌을 때 정인홍을 비호한 사실을 회고하고 반정 직후 유영경이 복관(復官) 신원(伸冤)된 상황에서 떳떳하게 출사할 수 없음을 진언하고 있다.

인조반정 이후 동계가 벌였던 언관 활동 중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반정 주체들이 광해군대 대북과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던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괄의 난이 진압된 직후 발생한 인성군(仁城君) 역모사건에서 인성군을 처단할 것을 주장하는 서인 대신들에 맞서 정온은 대사간(大司諫)으로서 광해군대의 전철을 고려하여 인성군을 죽이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인성군은 선조의 일곱째 아들로 인조의 숙부가 된다.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났을 때 당시 국정을 주도하고 있던 반정공신들 대부분은 후금(後金)과의 화친을 주장했다. 김류, 이귀, 최명길 등 당시 비변사를 장악하고 있던 반정공신들의 이 같은 입장을 인조도 수용하고 내심 지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간(臺諫)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했다. 특히 윤황(尹煌)의 비판은 극렬해서 그는 인조가 후금과의 화친을 받아들인 것은 ‘항복’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동계 역시 정묘호란을 맞아 준열한 척화론을 견지했다. 동계는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인조와 함께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농성하면서도 계



속 화친론을 비판하고 결사항전을 주장했다. 1637년(인조 15) 1월, 청과 굴욕적인 화의가 성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온은 칼로 자신의 배를 찔러 자결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2월 고향으로 실려 가면서 “주상이 옥을 당했으니 신하가 죽는다 해도 이미 늦었다. 다시 무슨 마음으로 남들과 함께 나라에 조세를 바치며 처자식의 봉양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탄식했다. 그리고 고향 근처의 금원산(金猿山)으로 들어가 초가집을 짓고 ‘구소(鳩巢)’라 이름 붙이고 직접 산비탈 밭을 일궈 차조를 심고 생계를 자급했다.<sup>56)</sup> 은거 5년만인 1641년 7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

#### ■ 사승(師承) 및 학문

동계 정온가의 세거지 안음은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으로부터 남명(南冥) 조식(曹植), 갈천(葛川) 임훈(林薰)으로 이어지는 사림적 학통에 영향을 크게 받은 지역이었다. 동계는 부친 정유명(鄭惟明)을 통해서 갈천의 ‘성경지학(誠敬之學)’을, 내암(來庵) 정인홍으로부터는 남명의 ‘경의지학(敬義之學)’을 계승하였다.<sup>57)</sup> 정온은 한평생 관직에의 출처(出處)와 관계없이 일관해서 ‘지경(持敬)’을 지향하는 ‘위기지학(爲己之學)’으로서 수기(修己)를 실천했다. 동계는 옥계 노진(盧縝)의 학문을 높이면서 자신이 평소 지향했던 수신(修身)공부의 목표를 다음 같이 말하고 있다.

옥계공은 중심을 존양(存養)하여 허명(虛明)한 체(體)를 지키고, 외면을 성찰하여 이에 수용하는 용(用)을 이루어 이미 질박하고 실질적인 경지에 이르러 어긋남이 없는 상태를 이루었다.<sup>58)</sup>

한편 동계는 다른 유자들과 마찬가지로 사서육경과 《심경(心經)》, 《근사록(近思錄)》, 《소학(小學)》, 《주자가례(朱子家禮)》와 같은 주자학 텍스트를 중심으로 공부했으나, 경전과 주자학 텍스트에 대한 정치한 이론적 탐구보다는 배우고 익힌 바를 항상 ‘실천’과 결부시킴으로써 내면의 덕성과 인격의 함양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계는 ‘수시로 갑 속에 담아 둔 서릿발 같은 칼을 보며, 그래도 옛 경전을 대하고 앉아 아침을 기다리네.’라는 시구에서 알 수 있듯이, 동계는 불의와 추호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의 비장한 학문적 실천적 결의를 상징하는 것으로 척검(尺劍)을 간직하고 다녔는데, 이것은 남명 조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였다.

56) 허목 『記言』 제9권 桐溪先生行狀

57) 정일균, 「조선시대 거창지역(안음현)의 학통과 사상-갈천 임훈과 동계 정온의 학문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22, 2002, p281.

58) 『桐溪集』, 권1 <夜吟> “時看故劍光侵匣, 猶對前經坐待朝”

동계의 이러한 태도는 병자호란 때 임금이 굴욕적인 항복을 택하자 남한산성에서 할복으로 이어졌다. 동계의 위기지학(爲己之學)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그가 제주도에 유배 중 《덕변록(德辨錄)》을 편찬했다는 것이다. 그는 수기의 최종 도달목표인 군자를 ‘과격하 지도 않고, 아첨하지도 않으며 형통함을 잃지 않는 사람’<sup>59)</sup>이라고 생각했다. 《덕변록》은 중국 은대(殷代)로부터 남송(南宋)에 이르기까지 동계가 생각하는 군자의 기준에 부합하며, 후세의 사표가 될 수 있는 총 59명의 인물들의 사적을 경사(經史)에서 수집 채록한 책이다. 이렇듯 동계는 ‘지경군자(持敬君子)’의 경지를 수기(修己)의 최종 목표로 삼았다. 그런데 유자(孺子)의 책무 중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수기(修己)를 통해 존양성찰(存養省察)한 것을 ‘치인(治人)’에 적용시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것이었다. 동계는 모름지기 선비는 엄정한 출처관(出處觀)에 의거하여 벼슬길에 나아가야 함을 중시했다.

대저 그 사람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면 지혜롭지 못할 것이며,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오히려 미련을 가졌다면 녹(祿)을 탐한 것이다. 도(道)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 떠나지 않았다면 현명하지 못한 것이며,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도 오히려 망설였다면 용기가 없는 것이니, 의리(義理)를 실천하는 것을 즐기고 이록(利祿)을 회피했다는 의미가 어디에 있겠는가?<sup>60)</sup>

또한 동계는 ‘절의(節義)’를 ‘천하의 큰 법도’이며, ‘명분(名分)’이란 국가의 막중 한 도구라고 인식하였다.<sup>61)</sup> 이는 그가 절의와 명분을 단지 개인적 차원의 윤리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협소한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를 위한 핵심으로 이해하는 태도를 표명한 것이다.

천하에는 크게 부촉하는 자가 있나니, 오직 사람의 의리(義)를 부촉하면서 사람의 몸(身)을 부촉하는데 급하지 않은 자는 항상 이름을 얻게 된다. 대개 몸을 부촉함은 그 사람을 죽음에서 부촉하여 살게 하는 것이요, 의리를 부촉함은 그 마음을 소멸에서 부촉하여 보존하는 것이다. 몸을 부촉함은 그 부촉하는 것이 적고 효과도 한 사람에게 그치지지만, 의리를 부촉하면 그 부촉하는 것이 크고 효과는 만세에 드리운다. 의리를 부촉하면 또한 그 사람도 부촉할 수 있어, 장차 천하와 국가도 부촉하게 되는 것이다.<sup>62)</sup>

동계의 학문과 사상은 남명 조식, 내암 정인홍으로 이어지는 남명학파에 기초를

59) 『桐溪集』, 권2 <德辨錄序> “不激不諂, 而不失其所亨者, 其惟君子乎”

60) 『桐溪集』, 권2 <書孔戡墓誌後序>

61) 『桐溪集』, 권2 <太公扶伯夷論> “節義者, 天下之大閑 .... 名分者, 國家之重器, ...”

62) 『桐溪集』 권 <太公扶伯夷論>

두고 있었다. 하지만 동계는 경상우도의 사람들 일반과는 상이한 학문적 경향 역시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우선 동계는 일찍이 21세 때 퇴계 이황(退溪 李滉)의 고제(高弟)인 월천 조목(月川 趙穆)이 있는 예안(禮安)으로 찾아가 제자가 된 바 있었다.

또한 퇴계와 남명의 학문을 모두 수용한 한강 정구의 문하에서도 수학하였다. 그러므로 동계는 경상좌도의 퇴계학파의 입장도 수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첫째, 동계에게는 남명학파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인 노장(老莊)이나 불교 같은 비유교적인 사상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유배지에서 독서에 침잠하여 수 백 여권의 경전과 사서를 두루 섭렵하면서도 ‘빈방은 쓸쓸하고 책상만 하나 있는데, 그래도 노자(老子)와 순자(荀子)의 책은 없다네.’<sup>63)</sup> 라고 말하고 있다.

둘째, 동계는 남명학풍이 공통적으로 보여 주었던 또 다른 특징인 ‘저술경시(著述輕視)’에 대해서도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는 점이다. 남명은 ‘정주(程朱) 이래로 저술은 필요 없고 책에 있는 것만을 실천하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던 반면 퇴계는 실천 뿐 아니라 저술도 매우 중시하였다. 동계는 이러한 두 입장을 절충하여 ‘공맹(孔孟) 이전 시대의 것은 공자와 맹자가 말했고, 정주(程朱) 이전의 것은 정자와 주자가 말했다. 만약 논술하려고 한다면 정주(程朱) 이후의 것은 괜찮다.’라고 하여 남명의 주장을 약간 수정하였다. 이에 동계는 저술에도 힘써서 유배 시에는 《덕변록》을 편찬하였고, 만년 모리(某里)에서 은거할 때는 주자 이후의 제유(諸儒) 및 동방오현(東方五賢)의 언행을 유편(類編)하여 《속근사록(續近思錄)》의 편찬에 착수했으나 완성하지는 못하였다. 한편 동계는 인조반정 이후 북인이 몰락하자 남인으로 처신하였으며 이원익과 함께 실질적으로 남인을 이끄는 위치에 있었다. 남인으로서의 당색 변경이 가능했던 것은 위에서 말한 퇴계학풍의 수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할만한 사실이다.

63) 『桐溪集』, 권1<獨坐> “空齋寥落惟書案, 案上猶無與荀”

## 2-3. 함양 남계서원의 건축관련 연혁 및 지정내용

### 2-3-1. 건축관련 연혁

[표Ⅲ-2] 함양 남계서원의 연혁

건립	1552년(명종7)	정여창이 고향인 함양에서 박승임, 정복현, 임희무 등의 주도로 창립 결의
	1555년(명종10)	원근의 비방으로 공사를 본격화 하지 못하다가 고을 수령 서구연 및 함양 사람들의 미곡 기부를 바탕으로 강당 건립시작 중간에 부모 상을 당한 수령 서구연의 체직과 흉년, 후미 수령의 비협조로 강당 건립 중단
	1559년(명종14)	신임 수령 윤학과 함양, 거창, 안음의 지방관 및 사람의 기부로 강당 건립 완성
	1561년(명종16)	묘우건립완성 정여창의 위판 봉안(2월16일) 관찰사 이감에게 유생 공궤에 필요한 소금, 어물, 종이, 노비, 정철 등을 정기적으로 지원 받는 경제적 조치 확보
	1564년(명종19)	군수 김우흥의 도움으로 동서재 건립, 그 아래 연못을 파 연꽃을 심고 주변에 매화, 대나무를 심음 각 건물의 당호를 짓고 현판을 걸음
사액	1566년(명종21)	관찰사 감사상을 통해 중앙에 사액 요청(6월) 서원 옆에 흐르는 시내의 이름을 따서 “남계”라 사액(7월) 이 해에 서원의 재물이 안 갖추어진 것이 없고 곡물 또한 넉넉해지자 그 재물은 고을 사람들로부터 모은 것이라 하며, 쓸 데 없는 곳에 낭비하지 않고 경내 각 동과 서당, 훈인과 상사비에 도움을 주어 고을 내 서원의 위상을 높이기도 함
	1570년(선조3)	전사청, 누상고, 서변고가 등 건립
이건	1597년(선조30)	정유재란으로 서원 소실, 정경운 등이 위판 매안
	1600년(선조33)	노사계, 정경운, 강위노 등이 나촌으로 이건 계획 이 때 전란으로 함께 퇴락한 신계서원에 모시던 노진과 함사하자는 논의와 함께 강익을 신계서원에 추향하자는 논의가 대두 배향이나 병향이냐를 놓고 노진, 강익의 후손 및 문인들 사이에서 위차 논쟁 발생
	1603년(선조36)	1596년(선조29)에 수령 조동도가 주었던 속공답 18마지기로 서원터를 확보
	1605년(선조38)	이건 완료, 위패 봉안
	1611년(광해군3)	위차 논쟁 끝에 1604년(선조37) 정여창이 문묘에 종사, 신계서원이 독립해 나가면서 노진과 강익을 모심(노진 추향, 강익 배향으로 추정)
	1612년(광해군4)	남계서원은 옛터로 다시 이건
	1623년(인조1)	인조반정, 복인정권 몰락
	1634년(인조12)	강익의 후손이 신계서원에서 또 다시 병향을 주장하여 위차 논쟁이 불거지자 결국 정온의 권유로 남계서원에 별묘를 건립, 신계서원에 있던 강익의 위패를 별묘에 이안

별묘	1642년(인조20)	유효인, 정온을 별묘에 병향, 남인계 서원으로 성격 변화
	1677년(숙종3)	정온을 별묘에서 본사로 숭배
	1686년(숙종12)	남계서원에서 강익의 문집<개암집>개간
	1689년(숙종15)	강익을 별묘에서 본사로 숭배
	1728년(영조4)	이인좌의 난, 하동정씨들이 공을 세움, 노론계 서원으로 성격 변화
	1779년(정조3)	정여창의 후손 정덕제가 함양 사람들의 공론을 거치지 않고 노론 관료 김종후에게 청탁하여 남계서원묘정비문을 받음 내용 중 성리학의 도통을 말하면서 회재 이언적을 언급하지 않은 점과 남계서원 건립에 고을 여러 사람이 간여하였는데 유독 강익의 이름만 언급하였다고 하여 노진의 후손이 도끼로 비문을 찍어 김종후의 이름을 파내는 묘정비 사건 발생
기타	1820년(순조20)	별묘에 정여창 현손 정흥서 추향 초창기 사림 주도에서 문중서원으로 성격 변화
	1841년(헌종7)	외삼문 위에 후손 정환필의 주도로 풍영루 건립
	1849년(헌종15)	1847년(헌종13) 화재로 풍영루 증건
	1868년(고종5)	별묘훼철
	1871년(고종8)	서원철폐령, 남계서원은 정여창을 향사한다는 이유로 존립
	1922년	장판각 증건
	1935년	서원지 간행
	1937년	풍영루 중수 정축년(1937)에 옛 것을 바꾸어 개축하니, 제도(制度)는 옛 것을 따르면서도 완미(完美)함이 더욱 나아졌고, 정사(正祠)와 강당(講堂)에서부터 동·서재(東西齋)의 작은 집들에 이르기까지도 아울러 모두 새롭게 만들었다
	1940년	풍영루 중건기(민병승)
	1950년	토지개혁으로 토지분배
	1974년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91호로 지정
	1982년	경판각 보수
	1984년	재실보수
	1990년	풍영루 산자이상 해체보수
	1992년	경판고, 화장실 보수
	1994년	사당, 내삼문 보수
	2004년	동,서재 기단보수 , 연지석축과 배수로 보수, 풍영루 좌측담장 보수
	2006년	남계서원 송림보호공사 - 재선충 방재, 대나무 등 잡목제거 , 담장보수 - 75.8m
	2009년	사적 제499호로 승격 지정 (지정면적 4,810㎡)
	2010년	소화시설 설치공사
	2013년	풍영루, 경판고, 화장실 보수 , 담장정비 44m

## 2-3-2. 지정내용

- 문화재종별 : 사적(史蹟)
- 지 정 번 호 : 제499호
- 문 화 재 명 : 함양 남계서원(咸陽 濫溪書院)
- 지 정 일 : 2009년 05월 26일
- 소 재 지 :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남계서원길 8-11(원평리 586-1)
- 소 유 자 : 남계서원
- 관 리 자 : 정 이 상
- 점 유 자 : 남계서원
- 지정/보호구역(단위 m<sup>2</sup>)
- 보호물 및 부속물 : 수량 10동(지정)

[표Ⅲ-3] 함양 남계서원 문화재지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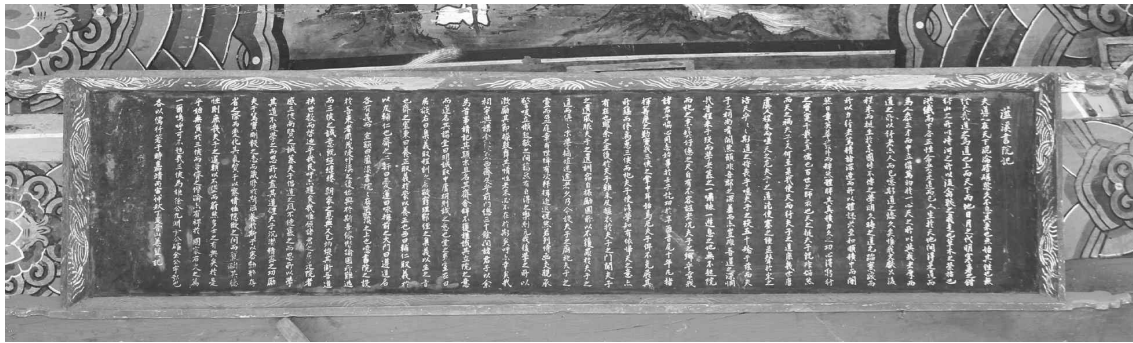
지정일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2009.05.26.	수동면 원평리	26-1	임	5,788	976	남계서원	
상동	상동	586-1	대	5,088	3,194	상동	
상동	상동	587-5	대	150	150	상동	
상동	상동	685	대	1,550	354	상동	
상동	상동	718	도	1,254	136	국토해양부	
합계				13,830	4,810		

[표Ⅲ-4] 함양 남계서원 건축물 현황

명칭	수량	소재지	소유자	비고
사당	1	함양군 수동면 남계서원길 8-11(원평리586-1)	남계서원	보호물
내삼문	1	상동	상동	상동
전사청	1	상동	상동	상동
명성당(강당)	1	상동	상동	상동
보인재(영매헌)	1	상동	상동	상동
비각(묘정비)	1	상동	상동	상동
양정재(애련헌)	1	상동	상동	상동
경판각(장판각)	1	상동	상동	상동
풍영루	1	상동	상동	상동
화장실	1	상동	상동	상동
고직사(관리사)	1	상동	상동	부속물
협문	1	상동	상동	상동
계	10			지정

### 2-3-3. 기문류

#### 盤漢書院記(강익)



[그림 III-3] 남계서원기

夫道之在天下。渾淪磅礴。悠久不息。其來也無始。其往也無終。大哉道之爲道也。上而天。下而地。日月之代明。寒暑之錯行。山之所以峙。河之所以流。禽獸之飛走也。草木之榮枯也。洪纖高下。各正性命者。是道而已。人生於天地間。得是道而爲人。參三才而中立。備萬物於一心。天之所以與我者厚。而道之所以行者。亦人而已。噫。斯道之熄久矣。惟我文獻公。後程朱而挺生於東國。傳不傳之學。明久晦之道。允蹈實踐而所以力行者篤。精詣深造而所以體認者至。和順積中而闇然日章。英華發外而粹然體胖。其眞積力久之功。心得躬行之

實。寔千載之眞儒也。百世之師表也。天之挺夫子。旣非偶然。而天之禍夫子。又何至是哉。使天而行夫子之道。庶幾世唐虞。人程朱。而嗟天之厄夫子之道。徒使塞之鍾。并聲於宋之涪。天乎天乎。斯道之將喪乎。噫。夫子之歿。五十稔于茲。而夫子之祠。尙有闕然。顧非吾郡之深羞。而亦豈非吾道之深痛哉。昔程朱子歿。而學者慕之。一嘯詠一游息之地。無不起院而祠之。秉彝好德之天。自有不容誣者。況夫子之鄉乎。幸我諸君子。協心同志。始事於壬子。訖功於辛酉。首尾十年。凡指揮籌度之勤。實我三侯之掌中耳。始焉厄夫子。俾不克展其

所蘊。而終焉惠三侯而祠夫子。使後學知有依歸。天之意亦有在也耶。余之生。後於夫子。雖未及摳衣於夫子之門。聞夫子之遺風。服夫子之遺訓。竊自振勵。圖所以不獲罪於夫子之道。而俛俛末學。擿埴迷途者久。乃今設夫子之廟。祀夫子之靈。而盈庭章甫。升降有次。拜揖進退。恍然若列侍函文。親承警咳。立懶起敬之間。藹然有自得之樂。則凡我後學之所以激勵其節操。鼓舞其性情者。未必不在於斯矣。吁亦幸矣哉。祠宇與講堂暨東西齋及乎前門。總三十餘間。諸君子以余爲首事。請記其顛末。且名其齋舍。辭不獲。謹識其立院之意。而遂名其講堂曰明誠。取中庸明則誠之意也。堂之夾室。左曰居敬。右曰集義。取程訓之居敬窮理。鄒經之集義以生之旨也。齋之室。東曰養正。取義於蒙以養正也。西曰輔仁。取義於以友輔仁也。齋之二軒。曰愛蓮。曰詠梅。前之大門曰遵道。名各有義。而宣額曰蓋溪書院。院在蓋溪之上也。噫。書院之設於吾東者。周武陵竹溪之後。始興於斯。吾儕僭

躋。固所難逃。而三侯之誠意。既極縉綬。朝家之恩典。又已炳煥。其衛吾道扶世教。而啓迪乎我民。吁亦躋矣哉。惟願諸君之居是院者。感三侯尚賢之誠。慕夫子倡道之風。不徒慕之。而思所以學其道。不徒學之。而思所以盡其道。體夫子沈潛精密之功。勵夫子篤實剛毅之志。而藏修於斯。涵養於斯。于以審動靜存省之際。而變化其氣質。于以察性情隱微之間。而薰陶其德性。則庶幾夫子之道賴以不墜。而蔚然多士之有興矣。於是乎始無負於三侯。而吾儕之僭躋。亦有裨於國家右文之萬一爾。嗚呼。可不勉哉。三侯爲誰。徐公九淵。尹公確。金公宇弘也。各以儒行著于時。嘉靖丙寅仲秋丁亥。晉山姜翼記

#### 남계서원기<sup>64)</sup>

무릇 「도(道)」라는 것은 天下에 꼭 찬 한 덩이 크고 오래된 신비로운 것으로 어디에서 온 것인지 어디까지 가는 것인지 무한한 존재이다. 해와 달이 비치고 춥고 더운 季節이 오가고 산이 솟아 있고 물이 흐르고 새와 짐승이 살고 초목이 자라나는 일들이 각기 성품대로 이 道를 따를 뿐인 것이다. 사람도 세상에 태어나서 이 道를 얻어 사람이 되어서 三才(天·地·人)에 참여하고 一心에 모든 이치를 갖추어 살아 갈 뿐이라. 불행하게 이 道가 종식한지 오래 되었더니 우리 文獻公이 程子和 朱子를 뒤이어 이 東國에 태어나시어 끊어졌던 學問을 전하고 어두워진 이 道를 다시 밝히는데 그 일을 실천에 옮기고 노력하고 精進하고 造詣를 깊이 하여 體驗을 確行하고 和順한 德이 內實에서 밝게 빛나고, 호걸스럽고 슬기로 움이 外表에 나타나는 모습이야 말로 몇 천년 만에 볼 수 있는 眞儒요 百年에 이르도록 師表가 되실 분이다. 하늘이 先生을 내심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닐텐데 그 종말은 어찌 이러할고, 하늘이 선생의 道를 행해지도록 잘 돌보셨다면 세상은 태평성세요 사람들은 착하기만 할 것을 결국 宋나라 涪翁(黃庭堅의 號)의 말로와 같게 하였으니 天乎 天乎아. 斯道를 장차 없어지게 하심입니까. 噫라 선생이 돌아가신지 50년이 되도록 선생의 祠堂이 세워 지지 않았음은 우리 고을의 수치요, 吾道의 슬픔이 아닐 수 없다. 옛적에 程子和 朱子가 죽고서 學者들이 追慕하여 한번 휴식하고 한번 바람 쏘인 곳마다 院을 세워서 제사하였거늘 향차 선생의 故鄉에서라. 다행히 뜻을 같이한 사람들의 協力으로 壬子年(1552)에 일을 시작하여 辛酉年(1561)에 마쳤으니 十年동안에 이루어진 것이 실로 우리 三侯(三人의 郡守)의 덕분이다. 처음에는 어려운 점도 있었으나 마침내 三侯의 힘을 입어 선생을 제사하고 後學들에게 의지할 바를 마련하게 되니 하늘의 도움인가 싶다. 내가 늦게 태어나서 비록 선생의 문하에서 배우지는 못하였으나 선생의 遺風을 듣고 선생의 遺訓을 새겨서 선생의 道에 罪人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한지 오랜만에 이제야 선생의 廟를 세우고 선생의 靈을 제사함에 있어서 많은 선비들이 오르고 내리는데 차례가 있고 절하고 국궁하고 행동하는 凡節이 스승을 뵈시고 가르침을 받는 듯한 상태에서 깨닫는 보람이 顯著하니 우리 後學들이 각기 節操에 힘쓰고 情性을 鼓舞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祠宇와 講堂, 그리고 東西齋에서 前門에 이르기까지 모두 30餘間이 되며 여러 분의 公論에서 나에게 記文을 마련하고 齋舍의 이

64) 이동영, 강개암의 시조와 서원창 건, 어문교육노집, 1981, p 20



름도 지으라고 하기에 삼가 文院의 취지를 쓴다. 講堂을 “明誠”이라 이름 한 것은 中庸에서 “明則誠”이란 뜻을 가져옴이 오, 堂의 夾室을 왼편은 “居敬”이요, 오른편은 “集義”라 함은 程訓의 居敬窮理와 孟자의 集義以生의 뜻이다. 齋의 東室을 養正이라 함은 “蒙以養正”에서, 西室을 輔仁이라 함은 “以友輔仁”의 뜻이다. 齋의 二軒을 “愛蓮” “詠梅”라 하고 앞 大門을 “遵道”라 함은 이름이 각각 뜻이 있음이오 官額을 藍溪書院이라 함은 院이 남계 위에 있음이다. 噫라! 서원이 우리나라에서 세워지기는 周武陵(世鵬)이 竹溪에 세운 뒤 처음이다. 우리들의 이 일이 너무 지나치다 할 수 있으나 三候의 성의가 극진하고 나라의 은혜가 밝게 비취 주심에 우리 道를 보호하고 이 世代의 教化를 발전시키기에 아름다운 일이라 하겠다. 바라건대 이 院에서 기거하는 諸生들은 三候의 先賢에 대한 성의를 고맙게 여기고 선생이 斯道를 불러일으킨 功德을 생각하려면 생각할 뿐만 아니라 道를 배울 것이며, 배울 뿐만 아니라 道를 닦기에 극진하여서 先生 沉潛하고도 精密한 공을 본받고 선생의 篤實하고 剛毅한 意志를 가다듬어 가며 여기에 修藏하고 여기서 涵養시켜 動靜과 存省의 지음을 살피서는 그 氣質을 변화하고 情性の 隱微한 때를 살피서는 그 德性を 익힌다면 행여나 선생의 道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많은 선비들이 일어나서 三候의 공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의 지나쳤던 일이 도리어 나라의 文化를 펴기에 도움이 될 것인지 노력할 지어다. 三候가 누구인가 하면 徐九淵과 尹確과 金宇弘이니 모두 儒行으로 당시에 著名하였다.

嘉靖丙寅年(1566년) 仲秋 丁亥日 晉山 姜翼짓다.

#### ■ 藍溪廟庭碑(김종후)



[그림 III-4] 남계묘정비

我東自箕子以夷爲華。旣二千有餘年。而儒學猶蔑蔑。高麗有一鄭圃隱。而論者或以忠節掩之。當時蓋未知尊也。其卓然爲斯道倡。接墜緒於中土者。實自寒暄金先生一蠹鄭先生始。繼之以諸老先生六七作。至于今磊落燁赫。而天下道統之傳。歸于我矣。猗歟盛哉。然而金鄭二先生皆遭禍。言論風旨不甚顯。此學者所以想慕痛慨於千載之下者也。鄭先生。世居咸陽。子孫尙傳守焉。嘉靖年間。有介菴姜先生翼。倡議立濫溪書院。以祠先生。丙寅賜額。蓋國朝之有書院。創于周武陵之竹溪。而濫溪次之。嗚呼。先生者。學者之祖也。濫溪者。書院之宗也。豈復有尙於此者乎。書院之作。踰二百年而庭無碑。諸生方謀伐石刻辭以豎之。徵文於鍾厚。鍾厚不敢以匪人辭。謹按。先生事行大致。略著於實紀。而其英姿異行。見聞皆服。斯固大賢之一節。至若究貫經子。辨析性氣。則秋江南公贊述備矣。後生小子。何敢更容摸象也哉。其旌褒則發自靜菴先生。以及鄭文翼公光弼。李文忠公元翼。相繼陳于朝。遂於萬曆庚戌。從祀孔子廟庭。肅宗乙卯。以鄭桐溪先生。配享書院。己巳。又享以姜介菴。皆多士疏請得命也。介菴先生。少趺弛不羈。變而之道。醇如也。誠孝出天。學造精微。立法以貴自得。務勉強爲主。用薦除昭格署參奉。未拜而卒。時年四十餘。而同時儕流。推之爲老成宿德焉。桐溪先生諱蘊。舉進士。薦以行誼。尋擢文科。官止吏曹參判。正色直言以立朝。廢主時。斥殺弟錮母妃之議。竄濟州十年。後當仁祖丙子。在南漢園中。屢抗章力爭和虜。不得則抽佩刀刺腹。不殊。屏居巖谷以終。遂以身負天下萬世綱常之重。噫。鄭先生之道。尙矣。若姜鄭二先生。或以篤學。或以峻節。皆從與享之。斯可以永垂來後而不泯。何待碑哉。雖然。從今以往。入是院而睹是碑者。爲激感於諸先生之道德節義而知自勵。入而孝順於家於鄉。出而忠於國則碑亦有助矣。諸君子盍相與勉之。後學清風金鍾厚撰。黃運祚書

## ■ 남계묘정비<sup>65)</sup>

우리나라는 기자(箕子)가 미개한 나라(夷狄)를 문명국(中華)으로 만든 이후 2천여 년 동안에 유학(儒學)은 존재가 없었다가 고려(高麗)에 와서 정포은(鄭圃隱, 정몽주鄭夢周)한 사람이 있었으나 논자(論者)들은 그의 충절(忠節)만을 말하고 유학은 덮어두고 말하지 않았으니, 당시에는 대체로 유학을 높일 줄을 몰랐다. 이에 우뚝이 사도(斯道)를 위하여 땅에 떨어진 유학의 실마리를 중국에서 이어온 이는 실로 한훤(寒暄) 김선생(김굉필金宏弼)과 일두(一蠹) 정선생(정여창鄭汝昌)의 뒤를 이어 제노선생(諸老先生) 예닐곱 분이 나와 대대로 일어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크게 빛나서 천하의 도통(道統)이 우리나라에 돌아왔으니 아름답고도 훌륭하구나. 그러나 김(金)□정(鄭) 두 선생은 모두 화를 입어 언론(言論)과 풍지(風旨)가 크게 드러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학자들이 오래도록 사모하고 가슴 아파하는 이유이다.

정선생(鄭先生)은 함양(咸陽)에 세거(世居)하였으므로 그 자손이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다. 가정(嘉靖) 연간에 개암(介菴) 강익(姜翼) 선생이 발론하여 남계서원을 세워 선생을 제사하였고, 병인년(1566, 명종 21)에 사액(賜額)되었다. 대개 우리나라에 서원(書院)이 있

65)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총서,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남계묘정비(濫溪廟庭碑)」

게 된 것은 주무릉(周武陵, 周世鵬의 별호)의 죽계서원(竹溪書院)이 최초이고 남계서원이 그 다음이다. 아, 선생은 학자의 모범이고 남계는 서원의 으뜸이다. 어찌 이보다 더할 것이 있겠는가? 서원을 창건한 지 2백여 년이 지나도록 비를 세우지 못했는데 이제 여러 선비들이 돌을 다듬고 비문을 새겨 세울 것을 의론하고 종후(鍾厚)에게 비문을 짓기를 청하므로 종후는 감히 책임자가 아니라고 사양할 수 없었다.

삼가 상고하건대, 선생의 사업(事業)과 행실(行實)의 대체(大體)는 《실기(實紀)》에 대략 나타나 있다. 그 영특한 자질과 탁월한 행실은 보고 들음에 모두 탄복하겠으니, 이는 진실로 대현(大賢)의 일절(一節)이라 하겠으며, 경(經)□자(子)를 연구하고 성정(性情)과 이기(理氣)를 명백히 분석한 것 등은 추강(秋江) 남공(南公 남효온南孝溫)의 호의 찬술(撰述)에 자세히 갖추어 있으니, 후생이 어찌 감히 다시 이를 본떠서 말하겠는가? 공을 정려(旌闡)하고 포장(褒獎)한 것은 정암(靜庵) 선생에서부터 문익공(文翼公) 정광필(鄭光弼) 문충공(文忠公) 이원익(李元翼)에 이르기까지 조정에 계속 건의하여 마침내 만력(萬曆) 경술년(1610, 광해군 2)에 공자묘(孔子廟)에 배향되었다. 이는 모두 여러 선비들의 소청(疏請)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개암(介菴)은 젊어서 구속되는 바 없이 행동하였으나 자라서는 기질을 변화시켜 도(道)로 들어가서 마침내 순후(醇厚)하게 되었다.

타고난 호성(好成)에다 학문은 정미(精微)한 경지에 이르렀고 법도를 세움에는 스스로 터득하는 것을 주로 삼았다. 천거에 의해 소격서 참봉(昭格署參奉)에 임명되었는데, 임명되고 나서 곧 죽었다. 이때 겨우 40여 세였으나 당시의 동료들이 모두들 노성(老成)한 숙덕(宿德)으로 높였다. 동계(桐溪) 선생의 휘는 온(蘊)이다.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고 행의(行誼)로 천거되었다. 얼마 후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벼슬이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이르렀다. 조정에서는 엄정한 태도로 곧은 말을 잘하였고 폐주(廢主 광해군) 때에는 아우를 죽이고 모비(母妃)를 금고(禁錮)하는 의론을 반대하다가 10년 동안이나 제주도에서 귀양을 살았다. 그 후 인조(仁祖) 병자호란(丙子胡亂) 때에는 여러번 소를 올려 오랑캐와 강화하는 것을 간쟁하다가 되지 않으므로 차고 있던 칼을 뽑아 할복(割腹)을 기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그 후로는 은퇴하여 산속에서 세상을 마침으로써 천하 만대의 막중한 강상(綱常)을 한 몸에 짊어졌다. 아, 정 선생의 도는 높기도 하였고 강, 정(姜鄭 강익, 정온) 두 선생은 하나는 독학(篤學)으로, 하나는 높은 절의로써 모두 여기에 모셔지게 되었으니, 이는 길이 후세에 썩지 않을 만하다. 어찌 비석을 세워야만 전할 것이겠는가. 그렇지만 이후로 이 서원에 들어와서 이 비를 보는 사람들이 이 비로 해서 여러 선생들의 도덕과 절의에 감격하여 스스로 힘쓸 바를 알아, 들어와서는 집에서 효도하고 마을에서 공순하며 나가서는 나라에 충성한다면 이 비를 세우는 것 또한 도움 됨이 있을 것이다. 여러 군자들이여, 어찌 서로 면려(勉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후학 청풍(淸風) 김종후(金鍾厚)가 짓고 황운조(黃運祚)가 쓰다.

■ 風詠樓記(정환필)<sup>66)</sup>



[그림 III-5] 풍영루기

菌 院之創設久美 始於周武段竹 之後 而創之者 推介蓄美先生世 介蓄生干文獻公 五十載之下 慕先生之德 講先生之道 與鄉士苦辛人 心協贊 立拘字講堂東西齋及 前門數十餘間 以爲尊先賢瞻後學之地 而供以命各有義 苦明誠居敬集義之類 是世 旦夫 愛違 餘梅者 齋前塔塔外築 違可賞而梅可賦世 違道者 由是 而行道在所於是平院之制始大備美

然而學者於講論遊息之假 不可無幅敘之所 先父老圖推經始之未違者 數百年干沒 美 適於度子秋 儒議復起屬家兄換祖幹其事 蓋以其尊賢衛道 風有誠刀故耳 干以營 籍百務 實檢舉是虛君光表美君大#族弟換龍赤與有相萬 威以請與其創立層樹 徒 取觀美 苦因舊貫增新制 懷布我胸次世 違就遺道門上 之以小樓 樓凡上下十許 間 以聖年辛五 落之遠近章商 濟濟資主守美候葬文赤來會 讓之風 進j長之節然可觀世

夫樓之爲制世不宜安傑而與輪輩革 條然改觀不百尺而臨 有 望之收 部網平 噴 澤榮洞 違林患舊 晚屬依 巖數黨 入幕雨而半隱 潛面 帶朝而全露 竹相前村 鳥偶春 種 古卷 老農知秋風 呈美 煙震獻技 一管千奇 光懷難狀 登 所樓世 則心廣神治 泳權落 條然有 得意道 制平頭流萬之掌 花林九曲之流 成 可以覽先生之清風 仰先生之氣象 倍苦列侍函造 有點世煙雨舍惡之 故因名之風 說樓 苦遺道舊 則介蓄之錄號 梅蓄之心畫 列提干門上 以示不保先賢績之意 處 普點夫子之徒世 旨濟先生之徒世 學夫子而有風平說而之則學先生者 烏可無 一般道想邪 違援惡而爲之歌

麗景遇遇今 增平春服 無小無大今 冠童 屬 高壽今 室舍遊息 優遊妖今 使 得 見大意今 融理而聯慾 菌水之洋洋今 可以浴 孤臺之乾乾今 可以風 沒樓之 適成今 將說歸落成之 鄉長老屬 舍爲之記 舍以護識 極知傳次 而長老之勤託 有不可孤 是爲之記

崇禎四辛丑中庚日 文獻公後孫進士煥弼謹題

66) 「풍영루기(정환필)」와 「풍영루중간기(기정진)」, 「풍영루중간기(민병승)」

## ■ 풍영루기

남계서원(濫溪書院)이 창건된 지는 오래된다. 주무릉(周武陵)의 죽계서원(竹溪書院) 뒤에 처음 창건된 것이고 창건한 사람은 개암(介菴) 강선생(姜先生, 姜翼)이다. 개암(介菴)은 문헌공(文獻公)보다 50년 뒤에 태어나서 선생의 덕을 사모하고 선생의 도를 강론하였다. 고을의 선비 몇 명과 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사우(祠宇)와 강당(講堂)과 동서재(東西齋)와 전문(前門) 등 수십여 칸을 세워 선현(先賢)을 존모하고 후학(後學)을 계도하는 장소로 삼았다. 그리고 이름을 붙여서 각기 의미를 부여하였으니, 명성(明誠), 거경(居敬), 집의(集義)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또 애련(愛蓮), 영매(詠梅)라고 한 것은 서재(書齋) 앞에 연못을 파서 연꽃을 심고 연못가에 단을 쌓아 매화를 심어서 연꽃을 감상할 수 있고 매화꽃을 두고 시를 지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준도(遵道)라고 한 것은 이곳을 통해서 들어가면 도가 그 안에 있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해서 서원의 규모가 비로소 크게 갖추어졌다.

그러나 배우는 사람들이 강론(講論)하고 유식(游息)하는 여가에 창서(暢敘)할 곳이 필요해서 돌아가신 부로(父老)들이 지으려고 도모하다가 미처 짓지 못한 지가 지금 수백 년이나 된다. 경자년(1840, 현종 6) 가을에 유림(儒林)의 의논이 다시 일어나서 가형(家兄) 환조(煥祖)에게 그 일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였다. 대개 선현을 존모하고 도를 수호하는데 젊어서부터 성력(誠力)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건축하는 온갖 일을 실제 검속해서 올바르게 되도록 하였고, 노광표(盧光表)군과 강대로(姜大魯)군 및 족제(族弟) 환룡(煥龍)도 또한 참여해서 도왔다. 모두들 ‘보기에 아름답게 하려고 누각을 새로 짓기보다는 차라리 우리의 가슴을 탁 트이게 하도록 옛 건물에다 새로운 건물을 붙여서 짓는 것이 낫다.’고 하였다.

그래서 서원 정문인 준도문(遵道門) 위에다 작은 누각을 붙여서 짓게 되었으니, 누각은 상하 10여 칸이고, 이듬해 신축년(1841, 현종 7) 6월20일에 낙성하였다. 원근의 선비들이 많이 찾아와서 축하하고 고을 수령 강이문(姜.文) 군수도 또한 참석하니, 읍양(揖讓)하는 모습과 진퇴(進退)하는 절도가 굉장히 볼 만하였다. 누각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아도 금방 웅장하고도 화려하게 바뀐 모습을 드러내니, 백 척의 높이가 되지 않는데도 우뚝 높이 서 있어서 사방의 전망이 하나 같이 좋았다. 들판이 널찍하게 탁 트여 있는 곳으로 시내는 구불구불 흐르고, 먼 산 푸른 숲이 무성한 속에 저녁노을이 어른거린다. 백암산(白巖山)의 몇 개 검푸른 봉우리는 저물녘 내리는 비에 그 모습이 반쯤은 가려 있고, 뇌계(雷溪)의 한쪽 면은 아침 해를 받아서 그 모습이 온전하게 드러난다.

대나무와 잣나무 우거진 앞마을에는 우는 새들이 봄을 재촉하고, 벼가 가득한 옛 길에는 늙은 농부가 가을이 온 것을 알고 있다. 바람과 달은 아름다움을 드리우고 안개와 노을은 재주를 바쳐서 한 번 슬쩍 보아도 펼쳐진 기이한 모습이 만 가지라 황홀해서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이 누각에 오르면 마음은 넓어지고 정신은 즐거워져, 잠겨들고 씻기

어서 느긋하게 자득(自得)하는 의사가 있게 된다. 더구나 두류산(頭流山)의 만 겹 봉우리와 화림동(花林洞)의 아홉 구비 물줄기가 선생의 맑은 풍모와 선생의 기상을 우러러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마치 열을 지어서 선생을 모시고 있는 모습과 흡사해서, 증점(曾點)이 공자(孔子)의 물음에 타고 있던 거문고를 크게 한번 툭긴 다음 그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뜻을 말하던 아취가 있었기 때문에 풍영루(風詠樓)라고 이름을 붙였다. 준도문의 옛 편액은 개암(介菴)이 이름을 지은 것이고 매암(梅菴)이 글씨를 쓴 것이므로, 준도문 위에 걸어두고 선현이 남긴 자취를 없애버리지 않는 뜻을 보였다.

아, 증점은 공자의 제자이고, 우리들은 선생의 제자이다. 공자를 배우면서 풍영(風詠)의 아취가 있었다면, 선생을 배우는 이들도 어찌 같은 생각이 없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거문고를 타면서 다음과 같이 노래 부른다.

麗景遲遲兮	고운 별은 더딘데
增乎春服	봄옷 차려 입었다오
無小無大兮	큰 사람 작은 사람
冠童五六	어른과 어린아이 대여섯 명
鳳凰高騫兮	봉황 타고 하늘 높이 날아올라도
.余游息내	어찌 노닐며 쉬지 않으랴
優遊厭飫兮	여유롭고 배부르게 지내면서
使自得	스스로 만족 한다오
已見大意兮	이미 대의를 보게 되어
融理而蛻慾	이치를 녹여내고 욕념을 벗어 버렸다오
蓋水之洋洋兮	남수는 일렁일렁
可以浴	목욕을 할 수 있네
孤臺之屹屹兮	높은 대는 우뚝하네
可以風	바람을 쐬 수 있네
茲樓之適成兮	때마침 이 누각이 세워졌으니
吾將詠歸颿颿	내 알맞게 읊조리며 돌아오리라

낙성하던 날 고을 어른들이 나에게 기문(記文)을 지어달라고 부탁하였다. 나는 식견이 보잘것없어서 분에 넘치는 일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어른들의 애써하는 부탁을 저버릴 수 없어서 이렇게 기문을 짓는다.

1841년(崇禎 四辛丑) 중경일(中庚日) 문헌공(文獻公) 후손 진사 환필 삼가 쓰다.

## ■ 風詠樓重建記(기정진)



[그림III-6] 풍영루중건기(기정진)

大行王十三年丁未 濫溪書院之風詠樓燬粵三年己酉 始克重建 上庠生鄭煥弼 一蠹先生裔孫致多士之意 命其友生奇正鎮記之 正鎮踟躇不敢卽滋筆 先問樓所以命名之由 煥弼曰

蓋聞聖人之於道 未嘗爲一隅語 且言其一二則如山水言仁智之樂 崇卑狀知禮之德 堂室況造道之域者 皆是也 推斯義也 曾氏之沂上風詠 與顏子之巷居如愚 規模氣象 雖有不同 而學者不可廢一而不講也明矣 是院之有居敬集義齋者 蓋將追曾孟之志 以事體用之學 是所謂學顏子之所學 而張而不弛 文武不能 發舒精神 休養性情 又烏可無一段事乎 此樓之所以創於後而命名之不得不然者也 正鎮作而對曰

不亦善夫 其名之也 此固鄙生之所願聞 學者之登斯樓入斯齋者 卽齋樓之扁而體認之 亦可以不迷於所從矣 正鎮又何辭以贊 第念風詠之旨 與鳶飛魚躍 同活潑潑之地 豈可但以張弛言乎哉 此事只問天姿學力 曾氏惟天姿高 能不由階級而優見大意 無曾氏之天姿 而慕曾氏之風詠 非學力何以哉 惟守之久而後居之安 居之安而後資之深 資之深而後左右逢其原 於是乎舍瑟之對 在吾方寸間矣 所守之地 豈有他哉 不過所謂敬與義而已 先生之淵源實學 雖非後生之蠡測 集諸先生之尙論而想像之 蓋所謂不動而敬 不言而信者 其深厚篤實何如也 及味孤舟下江數句 則隱然有風浴氣象 此豈懸慕企望而得之哉 守之久而自至耳 正鎮衰遲錮廢 雖不獲趁於藏修之列 願與諸君子相勉焉

院有正宇 以享先生 而桐溪介菴二先生配侑焉 有別祠 濔溪松灘二先生享之 頭流白巖濫溪渭水 皆眺望山水之可記者云

崇禎四己酉臘月下澣後學幸州奇正鎮 謹撰

## ■ 풍영루 증건기

대행왕 13년 정미년(1847, 현종 13)에 남계서원(濫溪書院)의 풍영루(風詠樓)가 화재로 소실되었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기유년(1849, 현종 15)에야 비로소 증건(重建)할 수 있었다. 상사생(上舍生) 정환필(鄭煥弼)은 일두선생(一蠹先生)의 후손이다. 많은 선비들의 뜻을 전하면서 벗인 나 기정진(奇正鎭)에게 기문(記文)을 짓도록 명하였다. 나 정진(正鎭)은 조심스러워 감히 붓을 들지 못한 채 먼저 누각을 풍영루라고 이름을 지은 연유를 물어 보자, 환필의 설명은 이러하였다.

듣기로는, 공자(孔子)는 도에 대해 일찍이 일러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다고 하오. 한두 가지 말씀하신 것이라고는 산과 물을 가지고 인자(仁者)와 지자(智者)의 즐거움을 설명하신 것과 하늘과 땅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와 예법을 행하는 자의 덕(德)을 형용하신 것과 대청과 방을 가지고 도(道)에 나아가는 경지를 비유하신 것이 모두 그러한 것이시오. 이 뜻을 미루어나가면 증씨(曾氏)가 기수(沂水)가 에서 바람을 쐬고 읊조리며 돌아온 것과 안자(顏子)가 누추한 마을에 살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인 것은 규모와 기상에서는 비록 서로 차이가 있지만, 배우는 이들은 그중 하나도 버려두고 강구하지 않을 수 없음이 분명하도오. 이 서원의 강당(講堂)에 거경재(居敬齋)와 집의재(集義齋) 두 협실(夾室)을 둔 것은 대개 증자(曾子)와 맹자(孟子)의 뜻을 좇아서 체용(體用)의 학문에 종사하라는 것이시오. 이것이 이른바 안자가 배운 것을 배운다는 것이고, 활을 당기기만 하고 늦추지 않듯이 오래도록 긴장만 하고 풀어주지 않는 것은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이라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니, 정신(精神)을 활짝 펴고 성정(性情)을 편안하게 쉬도록 하는 것은 또 어느 것 하나라도 없을 수 있겠소. 그 때문에 이 누각을 뒤에 세우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시오

나 정진이 일어나서 이렇게 답하였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 훌륭하지 않은가. 이것이 보잘것없는 내가 듣고 진정 싶었던 말이시오. 배우는 이들이 이 누각에 오르고 이 방에 들어와서는 방과 누각의 편액에 나아가 체인(體認)한다면 종사하는 일에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이오. 나 정진은 무슨 말로 기릴 수 있겠소. 다만 풍영(風詠)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풍영이란 연비어약(鳶飛魚躍)과 함께 활활발발(活活潑潑)한 경지이니, 어찌 긴장과 이완만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겠소. 이 공부는 오직 타고난 자질과 학문의 힘에 달려 있다고 하겠소. 증씨는 타고난 자질이 높아서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능히 대의(大意)를 넉넉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이시오. 증씨 같은 타고난 자질이 없이 증씨의 풍영을 이루려고 한다면, 학문의 힘이 아니어서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소. 오직 오래도록 굳게 지킨 다음에야 처(處)하는 것이 편안해지고, 처하는 것이 편안해진 다음에야 자뢰(資賴)함이 깊어지고, 자뢰함이 깊어진 다음에야 좌우에서 그 근원을 만날 수 있는 것이시오. 그래서 증씨가 비파를 놓고 한 대답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시오. 지킬 곳은 어찌 다른 것이 있겠소. 이른바 경(敬)과



의(義)에 불과할 뿐이오. 선생의 연원(淵源)을 가진 실학(實學)은 비록 후생(後生)의 좁은 식견으로 엿볼 수 없는 것이겠지만, 여러 선배들의 논평을 모아서 상상해본다면, 이른바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공경하게 되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것이라오. 그 심후(深厚)하고 독실(篤實)함이 어떠했겠소. “외론 배로 또 다시 큰 강으로 내려가네.”라고 읊은 시(詩) 몇 구절을 음미해보면, 은연중에 풍욕(風浴)의 기상이 있으니, 이것은 간절하게 사모한다고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이겠소. 오래도록 굳게 지킨 다음에야 저절로 이르게 되는 것일 뿐이라오. 나 정진은 늙고 버려져서 비록 서원에서 학문을 익히는 대열에 들 수는 없지만, 여러 군자들과 함께 힘쓰기를 원하오

서원의 정우(正宇)에는 선생을 주벽(主壁)으로 제향하고 동계(桐溪)와 개암(介菴)158)을 배향하였고, 별사(別祠)에는 뇌계(溪)와 송탄(松灘)159) 두 선생을 모셨다. 두류산(頭流山)과 백암산(白巖山)160), 남계(溪)와 위수(渭水)161)는 모두 서원에서 바라보이는 산과 물 중 기록할 만한 것이다.

#### ■ 風詠樓重建記(민병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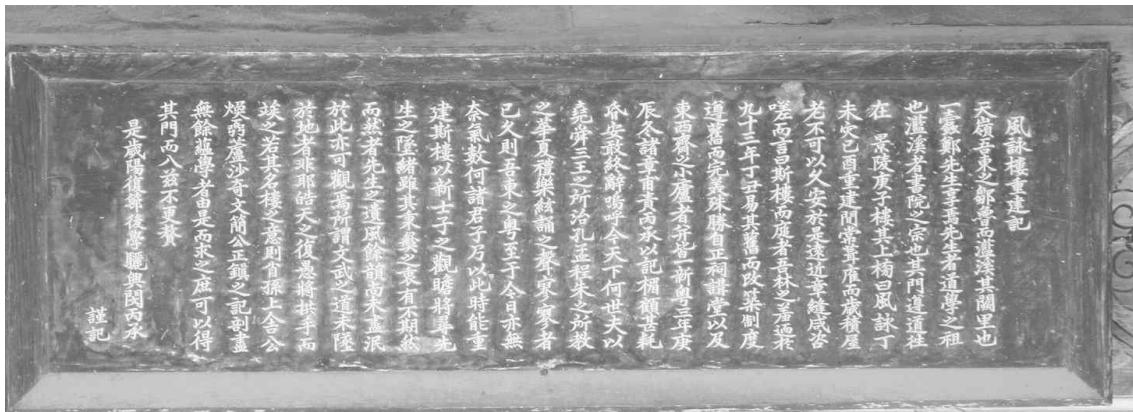
天嶺吾東之鄒魯 而濫溪其闕里也 一臺鄭先生享焉 先生者道學之祖也 濫溪者書院之宗也 其門遵道 往在景陵庚子 樓其上榜曰風詠 丁未災 己酉重建 間常葺屋而歲積屋老 不可以久安 於是遠近章縫 咸咨嗟而言曰 斯樓而廢者 吾林之羞 迺於九十三年丁丑 易其舊而改築 制度遵

舊而完美殊勝 自正祠講堂以及東西齋之小廬者 并皆一新 粵三年庚辰冬 諸章甫賁丙承以記 楣 顧甚耗昏 安敢終辭

嗚呼 今天下何世 夫以堯舜三王之所治 孔孟程朱之所教之華夏禮樂 絃誦之聲 寥寥者已久 則吾東之粵至于今日 亦無奈氣數何 諸君子乃以此時 能重建斯樓 以新士子之觀瞻 將尋先生之墜緒 雖其秉彝之衷有不期然而然者 先生之遺風餘韻 尚未盡泯 於此亦可觀焉 所謂文武之道未墜於地者非耶 皓天之復 愚將拱手而俟之 若其名樓之意 則肖孫上舍公煥弼蘆沙奇文簡公正鎮之記 剖盡無餘蘊 學者由是而求之 庶可以得其門而入 茲不更贅

是歲陽復節 後學驪興閔丙承 謹記

## ■ 풍영루증건기(민병승)



【그림III-7】 풍영루증건기(민병승)

천령(天嶺)은 우리나라의 추로(鄒魯)이고, 남계서원(濫溪書院)은 그 중의 궤리(關里)이다. 일두(一蠹) 정선생(鄭先生)을 제향하고 있다. 선생은 도학(道學)의 비조(鼻祖)이고, 남계서원은 서원의 조종(祖宗)이다. 그 정문인 준도문(遵道門) 위에다 지난 경릉(景陵) 경자년(1840, 현종 6)에 누각을 붙여지어 풍영루(風詠樓)라고 하였는데, 정미년(1847, 현종 13)에 화재로 소실되고 기유년(1849, 현종 15)에 중건을 하였다. 그간 늘 보수를 하였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건물이 낡아버려 항구적으로 쓸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원근의 선비들이 모두 탄식하면서 “이 누각이 없어지는 것은 우리 유림의 수치이다.”라고 하고는 93년이 지난(167) 정축년(1937)에 옛 것을 바꾸어 개축하니, 제도(制度)는 옛 것을 따르면서도 완미(完美)함이 더욱 나아졌고, 정사(正祠)와 강당(講堂)에서부터 동·서재(東西齋)의 작은 집들에 이르기까지도 아울러 모두 새롭게 만들었다. 3년 뒤인 경진년(1940) 겨울에 여러 선비들이 나 병승(丙承)에게 중수기(重修記)를 짓는 책임을 맡기니, 돌아보건대 내가 몹시 늦고 쇠약하지만 어찌 끝내 사양하겠는가.

아, 지금 천하는 어떠한 세상인가. 요순(堯舜) 삼왕(三王)의 다스림의 바탕과 공맹(孔孟) 정주(程朱)의 가르침의 바탕이 된 중화(中華)의 예악(禮樂)을 노래하고 외우는 소리가 사라진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우리나라는 지금에 이르러서 또 그 운수가 어떠한가. 여러 군자들이 이러한 때에 이 누각을 중건해내어 새로운 시대의 선비들이 우러러보면서 선생의 끊어진 도맥(道脈)을 찾을 수 있게 하였으니, 비록 선한 본성으로 기약하지 않아도 그러함이 있을 것이다. 선생의 유풍(遺風)과 여운(餘韻)은 아직 다 사라지지 않아서 여기서 또한 살펴볼 수 있으니, 이른바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의 도가 아직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밝은 세상이 돌아오기를 나는 두 손 모아 기다리노라. 누각 이름의 의미와 같은 것은 선생의 후손 상사공(上舍公) 환필(煥弼)과 노사(蘆沙) 문간공(文簡公) 기정진(奇正鎭)의 기문(記文)에서 남김없이 다 밝혀놓았다. 배우는 이들이 그 글을 통해서 구한다면, 문을 찾아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므로, 여기서 다시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겠다.

경진년(1940) 동짓날에 후학(後學) 여흥(驪興) 민병승(閔丙承)이 삼가 기문을 짓다.

## ■ 蕙溪書院院規



[그림 Ⅲ-8] 남계서원원규

一。諸生讀書 以四書五經爲本{源 小學{家禮爲門戶遵國家作養{之方 守聖賢親切之訓 知萬善本{具於我 信古道可踐於今 皆務爲躬行心得明體適用之學 其諸史子集 文章科舉之業 亦不可不爲之旁務博通 然當知內外本{末輕重緩急}之序 常自激昂 莫令墜墮 自餘邪誕妖異淫僻之書 不得入焉近眼 以亂道惑志

一。諸生立志堅固 趨向正直 業以遠大自期 行以道義爲歸者爲善學 其處心卑下 取舍眩惑 知識未脫於俗陋 意望全在於利欲者爲非學 如有性行乖常 非笑禮法 侮慢聖賢 詭經反道 醜言辱親 敗群不率者 院中共議擯之

一。諸生常宜靜處各齋 專精讀書 非因講究疑難 不宜浪過他齋 虛談度日 以致彼我荒思廢業 無故無告 無頻數出入 凡衣冠作止言行之間 各務切儆 相勸而善

一。泮宮明倫堂 揭伊川先生四勿箴 晦庵先生白鹿洞規十訓 陳茂卿夙興夜寐箴

此意甚好 院中以此揭諸壁上 以相規警

一。書不得出門 色不得入門 酒不得釀 刑不得用 書出易失 色入易污 釀非學舍宜 刑非儒冠事{凡爲諸生或有司以私怒推打外人之類 此最不可開端 若院屬人有罪 則不可全舍 小則有司 大則與上有司同議論罰

一。院有司 以近居廉幹品官一人爲差定 又擇儒士之識事理有行義衆所推服者一人 爲上有司 皆二年相遞

一。諸生與有司 務以禮貌相接 敬信相待

一。院屬人完恤有司及諸生 常須愛護下人 院事齋事外 毋得人人私使喚 私怒罰

一。立院養士 所以奉國家右文興學 作新人才之意 人宜盡心 繼今蒞者 必於院事 有增其制 毋損其約 其於斯文 豈不幸甚

一。童蒙 非因受業與招致 不得入入德門內

一。寓生 不拘冠未冠 無定額 成才乃升院

一。院之經始 期傳永久 若不以時修葺 易至墮廢 如有雨漏欲毀處 院長有司 卽申  
于官 及時修理

一。凡院生及尋院士子謁廟時 以程子冠黑團領禮 黑團領若無 則以紅團領無妨  
癸丑四月日 重刊

## ■ 남계서원원규

1. 제생(諸生)들은 독서할 때 사서(四書)와 오경(五經)을 근본으로 삼고, 《소학(小學)》과 《가례(家禮)》를 문호로 삼아서 국가가 인재를 진작시키고 양성하는 방도를 따르고, 성현의 친절한 가르침을 지킨다. 온갖 선(善)이 본래 나 자신에게 갖추어져 있음을 알고, 옛 도(道)를 오늘에 실천할 수 있음을 믿고서 모두 몸소 행하고 마음으로 터득하여 본질을 밝히고 실용에 맞게 하는 학문에 힘쓰도록 노력한다. 여러 역사서(歷史書)와 제자서(諸子書)와 문집(文集)들, 그리고 문장(文章)공부와 과거(科擧)공부도 또한 널리 힘쓰고 두루 통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마땅히 내외(內外)와 본말(本末)과 경중(輕重)과 완급(緩急)의 순서를 알아서 항상 스스로 감정을 고조시켜 타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머지 올바르지 못하고 거짓되고 요사스럽고 기이하고 음란하고 편벽된 내용의 책들은 서원으로 들어서 눈에 가까이하여 도를 어지럽히고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못하도록 한다.

1. 제생들 중에서 뜻을 견고하게 세우고 지향을 바르고 곧게 해서 원대한 사업을 해나갈 것을 스스로 기약하고, 도의(道義)를 실천하는 것으로 귀결시킨 자는 잘 배운 것이다. 마음을 낮게 가지고 취사가 현혹되어 지식이 하찮은 시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뜻과 소망이 오로지 이욕(利慾)에 있는 자는 잘못 배운 것이다. 만일 성품과 행실이 괴상하며 예의와 법도를 비웃으며 옛 성현을 업신여기며 원칙과 도리를 위반하며 추한 말로 친한 이들을 욕하며 여러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고 규칙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면, 서원에서 함께 의논해서 내치도록 한다.

1. 제생들은 항상 각기 서재(書齋)에서 조용히 거처하며 오로지 독서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학문을 강구하거나 의심스러운 것을 질문하는 경우가 아니면, 부질없이 다른 서재를 방문해서 헛된 잡담으로 시간을 보내 피차간에 생각이 거칠어지고 학업이 폐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연고가 없거나 아뢰지 않고는 자주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 무릇 복장이나 생활이나 언행에 대해서는 각기 간곡하게 말하고 자상하게 타일러 서로 권해

서 선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성균관(成均館)의 명륜당(明倫堂)에는 이천선생(伊川先生)의 사물잡(四勿箴)과 회암선생(晦庵先生)의 백록동규(白鹿洞規) 열 가지 교훈과 진무경(陳茂卿)의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을 걸어놓았는데, 이 뜻은 매우 좋다. 서원에도 이것들을 강당 벽에다 걸어놓고 경계해야 한다.

1. 책은 서원 문밖으로 내가지 말고, 여색은 서원 문안으로 들이지 말라. 서원에서는 술을 빙지 말고, 형벌을 쓰지 말라. 책은 서원 문밖으로 내가면 잃어버리기 쉽고, 여색을 서원 문안으로 들이면 더러워지기 쉽다. 술을 빙는 것은 공부하는 서원에 마땅한 것이 아니고, 형벌을 쓰는 것은 유관을 쓴 선비가 할 일이 아니다.[형벌이란 제생(諸生)이나 유사(有司)가 사사로운 감정으로 외인(外人)을 때리는 등의 일이다. 이러한 일은 절대로 그 단초를 얼어놓아서는 안 된다. 만약 서원에 소속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완전히 놓아둘 수는 없다. 죄가 작은 경우에는 유사(有司)가 벌을 주고, 죄가 크면 상유사(上有司)와 함께 상의해서 벌을 정해야 한다.

1. 서원의 유사는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청렴하고 일처리를 잘하는 품관(品官) 한 사람을 임명하고, 또 선비들 중 사리(事理)를 알고 행의(行義)가 있어서 사람들이 받들고 복종하는 자 한 사람을 택해서 상유사로 삼되, 모두 2년 마다 교체한다.

1. 제생들과 유사는 예의로 서로 대하고, 공경과 신의로 서로 대하도록 노력한다.

1. 서원에 소속된 사람들은 잘 돌보아야 한다.[유사와 제생들은 아랫사람을 늘 사랑하고 보호해서 서원의 일이나 서재의 일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사적으로 부리지 말도록 해야 하고, 사적인 노여움 때문에 벌을 주지 말도록 해야 한다.

1. 서원을 세워 선비를 기르는 것은 국가가 문교(文教)를 숭상하고 학교(學校)를 일으켜 인재를 진작시키려는 뜻을 받드는 것이니, 사람들은 마땅히 마음을 다해야 한다. 지금부터 이 고을에 부임하는 자들은 반드시 서원의 일에 그 규모를 확장하고 그 규약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사문(斯文, 儒學)에 참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1. 동몽(童蒙)들은 수업을 받는 경우나 초청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입덕문(入德門) 안에 들어올 수 없다.

1. 서원에 임시로 들어온 생도는 관례(冠禮)를 했거나 관례를 하지 않았거나 상관없이 정원은 없고, 입원(入院)할만한 인재가 되면 서원에 입학하게 한다.

1. 서원을 지을 때는 영구히 전해지기를 기약하지만, 때때로 보수하지 않으면 쉽게 허물  
어지게 된다. 만약 비가 새서 허물어지려고 한다면, 원장과 유사가 즉시 관에 신고해서  
때맞춰 수리해야 한다.

1. 서원의 제생과 서원을 찾은 선비들이 알묘(謁廟)할 때는 정자관(程子冠)을 쓰 고 검은  
빛의 단령(團領)을 입고서 예(禮)를 행하고, 만약 검은 빛의 단령이 없으면 붉은 빛의 단  
령을 입고서 예를 행해도 무방하다.

계축년 사월에 중간(重刊)하다.

## 2-4. 남계서원의 향사

남계서원의 향사는 일두 정여창의 유덕을 기리고 추모하는 목적에서 매년 음력 2월과 8월 중정일(中丁日)에 봉행하고, 아울러 매월 초하루와 보름날에 분향례를 행한다. 남계서원은 일두 정여창을 주향으로 모시고 동계 정온과 개암 강익을 동·서벽에 배향하고 있다.

### 2-4-1. 분향(焚香)

서원에서는 매월 초하루와 보름날에 분향례를 행한다. 남계서원에서는 내·외임 유사들이 하루 전날 서원에 입재하여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고 날이 밝기 전 사당에 올라 예를 올린다. 삭망례에서는 향사 때와는 달리 한 분 한 분, 신위마다 각각 분향한 뒤 재배하지 않는다. 주향인 일두의 신위전을 시작으로 3위에 차례로 분향한 후에 밖으로 물러나 사당 중문 앞에서 한꺼번에 재배를 올린다. 분향례에서는 춘추향사 때와는 달리 신주독을 열지 않고 예를 올린다.



[그림 III-9] 분향

## 2-4-2. 향사(享祀)

### (1) 향사일시

춘추향사는 매년 음력 2월과 8월 중정일 오전 5시 경에 봉행한다.

### (2) 입재 및 향사준비

서원의 가장 큰 의례는 춘추향사이다. 서원의 강당인 명성당에서 원회(院會)가 소집되는데, 원회란 향사를 앞두고 헌관 및 주요 제관들을 선출 하는 모임이다. 이 날 시도기(時到記) 때에 등재된 참석자는 함양지역 유림 30여명이다.

원회에서 제관선출은 출석한 유림 중에서 먼저 석장(席長)을 선출한 후, 석장이 원회를 주재 하여 선임한다. 제관은 향내 유림 중에서 예학에 조예가 깊고 실제 행례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상호 추천하기도 하고 또 소임에 따라 후진양성을 위하여 젊은 층의 신진 유림을 천거하기도 한다. 관례에 따라 대체로 서원 측에서 미리 천거를 받아 놓은 인사들을 중심으로 선출하는데 삼헌관을 비롯하여 모두 14인의 제관을 선임하였다. 제관을 선정한 후에는 제관선정기(祭官選定記)를 기록하여 참석한 유림들에게 확인 한 후 강당에 붙여 공고한다. 제관 선임 후에는 전년도 결산 보고와 남계서원 공원화 추진현황 등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및 토의를 한 후 원회를 마쳤다.

제관으로 선임된 사람들에게는 망기(望記)를 적어 보낸다. 망기는 제관으로 천망되었음을 통보하는 문서로 입재일과 소임, 내정자의 이름을 적고 서원의 직인을 찍어 피봉하여 발송한다.

### (3) 제수구입

남계서원의 내·외임 유사는 향사 이틀 전 함양 시내 재래시장에서 제수를 구입하였다. 제수는 품질이 좋고 정갈한 것을 고르는 것이 원칙이며, 가격을 흥정하지 않는다. 옛날에 비해 서원의 재정적 기반이 많이 약해진 요즘은 서원 자체 예산만으로는 향사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제수비용은 대략 200여 만원이 소요되는데, 군에서 150만원 정도 보조를 받고 나머지는 서원의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림 III-10] 제수구입



#### (4) 제수근봉

제물은 고직사에서 손질하고, 마련된 제물은 주향위와 종향위를 구분하여 근봉한다. 근봉은 향사에 올리는 제물들을 제기에 실찬하기 전에 ‘삼가 봉한다’는 의미로 행하는 의례이다. 제물들을 품목별로 한지에 정성들여 싸서 각 제물의 이름을 적는다. 근봉하는 제물들은 제기에 담을 제수뿐만 아니라 폐백, 향촉 등 제상에 오르게 되는 품목이 해당된다. 또한 변원에 담을 포과류(胞果類)로서 녹포(鹿脯), 어포(魚脯), 건조(乾棗), 율황(栗黃), 두(豆)에 담을 해저류(醢菹類)로서 녹해(鹿醢), 어해(魚醢), 청저(靑菹), 구저(韭菹) 등을 구분하여 근봉한다. 녹포는 사슴고기 대신에 소고기 육포를 대용하고 어포는 북어포를 사용한다. 청저는 생무, 구저는 부추를 사용한다. 보례(簠簋)에 담을 도미(稻米)와 서미(黍米)는 쌀과 조를 고두밥으로 찌서 담아 근봉한다.

#### (5) 입재(入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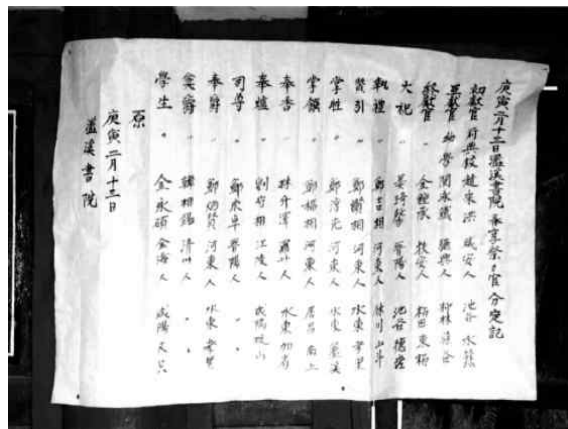
제관들은 본래 향사 3일 전에 입재하였으나, 지금은 전일 입재를 한다. 향사 전날 오전 10시경부터 제관들의 입재가 시작되었다. 입재란 제사를 앞두고 음식과 행동을 조심하며 재계하는 것을 말한다. 서원에 도착한 제관들은 강당에 모여 상견례를 한 후 재계에 들어간다. 이후부터는 모든 행사를 초헌관이 주관하며, 서원 밖으로의 출입도 통제되고 오로지 제향에 관한 각자의 소임에 전념한다.



[그림 III-11] 제수근봉

## (6) 제관분정

오전 11시 의관을 정제하고 강당에 모여 상읍례를 행한 후 좌정하고 제관을 분정한다. 제관은 지난 번 원회에서 이미 선임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유고가 없으면 그대로 분정하고 소임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뿐이다. 분정이 끝나면 소임과 제관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하여 분정내용을 초헌관에게 보고한 후 좌중을 돌며 각자의 소임을 주지확인시키고 강방 북벽에 게시한다.



[그림 III-12] 분정기

## (7) 성생례(省牲禮)

성생례는 제관들이 제향에 올리게 될 희생(犧牲)을 결함이 없는지 감정하는 의식이다. 강당 오른쪽에 있는 성생단에 생돼지를 올려놓고 전 제관이 모인 가운데 성생홀기에 따라 성생 의식을 거행한다. 축과 초헌관, 유사가 한 바퀴 돌아보며 돼지에 특별한 흠은 없는



[그림 III-13] 성생례

지 살피고, 이어 술가지를 이용해 돼지 위에 물을 뿌리는데 이것은 샅된 기운을 물리친다는 벽사(辟邪)의 의미를 갖는다. 이어 대축이 돼지가 희생으로서 충분한지를 세 번 물으면 초헌관이 세 번 답한다. 이때 축이 ‘충(充)’ 하고 세 번 묻고 헌관이 ‘돌(臍)’ 하고 세 번 답하는데 ‘돌’은 돼지가 충분히 살찐다는 뜻이다. 성생례가 끝난 돼지는 고직사에서 손질한다.

## (8) 제수감정

제수감정은 제수를 진설하기 전에 제수의 품목과 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준비에 틀림이 없는지 모든 제관들이 함께 확인하는 절차다. 미리 근봉한 제수들을 누문(풍영루) 2층 다락으로 옮겨 감정 의례를 행한다. 헌관과 제관들이 좌정하면 집사가 제물들을 품목별로 상 위에 올려 먼저 초헌관 앞에 가서 제수의 품목을 한 종목씩 부르며 감정을 요청하고 헌관은 읊으로써 승인의 의사를 표한다. 다음은 아헌관, 중헌관 기타 제관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물목의 감정을 펼한다.

(9) 사축(寫祝)

축문은 입재 당일 해가 지기 전 대축이 사당 앞 월대 위에서 사축한다. 사당 중문을 열고 꿇어 앉아 대축이 축문을 작성하며, 초헌관이 대축의 동쪽에 앉아 감독한다. 완성된 축문은 유사가 사당 중문을 통해 들고 들어가 향탁의 왼쪽 축점 위에 올려놓는다.



[그림 III-14] 축문 작성

(10) 진설(陳設)

준비된 제수를 소정의 제기에 담는 것을 실찬(實饌)이라 하고, 실찬한 제기를 법식에 맞게 제상 위에 차리는 것을 진설이라 한다. 향사 전일 오후 6시 진설 담당 집사들이 근봉한 제수를 들것에 실어 사당으로 옮긴다. 제수는 사당의 중문으로 들어가 소정의 제기에 실찬한다. 변두는 4변 4두인데, 변에는 건조(乾棗), 황율(黃栗), 녹포(鹿脯), 어포(魚脯)를 담고 두에는 근저(芹菹), 청저(靑菹), 녹해(鹿醢), 어해(魚醢)를 담는다. 보에는 도미(稻米)를 궤에는 서미(黍米)를 담는다. 진설 순서는 정위인 문헌공위부터 소목의 위차에 따라 동벽의 동계 정온위, 다음에 서벽의 개암 강익위의 순으로 진설한다. 신위의 왼쪽(동쪽) 4변을 먼저 차리고 오른쪽(서쪽) 4두를 나중에 진설한다. 4변은 제1행에 오른쪽을 상위로 하여

건조(대추)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황율(밤)을 놓는다. 제2행에는 녹포(육포)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어포(명태포)를 진설한다. 4두는 제1행에 역시 오른쪽을 상위로 하여 근저(부추)를 먼저 놓고, 다음에 청저(무)를 놓는다. 제2행에는 녹해(소고기), 어해(조기)의 순으로 진설한다. 도미(쌀밥)를 담은 보는 변의 앞쪽에 놓고, 서미(조밥)를 담은 케는 두의 앞쪽에 놓는다. 시성을 담은 조반은 변 두 사이에 놓는다. 남계서원 향사의절에는 희생은 칠체(七體:양비, 양견, 양협 및 척추의 일곱 부위)를 올리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는 돼지 한 마리를 잡아 정위에는 돼지머리와 앞다리 둘을 통째로 올리고 동·서벽 배향위에는 뒷다리 한 짝씩을 올리고 있다

### 2-4-3. 향사절차

향사 당일 오전 3시에 제관들은 기상하여 세수하고 의관을 정제한다. 유사는 관세위에 물을 채우고 묘정에 자리를 깔아 배석을 만드는 등 향사의 마지막 준비를 완료한다. 쌀죽으로 간단히 아침식사를 마친 후, 강당에 모여 오전 5시 상음례를 행하고 향사를 시작한다. 제집사들이 먼저 사당 묘정에 오르고 이어서 찬인이 헌관을 인도하여 묘정에 도열한다. 집례의 ‘점시진설(點視陳設)’ 창홀에 따라 초헌이 사당에 들어가 진설을 살핀다. ‘점시’는 초헌관이 행례에 앞서 제물의 진설을 최종 점검하는 절차이다. 이때 찬인이 앞에서 인도하고 축이 따라 올라 신위의 위판을 개독한다. 점시가 끝나면 초헌관은 자리로 돌아간다. 이어서 축과 제집사들이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고 각자 봉무할 자리에 나아간다. 초헌관 이하 참례자 모두 재배하여 신을 맞이한다.

#### (1) 초헌례(初獻禮)

초헌례는 신위께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례이다. 남계서원에서는 초헌례 때 전폐례를 함께 행한다. 먼저 초헌관은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고 문헌공 일두정여창의 신위 전에 나아가 꿇어앉는다. 봉향은 향합을 받들고 초헌관의 오른쪽에, 봉로는 향로를 받들고 초헌관의 왼쪽에 나아간다. 초헌관은 향을 세 번 피운다. 봉로와 봉향은 신위전 향탁 위에 향로와 향합을 올려놓고 자리에 돌아간다. 축이 폐비를 받들어 초헌에게 드리면 초헌관이 이를 받아 헌폐하고 다시 축에게 주어 신위전에 올린다. 초헌관은 엎드렸다가 일어나 재배한다.

동벽의 개암 강익 신위전에 나아가 같은 방법으로 삼상향과 전폐를 행하고 재배한다. 봉향과 봉로가 삼상향을 돕고 축이 전폐를 돕는 것은 정위에서와 같다. 이어서 서벽인 문간공 동계 정온 신위 전에 나아가 같은 방법으로 삼상향과 전폐례를 행한다.

3위에 대한 전폐례가 모두 끝나면 찬인은 초헌관을 작세위(爵洗位)로 인도하여

북향하여 선 후, 작을 씻어 집사자에게 준다. 다시 찬인은 초헌관을 정위준소에 인도하고 초헌관은 서향하여 선다. 봉작이 작을 초헌관에게 드리면 사준이 떡(鬯개)을 들고 술을 따른다. 초헌관은 작을 봉작에게 주고 문헌공 일두 정여창의 신위전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는다. 봉작이 작을 초헌에게 주면 초헌관은 작을 받아 모사에 조금씩 술을 세 번 붓고 나서(三祭酒) 헌작한다. 전작이 작을 받아 신위전에 올린다. 삼제주는 술을 모사(茅沙)에 세 번 붓는 의례로 향교의 석전에는 없는데 가례의 예법과 혼용하여 홀기가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초헌관은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 꿇어앉는다. 축이 초헌관의 왼쪽에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초헌관은 엎드렸다가 일어나 재배한다.

다음에는 배위에 대한 초헌례를 행한다. 초헌관은 배위준소에 가서 술을 받아 동벽의 개암 강익의 신위전에 나아가 삼제주한 후 헌작하고 재배한다. 독축 절차만 없고 봉작과 전작이 헌작을 돕는 것은 정위 때와 꼭 같다. 이어서 다시 준소를 거쳐 서벽의 문간공 동계 정온의 신위 전에 나아가 헌작하고 재배한다. 3위에 대한 초헌례가 모두 끝나면 찬인은 초헌관을 인도하여 자리에 돌아간다.

## (2) 아헌례(亞獻禮)

아헌례는 신위께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순서이다. 아헌관은 찬인의 인도를 받아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고 정위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선다. 봉작이 아헌관에게 작을 드리면, 사준은 떡을 들고 술을 따른다. 아헌관은 문헌공 일두 정여창 신위전에 나아가 삼제주하고 헌작 후 재배한다. 이때 봉작과 전작이 돕는 것은 초헌례 때와 같다. 축문 낭독이 없고 작을 두 번째 작점에 올리는 것만 다를 뿐 모든 절차는 초헌례 때와 같다. 배위에 대한 헌작례 역시 초헌례 때와 꼭 같다.

## (3) 종헌례(終獻禮)

종헌례는 아헌례의 절차와 같다. 다만 헌관이 종헌관으로 바뀌고 세 번째 작점에 작을 올린다.

## (4) 음복수조(飲福受胙)

음복례는 초헌관이 음복위에 나아가 신이 흠향한 술과 안주를 맛보는 의례이다. 묘우의 당상 동문 앞에 서쪽을 향하여 음복위를 마련한다. 찬인이 초헌관을 음복위로 인도하여 서향하여 선다. 집사자 1인이 작에 각 위의 술을 따라 초헌관의 왼쪽에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초헌관은 재배한 후 꿇어앉아 작을 받아 술을 맛본다. 집사자 1인이 도마에 각 위의 조육을 조금씩 덜어내어 초헌관의 왼쪽에 나

아가 북향하여 꿇어앉아 조육을 초헌관에게 드린다. 초헌관은 작을 들어 술을 다 마시고 일어나 재배한다. 초헌관이 자리에 돌아오면 재위자 모두 재배한다.

#### 2-4-4. 철변두(徹邊豆)

철변두는 제향이 끝나고 제물을 거두는 의례이다. 축이 신위에 나아가 변두를 하나씩 조금 옮겨놓는 것으로 같음한다. 철변두가 끝나면 초헌관 이하 참례자는 모두 함께 재배하여 신을 보내드리는 송신례를 행한다. 남계서원의 홀기에는 철변두 절차에 망예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다. 축은 폐백과 축관을 거두어 망예위에 나아가 서향하여 태우고 감(구덩이)에 묻는다. 찬인이 초헌관의 왼쪽에 나아가 예필을 아뢴다. 이로써 신위께 드리는 모든 의례는 끝나게 되므로 축은 위관을 합독한다. 찬인은 초헌 이하 제관을 모두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고 장찬은 예찬을 철찬하고 문을 닫고 나온다.

의례가 끝난 후 제관들은 명성당 강당에 모여 개좌(開座)를 한다. 이때 별도의 음복(飮福) 없이 향사에 대한 간단한 평가를 한 후 제사에 쓴 제물과 행자(行資)를 나누어 준다. 개좌 후에는 간단하게 아침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간다.

#### 2-4-5. 제물(祭物)과 제구(祭具)

서원향사에 쓰는 제기와 제물은 국가전례인 향교석전의 예에 준하여 올린다. 국가전례는 대사·중사·소사로 구분되어 제사의 위격(位格)에 따라 차리는 제물의 종류 및 품수(品數)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국조오례의』와 『태학지』 등의 예전(禮典)에 규정된 제기의 종류와 예찬(禮饌)을 참고하여 남계서원의 제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변(籩), 두(豆)

변(籩)은 마른 제수를 담는 그릇으로 신위의 왼쪽(동쪽)에 차리고, 두(豆)는 물기 있는 제수를 담는 그릇으로 신위의 오른쪽(서쪽)에 차린다. 국가대사에는 12변 12두를 차리고, 중사에는 10변 10두, 소사에는 8변 8두 이하를 차리는 것으로 품수에 차등을 둔다. 조선시대 관학(官學)인 향교석전은 소사의 예에 해당하므로 8변 8두를 차리는데, 사학(私學)인 서원은 6변 6두, 4변 4두 또는 2변 2두 등으로 낮추어 진설한다. 남계서원의절에는 4변 4두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변에는 건조, 황율, 녹포, 어포를 올리는데 녹포는 사슴고기 대신에 소고기 육포로 대신한다. 두에는 근저, 청저, 녹해, 어해를 올리는데 녹해는 소고기로 대신한다.



[그림 III-15] 변에 담긴 제수



[그림 III-16] 변



[그림 III-17] 두

## (2) 보(簋), 궤(簠)

보(簋)는 동으로 만든 제기인데, 모양은 보는 네모나고 궤(簠)는 둥글다. 보(簋)에는 도(稻:쌀)와 량(梁:기장)을 담고, 궤(簠)에는 서(黍:수수)와 직(稷:피쌀)을 담는다. 보와 궤는 항상 짝을 이루어 변과 두 사이에 놓는다. 향교석전에서는 2보 2궤를 갖추어 도·량·서·직을 차리는데, 서원 향사에는 보통 1보 1궤에 도와서 두 가지를 올린다. 현재 남계서원의 보와 궤 제기는 다른 서원들과 다르게 같은 모양의 둥근 제기로 사용하고 있다.



[그림 III-18] 보



[그림 III-19] 궤

## (3) 조(俎)

조(俎)는 소, 양, 돼지 등의 희생(犧牲)을 담는 제기이다. 현재 성균관 석전에는 대사의 예에 따라 우성(牛腥), 양성(羊腥), 시성(豕腥)의 삼생(三牲)을 쓰고, 향교 석전에는 양성(羊腥)과 시성(豕腥) 두 가지를 쓰는데, 남계서원 향사에서는 희생은 한 가지만 올리는데 돼지 한 마리를 잡아 정위에는 돼지머리와 앞다리들을 통째로 올리고 배위에는 뒷다리 한 짝씩을 올리고 있다.



[그림 III-20] 정위 시성

#### (4) 비

비(篋)는 신위에게 드리는 예물인 폐백(幣帛)을 담는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이다. 폐백은 향교석전은 서에는 저포(苧布)<sup>67)</sup>를 사용하는데, 남계서원 향례의절에는 백견(白絹)을 올리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보통 면포나 한지 등으로 대용하고 있다.



[그림 III-21] 배워 시성

#### (5) 작(爵)

헌작 때 사용하는 동(銅)으로 만든 술잔이다. 두 기둥에 세발이 달려있고, 술을 따르는 유(流)와 손잡이인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위와 3배위에 모두 초헌·아헌·종헌용으로 셋씩 준비한다.



[그림 III-22] 작(爵)

#### (6) 점(玷)

축판(祝版)이나 작(爵)을 올려놓기 위하여 유기로 네모나게 만든 평평한 받침이다. 축판을 올려놓는 것은 축점(祝玷), 작을 올려놓는 받침을 작점(爵玷)이라고 한다.



[그림 III-23] 비(篋)

#### (7) 준

준(尊)은 제향 때 올리는 술을 담는 용기이다. 향교석전에는 초헌·아헌·종헌에 각각 희준(犧尊)·상준(象尊)·산뢰(山罍) 등 다른 것을 사용하며 제주(祭酒)도 각기 다르다. 희준은 소의 모양을 한 것으로 초헌용의 예제(醴齊)를 담고, 상준(象尊)은 코끼리 모양을 한 것으로 아헌용의 양제(醴齊)를 담으며 산뢰(山罍)는 산의 문양이 새겨진 것으로 종헌용의 청주(淸酒)를 담는다. 남계서원의절에는 정위준소에는 희준, 배위준소에는 상준을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8) 작

헌작이나 관세 때에 술이나 물을 뜨는 국자와 같은 기구이다. 손잡이 부분에 용머리를 조각하여 용작(龍勺)이라고도 한다.

#### (9) 먹

술 향아리를 덮는 덮개이다.

67) 모시



(10) 향로

유기로 만든 향을 사르는 예기이다.

(11) 향합

유기로 만든 향을 담는 예기이다. 재유사와 도감은 향사에 사용하게 될 제기를 점검하고 세척하는 척기(滌器)의식을 행한다. 제기는 제기고에서 미리 꺼내어 잘 씻고 담은 후 묘우 안에 잘 정돈해 놓는다. 향례 전에 제기의 종류와 명칭, 예찬의 실찬(實饌) 방법과 각 소임의 역할 및 봉무요령에 대하여 교육한다.

**2-4-6. 남계서원 향사의 특징**

첫째, 남계서원에서는 매월 삭망 분향례를 내·외임 유사가 전일 입재하여 행한다. 둘째, 춘추향사에서는 제관들이 전일 입재하여 향사준비를 옛 법식에 맞추어 엄숙하게 행하고 있다. 옛날에 3일 입재하던 것이 전일 입재로 기간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지금도 제향에 올리는 희생에 대하여 성생례를 행하고, 제물감정을 옛 방식대로 철저히 행하고 있다. 성생례는 제관들이 예복을 갖추고 성생단에 도열하여 성생홀기 창홀에 따라 의식을 행하고, 제물 근봉과 감정절차도 풍영루에 올라 엄숙하게 행한다. 셋째, 향사절차에서는 전폐례는 따로 구분하지 않고 초헌례 때에 전폐례와 헌작례를 함께 행한다. 초헌관이 신위전에 올라 먼저 삼상향과 헌폐를 한 후 헌작례를 행한다. 먼저 정위인 일두 정여창 신위전에 나아가 향을 세 번 피우고 헌폐한 후 재배한다. 다음에 배위인 동벽의 개암 강익, 서벽의 동계 정온 신위전에 같은 방법으로 전폐례를 행한다. 전폐례가 끝난 후에 초헌관은 정위준소에 가서 술을 받아 일두 정여창 신위전에 헌작한다. 이때 술을 신위전에 올리기 전에 삼제주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삼제주는 모사에 술을 세 번 붓는 의식으로 가례의 예법과 혼용하여 홀기가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관학인 향교석전에서는 삼제주 절차가 없기 때문에 다른 서원에서는 이를 준용하여 행하지 않는데 남계서원을 비롯하여 도동서원 등 이 지방 일부 서원에서만 행하고 있다. 독축은 정위에만 하고 배위에는 독축이 없다. 정위에 헌작과 독축이 끝나면 동벽과 서벽의 배위에 헌작하며, 아헌례와 중헌례 헌작 때에도 삼제주한다.

## 2-5. 자료 현황

### 2-5-1. 관찬기록 속의 함양 남계서원

#### (1) 일두집(一蠹集)속 기록들

- 중종대왕(中宗大王) 2년 - 정묘(1507)

• 여름 6월 10일에, 예문관 봉교 김흠조(金欽祖)와 정충량(鄭忠梁), 대교(待敎) 이희증(李希曾)과 김영(金瑛), 검열 이말(李抹)·윤인경(尹仁鏡)·정웅(鄭熊)·윤지형(尹止衡) 등이 상소하기를,

“……무오년에 사초(史草)를 수찬하던 관원이 한갓 사사로운 혐의로 공의(公議)를 돌아보지 않고 몰래 대신(大臣)에게 부탁하여 연산(燕山)의 노여움을 돋우게 하였고, 유자광(柳子光)이 뒤따라 주창하여 함께 의논하고 비밀히 아뢰어 마침내 큰 화란을 불러왔습니다. 이는 몰래 허물을 덮고자 하다가 끝내 덮지 못하자 다시 후세에 드러내 선왕에게까지 누가 미치도록 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만세토록 이어 온 사가(史家)의 법도를 훼손하고 한편으로는 임금에게 사람 죽이기 좋아하는 마음을 열어 주었습니다. 죄가 용서받기 어려운데 도리어 포상이 내려졌으니, 신들은 통한스러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래에는 다들 무오년의 사화를 경계로 삼아 선비들의 기개가 꺾였으니, 신들은 김일손(金駟孫)을 애석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가(史家)의 법도가 이로부터 모두 폐기되어서 만세의 공론이 사그라져 버릴까 염려됩니다……”

하고, 대신 박원종(朴元宗) 등도 논계(論啓)하였다. 상이 이에 명하여, 김종직(金宗直), 김일손 등 7인의 가산(家產)을 돌려주고, 이극돈(李克墩)의 관작을 추탈(追奪)하고, 윤필상(尹弼商), 노사신(盧思愼), 한치형(韓致亨), 유자광 등에게 상으로 내렸던 농지와 집을 환수하게 하였다. 상이 하교하기를 “말에 연루되어 죄를 입은 자는 과연 애매하다. 그 관작을 추증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하고, 인하여 선생 및 표연말(表沿沫), 홍한(洪潸), 무풍부정(茂豐副正) 이충(李攄), 강경서(姜景敘), 이수공(李守恭), 정희량(鄭希良), 정승조(鄭承祖), 이종준(李宗準), 이인형(李仁亨), 최부(崔溥), 이원(李龜), 이주(李胄), 김굉필(金宏弼), 강백진(康伯珍), 박한주(朴漢柱), 임희재(任熙載), 이계맹(李繼孟), 강혼(姜渾) 등의 관작을 회복시켰다. - 《실기(實紀)》에 실려 있는 바가 자못 소략하므로 《국조보감》을 인하여 사이에 보충하였다. -

• 선생에게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도승지 겸 경연참찬관 상서원정(承政院都承旨兼經筵參贊官尙瑞院正)을 증직(贈職)하였다.

- 중종대왕 12년 - 정축(1517)

• 2월에 경연관 조광조(趙光祖)가 아뢰기를 “선비의 기풍이 무너진 것은 더없이 큰 걱정입니다. 변화시키는 방도가 어찌 없겠습니까. 김광필, 정여창을 포상하여 장려하면 사문(斯文)을 붙들어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8월 2일에 상이 묘현(廟見)과 절의(節儀) 등의 일로 여러 신하들을 불러들여 하문하였다. 김안로(金安老)가 아뢰기를 “김광필과 정여창은 폐조(廢朝 연산군(燕山君))에 죄를 입었으니, 그 자손들은 주벌을 당한 사람들의 자손과 같은 예로 녹용(錄用)해서는 안 됩니다. 응당 현자(賢者)의 후손으로 대우하여 그 처자(妻子)들이 굶주림과 추위를 면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정광필(鄭光弼)과 신용개(申用溉)를 돌아보며 이르기를 “대신들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정광필 등이 같은 말로 아뢰기를 “지조를 지키며 실학을 실천한 사람은 포상하여 장려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고, 김전(金詮)은 아뢰기를 “그 사람들은 배운 바가 순정(醇正)하고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지 않아서 그 정파(正派)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배우는 자들이 종사(宗師)로 삼았는데 끝내 그 학행(學行)으로 재앙이 미쳤으니, 매우 안타깝고 애석한 일입니다.” 하고, 이자(李紆)는 아뢰기를 “김광필과 정여창은 학술이 순정하여 우리나라에 이들만 한 사람이 없습니다. 유자(儒者)들이 향방(向方)을 알게 된 것은 오로지 이 두 사람의 공로에 힘입은 것입니다. 옛날에도 증직하고 포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자에게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당연히 시행해야 할 일입니다. 그 자손들도 녹용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정원(政院)에 전교하기를 “김광필 등의 자손들을 녹용하라.” 하였다.

6일에 정원에 전교하기를 “정여창과 김광필은 모두 현자이다. 그 자손들을 녹용하는 일은 다른 주벌당한 사람들의 자손과 같은 예로 해서는 안 된다. 각별히 녹용하라. 그리고 관작(官爵)을 포증(褒贈)하고 처자들을 잘 보살펴 주는 등의 일을 아울러 승전(承傳)을 받들라.” 하였다.

10일에 정광필, 신용개, 김전, 고흥산(高荊山), 이계맹(李繼孟), 안당(安瑋), 조계상(曹繼商)이 의논드리기를 “김광필과 정여창은 학술이 순정하고 실천이 독실하여 한 시대의 학자들이 함께 추종하여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폐조 때에 김종직(金宗直)의 문도(門徒)라고 해서 죄를 입었으므로, 당대 사람들이 그 아무 잘못도 없이 죄를 입은 것을 안타까워하였습니다. 이제 전례에 따라 관작을 추증하였고 이미 그 후손을 녹용하라는 명도 내리셨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은 여러 세대 만에 드물게 나오는 사람들인지라 이들이 죽은 뒤에도 도학(道學)에 뜻을 둔 자들이 아직도 많이들 흠모하고 있으니, 전례에 따른 증직은 이들의 특별함을 표상하기에 부족합니다. 그 관작을 더 추증하고 해마다 그들의 처(妻)에게 녹료를 지급하고 그들의 자손들을 찾아서 녹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삼가 성상의 재결을 바랍니다.” 하였다.

20일에 정광필, 신용개, 고흥산, 남곤(南袞), 한세환(韓世桓)이 의논드리기를 “유신(儒臣) 정여창은 김광필과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서로 함께 절차탁마하여 보탬이 된 것이 고정

(考亭 주희(朱熹))이 남헌(南軒 장식(張栻))과 함께한 것과 같습니다. 이제 김굉필은 포상하여 장려하고 정여창에게는 그리하지 않는다면 아마 은전에 흠이 될 듯합니다. 삼가 성상의 재결을 바랍니다.” 하였다.

26일에 정광필 등이 의논드리기를 “김굉필, 정여창을 전례에 따라 도승지에 추증하는 것은 그 특별한 공로를 표상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전의 의논대로 시행하여, 숭품(崇品 1품)을 더 추증하고 자손을 녹용하며 그들의 처에게 해마다 늬료를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계하하였다.

- 선생에게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우의정 겸 영경연감춘추관사(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監春秋館事)를 추증하였다.

- 예조가 의정부에 이보(移報)하기를 “김굉필과 정여창이 살던 고을의 강도(講道)하던 곳에 사우(祠宇)를 세우고 봄가을 중월(仲月)에 관청이 치제(致祭)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였다.

- 10월 28일에 의정부가 아뢰기를 “김굉필과 정여창은 제자들을 모아 강도한 곳이 없습니다. 억지로 어떤 곳을 강도한 곳이라 하여 사우를 세운다면 그 실상이 아닐 듯합니다. 각각 그 가묘(家廟)에서 봄가을 중월에 관청이 치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였다. 동부승지 유운(柳雲) 담당이었는데, 아뢴 대로 하라고 계하하였다.

김굉필은 집이 현풍(玄風)에 있고 정여창은 집이 함양(咸陽)에 있었는데, ‘각각 그 고을 향교(鄉校) 및 경내의 시골 마을에 이르기까지 방(榜)을 걸어 통지하여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국가가 현인을 포상하고 도를 중시하는 뜻을 모두 알게 해서, 잘못된 구습(舊習)을 한번 변화시키고 오로지 성리(性理)의 학문을 숭상하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본도(本道)에 이문(移文)하였다.

- 명종대왕(明宗大王) 7년 - 임자(1552)

- 사림(士林)이 남계(濫溪)에 서원(書院)을 세웠다.

강개암(姜介庵) - 익(翼) - 이 박공(朴公) - 승임(承任) -, 노사암(盧徙菴) - 관(裸) -, 정매촌(鄭梅村) - 복현(復顯) -, 임남계(林濫溪) - 희무(希茂) - 와 논의하기를 “우리 고을은 일두 선생의 고향인데, 선생께서 세상을 떠신 지 이미 50년에 이르렀는데도 아직 서원을 짓고 사당을 세우는 일을 못 했으니, 실로 우리 고을의 수치입니다.” 하니, 모두들 그렇다고 하여, 이에 서원을 창립하였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의 서원은 오직 주무릉(周茂陵 주세붕(周世鵬))이 죽계(竹溪)에 세운 서원 이외에는 없었으므로 견문(見聞)이 익숙지 않아서 반대가 없지 않았으나, 개암이 의연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뜻을 굳혀 공역을 거행하니, 고을의 유사(儒士)들이 다투어 미곡(米穀)을 가져왔고 이웃 고을에서 보내온

보조도 많았다. 군수 서후(徐侯 서구연(徐九淵))가 마음을 다하여 도왔는데, 강당(講堂)을 세운 뒤 서후가 체차(遞差)되어 돌아가고 농사도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강당에 기와를 올리지 못한 채 드디어 그 공역이 정지되었다. 남은 재화를 증식하여 넉넉해지기를 기다리면서, 공역을 마무리할 것을 기약하였다. - 강개암 연보(姜介庵年譜)에 나온다. 아래도 같다.

- 명종대왕 21년 - 병인(1566)

- 가을 7월에 서원에 남계(瀟溪)라는 편액을 내렸다. 일두와 한훤당이 재앙을 당한 뒤 비록 정덕(正德) 정축년(1517, 중종12)에 억울함을 풀어 주는 은전이 있기는 하였으나, 당시 대신(大臣)의 의논이, ‘사우(祠宇)를 세울 곳이 없다’고 하여 각기 가묘(家廟)에 봄가을로 치제(致祭)하게 하였다. 이제 사우를 세웠으니 서원에서 치제하는 것이 마땅하겠는데, 품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조두(俎豆)를 진설하는 것은 예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상소하여 청하기를 수없이 하였다. 그러나 세상에 덕을 좋아하는 현자가 드문지라 전달할 기회를 만나지 못하였다. 다행히 김후 우홍(金侯宇弘)이 군수로 오고 박공 계현(朴公啓賢)이 관찰사가 된 덕분에 비로소 위에 아뢰어져, 이제 서원의 이름을 내리고 봄가을로 치제하게 한 것이다. 그간 주선하는 일에 옥계(玉溪) 노공 진(盧公禎), 구줄(九拙) 양공 희(梁公喜), 청련(靑蓮) 이공 후백(李公後白)이 모두 정성을 들였다. 그 뒤 숙종(肅宗) 1년 을묘년(1675)에 동계(桐溪) 정온(鄭蘊)을 서서(西序)에 배향하였고, 15년 기사년(1689)에 개암(介庵) 강익(姜翼)을 동서(東序)에 배향하였다.

- 선조대왕(宣祖大王) 1년 - 무진(1568)

- 관학 유생(館學儒生) 조헌(趙憲) 등이 상소하여,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趙光祖), 이언적(李彦迪)을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할 것을 청하였다. 여러 달에 걸쳐 진달하여 청하였다. 이로부터 해마다 상소를 올렸는데, 혹 신방(新榜)이 반궁(泮宮)에 들어온 뒤에는 새로 들어온 생원들을 이끌고 상소를 올리기도 했으며, 드디어는 신방이 있을 때마다 간절히 호소하여, 상규(常規)를 삼았다. - 《국조보감》 -

- 6월에 중국 사신이 와서 통사(通事)에게 묻기를 “너희 나라는 문헌(文獻)의 나라인데, 학술이 정자(程子)와 주자(朱子) 같은 이가 있는가?” 하여 있다고 하자, 다시 묻기를 “이름이 무엇인가? 필시 저술이 있어서 세상에 알려졌을 것이다. 내가 인재의 성대함과 학문의 높이를 알고자 한다.” 하였다.

7월에 신 희춘(希春)이 기대승(奇大升), 노수신(盧守愼)과 함께 특별히 선발에 들어, 서로 의논하여 우리나라의 십대유(十大儒)를 뽑아 아뢰었는데, 바로 우탁(禹倬), 정몽주(鄭夢

周), 길재(吉再), 김종직(金宗直),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김안국(金安國), 서경덕(徐敬德)이었다. 유미암(柳眉巖)의 《경연일기(經筵日記)》에 나온다. 아래 두 조목도 같다.

- 선조대왕 3년 - 경오(1570)

- 4월 20일에, 부제학 유희춘이 전교를 받들고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세 선생의 저술을 찾아 모았다. 당시에 관학 유생들이 누차 소장(疏章)을 올려, 유현(儒賢)을 높여 장려하여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을 문묘에 종사함으로써 명사(明士)들이 추향(趨向)하여 원기를 배양할 바탕으로 삼기를 청하였는데, 말미에 “국가가 기묘년에 결단난 뒤에 또 을사년의 사화(士禍)를 겪어, 국시(國是)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사기가 꺾였으니, 학문을 하면서 도리어 의구하는 마음을 품으며 몸을 단속하면서도 오히려 남의 이목에 특이하게 보일까 봐 경계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도를 중히 여기는 정성을 다시 더하시고 유학을 숭상하는 예를 더욱 융성히 하시어, 네 신하의 문묘 종사를 허락하심으로써 한편으로 그 공로를 보답하고 한편으로 이 세상을 권면하소서. 그러면 사림이 종주(宗主) 삼을 바 있음을 알게 되어 학술이 모두 정도에서 나올 것입니다.” 하였다. 말이 간절하고 뜻이 올바르니 거듭거듭 찬탄하시고, 이어 이 전교가 있었다.

5월 4일에 나아가 진달하기를 “저번에 명을 받들어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등의 저술을 찾아보았습니다. 김굉필의 상소는 이충작(李忠綽)이 찾아냈고, 기타 각각의 저술은 신이 각기 몇 수씩 찾아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사화를 당하였기 때문에 저술이 흩어져 없어져서, 찾아낸 것이 아주 적습니다. 신이 권말(卷末)에 행실(行實)과 행장(行狀)을 첨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비록 저술이 적고 그 행실을 기록한 것이 소략하나, 이것을 보시면 덕과 학문을 지니고서 사문(斯文)을 흥기시킨 그 공로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8일에 이중호(李仲虎), 신담(申湛), 송응개(宋應溉), 유성룡(柳成龍)과 더불어 함께 교정(校正)하여 입계(入啓)하였다.

15일에 나아가 아뢰기를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의 저술을 찾아서 들었습니다. 어람(御覽)하신 뒤에 다시 내려 주소서. 신이 대략 이언적의 글을 싣고, 정서(正書)하여 다시 들이겠습니다. 상의 명으로 인출(印出)하여 공경대부(公卿大夫)들에게 나눠 주면 사람들이 모두 네 현인의 실재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 선조대왕 7년 - 갑술(1574)

- 1월 23일에 아뢰기를 “《유선록(儒先錄)》을 인출하여 올리려고 한 지가 오래입니다만, 김굉필과 정여창에게 시호를 내려 준 뒤에 아울러 기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굉필의 행장은 이미 해조(該曹)에 올렸습니다. 다만, 정여창은 자손들 집안에 행장을 갖추

어 올릴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실은 정여창의 행장과 사실이 이미 《유선록》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해조에 명하여 《유선록》을 상고하여 만들도록 하소서. 그러면 참으로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다.

2월 24일에 정원(政院)이 어제 조강(朝講)에서 여러 경연관들이 건의한 일에 대해 발락(發落)이 없었다는 것으로 취품(取稟)하였다. 신 희춘(希春)이 아뢴 바에 “교서관 저작(校書館著作) 조헌(趙憲)을 질정관(質正官)에서 개차(改差)하여 《주자어류(朱子語類)》를 감교(監校)하게 하소서. 정여창은 《유선록》에 실린 그의 행장을 봉상시(奉常寺)에 보내 시호를 의논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상이 특별히 따랐다.

- 선조대왕 8년 - 을해(1575)

- 문헌(文獻)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도덕이 있고 견문이 넓은 것 [道德博聞]’을 문이라 하고, ‘충명하고 명철한 것 [聰明睿哲]’을 헌이라 한다.

- 선조대왕 12년 - 기묘(1579)

-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이 순무사(巡撫使)로서 많은 선비들을 거느리고, 하동(河東)이 선생의 관향(貫鄕)이라 하여, 영계서원(永溪書院)을 세우고 제사를 지냈다. 나중에 학봉을 추배(追配)하였다. - 《김학봉집(金鶴峯集)》 -

- 선조대왕 15년 - 임오(1582)

- 안음현(安陰縣) 향사당(鄕祠堂)이 완성되었다. 갈천(葛川) 임훈(林薰)이 그 비문을 썼다. 대략에 “선생이 홍치(弘治) 갑인년(1494)에 이 고을에 수령으로 부임하여 다섯 해를 지내고 사화(史禍)에 걸렸다. 다섯 해 동안에 어진 정치를 베풀고 문치(文治)의 교화를 일으켜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복종하게 하였다. 선생을 추모하여 사당을 세운다.” 하였다. 뒤에 임갈천(林葛川), 임첨모당(林瞻慕堂 임운(林芸)), 정동계(鄭桐溪 정온(鄭蘊))를 배향하였다. 현묘조(顯廟朝)에 용문(龍門)이라 사액(賜額)하였다. - 《임갈천집(林葛川集)》 -

- 선조대왕 16년 - 계미(1583)

- 학봉 김성일이 나주(羅州) 수령이 되어 오현(五賢)을 추모하여 주(州)의 서쪽 대곡동(大谷洞)에 경현서원(景賢書院)을 건립하였는데,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다. 임윤신(任允臣)이 후임으로 부임하여 공사를 이어 마무리하고 제사를 올리고, 선비들의 학문 수양 장소로 삼았다. - 《김학봉집》 -

- 선조대왕 19년 - 병술(1586)

- 한사(寒沙) 강대수(姜大遂)가 합천(陝川)의 유학자들과 더불어 선생 및 한훤당을 추모하여 합천의 야로현(冶爐縣)에 서원을 세우고 제사를 지냈다. 현묘(顯廟) 경자년(1660)에 이연(伊淵)이라 사액하였다. - 《강한사집(姜寒沙集)》 -

- 광해(光海) 2년 - 경술(1610)

- 관학(館學) 및 팔도(八道)의 유생, 대간(臺諫)과 정부(政府)가 번갈아 소장을 올려, 문묘에 종사하기를 함께 청하였다. 7월 18일에 아뢴 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 선생과 김굉필, 조광조, 이언적, 이황을 아울러 종사하라고 명하였다. 8월 13일에 도착한, 예조가 본도(本道)에 행이(行移)한 공문(公文)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6월 1일에 양사(兩司)가 합계(合啓)하기를 ‘신들이 오현(五賢)을 종사하는 일로 궐문에 엎드려 호소한 지가 이미 달포가 넘었는데도 상께서 아직 윤허하지 않으시니, 답답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선왕조(先王朝) 때부터 관학 유생들이 소장을 잇따라 올려 간절히 호소한 것이 지금 몇 해째입니까. 대개 도학(道學)은 하늘에 해와 별이 있는 것과 같아서, 하루라도 밝지 않으면 장차 국가의 정신(精神)과 명맥(命脈)을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왕(先王 선조(宣祖))께서는 도학을 응당 높여야 함과 공론은 막기 어렵다는 것을 깊이 아시고, 뒷날을 기다리자고 하교하셨고, 지금 우리 성상께서도 삼년상 중에 유생들의 상소에 내리신 답에, 「위아래에 진실한 뜻이 이미 통하였다.」라고 하시기에, 선왕께서 미처 겨를이 없어서 못 내리신 은전(恩典)이 오늘날 거의 거행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대소 신료들이 서로들 경하하며 머리를 들고서 기다리는데 성상께서는 비답에서 한결같이 굳게 거부하시니, 신들은 매우 의혹스럽습니다. 종사(從祀) 여부가 다섯 현신(賢臣)의 학문(學問)과 공덕(功德)에는 본디 손익(損益)이 없겠으나, 추송하여 보답하는 일이, 눈을 닦고 보는 날에도 여전히 거행되지 않고 있으니, 어찌 밝은 시대의 하나의 큰 흠결이 아니겠습니까. 현인을 제대로 높여 숭상하느냐 아니하느냐에 사문(斯文)의 성쇠가 달려 있으니, 조금이라도 늦추어서는 더욱 안 될 일입니다. 청컨대 선정신(先正臣)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이황을 모두 문묘에 종사하도록 명하시어 여망에 답하소서.’ 하였는데, 비답하시기를 ‘대신들에게 의논하여 아뢰라.’ 하셨다.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에 운운하셨습니다. 대신들에게 의논하였더니, 완평부원군(完平府院君) 이원익(李元翼)은 「신은 이전에 하문하실 때에 이미 모두 진달하였습니다. 지금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오직 성상께서 결단하여 시행하시기에 달렸습니다. 다시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삼가 성상께서 재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였고, 영의정 이덕형(李德馨)은 「우리나라의 도학(道學)이 신라와 고려를 거쳐 오는 동안 선비들의 본보기가 될 만



한 사람이 드물다가, 우리 조선조에 이르러 비로소 다섯 현신이 나와 염락관민(濂洛關閩)의 유서(遺緒)가 세상에 크게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존숭하고 보답하는 일을 진즉 의논해 시행했어야 마땅한데도 오늘날까지 미루고 있으니, 실로 성대한 시대의 흠결입니다. 예전에 설총(薛聰)과 최치원(崔致遠)은 도덕의 학문이 순정하지 않았는데도 또한 한 시대의 공로로 종사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섯 현신 같은 사람들도 오히려 거론하지 않으니, 이래서 선비들의 의논이 날로 격렬해지는 것이며, 나라 사람들이 모두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오직 성상께서 결단하여 시행하시기에 달렸습니다. 삼가 성상께서 재결하시기 바랍니다.」 하였고, 좌의정 이항복(李恒福)은 「다섯 신하의 일은 신이 일찍이 탑전(楊前)에서 마침 성상의 하문을 받들고 이미 모두 진달하였으니, 굳이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전에 드린 말씀을 다시 올리더라도, 어찌 대면하여 진달한 것처럼 상세하게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선비들의 의논이 이미 정해졌고 나라의 여론이 이미 같아졌습니다. 아직 행해지지 않은 것은 단지 성상의 윤허하신다는 한마디 말씀일 뿐입니다. 성상께서도 이미 그런 줄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무엇을 기다리신단 말입니까. 삼가 성상의 재결을 바랍니다.」 하였고, 영종추부사 윤승훈(尹承勳)과 청평부원군(淸平府院君) 한응인(韓應寅)은 「다섯 현신을 종사하는 일은 선비들의 의논이 이미 정해졌고 나라의 여론도 같아졌습니다. 오직 성상께서 결단하여 시행하시기에 달렸을 뿐입니다. 삼가 성상의 재결을 바랍니다.」 하였고, 우의정 심희수(沈喜壽)는 「조정의 크고 작은 의논들이 어찌 옳다느니 그르다느니 하는 의견의 차이가 없겠습니까마는, 다섯 현신을 문묘에 종사하는 일에 이르러서는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신들은 성상께서 즉위하신 초기에, 초야 선비의 진소(陳疏)를 인하여, 조속히 거행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연명(聯名)하여 헌의(獻議)하였고, 신은 지난해 봄에 차사(筭辭) 안에 이 일을 아울러 진달하였습니다. 이제 중외(中外)의 초야 선비들 및 조정에서 언론과 논사를 담당한 관원들이, 간절히 호소하는 소장을 서로 논의하지 않고도 같은 말로 올리니, 이것이 어찌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전하께서도 다섯 현신의 도덕과 학문의 훌륭함에 대해, 높여 보답해서 본보기가 되게 하는 은전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마치 미루고 어려워하는 뜻이 있는 듯한 것은, 단지 더없이 중대한 일을 신중하게 하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다섯 사람을 동시에 거행하는 것은 번다하고 많은 숫자라고 여겨서가 반드시 아니라고는 못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이 큰 현인을 내는 것은 때로는 적게 내기도 하고 때로는 많이 내기도 하여 그 숫자가 일정하지 않으며, 문묘에 종사하는 거조도 그에 따라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그 어찌가 종사하기에 합당한지의 여부만 살피면 되지 숫자의 많고 적음은 따질 것이 없습니다. 당(唐)나라 300년 동안에 단지 한유(韓愈) 한 사람만이 종사되었는데도 적다고 하지 않았고, 송(宋)나라 300년 동안에 염락(濂洛)의 여러 현인들이 잇따라 종사되었는데도 또한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멀리 사해(四海) 밖에 있으면서 삼국(三國)을 거쳐 고려 말에 이르기까지 종사한 사람은 몇 사

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 200여 년 동안 이 다섯 현신이 배출되었으니, 어찌 임금의 교화가 융성하고 천지의 기운이 온전하여 문명(文明)의 성대함을 이루었기에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조대왕(宣祖大王)께서 유학을 숭상하고 도의를 중시하는 정성이 참으로 대단하여 특별히 유신(儒臣 유희춘(柳希春))에게 명하시어 《유선록(儒先錄)》을 찬출하게 하시고 항상 살펴보시면서 크게 찬탄하셨으니, 네 신하가 후대에서 지우(知遇)를 받은 것은 지극한 행운이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이 잔뜩 기대하면서 모두들 종사하는 거조가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지연되었으니 어찌 안타까워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또한 필시 오늘날을 기다린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황(李滉)에 이르러서는, 선조(先朝)를 만나 참으로 극진하게 큰 존숭과 신임을 받았으며, 오늘날 현존하는 사람들도 그 훌륭한 덕성의 광휘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많고 더러는 직접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러러보면 마치 태산북두(泰山北斗)나 경성경운(景星慶雲)과 같음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후생 말학(末學)이 비록 그 실천의 경지가 어느 정도인지 조예가 어느 정도인지를 헤아려 알 수는 없으나, 몸을 단속하고 도를 행한 자취와 글을 짓고 말을 남긴 것의 대개를 살펴보면 또한 순수하게 한결같이 정도(正道)에서 나왔음을 징험할 수 있으니, 실로 각기 한 가지 재능과 한 가지 기예만을 가졌던 한(漢)나라나 당(唐)나라의 여러 유신(儒臣)들과는 견줄 바가 아닙니다. 이러한 도덕의 아름다움과 학문의 공적을 지닌 이 다섯 현신도 종사하는 반열에 들지 못한다면, 어떤 사람이라야 바야흐로 종사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조(先朝)를 거쳐 당저(當寧)에 이르렀는데도 응당 행해야 할 은전을 행하지 않는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날을 기다려야 성대한 일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난리를 겪은 뒤로 사람의 학문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도의 명맥이 땅에 떨어졌으니, 선철(先哲)을 존숭하고 사문(斯文)을 붙들어 세워 한 시대의 풍속과 교화를 일신시키고 만인의 이목을 고무시키는 의의가 평소보다 백배가 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속히 명하여 거행하게 하소서. 그러면 선비들의 기풍을 세우는 일에도 매우 다행일 것이며 나라의 은전을 베푸는 일에도 매우 다행일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대신들의 뜻이 이와 같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시기를 ‘의논대로 시행하라.’ 하셨다.

예조가 아뢰기를 ‘본조(本曹)에서 초기(草記)한, 오현을 종사하는 일에 대해 대신들의 의논을 모아 입계(入啓)하였더니, 의논대로 시행하라고 판하(判下)하셨습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여러 해 동안 우러러 바라던 거조가 성상께서 즉위하신 초기에 비로소 이루어져, 중외가 서로 경하하고 사기(士氣)가 백배나 올랐으니, 이는 실로 세도(世道)를 잡아 세우고 지치(至治)를 만회할 하나의 큰 기회입니다. 신들은 예(禮)를 담당한 자리에 있으면서 마침 역대에 없었던 성대한 일을 만났으므로 기쁨과 감격으로 인해 아뢴 바를 모르겠습니다. 종사하는 은전은 지금 응당 서둘러 거행하겠습니다. 다만 그 절목(節目)은 근거 삼을 만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니 별도로 제문(祭文)을 지어 예관(禮官)을 보내 각각 그 가묘(家廟)에 치제(致祭)하고, 또 문묘(文廟)에 제사를 올려 사유를 고한 뒤에 위판(位板)을 만들어 동무(東廡)와 서무(西廡)에 나누어 배치하는 것이 마땅할 듯한데, 어떤

이는 「지난번 공신(功臣)들을 배향(配享)한 전례에 따라, 위판을 만들어 가묘에 보내어 제사를 지내게 한 뒤에 받들어 오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합니다. 기타의 작은 일들은 지금 바야흐로 고사(古事)를 상고하고 있습니다만, 이 두 사항은 추측해서 마음대로 결단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들에게 의논을 물어 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니, 전교하시기를 ‘윤택한다.’ 하셨습니다.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에 운운하셨습니다. 대신들에게 의논하였더니, 완평부원군 이원익과 좌의정 이항복은 「관원을 보내 치제하게 하고 성묘(聖廟)에 고하는 일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만, 위판을 만들어 가묘에 보내는 일은, 인정과 예문으로 보아 그리하면 안 될 듯합니다. 그리고 종사하는 큰 예절은 고사(古事)에 필시 상고할 만한 글이 있을 것이니, 널리 상고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였고, 영의정 이덕형과 영종추부사 윤승훈과 청평부원군 한응인은 「이러한 성대한 예를 당하였으니 응당 관원을 보내 제사를 지내고 고유하는 일이 있어야겠습니다만, 위판을 만들어 그 가묘에 제사를 행하고 받들어 오는 일은, 반드시 이와 같이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습니다. 생각건대 억측으로 결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해조(該曹)가 고례(古禮)를 널리 상고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거조는 사문(斯文)의 성대한 일이요 천 년에 한 번 있는 기회입니다. 양무(兩廡)에 종사된 인물 중에 마융(馬融)과 두예(杜預) 등은 이미 중조(中朝 중국 조정)에서 바로잡아 폄출(貶出)한 사람들인데도 이렇게 옛 잘못을 인습하여 아직도 처리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중조의 성헌(成憲)에 따라 이목을 일신시킨다면 이것도 변화의 기틀이 될 것입니다. 의당 예관으로 하여금 살펴서 시행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상께서 재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였고, 우의정 심희수는 「문묘에 종사하는 거조는 실로 도통(道統)에 관계되는 성대한 전례(典禮)이고 우리나라의 중대한 일이므로 응당 시행해야 할 예절을 대충 마련하여 행해서는 안 되는데, 확실히 근거할 만한 전례의 글이 없으니 참으로 걱정입니다. 우선 사리(事理)로 미루어 보자면, 별도로 교서(敎書)를 갖추어 각기 그 가묘에 제사를 올리고 성묘에 제사하며 사유를 고하는 등의 일은 결코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판을 만들어 보냈다가 제사를 올린 뒤에 받들고 오기를 마치 공신을 배향할 때처럼 하는 일은, 사례가 전혀 다르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이제 또 다섯 현신의 집이 모두 영남(嶺南)에 있고 이언적(李彦迪)의 집이 가장 멀리 있으니, 서둘러 제관(祭官)을 보내어 내달 초에는 이를 수 있게 해야 마땅할 듯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신주의 위판을 만들어 동무와 서무에 나누어 배치하되 또한 내달 상정일(上丁日) 이전에 한다면, 매우 편리하고 온당할 듯합니다. 이는 해당 관원이 고사를 널리 물어 잘 헤아려 살펴 처리하기에 달렸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대신들의 뜻이 이러합니다. 감히 아뢰니다.’ 하니, 전교하시기를 ‘알았다. 유신(儒臣)으로 하여금 고례(古禮)를 널리 상고하게 하여 잘 헤아려 거행하라.’ 하셨습니다.

홍문관이 아뢰기를 ‘오현을 종사하는 의절(儀節)을 정하는 일에 대한 예조의 계사(啓辭)를 인하여, 유신으로 하여금 고례를 널리 상고하게 해서 잘 헤아려 거행하라고 전교하

셨습니다. 신들이 여러 서적을 갖다 상고하였더니,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에는 「이종(理宗) 순우(淳祐) 원년(1241)에 조서(詔書)를 내리기를 『짐이 생각건대 공자(孔子)의 도(道)가 맹자(孟子)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전수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이르러 주돈이(周敦頤), 장재(張載), 정호(程顥), 정이(程頤)가 참으로 도를 알고 힘써 실천하며 깊이 성인(聖人)의 경지를 탐구하자, 천 년 동안 단절되었던 학문이 비로소 지표를 갖게 되었다. 중흥한 이래로 또 주희(朱熹)가 나와 정밀하게 사려하고 밝게 분변하며 표리(表裏)를 융화시켜, 《중용》, 《대학》, 《논어》, 《맹자》의 글들을 본말(本末)이 환히 통하게 하니, 공자의 도가 더욱 세상에 크게 밝아졌다. 학궁(學宮)에 조칙을 내려 이들을 종사(從祀)에 들게 해서 추송하고 장려하는 뜻을 보이라.』 하였다.」 하였고, 《대명집례(大明集禮)》에는, 「후한(後漢)의 명제(明帝)가 궤리(闕里)에 납시어 태뢰(太牢)로 공자 및 70제자들을 제사하였고, 장제(章帝)와 안제(安帝)가 그대로 따랐다. 이것이 제자들이 종사된 시초이다. 당(唐)나라 정관(貞觀) 21년(647)에 조서를 내려, 좌구명(左丘明) 이하 21인을 묘정(廟庭)에 종사하였다. 개원(開元) 8년(720)에 십철(十哲)의 좌상(坐像)을 만들어 당상(堂上)에서 제사를 올렸으며, 70제자 및 21현인을 아울러 벽에 그림으로 그렸다. 송(宋)나라 원풍(元豐) 연간에 또 순황(荀況), 양웅(揚雄), 한유(韓愈)를 좌구명 등의 다음에 종사하였다. 이종(理宗) 순우 초에 주돈이, 장재, 정호, 정이, 주희를 종사하였고, 경정(景定) 중에 다시 장식(張栻)과 여조겸(呂祖謙)을, 도종(度宗) 함순(咸淳) 초에 또 사마광(司馬光)과 소옹(邵雍)을, 원(元)나라 무종(武宗) 지대(至大) 연간에 또 허형(許衡)을 종사하였다.」 하였으며, 《대학연의보》에, 「정통(正統) 중에 송나라의 호안국(胡安國), 채침(蔡沈), 진덕수(真德秀)와 원(元)나라의 오징(吳澄)을 종사하였다.」 하였습니다. 한나라와 당나라 이래로 황명(皇明 명(明)나라)에 이르기까지 선유들을 종사한 일이 없었던 왕조가 없으나, 종사의 의절(儀節)은 특별히 나오는 곳이 없어서 상고할 길이 없습니다. 감히 아쉽니다.」 하니, 전교하시기를 ‘알았다. 이 계사를 예조에 내리라.’ 하셨다.

예조가 아뢰기를 ‘종사의 절목은 유신이 이미 널리 상고하여 입계하였습니다만, 그 위판을 가묘에 보낼지의 여부는 상고할 데가 없습니다. 이는 의절에 관한 일인지라 드러나게 실려 있는 곳이 없을 듯합니다. 대신들의 의논은 모두 「관원을 보내 교서를 갖추어 그 가묘에 제사를 올리게 하고 또한 문묘에 제사를 지내며 고유(告由)하는 것이 합당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조의 뜻도 단지 이와 같을 뿐입니다. 만약 이대로 시행한다면 상정일(上丁日) 이전에 위판을 만들어 성무(聖廡)에 올려 배향할 수 있을 것이나, 반드시 제사와 고유를 한 뒤에 바야흐로 묘정에 들인다면 거리가 매우 멀어 날이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막중한 전례(典禮)를 황망하게 거행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지금 이 종사하는 은전은 실로 200년 동안 없었던 일입니다. 도맥(道脈)을 붙들어 세우고 사문(斯文)을 진작하니, 국가의 경사가 이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예전 송나라 이종 순우 초에 주돈이, 정호, 정이, 장재, 주희를 성묘에 종사하고 왕안석(王安石)을 종사에서 내치고서, 인하여 천하에 조서(詔書)를 반포하였습니다. 지금도 진하(陳賀)하고 교서를 반포하여 중외에 널리 알리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그러나 신들이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대신들에

게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니, 전교하시기를 ‘윤희한다.’ 하셨다.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에 운운하셨습니다. 대신들에게 의논하였더니, 완평부원군 이원익, 영의정 이덕형, 좌의정 이항복, 영종추부사 윤승훈, 우의정 심희수, 청평부원군 한응인이 「교서를 반포하는 것은 옳겠으나, 진하는 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대신들의 뜻이 이러합니다. 감히 아립니다.’ 하니, 전교하시기를 ‘의논대로 하라.’라고 계하하셨다.

일전에 다섯 현신을 치제할 일로 본조의 낭청 두 사람이 경상 좌도와 우도로 나뉘어 향(香)을 받아 내려갔다. 그러니 제물(祭物)을 마련하고 집사(執事)를 차정하여 기다리라. 이번의 이 사제(賜祭)는 보통 전례에 따라 행하는 것에 견줄 바가 아니다. 이에 제물들을 각별히 정결하게 마련할 것을 미리 통지하니, 서둘러 거행하라는 내용으로 본가(本家)에 통지하여 시행하라.”

- 8월 20일에 예조 정랑 금개(琴愷)를 보내어 치제하고, 문묘에 종사하는 사유를 먼저 고하게 하였다.

- 9월 4일에 명하여, 문묘의 서무에 종사하고 중외에 교서를 반포하게 하였다.

- 이해에 아산(牙山)의 선비들이 오현(五賢)을 위하여 인산서원(仁山書院)을 세우고 기복재(奇服齋) - 준(遵) -, 이토정(李土亭) - 지함(之菡) - 등의 현신을 배향하였다. - 《아산지(牙山誌)》 -

- 광해 4년 - 임자(1612)

- 남계서원(濫溪書院)을 중건(重建)하였다. 이보다 앞서 선묘(宣廟) 정유년(1597) 병란에 향유(鄉儒) 정경운(鄭慶雲)이 진경운(陳慶胤)과 함께 화가 장차 서원에 미칠 것을 우려하여 위패를 옮겨 봉안하여 화를 면하였다. 3년이 지난 경자년(1600) 4월에 사림이 사우(祠宇)를 서원 북쪽 연화산(蓮花山)에 임시로 모셨고, 그 6년 뒤 을사년(1605) 3월에 또 나촌(羅村)에 옮겨 모셨다가 이때에 이르러 다시 옛터에 세운 것이다. - 정경운(鄭慶雲)의 일기 -

- 광해 8년 - 병진(1616)

-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가 사림과 함께 상주(尙州)의 관아 동쪽에 서원을 창건하고, 선생 및 정포은(鄭圃隱 정몽주(鄭夢周)), 김한훤(金寒暄), 이회재(李晦齋 이언적(李彦迪)), 이퇴계(李退溪 이황(李滉))를 아울러 배향하였다. 뒤에 유서애(柳西厓 유성룡(柳成龍)), 노소재(盧穌齋 노수신(盧守愼)), 정우복(鄭愚伏)을 배향하였다. 숙묘(肅廟) 2년 병진년

(1676)에 도남(道南)이라는 액호(額號)를 하사하였다. - 《정우복집(鄭愚伏集)》 -

- 효종대왕(孝宗大王) 10년 - 기해(1659)

- 거창(居昌)의 사림이 선생 및 한훤 두 분을 추모하여 산제동(山際洞)에 서원을 건립하고, 정동계(鄭桐溪)를 배향하였다. 현묘조(顯廟朝)에 도산(道山)이라는 액호를 하사하였다. - 《경현록(景賢錄)》 -

- 숙종대왕(肅宗大王) 10년 - 갑자(1684)

- 관북(關北)의 사림이 선생의 덕을 추모하여 부계(涪溪)에 서원을 건립하고, 복재(服齋) 기준(奇遵),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동계(桐溪) 정온(鄭蘊), 문절공(文節公) 유희춘(柳希春), 문숙공(文肅公) 정엽(鄭曄), 충정공(忠貞公) 정홍익(鄭弘翼), 낙정(樂靜) 조석윤(趙錫胤), 시남(市南) 유계(兪槩) 등 여덟 현신을 배향하였다. 이듬해 병인년(1686)에 원유(院儒) 김정창(金鼎昌), 주익(朱楫) 등의 상소를 인하여 종산(鍾山)이라는 액호를 하사하고 예관을 보내어 치제하였다.

- 영종대왕(英宗大王) 19년 - 계해(1743)

- 《실기(實紀)》를 중간(重刊)하였다.

- 선생의 유문(遺文)이 사화(史禍)에 유실되었다. 한강(寒岡) 정 문목공(鄭文穆公) 정구(鄭逵)이 그 언행(言行)이 전해지지 아니함을 매우 애석하게 여겨, 선생의 증손 정수민(鄭秀民)과 함께 드디어 망실되고 남은 것들을 수습하여 1책을 만들어 세상에 간행하였고, 여헌(旅軒) 장 문강공(張文康公) 장현광(張顯光)이 그 끝에 발문을 썼다. 그 책을 이해에 중간한 것이다. 도암(陶菴) 이 문정공(李文正公) 이재(李穡)이 또 수정(修正)하고 아울러 발문을 붙였다.

- 묘현(廟見) : 사당을 알현하는 의식이다. 당시에 중종(中宗)의 비(妃) 장경왕후(章敬王后)가 별세하고 1517년(중종12) 7월 19일에 새 왕비로 윤씨(尹氏)를 친영(親迎)하여 혼례를 치른 뒤였는데, 새로 맞은 왕비의 묘현례 거행에 대해 조정 신료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절의(節義) : 왕조실록에는 ‘節義’로 표기되어 있는데, 문맥상 두 가지 뜻이 모두 가능하다.

죽계(竹溪)에 세운 서원 : 1541년(중종36)에 풍기 군수(豐基郡守) 주세붕(周世鵬)이 고려 명현(名賢) 안향(安珦)을 제사하기 위해 세운 서원이다. 죽계 백운동(白雲洞)에 있으므로

백운동서원이라고도 하며, 1550년(명종5)에 ‘소수(紹修)’라는 액호를 받아 소수서원이라 불린다.

공역을 …… 기약하였다 : 《개암집(介庵集)》 〈연보〉에 의하면, 서원은 가정 40년 신유년(1561, 명종16)에 이루어졌다고 하였으니, 명종 7년에 착공하여 대략 10년 만에 완공한 셈이다. 《韓國文集叢刊輯》

1월 : 한국문집총간 34집에 수록된 《미암집(眉巖集)》에는 ‘2월’로 되어 있다.

오현(五賢) : 김굉필(金宏弼), 정여창(鄭汝昌), 조광조(趙光祖), 이언적(李彦迪), 이황(李滉)을 말한다.

염락관민(濂洛關閩)의 유서(遺緒) : 염락관민은 중국 송대(宋代) 이학(理學) 4대 학파의 핵심 인물인 염계(濂溪)의 주돈이(周敦頤), 낙양(洛陽)의 정호(程顥)와 정이(程頤), 관중(關中)의 장재(張載), 민중(閩中)의 주희(朱熹)를 가리키고, 유서는 이들이 남긴 송대 이학의 학통을 말한다.

태산북두(泰山北斗)나 경성경운(景星慶雲) : 태산과 북두는 덕이 높고 명망이 있어서 사람들이 우러러볼 대상이 되는 탁월한 인재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며, 경성은 큰 별, 상서로운 별이고 경운은 오색구름인데, 길운(吉運)이 열리는 나라에 나타나는 상서로운 조짐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문묘 종사 대상인 오현(五賢)이 태산북두처럼 우러러볼 대상이며 이들의 출현은 나라의 장래에 길운을 열어갈 상서로운 조짐과 같다는 뜻으로 쓰였다.

십철(十哲) : 공자의 제자 안연(顏淵), 민자건(閔子騫), 염백우(冉伯牛), 중궁(仲弓), 재아(宰我), 자공(子貢), 염유(冉有), 계로(季路), 자유(子游), 자하(子夏) 등 10명을 가리킨다.

武宗毅皇帝正德二年 中宗大王二年 丁卯夏六月初十日。藝文館奉教金欽祖，鄭忠梁，待教李希曾，金瑛，檢閱權檣，李沫，鄭熊，尹仁鏡，尹止衡等。上疏以爲戊午修史之官。徒以私嫌。不顧公議。陰囑大臣。使之挑怒。子光從而唱之。同議密啓。終致大禍。是則陰欲掩過。而卒不得掩。更使暴揚於後世。累及於先王。一以毀萬世史家之法。一以啓人主喜殺之心。罪當不原。賞反及焉。臣等不勝痛悵。比來。皆以戊午之禍爲戒。士氣摧折。臣等非以駟孫爲惜。恐史家之法。從此盡廢。而萬世之公論。泯泯云云。大臣朴元宗等亦論啓。上乃命還給金宗直，金駟孫等七人家產。追奪李克墩爵。收尹弼商，盧思愼，韓致亨，柳子光等賞賜田宅。教曰。辭連被罪者。果是曖昧。宜追贈其爵。因復先生及表沿沫，洪瀚茂豐副正摠，姜景敍，李守恭，鄭希良，鄭承祖，李宗準，李仁亨，崔溥，李龜，李胄，金宏弼，康伯珍，朴漢柱，任熙載，李繼孟，姜渾等官爵。實紀所載頗疏略。故因國朝寶鑑間補。贈先生通政大夫。承政院都承旨兼經筵參贊官，尙瑞院正。

十二年 中宗大王十二年 丁丑二月。經筵官趙光祖啓曰。士習頹靡。莫大之患也。變化之道。豈無其方。如金宏弼，鄭汝昌褒獎。則可以扶植斯文矣。八月二日。上以廟見節儀等事。延訪群臣。金安老曰。金宏弼，鄭汝昌。被罪於廢朝。其子孫。不可以被誅人子孫例錄用也。當以賢者之後。而使其妻孥。得免於飢寒。可也。上顧謂鄭光弼，申用溉曰。於大臣

意何如。光弼等同辭以對曰。操守踐實之人。褒獎可也。金詮曰。其所學醇正。不趨名勢。得其正派之人也。學者以爲宗師。終以其學行而禍及之。甚可痛惜。李紆曰。金宏弼。鄭汝昌。學術醇正。東國無如此人。儒者知所向方。專賴二人之功也。古有贈職褒美之事。此何預於賢者乎。然有國者所當爲也。其子孫亦可錄用。傳于政院曰。金宏弼等子孫。錄用可也。六日。傳于政院曰。鄭汝昌。金宏弼。皆賢者也。其子孫錄用。不可如他被誅人子孫例。當刻別錄用。且褒贈官爵。存恤妻子等事。竝捧承傳。十日。臣光弼。臣用溉。臣詮。臣荊山。臣繼孟。臣瑯。臣繼商議。金宏弼。鄭汝昌。學術醇正。踐履篤實。一時學者所共推服。廢朝。以金宗直門徒被罪。當代愍其無辜。例加贈爵。已命錄用其後矣。但此等人。數世所罕出。沒齒之後。志於道學者。尚多慕之。例贈未足表異。加贈其爵。歲廩其妻。搜訪其子孫。錄用何如。伏惟上裁。二十日。鄭光弼。申用溉。高荊山。南袞。韓世桓議。儒臣鄭汝昌與金宏弼。生於一時。其相與切磋之益。如考亭之於南軒也。今既獎異宏弼。而不及汝昌。則恐爲闕典。伏惟上裁。二十六日。鄭光弼等議。金宏弼。鄭汝昌。例贈都承旨。未足表異。請依前議施行。加贈崇品。子孫錄用。歲廩其妻何如。啓依允。贈先生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監春秋館事。禮曹報議政府。金宏弼。鄭汝昌。所居鄉講道之處。置立祠宇。春秋仲月。官爲致祭何如。

十月二十八日。議政府啓金宏弼。鄭汝昌。未有聚弟子講道之所。強指某處爲講道之所。置立祠宇。似非其實。各於家廟。春秋仲月。官爲致祭何如。同副承旨柳雲。次知啓依允。金宏弼。家在玄風。鄭汝昌。家在咸陽。各其官鄉校及境內窮村僻巷。掛榜知委。使學者盡知國家褒賢重道之意。一變舊習之陋。專尚性理之學事。本道移文。

世宗肅皇帝嘉靖三十一年 明宗大王七年 壬子。士林建書院于濫溪。姜介菴 翼 與朴公。承任盧徙菴。裸鄭梅村。復顯林濫溪。希茂 議曰。吾鄉乃一蠹先生之鄉。而先生之歿。已至五十年。尚無建院立祠之舉。實吾鄉之羞。咸曰然。乃創立書院。是時也。我東方書院。惟周茂陵設竹溪之外。無有焉。見聞未熟。不無異議。介庵毅然不動。決意舉役。鄉之儒士。爭致米穀。隣邑之來助者亦衆。郡守徐侯。盡心以助。既立講堂。而徐侯遞去。時又不稔。故堂未瓦而遂停其役。殖餘財以待贍。而期訖功。姜介庵年譜。下同。

四十五年 明宗大王二十一年 丙寅秋七月。宣額濫溪。蓋自一蠹。寒暄被禍之後。雖有正德丁丑昭雪之典。而當時大臣議。以爲無立祠之地。令各於家廟。春秋致祭。今既立祠。則當致祭於院。而擅陳俎豆。不合禮法。故陳疏丐請。不知其幾。而世罕好德之賢。未遇轉達之期。幸賴金侯宇弘來守。朴公啓賢觀風。始得上達宣額。令春秋致祭。其間周旋之際。玉溪盧公愼。九拙梁公喜。青蓮李公後白。皆有誠焉。後肅宗元年乙卯。配鄭桐溪蘊于西序。十五年己巳。配姜介菴翼于東序。

穆宗莊皇帝隆慶二年 宣祖大王元年 戊辰。館學儒生趙憲等。疏請金宏弼。鄭汝昌。趙光



祖，李彥迪從祀文廟。累月陳請。自是之後。每年陳疏。或新榜入泮之後。率新生員陳疏。逐榜籲懇。以爲常規。國朝寶鑑

六月。天使來問通事曰。汝國。乃文獻之邦。學術如程朱者有之乎。對曰。有之。問姓名爲誰。必有著文行於世矣。吾欲知人才之盛。學問之高。七月。臣希春與奇大升，盧守愼。特被選。議以東方十大儒爲對。卽禹倬，鄭夢周，吉再，金宗直，金宏弼，鄭汝昌，趙光祖，李彥迪，金安國，徐敬德也。柳眉岩經筵日記。下二條同。

四年 宣祖大王三年 庚午四月二十日。副提學柳希春。奉教搜訪金，鄭，趙三先生著述。是時館學儒生等。累上疏章。乞崇獎儒賢。金宏弼，鄭汝昌，趙光祖，李彥迪從祀文廟。以爲明士趨養元氣之地。未云。國家自己卯斷喪之後。又經乙巳之禍。國是未定。士氣摧折。爲學尚懷於疑懼。檢身猶戒乎駭異。伏願殿下。更加重道之誠。益隆崇儒之禮。許以四臣從祀文廟。一以追報其功。一以勸勵斯世。則士林知有所宗。而學術皆出於正矣。辭懇意正。三復歎賞。仍有是教。五月四日。進陳曰。頃承命搜訪金宏弼，鄭汝昌，趙光祖等著述。金宏弼疏則李忠綽得之。其他每人之作。臣各得數首。蓋此人等。皆遭史禍。故所著散亡零落。所得至小。臣於卷末。添錄行實行狀。所作雖小。記其行實雖略。觀此可知有德有學。興起斯文之功矣。八日。與李仲虎，申湛，宋應漑，柳成龍。同校正入啓。十五日。陳進曰。金鄭趙文字進入矣。請御覽後還降。臣略載李彥迪文。正書更入。自上命印出。頒賜公卿大夫。則人皆知四賢之實。

神宗顯皇帝萬曆二年 宣祖大王七年 甲戌正月二十三日。啓曰。儒先錄。久欲印進。而以金宏弼，鄭汝昌贈諡。然後竝錄爲計。金宏弼行狀則已呈於該曹。獨鄭汝昌則子孫一門。無能具行狀以呈者。其實汝昌之行狀事實。已具於儒先錄。乞命該曹。考儒先錄而爲之。不勝幸甚。二月二十四日。政院以昨日朝講。諸經筵官所建白事無發落。取稟。臣希春所啓。校書著作趙憲。質正官改差。使監校朱子語類鄭汝昌儒先錄所載行狀。遣奉常寺議諡。上特從之。

三年 宣祖大王八年 乙亥。賜諡文獻。道德博聞曰文。聰明睿哲曰獻。

七年 宣祖大王十二年 己卯。鶴峯金 誠一 以巡撫使。倡率多士。以爲河東。先生之貫鄉。創立永溪書院。設俎豆焉。後追配鶴峯。金鶴峯集

十年 宣祖大王十五年 壬午。安陰縣鄉祠堂成。葛川林薰書其碑。略曰。先生於弘治甲寅。出宰于縣。居五年而罹史禍。五年之間。施仁政。興文教。使吾民心悅誠服。追慕先生而立祠。後配享林葛川，林瞻慕堂，鄭桐溪。顯廟朝。賜額龍門。林葛川集

十一年 宣祖大王十六年 癸未。鶴峯金 誠一 知羅州。追慕五賢。建景賢書院于州西大谷洞。未訖而任允臣來代踵成。設俎豆。以爲士子藏修之所。金鶴峯集

十四年 宣祖大王十九年 丙戌。寒沙姜 大遂 與陝川章甫。慕先生及寒暄而建書院于陝川冶爐縣。設俎豆焉。顯廟庚子。賜額伊淵。姜寒沙集

三十八年 光海二年 庚戌。館學及八道儒生。臺諫政府。交章共請從祀文廟。七月十八日。依允。命先生與金宏弼，趙光祖，李彥迪，李滉并列從祀。八月十三日。到禮曹行移本道關內。去六月一日。兩司合啓。臣等將五賢從祀一事。伏閣籲呼。已踰旬月。而俞音尙闕。不勝悶鬱焉。自在先朝。館學儒生。連章瀝血者。今幾年乎。蓋道學如天之有日星。一日不明。則將無以扶國家精神命脈。故先王深知道學之當尊。公議之難遏。以待後日爲教。而今我聖上。亦於三年之內。答儒生疏曰。上下之間。誠意既通。則先王未遑之典。庶見舉行於今日矣。小大胥慶。翹首以待。而聖批一向牢拒。臣等切惑焉。從祀與否。於五賢臣學問功德。固無損益。而崇報之舉。尙闕於拭目之日。豈非明時之一大欠乎。尊尙之得失。而斯文之盛衰係焉。尤不可少緩。請先正臣金宏弼，鄭汝昌，趙光祖，李彥迪，李滉。竝命從祀文廟。以答輿望。答曰。議大臣以啓。禮曹啓曰。傳教云云。議于大臣。則完平府院君李元翼。以爲臣前於下問時。已盡陳達。今無他議。惟在聖上斷然行之。更何待乎。伏惟上裁。領議政李德馨。以爲吾東方道學。歷新羅，高麗以來。罕見爲士子矜式。逮我聖朝。始有五賢臣者出。而濂洛關閩之遺緒。得大明于世。其尊尙崇報之舉。當趁卽議施。而遷延至今。實盛世之闕典也。在昔薛聰，崔致遠。非醇於道德之學。而亦以一時之功。與於從祀之列。乃如五賢臣。而尙不舉論。此士論之日激。而國言之僉同者也。今無他議。惟在聖明斷然行之。伏惟上裁。左議政李恒福。以爲五臣之事。臣嘗於榻前。適承聖問。已盡陳之矣。言不必複。雖申前說。豈盡如面陳之詳乎。今則士論已定矣。國言已同矣。所未行者。只是聖上一言耳。聖上既知其然。則尙誰俟乎。伏惟上裁。領中樞府事尹承勳，清平府院君韓應寅。以爲五賢臣從祀一事。士論已定。國言亦同。惟在聖上斷然行之而已。伏惟上裁。右議政沈喜壽。以爲朝家大小論議。豈無早白之異同者。而至於五賢臣從祀文廟之舉。夫孰有異議之人也。臣等。在聖上嗣服之初。因草野陳疏。聯名獻議以不可不速行之意。而臣於上年春。并陳此事於筮辭中矣。今者。中外韋布之士及耳目論思之官。瀝血封章。不謀同辭。此豈人力之所可致者哉。殿下亦豈不知五賢臣道德學問之懿。不容無崇報矜式之典。而似若有遲難之意者。非但慎重其莫大之事。亦未必不以五人一時并舉。爲近於繁夥歟。是則大不然。天之生大賢也。疏數無常。從祀文廟之舉。亦隨以多寡焉。但觀其賢之當祀與否。不問人數之多寡。唐三百年。只有一韓愈從祀。不爲寡。宋三百年。濂洛諸賢。荐行從祀。亦不爲多。吾東方邈在海外。歷三國至麗季。從祀者不過若干人。而國朝二百餘年。得此五賢臣之輩出。豈非以聖神化隆。光岳氣全。致有文明之盛而然也。宣祖大王崇儒重道之誠。遠出尋常萬萬。特命儒臣。撰出儒先錄。而常賜觀省。大加歎賞。則四臣之見遇於異世者。可謂至幸矣。其時士林顯若。咸謂從祀之舉。不朝則夕。而淹延至此。豈不可惜。而亦必有待於今日也。至於李滉。則遭際先朝。最見尊信。無所不用其極。卽今見存之人。亦多目覩晬盞光輝。或有親被薰染。仰之若泰山北斗景星慶雲者。容有極哉。後生末學。雖未能測知其踐履之何許。造詣之何許。而觀於律身行道之緒餘。著書立言之大要。亦可驗其粹然一出於正。

實非漢，唐諸儒各有一才一藝者之所可比并也。有此五賢臣道德之美。學問之功。而不得與於從祀之列。則未知何人方得以從祀也。歷先朝以及當寧。而猶不行其應行之典。則又未知等待何日而得見盛事乎。經亂以來。士學迷方。道脈墜地。其尊尚先哲。扶植斯文。作新一代風教。聳動萬人瞻聆之意。百倍平昔。伏願聖明。亟命舉行。士氣幸甚。國典幸甚。大臣之意如此。敢啓。傳曰。依議施行。禮曹啓曰。以本曹草記五賢從祀事。大臣收議入啓。傳曰依議施行事判下矣。舉國群情積年顯望之舉。始成於聖上嗣服之初。中外相賀。士氣百倍。此實扶植世道。挽回至治之一大機會也。臣等待罪典禮之地。適逢曠世之盛事。歡欣感激。不知所達。從祀之典。今當急速舉行。第其節目。未有考據之例。似當別爲祭文。遣禮官致祭於各其家廟。且設祭告由於文廟。造作位板。分配於東西兩廡。而或以爲依頃日功臣配享之例。造作位板。送於家廟行祭。然後奉來爲當云。其他曲折。今方查考古事。而此兩款。未能以臆意擅斷。議大臣定奪何如。傳曰允。禮曹啓曰。傳教云云。議于大臣。則完平府院君李元翼，左議政李恒福。以爲遣官致祭。且告聖廟。然矣。至於造位板送家廟。情文恐不然也。且從祀大禮。古必有可考之文。博考行之爲宜。伏惟上裁。領議政李德馨，領中樞府事尹承勳，清平府院君韓應寅。以爲當此盛禮。應有遣官祭告之事。至於造位板。行祭于其家廟而奉來。則未知其必如此否也。第難以臆斷。惟在該曹博考古禮處之。今此之舉。斯文盛事。千載一時。兩廡從祀之列。馬融，杜預等。已被中朝釐正貶出之人。猶此因襲襲謬。尚未有處置則誠欠事也。依倣中朝成憲。使耳目一新。此亦其機。宜令禮官察而行之。伏惟上裁。右議政沈喜壽。以爲從祀文廟之舉。實係道統盛典。我國大事。應行禮節。不容草草爲之。而無舊例明文之據。誠爲可慮。姑以事理推之。則如另具教書。致祭於各其家廟。祭告端由於聖廟等事。決不可已。至於造送位板。行祭後奉來。如配享功臣之爲。則事例相懸。恐不然也。今且五賢臣之家。皆在嶺南。而李彥迪之家。最爲絕遠。似當急急馳遣祭官。以及來月之初。而自此一邊造神板。分配東西廡。亦於來月上丁之前。則似甚便當。此在該官博問古事。商度而審處之也。伏惟上裁。大臣之意如此。敢啓。傳曰。知道。令儒臣博考古禮。參商舉行。弘文館啓曰。因禮曹啓辭。五賢從祀儀節定奪事。令儒臣博考參商舉行事傳教矣。臣等取考諸書。則大學衍義補。理宗淳祐元年。詔曰。朕惟孔子之道。自孟子之沒。不得其傳。至我朝周敦頤，張載，程顥，程頤。眞見力踐。深探聖域。千載絕學。始有指歸。中興以來。又得朱熹。精思明辨。表裏混融。使中庸，大學，語，孟之書。本末洞徹。孔子之道。益以大明于世。詔令學宮。列諸從祀。以示崇獎之意。大明集禮。後漢明帝幸闕里。以大牢。祀孔子及七十弟子。章帝，安帝因之。此弟子從祀之始也。唐貞觀二十一年。詔以左丘明以下二十一人從祀廟庭。開元八年。以十哲爲坐像。享于堂上。七十子及二十一賢。竝圖于壁。宋元豐間。又以荀況，揚雄，韓愈。從祀于左丘明等之次。理宗淳祐初。以周敦頤，張載，程顥，程頤，朱熹從祀。景定中。復以張栻，呂祖謙。度宗咸淳初。又以司馬光，邵雍。元武宗至大間。復以許衡從祀。大學衍義補。正統中。以宋胡安國，蔡沈，眞德秀。元吳澄從祀。自漢唐以來。至于皇明。先儒從祀之舉。無代無之。而從祀儀節。別無現出處。無從可考矣。敢啓。傳曰。知道。此啓辭下禮曹。禮曹啓曰。從祀節目。儒臣已爲博考入啓。而其位板送于家廟與否。則未有所考焉。此是儀節間事。似無著載之

處。大臣收議。咸以爲遣官具教書。致祭于其廟。且祭告端由於文廟爲當云。本曹之意。亦只如此。若依此爲之。則上丁之前。可以造作位板。升配於聖廡。而然須待祭告之後。方爲入廟。則道里甚遠。日勢未及。莫重之禮。恐不可忙迫舉行也。今此從祀之典。實二百年所未有之舉。扶植道脈。振作斯文。國家之慶。無大於此。昔宋理宗淳祐初。以周，程，張，朱。從祀聖廟。黜王安石從祀。因頒詔天下。今亦似當陳賀頒教。布告中外。然臣等不敢擅便。議大臣定奪何如。傳曰允。禮曹啓曰。傳教云云。議于大臣。則完平府院君李元翼，領議政李德馨，左議政李恒福，領中樞府事尹承勳，右議政沈喜壽，清平府院君韓應寅。以爲頒教則可矣。陳賀似不當爲。伏惟上裁。大臣之意如此。敢啓。傳曰。依議事啓下。嚮前五賢臣致祭事。曹郎廳二員。分左右道。受香下去。祭物措備。執事差定待候。今此賜祭。非尋常例行者比。凡祭物。各別精潔措備事預先知委。急急舉行事本家知委施行。

八月二十日。命遣禮曹正郎琴愷致祭。先告從祀文廟事由。

九月四日。命列從祀于文廟西廡。頒教中外。

是歲。牙山章甫。爲五賢建仁山書院。配以奇服齋，遵李士亭，之菡 諸賢。牙山誌

四十年 光海四年 壬子。重建濫溪書院。先是。宣廟丁酉兵燹。鄉儒鄭慶雲與陳慶胤。懼禍將及院。移安位牌以免禍。越三年庚子四月。士林權奉祠宇于院北蓮花山。後六年乙巳三月。又移奉于羅村。至是還建舊址。鄭慶雲日記

四十四年 光海八年 丙辰。愚伏鄭 經世 與士林。創書院于尙州治東。并享先生及鄭圃隱，金寒暄，李晦齋，李退溪。後配柳西崖，盧蘇齋，鄭愚伏。肅廟二年丙辰。賜額道南。鄭愚伏集

毅宗烈皇帝崇禎三十二年 孝宗大王十年 己亥。居昌d士林。追慕先生及寒暄兩先生。建書院于山際洞。配鄭桐溪。顯廟朝。賜額道山。景賢錄

崇禎五十七年 肅宗大王十年 甲子。關北士林。追慕先生之德。建書院于涪溪。配以服齋奇遵，清陰金 尙憲，桐溪鄭 蘊，文節公柳 希春，文肅公鄭 曄，忠貞公鄭 弘翼，樂靜趙 錫胤，市南俞 榮 八賢。翌年丙寅。因院儒金鼎昌，朱楹等上疏。賜額鍾山。遣禮官致祭。

一百十六年 英宗大王十九年 癸亥。重刊實紀。

先生遺文。逸於史禍。寒岡鄭文穆公。甚惜其言之無傳。與先生曾孫秀民。遂收拾亡失之餘。爲一卷。刊行于世。旅軒張文康公。跋其後。是年重刊。陶庵李文正公。又修正并跋

## (2) 소장자료의 전래

서원은 도서를 보관하고 간행하는 도서관 기능도 가지고 있었다. 남계서원도 건립 초기부터 서적 마련에 노력을 기울였는데 원장인 강익은 유사를 임명하여 책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기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도서를 늘어갔다.

남계서원의 ‘서원보부록’에는 기증, 원비(院備), 내사(內賜) 등의 방법으로 서

적을 마련한 방법과 서책의 목록, 권수가 기재되어 있다. 기증은 지방관과 중앙의 관료, 함양의 사림들이었고, 사액을 내릴 때 교육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나라에서 내려준 내사본들이 있었고, 나머지는 서원에 서돈을 마련하여 구입한 서책들이었다. 특히 지방관들이 기증한 책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감사나 고을 수령이 순행이나 부임 인사로 서원에 들러 알묘(謁廟)하면서 책을 기부하였고, 서원에 모셔진 선현의 후손이나 외손 등 혈연 관련이 있는 고을 수령들이 책을 기증하기도 하였다. 지방관이 보낸 책은 자기의 책일 경우도 있고, 현직에 있을 때 관권을 이용하여 간행한 책인 경우도 있고, 또한 예전에 고을에서 간행해서 관아에 보관하고 있는 책을 보냈을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서적의 종류는 논어, 시경 등 경전류, 근사록, 주자대전, 주자어류 등 성리서류, 사략, 통감, 춘추 등 역사서, 그리고 문집류 등이었다. 서원도서가 경사류, 문집류 중심으로 이루어져 도서의 편파성, 편당성, 학문 경향의 침체성이 지적되기도 하지만, 이는 유교사회인 조선시대에 양반들의 학문 경향과 사회 지향을 보여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남계서원의 도서들은 정유재란 때 왜군들의 분탕질로 모두 약탈되거나 불타버렸다. 심지어 내사 받은 서적도 분실할 정도였다. 전란 뒤에 도서 확보에 노력을 하여 향교의 서적을 옮겨오기도 하고, 지방관의 기증, 사림들의 회사, 서원에서의 구입 등의 방법으로 도서를 확보해 나갔다. 그리고 종이를 구입하다가 판본이 있는 전라도 고을에 보내 책을 찍어오기도 하였다. 남계서원에서는 다른 서원과 마찬가지로 서적관리에 유의하여 습기 찬 책들을 햇볕에 내어 쪼이는 장서(曝書)를 하기도 하였고, 간혹 도서를 간행하기도 하고 간행한 목판을 보관하는 장판각도 갖추고 있다. 남계서원은 경남지역 내 중요한 자료를 많이 소장하고 있는 대표적 서원 중 하나이다. 남계서원에 대한 대표적인 조사는 다음과 같다.

1969년 국회도서관에서는 당시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서원 소장 도서의 목록을 조사하여 『李朝書院文庫目錄：李朝書院文庫目錄考』를 간행하였다. 성균관대학의 이춘희 교수가 전국을 실지 답사해 가며 조사·정리한 것이다. 대원군의 서원철폐 당시 전국에 남겨둔 47곳의 서원 중 1969년까지 대한민국에 존속하고 있는 서원은 모두 36곳이었다. 이 중 강원도의 표충사(褒忠祠)와 충렬서원(忠烈書院)은 한국전쟁 때 소실되어 실재 현존 서원 수는 34곳 이었다. 지방별로 보면 경상도가 14곳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경기도 11곳, 충청도 5곳, 전라도 3곳, 강원도 3곳 순이다. 34곳의 서원 중 실지 답사하여 서책의 유무를 확인한 곳은 17곳, 서신에 의해 확인 한 곳은 서원이 4곳으로 총 21곳의 서원에서 장서(藏書)를 보유하고 있었다. 남계서원의 경우 59종 317책을 보유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목록은 국회전자도서관에서 제공해 주는 『이조서원문고목록(李朝書院文庫目錄)』의 원

문DB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남계서원 소장 자료에 대해 조사한 것 중 가장 상세한 것은 2005년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에서 수행한 것이다. 당시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에서는 경상남도 10개시·군의 일반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 44곳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를 조사하여 『경상남도 일반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 실태조사보고서 : 마산시·밀양시·산청군·양산시·진해시·창녕군·창원시·하동군·함안군·함양군』 1, 2와 『경상남도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보고서 : 책판목록』 3 총 3종의 조사 보고서를 간행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계서원에는 『한주선생문집(寒州先生文集)』·『동계선생문집(桐溪先生文集)』·『송탄집(松灘集)』 등 여러 학자들의 문집류를 포함한 고서류가 147건, 각종 장부와 통문, 간찰 등의 고문서가 717건, 현판을 포함한 민속·유물자료가 5건, 『일두선생문집(一蠹先生文集)』·『개암선생문집(介庵先生文集)』 책판 377건이 소장되어 있다.

서원의 조직, 운영 관계자료는 남계서원지(溪書院誌)를 비롯하여 경임안(經任案), 원생록(院生錄), 부보록(裒寶錄), 그리고 이들 단회성(單回性) 기록을 종합한 존위록(尊衛錄) 등이 있다.

#### 가. 남계서원지(溪書院誌)

필사본으로 남계서원 건립연혁, 배향인물 등 사적(事蹟)을 기록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서적간행에 대한 검열이 심할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치안담당관의 「출판허가(出版許可)」의 검인이 찍혀있으며 내용 중간에 검열한 흔적이 엿보인다. 일본의 출판문에 대한 검열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범례에 의하면 원지는 1875년에 처음 만들어 졌으며, 남계서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로 편찬된 것이다. 내용은 권 1·2로 나누어져 있다. 권 1에는 지명연혁·서원사적, 권 2에는 별묘사적(別廟事蹟), 선생사실절략(先生事實節略), 뇌계선생사실절략(濡溪先生史實節略), 개암선생년보절략(介庵先生年譜節略), 동계선생년보절략(桐溪先生年譜節略), 송탄선생사실절략(松灘先生事實節略) 등이 실려 있다.

#### 나. 경임안류(經任案類)

경임안(經任案)은 원생안(院任案) 또는 원임록(院任錄)이라고도 하며 원장(院長), 유사(有司), 전곡유사(典穀有司) 등 서원 임원을 지낸 인물들의 명단으로 서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인물들이 실려 있다. 경임안은 성책(成冊)된 분량만큼 명단을 추기(追記)하다가 문서가 마멸, 혹은 훼손이 있을 경우 다시 별책(別冊)을 정서(正書)하였다. 1612년~1682년 71년간의 경임안이 남아있지 않은 것은 전란으로 인해 이때의 기록이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 다. 원록류(院錄類)

원록(院錄)은 원생록(院生錄), 입원록(入院錄), 서원유생안(書院儒生案)이라고도 하는데 서원에 입적(入籍)한 인물들의 명단이다. 초기의 원록을 보면 정구에 하응도, 박이장, 하혼안도, 문경호, 정경운 등 남명(南冥)의 핵심 문도들이 망라되어 있어 남계서원의 성격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 라. 부보록류(哀寶錄類)

부보록(哀寶錄)의 용도와 그 모금 경위에 대해서는 1565년(명종 20) 강익의 43세때의 연보에 비교적 자세히 밝혀져 있다. ‘부보(哀寶)’란 서원운영을 위해 서책과 재물을 모은다는 뜻으로 부보록은 일종의 기부금 장부라 할 수 있다. 부보록에는 「가보(加寶)」란에 그 명단 및 기부금 액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부보한 내역을 살펴보면 벼, 콩, 서적(書籍), 노비(奴婢), 어물(魚物), 염(鹽), 종이 등 다양하였다. 남계서원에 있어서 부보의 관행은 서원의 경제적 측면, 그리고 교육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 마. 존위록류(尊衛錄類)

남계서원의 역대 사적 중 원생안(원록)·경임안·부보록 3편을 각각 정리하여 묶은 책이다. 존위록은 「조야진신(朝野縉紳)」 및 「영남명문(嶺南名門)」 태반이 입록되어 있는 서원의 400년 사적(事蹟) 보존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존위록은 1961년 겨울에 원의(院議)로써 간행에 착수하여 1962년 가을에 완성·배포하였다. 편찬은 각 문중별로 정단을 통해 이를 편집·간행하였다. 존위록은 모두 4종류가 있는데 먼저 제출한 단자(單子)를 편차를 거쳐 편집한 초고본(草稿本), 그리고 이것을 다시 정서한 초본(抄本), 그리고 이것을 활자로 찍은 인쇄본이 있다. 발문(跋文)에서도 밝혀 두었듯이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조선시대 웅만한 인물들이 거의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 사회사 연구 중요한 자료로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 바. 참제록류(參祭錄類)

참제록(參祭錄)은 서원의 춘추제향(春秋祭享) 때 헌관(獻官), 대축(大祝), 집례(執禮), 판진(判陳), 집사(執事), 학생(學生) 등 직임(職任)을 맡은 사람을 기록한 명단이다.



[그림 III-24] 일두문집



[그림 III-25] 남계서원지



[그림 III-26] 개암집



### 3. 서원현황

#### 3-1. 입지

##### 3-1-1. 서원의 입지적 특성

우리나라 서원의 입지는 대부분 마을과 떨어진 한적한 산자락에 위치하거나 산 중, 또는 풍광이 뛰어난 계곡이나 강가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존경받을 만한 선현의 연고지거나 관련 있는 곳에 위치하기도 한다. 이는 서원의 입지 선정에 있어 선현과의 관계성을 우선으로 하고 아울러 은둔과 교화의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조선시대 사대부 선비들은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朱熹)가 은거하여 학문을 했던 무이구곡(武夷九曲)을 가장 이상적인 자연으로 생각하였으며, 무이구곡을 그린 무이구곡도(武夷九曲圖)는 조선의 성리학자들에게 주희의 학문을 파악하는 보다 적극적인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Ⅲ-27] 무이구곡도(이성길)

주변 풍광이 빼어난 곳에 서원이 자리를 잡게 되는 요인으로서는 성리학자들이 자연 속에 은둔하여 심신을 수양하며 천인합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았던 것이 중요한 이유였다. 성리학자들에게 천인합일 사상은 가장 중요한 유가적 정신 관념으로 자연과 인간은 하나가 되어 우주의 생명 전체는 융화하고 교섭할 수 있다는 인생의 최고 이상이였다. 따라서 자각적으로 천인합일의 경지에 이르는 것은 중요하였다. 이런 이유로 사대부들은 골짜기가 있어 물이 흐르고, 산이 있어 풍월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연에 서원을 건립하여 학문을 연마하고 후학을 양성하였다.

퇴계에 의하면 은거하여 ‘뜻을 구하는 선비나 도를 강론하고 업을 익히는 사람들이 흔히 세상의 시끄러움을 꺼리어 다투어 많은 책을 안고지고 한가한 뜰과 적막한 이곳에 도피하여 선왕의 도를 노래하고 그 덕을 쌓고 그 인을 익히어 낙을 삼는 까닭에 들떠 서원을 다닌다. 보건대 향교가 조시(朝市), 성곽(城郭) 중에 있어서 앞에는 학령의 구애가 되고 뒤에는 이물(異物)의 천탈(遷奪)이 있으니 그

공교가 어찌 같다고 할 수 있으랴, 이렇게 말하고 보면 오직 선비의 학(學)이 서원에서 힘썼을 뿐 아니라 국가가 현자를 얻는 것도 반드시 서원에서 되며 저것보다 나은 것이다.’ 하여 서원의 은둔사상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sup>68)</sup> 아울러, 서원이 풍관이 좋은 곳에 자리 잡게 된 요인은 그 설립의 배경에 있어서 관학인 향교가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관여를 받았던 반면에 서원은 사학으로서 행정상으로 조정과 당당히 독립되었고, 또한 서원제도 자체에 함유된 은둔사상 등이 결합되어 행정 중심지로부터 격리되어 건축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관학인 향교와 달리 서원은 발생기원에서 유생들의 장수처 역할을 겸했으므로 자연히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에 위치하게 되었다. 서원의 이러한 입지 조건에 대하여 퇴계는 성원이 산천경계가 소려하고 한적한 곳에 머물며 환경의 유혹에서 벗어나 학문을 닦음으로서 교육적 성과가 크다고 언급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서원이 설립된 곳을 살펴보면, 배향(配享)하고자 하는 선현의 연고지가 가장 많다. 이러한 연고지는 선현의 출생지이거나 고향, 성장지, 유배지, 충절과 연관된 곳, 관리로 있었던 곳, 은거하여 후학을 지도했던 곳, 묘소가 있는 곳 등으로 구분된다.<sup>69)</sup>

[표III-5] 서원의 장소성

건립시기	고향	강학처	유배지	은거	성장지	묘소	합계
~1550	2개소 소수서원 상현서원	1개소 근암서원					3
~1600	3개소 남계서원 임고서원 선암서원	6개소 경광서원 신향서원 이산서원 도산서원 덕천서원 필암서원 월봉서원	2개소 옥천서원 경현서원	3개소 파산서원 금오서원 옥산서원		1개소 충렬서원	15
~1650	1개소 우저서원	4개소 병산서원 희연서원 돈암서원 동낙서원		1개소 서계서원		2개소 자운서원 심곡서원	8
~1700	1개소 임천서원	4개소 노강서원 화양서원 도산서원 칠산서원			1개소 미천서원		6
~1800				1개소 고산서원			1
1851~		1개소 단구서원					1

68) 김은중, 한국의 서원건축, 문열당, 1995, p.21

69) 이상선, 한국 서원건축의 조영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논문, 2009, p.41

### 3-1-2. 남계서원의 입지

일반적으로 관학(官學)인 향교가 읍성에서 대부분 5리(里)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가 된다. 조선중기 서원이 창설되던 시기에 큰 역할을 했던 퇴계는 서원의 입지 조건에 대해 학문을 탐구하기 좋은 곳, 풍광이 뛰어난 곳과 함께 선현의 연고지가 있는 곳이 좋다고 주장했다. 남계서원의 주변 역사환경을 살펴보면 서원이 입지한 곳에서 북동방향으로 3km 떨어진 곳에는 일두 정여창의 묘(墓)가 있으며, 서북 방향으로 2.4km 떨어져 일두고택이 자리 잡고 있어 남계서원과 이 두 곳을 연결하면 거의 정삼각형을 형성하게 된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1566년(명종 21)에 조정에서 ‘남계서원(濫溪書院)’으로 사액(賜額)하면서 ‘남계는 서원 옆에 있는 천(川)의 이름이다.’고 하였으며,<sup>70)</sup>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보면 ‘남계(濫溪)는 군 동쪽 15리 지점에 있으며, 안음현 동천(東川)의 하류이다. 산음현 경계에 와서 임천(瀾川)과 합류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근래에 출간된 지명서에도 남계천은 서상면 덕유산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는데(서상천), 서하면 봉전리에 이르러 화림천이 되고, 안의면 교동 앞에 이르러 금천이 되어 흐르다가 수동면에서는 남계천이 되어서 유림면 웅평리에서 위천과 합하여 경호강으로 흘러간다고<sup>71)</sup> 되어 있어 서원 건립기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남계의 상류인 화림천은 화림구곡이라 하여 예부터 풍광이 뛰어나 강변에는 농월정과 동호정, 거연정 등 많은 정자가 건립되어 있다. 하지만 남계서원이 마주하는 남계천은 풍광이 수려하다고 할 수 없으며, 또 남계천과 남계서원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남계서원에서 남계천이 직접 조망되지도 않는다. 또 남계서원의 주산(主山)은 높지 않아 서원 옆을 운치 있게 흐르는 계곡도 없다. 즉 비록 당시의 자연조건이 지금과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남계서원은 퇴계가 서원의 입지로 권장한 풍광이 수려한 곳이라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서원은 선현(先賢)이 제자들에게 도학(道學)을 강론한 강학지에 설립되는 경우가 많지만, 강익이 기술한 ‘남계서원기’에는 현재 남계서원이 자리한 곳에 대한 강학지로서의 단서를 발견할 수 없다. 또 남계서원은 정여창의 구택(舊宅)인 일두고택과 약 2.4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일두고택이 위치한 개평마을과 남계서원 사이에는 강폭이 넓은 남계천이 있어 실제로 두 곳을 건너다니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서원의 창설과 경영에 배향자의 후손들이 일정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볼 때, 남계천과 같은 하천은 자연적인 장애였던 것

70) 明宗實錄, 21年(1566 丙寅) 6月 15日(甲戌) 賜號曰濫溪書院(禮)。濫溪院傍水名。

71)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10, 2003

으로 보이는데 그림에도 남계천 너머에 서원을 건립한 것은 또 다른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정여창의 묘(墓)는 현재 승안산과 사암산의 중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묘역(墓域)은 승안사지 삼층석탑(보물 제294호)이 있는 곳에서 동쪽으로 100여 미터 지점에 위치하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사암산(蛇巖山)은 군(郡)의 동쪽 20리 지점에 있으며, 승안사(昇安寺)는 사암산에 있다고 하여 그때까지 폐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조선후기에 편찬된 범우고(梵宇攷)에 ‘승안사는 사암산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조선후기에 폐사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후기 지도인 대동여지도에는 사근성산과 사암산의 위치가 뚜렷이 표기되어 있고, 남계서원의 주산인 연화산(사근성산)과 정여창의 묘가 있는 사암산의 지맥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남계서원의 입지는 자연풍광이 뛰어난 곳이나 선현(先賢)의 성장지보다 묘(墓)가 있는 부근을 택했을 가능성이 짙다. 이런 추론은 정유재란으로 서원이 소실되자 1605년에 나촌(羅村)으로 이건하는데, 나촌은 현재 수동면 우명리 구라(九羅)마을로, 이 마을은 정여창의 묘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남계서원이 창설되던 시기는 백운동서원이 소수서원으로 사액된 2년 후로 아직 서원의 배치형식이나 입지에 대한 뚜렷한 개념이 성립되기 이전이었다. 남계서원은 소수서원에 이어 두번째로 창건하고, 소수서원과 문헌서원, 임고서원 이후 네번째로 사액을 받은 서원이라는 점에서 서원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전의 사액서원의 주벽(主壁)이 모두 고려시대의 충신(忠臣)인데 반해 남계서원은 조선 시대 명현(名賢)을 봉사한 최초의 서원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퇴계의 서원 입지론이 있기는 하였지만 아직 명확하게 체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현의 묘역(墓域)은 그만큼 중요한 장소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역사적 배경이 남계서원의 입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sup>72)</sup>

72) 남계서원 정밀실측 보고서, 문화재청, 2014, p107

## 3-2. 남계서원의 건축

### 3-2-1. 서원의 건축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라 할 수 있는 백운동서원은 사묘가 먼저 세워진 뒤 강당이 건립된 사례이다. 이것은 백운동서원이 선현(先賢)에 대한 숭모(崇慕)가 학문적 탐구보다 더 우선시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서원이 강학 기능을 중시하게 된 것은 퇴계의 노력에 의해서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서원의 기본적인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로는 선현에 대한 제향(祭享) 기능으로 사묘가 중심공간이 되며, 두 번째로는 학문을 탐구하는 장수(藏修) 공간으로서 강당이 중심공간이라 할 수 있다. 즉 서원 건축의 공간 구성과 배치는 교육 시설로서의 강학공간과 제향을 위한 시설인 제향 공간 그리고 제향과 강학 기능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부속 공간으로 크게 나뉘는데, 서원의 배치는 이들 공간들이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이렇게 서원을 구성하는 각 공간은 입지와 지역성, 건립 시기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기본적인 구성요소인 사묘와 강당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인식되었다.



[그림 III-28] 관암도, 고산구곡 제1곡(김홍도)



[그림 III-29] 무이구곡도(이방운)

#### (1) 배치<sup>73)</sup>

선현과의 연고를 매개로 서원의 입지가 결정되면 서원의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건축물들을 주위환경과 조화롭게 배치하여야 한다. 이런 서원의 배치는 서원의 중요 기능인 선현에 대한 향사(享祀)와 성리학적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강학과 장수(藏修)의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서원은 향사례와 향음주례를 통한 지역민의 교화와 향회를 열고 선현의 문집을 간행하는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구성을 필요로 하게 된다.

퇴계와 율곡은 모두 서원의 기능을 강학(講學)과 장수(藏修) 그리고 봉사(奉祀)

73) 함양남계서원정밀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14, pp.57~59.

에 있다고 하였으며 제향공간과 강학공간이 모두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서원의 사당과 강당은 향교의 대성전과 명륜당의 구성과 비슷하다. 다만 읍성(邑城)과 인접한 곳에 자리 잡은 향교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공자를 모신 문묘(文廟)인 대성전과 강학공간인 명륜당(明倫堂)의 배치순서에 따라 전묘후학(前廟後學), 전학후묘(前學後廟), 좌묘우학(左廟右學), 우묘좌학(右廟左學) 등 다양한 배치를 보이는 반면, 서원은 제향(祭享) 공간이 전면(前面)에 배치된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서원이 대부분 경치가 좋은 산록이나 계곡이 보이는 경사지에 배치된 이유와 함께 초창기 서원의 설립 의도가 제향보다는 강학을 위주로 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III-30] 소수서원



[그림 III-31] 도동서원

하지만 현존하는 서원의 배치를 보면 초기부터 일관성 있는 배치체계가 형성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초기의 백운동서원은 일정한 축(軸)이 형성되지 않고 각 건물이 분산되어 있다. 그러나 소수서원으로 사액을 받은 이후에는 사학(私學)이지만 관의 통제를 일정부분 받게 되고, 관의 통제는 서원의 건립에 묵시적인 질서 체계를 요구하였을 것이다. 기존의 학교체계인 향교의 규범은 좋은 사례가 되며, 이를 참고하여 각 서원의 입지에 맞는 배치체계를 구성했을 것으로 유추된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중요시 했던 주자의 가례서(家禮書)에는 사당(祠堂)을 정침의 동쪽에 두게 되어 있다. 그러나 영봉서원이나 남계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 등에서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 사당을 건립하고 있을 뿐 본 건물인 강당의 동쪽에 사당을 배치 한 사례는 드물다. 이것은 지형의 조건에 맞는 배치를 택하면서 중축선상에 각 영역을 배치하는 체계로 정립되었음을 뜻한다.

서원의 배치가 체계화되면서 서원의 중요기능인 제향공간과 강학공간은 담장과 삼문으로 명확한 분할이 이루어지고, 선현을 모신 사당은 존숭(尊崇)의 의미와 함께 건축적 깊이로 인해 후방의 산록(山麓)에 배치되었다. 배산임수의 경사지에

위치하는 서원의 공통된 특성은 전학후묘(前學後廟)의 일관된 배치유형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강당에서 사당에 이르는 종축선상의 배치는 건축적인 심화를 일으키는 좋은 배치 유형으로 한국의 서원건축에 폭넓게 채용되었다.

또 강당과 재사의 위치에 따라 전재후당형(前齋後堂形)과 전당후재형(前堂後齋形)으로 구분되는데, 강당의 전면(前面)에 재사가 위치하는 전재후당형이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다. 강학공간에서 이렇게 지역별로 다른 배치유형을 보이는 것은 그 지방의 향교배치와 유사하여 학교배치의 관련성을 유추할 수 있다. 지역적으로 영남지방에서는 전재후당형이 주류를 이루는 반면 호남지역에서는 필암서원을 비롯하여 덕양서원 등에서, 경기도 지역에서는 덕봉서원과 심곡서원에서 ‘전당후재형’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경북에서는 홍암서원이 유일하게 ‘전당후재형’으로 확인되는데, 이 서원은 송준길을 주향으로 모시는 서원이라는 점에서 기호사림의 건축적 배치 특징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주목된다. 이렇게 서원건축에서 배치형식이 차이나는 것은 사림의 성리학적 탐구가 심화되어 예론(禮論)이 체계화되면서 사림의 사유적 체계가 건축적으로 표현된 결과로 보기도 한다. 또, 경사지에 배치된 서원의 경우, 강학공간에서 제향공간에 이르는 공간은 선현(先賢)을 알현(謁見)하기 위한 과정적 공간으로 좁고 긴 경사지의 계단을 배치하거나 담장의 정연한 구성을 통한 절제된 긴장감으로 엄숙함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배치는 달성 도동서원, 함양 남계서원이나 안동 도산서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원의 배치에 있어 서원이 입지할 부지가 종축(縱軸)보다 횡축(橫軸)으로 전개된 곳에는 제향공간과 강학공간이 병렬형으로 놓이게 되는데, 이런 배치에서도 제향공간인 사당의 위치는 강당보다 높은 위치에 두고 사당의 뒤로는 소나무나 큰 수목들로 둘러싸인 신성한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배치는 향교의 사례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존하는 서원들 중에는 재사(齋舍)가 생략된 경우도 보이고 심지어는 강당이 없는 경우도 나타난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강학보다는 제향(祭享)이 중시된 유형으로 분류되며, 시기적으로는 조선후기에 속하는 서원들에서 확인된다.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의 배치가 이루어지면 부속공간인 고직사(庫直舍)의 위치가 배치되게 된다. 고직사는 대부분 별도의 대문을 두고 담장을 둘러 구획하고 있다. 고직사의 평면은 각 지방의 살림집을 기본 유형으로 조영되며, 대부분 강당과 인접하게 배치하고 있다. 고직사는 강당과 협문을 두고 있으며, 협문을 통해 제향 때 제수나 행례에 필요한 물품의 운송이나 학생들의 생활 편의를 제공한다.

## (2) 제향공간<sup>74)</sup>

제향공간은 선현과 스승에 대한 지극한 경숭(敬崇)의 공간이다. 선현의 위패를 모시고 매년 1회 또는 2회 제사를 모시는 공간으로 평소 출입이 극히 제한되며, 사당은 물론 내삼문의 출입도 제한적이다. 제향공간의 구성은 주체가 되는 사당과 출입문인 내삼문, 전사청과 제기고 등으로 구성되는데, 엄숙하고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주위에 담을 쌓았다. 사당의 좌측에는 제사를 지낸 뒤에 축(祝)과 폐백(幣帛)을 태우는 예감(瘞坎)을 두고, 사당의 전면 좌우에는 정료대(庭燎臺)를 두고 동계(東階) 주위에는 제관이 손을 씻는 관세대(盥洗臺)를 설치하기도 한다.

서원의 사당은 선현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서원의 가장 배면에 위치하고 경사지의 경우 상단에 자리하여 강당에 비해 높은 상징성과 위계성이 특징이다. 묘(廟)의 특성상 개방성 보다는 폐쇄성이 강하기 때문에 창호는 정면에만 설치되며, 측면이나 후면은 벽체로만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당의 지붕은 대개 맞배지붕으로 구성되며, 처마는 겹처마가 많다. 사당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 많은데, 보통 정면 3칸과 측면 2칸의 규모로 구성되나 예외적으로 창절서원은 정면 5칸 규모이다. 이는 봉향자가 1~6명인 다른 서원과는 달리 창절서원은 단종 복위와 관련된 사육신을 포함하여 봉향자가 10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사당의 평면구성은 전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되며, 사당의 내부 바닥은 우물마루가 대부분이다. 퇴칸은 마루를 설치한 경우와 마루 없이 기단 상부를 그대로 노출시킨 경우가 있다. 서원의 사당은 전면에 퇴칸이 있는 경우가 다수이며, 퇴칸에 마루를 시설한 경우보다 강회다짐이나 흙바닥으로 마감한 것이 다수를 차지한다. 사당의 명칭도 강당의 명칭과 같이 도산서원의 상덕사(尙德祠), 옥산서원의 체인묘(體仁廟), 필암서원의 우동사(祐東祠) 등으로 서로 다른 명칭을 사용하였다.

전사청과 제기고는 별도로 조성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 한 건물에서 내부공간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건물은 향사에 필요한 제기를 보관하고 제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제향공간 내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고, 제향공간과 강학공간 사이에 위치하는 사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향공간과 가까운 곳에 배치된다. 전사청이 건립되지 않은 사당은 고직사에서 제수를 준비하거나 외부에서 제수를 준비하기도 한다. 전사청은 사당의 좌측 또는 우측면에 위치하고 있지만 우측에 위치하는 사례가 다소 많다. 이는 제향 시 동입(東入)하고 서출(西出)하는 동선을 고려하여 배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 전사청이 담장에 의해 구분된 별도의 독립된 영역에 배치된 경우도 있는데 고산서원과 병산서원에서 이 같은 사

74) 앞의 책, p.47



례를 찾아 볼 수 있다.

내삼문은 신문(神門)이라고도 하며,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을 구분하는 상징적 시설이다. 대부분 평삼문 형식의 소박한 형태를 취하며, 지붕은 3량가의 맞배지붕으로 간소하게 구성한다. 내삼문 좌우에는 제향공간을 한정하는 토담이 둘러지는데 대부분 내삼문의 전면기둥에 맞추어 시설된다.



[그림Ⅲ-32] 도산서원 상덕사 및 전사청

### (3) 강학공간

강학 공간은 서원이 사학이라는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공간으로, 특히 교육의 중심공간인 강당은 원장(院長)과 유생(儒生)이 직업 대면하여 교육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일당양재(一堂兩齋)의 원칙에 따라 강독을 위한 강당과 유생의 숙소인 동·서재로 구성되는데, 규모가 작은 서원의 경우 강당만 있거나 혹은 동서 양재만 있는 경우도 있다. 강당은 서원의 중심이 되는 건물로 서원 안에서 가장 큰 규모의 건물이며, 일반적으로 정면 5칸 규모를 이루고 있는데, 중앙의 3칸은 대청으로 만들어 강회 공간으로 사용하고, 좌우 양측의 각 1칸은 온돌로 만들어 교수진이 사용하였다. 강당의 정면에는 서원의 현판을 걸고, 대청의 뒷벽에는 선현이 가장 중시한 명구(名句)를 인용한 강당의 당호(堂號)를 걸어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재와 서재는 원생이 기거하면서 공부하던 기숙사와 같은 곳으로서 강당을 중심으로 왼쪽이 동재, 오른쪽이 서재라 칭하며, 동재에는 선배가 되는 원생들이 기거하였다.

강당은 유생들의 강학공간과 원장이나 원임(院任)의 거처가 결합된 건물로 마루와 방을 모두 갖추고 있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강당은 강학공간이지만 유회(儒會)나 제사가 있을 때는 유림들의 회의장소가 되기도 한다. 서원의 강당은 관학인 향교의 명륜당에 해당되며, 평면 형태도 명륜당과 매우 유사하다. 강당의 일반적인 평면 유형은 가운데 넓은 대청을 두고 좌우에 온돌방을 둔 대칭적인 평면이 다수이며, 정면이 긴 ‘一’ 자형의 장방형으로 규모는 정면 3~7칸, 측면 2~3칸

이 일반적이다.



[그림III-33] 도동서원 중정당



[그림III-34] 돈암서원 응도당

동·서재는 원생이 기거하며 독서를 하는 곳이다. 동재와 서재의 명칭은 절대적인 방위 개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대개 강당의 앞쪽을 남, 뒤쪽을 북쪽으로 가정하는데 따른 상대적인 방위 개념이 적용되었다. 동재는 강당의 전면 우측인 동측에 위치하며, 위계상 서재보다 우위에 있어 선임들이 거처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동서 양재의 위치에 따라 크게 ‘전재후당형(前齋後堂形)’과 ‘전당후재형(前堂後齋形)’으로 구분된다. ‘전재후당형’은 강당의 앞쪽에 양재를 마주보게 배치한 것을 말하며 대다수의 사례가 이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전당후재형’은 강당을 양재의 앞쪽에 배치한 유형으로 호남지방의 서원에서 주로 나타난다.

서원은 강학을 하는 공간으로서 선현의 덕을 칭송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서원의 기능은 사묘에 모셔진 선현의 문집을 간행하여 보급하는 것을 중시하도록 했으며, 경판각은 선현들의 문집 등을 판각하여 책으로 펴낸 후 그 목판을 보관하기 위해 건축한 것이다. 경판각과 비슷한 건축물로는 장판각, 문집판고, 판고, 판각, 경각이 있고, 책을 보관하는 장서각이나 장서고 등의 명칭이 있으며 대부분 강학공간 내에 위치하고 있다. 장서각은 서책을 보관하고, 장판각은 서책을 찍어낸 목판을 보관하는 곳으로 명문 서원에서는 선현들의 문집 등을 판각하여 책을 펴낸 뒤 다른 서원에 공급하기도 하였는데, 이 목판을 장판각에 수장하였다. 장판각은 서고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의 위치와 건축구조에 각종 조건을 고려하게 된다. 예를 들면 습기가 적고 통풍이 잘되는 위치에 자리 잡고, 구조적으로도 습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바닥은 마루로 만들고 창고의 크기는 통풍을 고려해 만들었다. 또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여 장판각 전후로는 가능한 다른 건물을 띄워서 배치하고 건물을 둘 경우 바람이 잘 통하도록 배치하였다.



[그림 III-35] 도동서원 동재(거인재)



[그림 III-36] 옥산서원 경각

#### (4) 진입공간

외삼문은 내삼문에 대응하는 용어로 홍살문이 상징적인 영역을 한정하는데 반해 외삼문은 서원의 실제적인 영역을 구분한다. 옥산서원의 외삼문인 역락문(亦樂門)과 같은 평삼문 형식도 있지만 대부분 솟을삼문형식이며, 대개 3량가의 맞배지붕으로 간소하게 구성했다. 남계서원의 풍영루(風咏樓), 도동서원의 수월루(水月樓), 필암서원의 확연루(廓然樓), 무성서원의 현가루(絃歌樓), 금오서원의 읍청루(挹淸樓) 등과 같이 서원 전면의 누각이 외삼문의 역할을 하는 경우는 영남지방에서 주로 채용되었다. 또한 외삼문을 들어서면 옥산서원의 무변루(無邊樓), 병산서원의 만대루(晩對樓), 서악서원의 영귀루(詠歸樓), 자계서원의 영귀루(詠歸樓) 등과 같이 외삼문과 강학 공간 사이에 누각을 세운 서원이 있다.<sup>75)</sup>



[그림 III-37] 옥산서원 외삼문



[그림 III-38] 병산서원 만대루

서원건축에서 누각은 유식(遊息)의 기능을 충족시켜주는 건축물로서 배산임수(背山臨水)로 자리 잡은 서원의 가장 하단에 자리하고 있다. 누각은 상부에서 외부의 자연경관을 조망하는 기능을 가지지만 하부는 강학공간과 외부공간을 구분

75) 이호일, 『조선의 서원』, 도서출판 가람기획, 2006, p.11.

하거나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누각은 서원건축에서 중요한 건물로 인식되나 대부분 영남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타 지역의 서원에서는 소수 사례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남지역 서원에서 누각은 마치 향교의 풍화루와 같이 많이 건립되었는데, 이것은 영남지방이 기호지방보다 산지가 많은 지형적인 이유와 함께 사림의 번성으로 향회와 유회(儒會)를 개최하는 넓은 공간이 필요했던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 (5) 부속공간

부속공간은 제향과 강학기능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관리를 위한 관리인(고직이)이 거처하는 고직사(庫直舍)가 주된 건물이다. 고직사의 경우 주로 경상도 지역의 서원에 많이 건립되었고, 건축시기도 서원이 초창되던 16세기 중반부터 활성화되는 18세기 초반까지 꾸준히 지어졌다. 고직사의 평면을 보면 안동지역은 그 지방의 주택과 같은 ㅁ자형의 평면을 보이는 반면, 전라도는 一자형, 충청도는 ㄱ자형이 많이 나타나며, 경상도는 ㄷ자형 고직사가 많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각 지역의 고직사 평면이 살림집의 평면과 유사성을 보이며 건축되었기 때문이다. 고직사는 대개 강학공간의 좌측 또는 우측의 별도의 영역에 배치되어 있으며, 고직사와 강학공간 사이에는 협문을 두어 출입과 관리가 용이하도록 했다.



[그림 III-39] 도동서원 고직사



[그림 III-40] 병산서원 고직사

서원에는 향사와 관련된 성생단(省牲壇), 관세대(盥洗臺), 망료위(望燎位), 정료대(庭燎臺)와 같은 의례용 시설물들도 있다. 제사에 쓰일 가축을 생(牲)이라 부르는데, 제수를 마련하기 전날 향사의 관계자들이 희생 제물로 쓰일 ‘생’을 단 위에 올려놓고 제물로 쓰일 생이 정결한가를 검사하였다. 이때 ‘생’을 올려놓는 단을 성생단이라 부른다.



【그림Ⅲ-41】 성생단

【그림Ⅲ-42】 관세대

【그림Ⅲ-43】 망료위

【그림Ⅲ-44】 정료대

성생단은 소수서원과 같이 흙을 쌓아 만든 곳도 있으나, 돌을 쌓아 만든 석단과 넓적한 돌로 만든 것도 있다. 또한 관세대는 제사 때 손을 씻기 위한 대야를 올려놓는 시설물이다. 그리고 망료위는 제사를 지내고 난 뒤 축문을 태우고 묻는 곳이다. 또한 정료대는 밤중에 불을 밝히기 위하여 사당이나 강당 앞에 세워놓는데, 제사는 한밤중에 행해지기 때문에 정료대 위에 관솔불을 올려놓아 불을 밝혔다.<sup>76)</sup>

##### 5) 서원 건축물의 가치<sup>77)</sup>

서원의 건축사적 가치는 조선왕조시대의 시대상과 역사성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비록 현대사회가 되면서 서원의 기능은 상실되기는 했지만 건축은 원형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있다. 동북아 유교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나라들 중 서원건축의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이며, 그 중에서도 조선말 훼손을 면한 47개 서원은 건축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서원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어떠한 역사적 인물이든, 역사적 사건이든 반드시 그 시대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기에 매우 중요한 장소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서원의 건축사적 가치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서원건축의 기술사적 가치와 양식사적 가치 또한 매우 높다. 우리나라 서원 중에는 조선 중기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고 있는 사례를 비롯하여 조선말까지 각 시대에 따라 건립된 사례가 현존하고 있다. 서원의 건축양식을 통해 당시의 기술수준과 미학사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원의 건축사적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다. 서원 건축의 양식사와 기술사는 그 시대의 건축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면서 또한 그 시대의 문화사, 경제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서원건축은 시대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한 분야가 된다. 서원건축의 가장 큰 가치는 완전성과 진정성이다. 현존하는 서원 중에는 국가지정문화재

76) 이호일, 『조선의 서원』, 도서출판 가람기획, 2006, p.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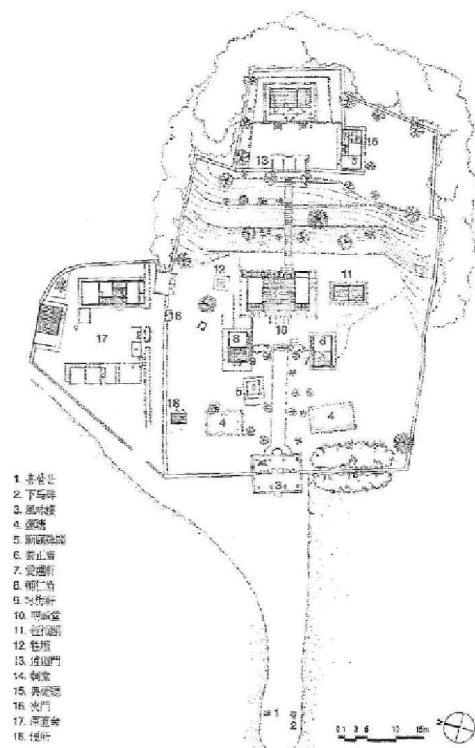
77)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 문화재청, 2011, p.21

와 시도지정문화재가 있다. 지정된 서원은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건축적으로 완전성과 진정성이 다른 서원에 비해 특히 잘 유지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이 지정문화재에 대해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화재로 지정된 서원의 건축사적 가치는 다른 서원에 비해 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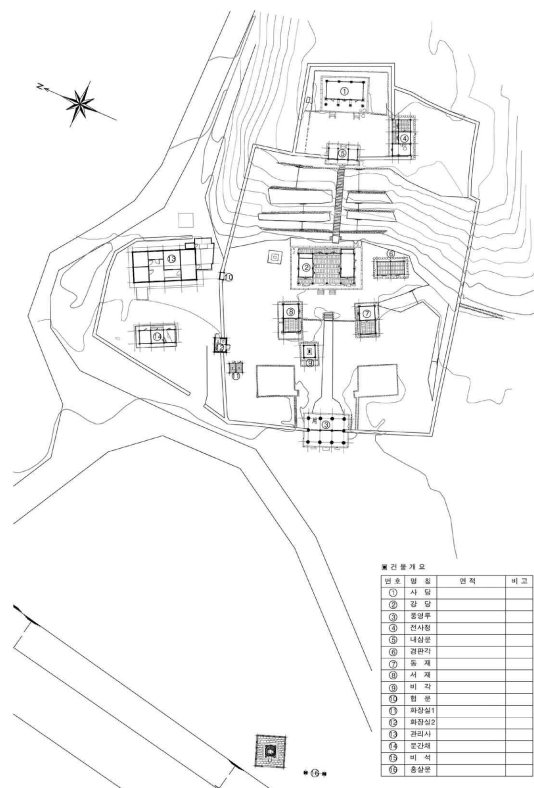
### 3-2-2. 남계서원의 배치

#### 1) 남계서원의 배치<sup>78)</sup>

함양의 남계서원은 영주의 소수서원과 함께 조선시대 서원 창설기의 선두에 위치하는 유서 깊은 서원이다. 1552년(명종 7)에 강익(姜翼, 1523~1567)의 주도로 정여창(鄭汝昌, 1450~1504)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서원을 설립하였지만, 군수 서구연이 상(喪)을 당해 체임(遞任)하게 되고, 이어서 부임한 군수(郡守)의 미온적인 지원과 흉년으로 완공에 어려움을 겪다가 1559년(명종 14)에 군수 윤확(尹確)의 도움으로 강당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어서 1561년(명종 16)에 묘우(廟宇)를 강당 동쪽에 완성하고 2월 16일에 지역 유림(儒林)들이 일두 정여창의 위판(位版)을 사당에 봉안하면서 서원의 공역(工役)은 일단락되었다.



[그림 III-45] 남계서원 배치도(1998년, 이상해, 서원, 1998)



[그림 III-46] 남계서원 배치도(2015)

78) 남계서원 정밀실측보고서, 2014, p.108

1564년(명종 19) 함양군수 김우홍(金字弘)의 원조로 동재(東齋)와 서재(西齋)를 건립하고 재사(齋舍) 아래 작은 못을 파서 조경을 마무리함으로써 서원의 전체적인 모습을 완성했다. 그 후 1566년(명종 21)에 ‘남계(濫溪)서원’으로 사액되고, 1610년(광해 2)에 김굉필과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이황 등 동방오현(東方五賢)의 문묘(文廟) 종사(從祀)가 이루어짐으로써 우도(右道, 지금의 경남) 지역의 대현서원(大賢書院)으로서 자리를 잡게 된다.

하지만 남계서원은 1597년에 일어난 정유재란으로 소실되자 1605년(선조 38)부터 노사계(盧士戒)·정경운(鄭慶雲) 등의 주도로 서원을 정여창의 묘와 가까운 나촌(羅村)으로 이迁했다. 이때 노진(盧禎)과 강익의 위치(位次) 문제가 대두되어 함양 사람들의 향론(鄉論)이 분열되면서 결국 1612년(광해 4) 다시 원 위치인 현재 위치로 남계서원을 이迁했으며, 따라서 현 남계서원의 기본 배치는 1612년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남계서원은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남계천의 동쪽 산록(山麓)에 서향(西向)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앞이 낮고 뒤가 높은 지형조건으로 인해 낮은 앞쪽에 진입부를 두고 가장 높은 뒤쪽에 사당을 배치했다. 서원의 좌측과 우측에는 야트막한 산줄기가 서원을 감싸고 있어 아늑한 느낌이 있다. 남계서원의 공간은 강학공간과 제향공간, 부속공간으로 구분되는데, 풍영루와 동재·서재, 강당으로 이루어진 강학공간은 선현의 유풍(儒風)을 존숭하여 학문을 강론하는 곳으로 장수(藏修)·유식(遊息)의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그림Ⅲ-47] 강학공간

제향공간은 내삼문과 사당, 전사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현의 덕을 숭모하여 제사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부속공간에는 고직사 일곽이 포함되며, 서원을 관리하고 유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제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쓰였다. 전체적인 배치를 보면 홍살문에서 출입문의 역할을 하는 중층 누각인 풍영루와 강학공간, 제향공간이 종축 상으로 배치된 전형적인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를 보이며, 고직사는 서원의 좌측에 자리 잡고 있다.

남계서원의 강학공간에는 동서 재사(齋舍)와 누각, 강당 외에 서재(西齋) 앞에 단칸의 비각(碑閣)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장판각은 강당의 오른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강당의 왼쪽에는 제향 시 희생(犧牲)을 검사하는 생단(牲壇)이 자리 잡고 있다. 생단(牲壇)의 위치는 고직사와의 동선을 고려한 결과라 하겠다. 강학

공간의 평면은 비대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쪽의 풍영루는 중층 누각으로 남계서원의 정문 역할을 한다. 누각의 하층 정면에는 풍영루라고 새긴 현판이 걸려 있고, 배면에는 준도문(遵道門)이라고 쓴 작은 현판이 걸려 있다. 특히 ‘준도문’이란 강익이 남계서원 대문의 당호로 지어준 것이다. 풍영루를 들어서면 강당까지의 거리가 비교적 긴 편인데, 좌우의 연지(蓮池)와 묘정비각, 동·서재에 의해 외부공간이 분할되며, 강당의 마당이 동·서재에 의해 한 단 높게 형성되어 있어 지루하지 않다. 양쪽의 연못은 건물로 인해 종축으로 전개되는 시각을 횡축으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여 남계서원의 강학공간을 심리적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그림 III-48] 풍영루와 연지

1779년에 건립된 묘정비각(廟庭碑閣)은 서재(西齋)보다 조금 앞으로 배치되어 있어 시각적 율동감이 있다. 묘정비각이 없었다면 강한 대칭성으로 정적인 공간이 되었을 것이며, 이런 점에서 묘정비각(廟庭碑閣)은 정적공간에 변화를 준 파격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남계서원은 동재와 서재에 각각 한 칸씩의 누각형 현(軒)을



[그림 III-49] 동재

배치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지금은 현(軒) 주위에 판문과 판벽을 달아놓아 다소 폐쇄적으로 보이지만, 만약 판벽이나 판문이 없이 개방되어 있다면 대칭성은 크게 약화되어 경직되어 보이는 느낌은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남계서원을 감싸고 있는 담장이 충분히 뒤쪽으로 물러나 있고 연지 주위의 대지를 가꾸지 않고 자연스런 형태로 두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여유를 느끼게 한다. 풍영루와 강당은 중심축은 약간 틀어져 있다. 강당까지는 아주 약한 경사로 되어있으며, 동재와 서재의 중간에 높이 약 1m의 축대를 쌓아 강학공간의 마당을 조성하였다. 강당과 양 재사로 이루어진 강학공간의 마당 규모를 보면 강당의 전면 기단에서 재사의 측면 누하주까지 거리가 동, 서재 기단간의 거리보다 약간 넓지만 크게 보면 정방형에 가깝다. 강당의 오른쪽에는 경관각을 배치하였는데, 자연석 기단을 한 단 놓아 기단을 조성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었다. 습기를 방지하고자 판벽과 판문으로 벽체를 형성하고, 전면(前面)에는 담장과 같은 시설물을



배제해 통풍과 일조가 용이하게 하였다. 강당의 후면은 경사가 비교적 급해서 세단의 보축으로 토사의 유실을 막고 있다. 이 경우는 대부분 축대를 쌓고 화계(花階)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남계서원에서는 자연지형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경사면의 중간에 폭이 약 1.2m 되는 장대석으로 다듬은 계단이 강당에서 사당의 내삼문까지 종축으로 이어져 있다. 이렇게 강학공간에서 제향공간에 이르는 공간은 선현(先賢)을 알현하기 위한 과정적 공간으로 참례자(參禮者)의 몸과 마음을 정숙하고 숙연하게 유도하고 있다.

강당의 중심축과 사당의 중심축은 일치하지 않으며, 사당이 정면 오른쪽으로 조금 치우쳐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남계서원의 사당 주위에는 오래된 배롱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며, 배롱나무는 조선 시대 유학자들은 서원과 향교, 정자 주변에 즐겨 심었다. ‘자미화(紫薇花)’로 불리는 배롱나무는 꽃이 화려하고 오래가는 실리적 이유와 함께 겉과 속이 같은 백일홍나무의 성질에 유가적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제향공간인 사당은 서향(西向)한 강당의 뒤쪽에 있는데, 남계서원의 건립을 주도하였던 강익의 행장에는 ‘묘우(廟宇)의 위치를 강당의 동쪽 언덕에 두었다’<sup>79)</sup>고 기록해 놓았다. 남계서원의 사당은 주자가례에서 규정한 물리적 방향인 동쪽에 위치하면서 경사지의 배후에 자리를 잡아 현실적인 자연조건도 충족하는 결과를 얻었다. 제향공간은 평삼문으로 구성된 내삼문과 사당 및 그 우측에 제기고(祭器庫)와 겸용하는 전사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삼문을 들어서면 제향공간의 마당이 한 단 위에 형성되어 있다.



【그림Ⅲ-50】 제향공간

일반적으로 내삼문을 한 단 낮추어 건축하는 것은 삼문의 지붕 높이를 낮추어 사당을 밝게 하려는 의도와 관련이 있다. 사당은 장대석으로 기단을 형성하고 있으며, 기단 전면(前面)의 축대를 연장시켜 마당과 구분하고 있다. 사당의 좌측에는 축문을 사르는 예감(瘞坎)이 위치하고 있다. 우측 전사청의 기단은 한 단을 두어 사당과의 위계차를 건축적으로 반영했다. 하지만 공포를 이익공으로 결구하고, 화려한 단청으로 시채 하였으며 처마를 겹처마로 구성한 경우는 일반적인 전사청의 구성과 다른 사례이다. 평면구성에서도 대개의 전사청이 방이나 마루방으로 구성되는데 반해 마루방과 방, 부엌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채롭다. 제향공간의

79) 『介庵先生文集下』, 附錄, 行狀, ‘又度作廟宇於堂之東丘’

마당에서 내삼문과 사당과의 거리는 사당의 전면 기단 폭의 길이와 비슷한데, 이와 같은 마당의 형태 비는 조선시대 중기 이전까지 자주 쓰이던 수법이라 하겠다. 존현(尊賢)에 대한 상징적 영역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향공간의 주위를 비교적 높은 토담으로 둘러쌓았다.

부속시설인 고직사는 남계서원의 좌측에 별도의 담장으로 일곽을 이루고 있으며, 고직사와 강학공간의 사이에는 작은 협문을 두었다. 고직사의 본체는 정면 네 칸의 一자형 가옥이며, 평면은 함양지방 민가의 보편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다. 마당은 창고와 부속채로 ㄷ자형을 이루었지만 지금은 마루로만 이루어진 두 칸의 넓은 부속채가 철거되면서 폐쇄감이 약화되었다. 철거된 창고는 바닥을 마루로만 구성한 것으로 보아 제향(祭享)에 필요한 제수(祭需)를 보관하기 위한 건물로 생각된다.

남계서원의 배치는 최초의 사액서원인 영주 소수서원에서 볼 수 있는 분산적인 건물 배치를 따르지 않고 축선에 맞추어 건물을 배치한 절제되고 통일성 있는 유교적 건축공간을 잘 보여준다. 남계서원은 경사지에 자리 잡은 입지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건물을 배치하면서 인위적인 부분을 최대한 줄여 축대와 기단을 조성하고, 강학공간 주위에도 가급적 인공을 최소화한 상태로 연지(蓮池)와 여지(餘地)를 남겨둔데 큰 특징이 있다. 무엇보다 서원건축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공간을 위주로 서원을 조영하려고 했으며, 특히 동재와 서재의 탁월한 건축적 구성과 전면(前面)의 연지(蓮池)는 남계서원의 배치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 2) 남계서원의 건축계획원리로서의 예제<sup>80)</sup>

### 가)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준거한 詞字 형식의 새로운 해석

남계서원에서 예제(禮制)의 직접적인 규정에 따라 그 형식이 새롭게 해석된 것은 사우이다. 강익의 「연보(年譜)」에서 사우 강당의 동쪽 언덕에 계획했다는 언급은 실상 『주자가례』의 ‘정침 동쪽에 사우를 세운다’는 규정을 그대로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추론을 확인시켜 주는 건축적 장치는 사우 왼편(동쪽)에 세워진 신주(神廚)이다.

가례에는 유서의물(遺書衣物)과 제기고(祭器庫) 및 신주(神廚)를 그 동쪽에 짓고 사방에 담을 두른다<sup>8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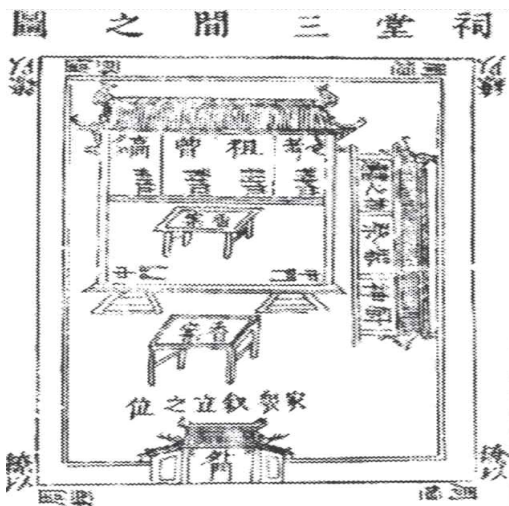
80) 남계서원의 건축사적 의미, 정기철.

81) 성리대전(2), 朱子家禮, 山東省出版對外貿易公司. 1989, p1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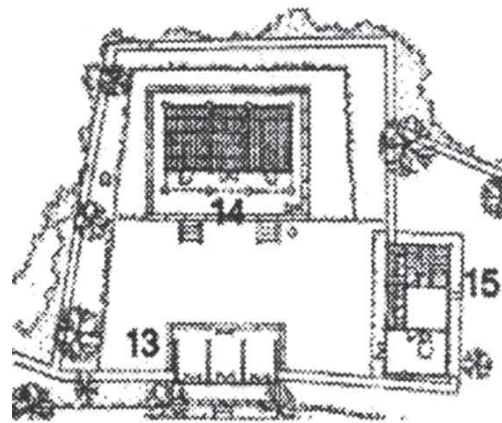
하였고, 「남계서원지」의 서원사실(書院事實)의 ‘신주’ 항목에는

묘우의 왼편에 있다. 2칸인데. 1칸은 제기(祭器)를 보관하는 곳이고. 1칸은 제물을 데피는 곳이다<sup>82)</sup>

고 하였다. 그 건축구성이 동일한 것이다. 남계서원의 신주가 가례규정을 따랐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I-51] 가례의 사당과 신위(삼제도회)



[그림 III-52] 남계서원의 사우영역

초창기 서원들이 사우 건립 시에 주자가례의 사당 편을 참조했을 것이란 추론은 이후 역동서원이나 영봉서원, 도산서원, 도남서원, 병산서원 등에서도 역시 사우를 동편에 배치했고, 특히 도산서원에서는 신주를 사우 근방에 배치했다는 사실에서도 뒷받침될 수 있다. 바로 여기서 주자가례가 초창기 서원 사우건축의 계획원칙으로 수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계서원의 사우는 주자가례의 준행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를 서원의 건축형식에 적용하려 했던 최초의 사례인 셈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현 남계서원의 배치에서 볼 때, 사우는 강당의 중심축에서 약간 동측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실제 공간상에서는 강당과 중심축이 일치되는 것으로 체험된다는 점이다. 이는 두 가지 가능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창건 당시엔 도산서원의 경우처럼 강당의 중심축에서 완전히 벗어난 동북쪽에 배치된 형식이었으나, 소실을 거치면서 당시의 개념을 최소한으로 준수하여 약간만 이동했을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개념적 상징성만을 고려했을 뿐 실제 배치상의

82) 남계서원지, 서원사실, p6

중심축을 좀 더 염두에 두고 강당 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배치했을 가능성이다. 어느 경우이건 간에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가례의 동쪽 배치 규정이 기존의 건축전통이나 유가의 일반적인 대칭·균형 중심의 감각과 어긋난다는 점이다.

원래 사우를 동쪽에 배치한다는 예제상의 규정은 동쪽이 위계가 높은 곳이란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 배치 상에서도 평지의 경우 강당(講堂)이나 정침(正寢)의 후면 북측에 그 중심축과 일치하여 사우가 배치된다면 가장 존엄해야 할 사우가 강당의 후면에 가려지는 혐의가 발생한다. 이를 피할 수 있는 대안은 사우를 강당보다 높은 레벨에 건축하거나, 아니면 강당의 동쪽이나 서쪽에 배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동쪽이나 서쪽의 배치는 건물들의 구성이 정렬되지 못하고 편향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만 여기서 인도(人道)의 경우 동쪽이 위계가 높다는 식의 이념적 정당성만 확보된다면 그 같은 편향은 얼마든지 수용될 가능성이 주어진다. 따라서 동쪽 배치 규정은 대부분 평지에 건축물을 건립하는 중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남계서원, 역동서원, 영봉서원, 도산서원 등 초창기 서원영건에서 사우를 동쪽으로 배치했다는 사실은 일차적으로 주자가례에 대한 충실한 준행 노력일 것이나, 그 규정이 중국적 특수성에서 발생한 것이란 점에서 볼 때는 어떤 초기 인식의 한계 같은 것을 시사해 준다. 주자가례의 동쪽 배치 규정과 실제 배치상의 정렬 문제는 17세기 초반에 이르러서야 날카롭게 의식되면서 정후면의 경사지 배치를 통한 위계 보장 방법으로 진전되었다.

결국 현 남계서원의 사우배치가 강당의 동쪽으로 약간 이동·배치되었을 뿐, 실제로는 강당과 일치되는 공간으로 체험된다는 사실은 그것이 창건 당시의 형식이든 이건 후의 변경이든 간에 기존 학궁의 중심축 일치 전통에 대한 해석적 긴장이면서 동시에 향후 서원건축 영건에서 발생할 사우 위계설정의 문제를 내재하는 지점으로 판단된다.

#### 나) 강독의식(講讀儀式)에 근거한 강당(講堂) 형식의 새로운 해석

남계서원 강당의 경우 정면 칸수가 4칸이란 점이 주목된다. 4칸은 짝수이고 음수(陰數)이므로 주역에 대한 존신이 강했던 조선후기에는 기피되는 칸잡이였다. 4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따라서 길흉을 근거로 하는 주역(周易)의 상수론적(象數論的) 계획관이 수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정면 4칸인 경우 건물의 중앙은 기둥이 자리하여 정면성을 확보하는데도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를 기존 학궁(學宮)에서처럼 3칸이나 혹은 5칸으로 설정할 수 있음에도 굳이 4칸으로 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전통건축의 형식에서 최소의 완비된 이념적 칸수는 마루와 온돌이라는 구축적

특성 때문에 <마루+온돌>의 2칸일 수 밖에 없다. 동·서재 또한 그 같은 최소단위로 구성되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강당의 4칸은 동·서재가 그대로 결합된 형식에 불과하다. 즉 2칸의 당(堂)은 강당 동쪽실인 거경재에 속한 당 1칸, 서쪽실인 집의재에 속한 당 1칸으로 분리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당이 균등하게 분리될 수 있다는 사실은 결국 당에서 일어나는 행태가 스승과 제자라는 양대 축으로 균등하게 설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정구(鄭述)가 지은 「통독회의(通讀會儀)」를 보면 중앙부가 3칸일 필요가 없다. 스승은 동쪽에서 서향하며 학생은 서쪽에서 동향한 채 강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수용된 강독의식이었다고 본다면, 남계서원의 강당이 중앙부 2칸으로 설정되고 있다는 사실은 강독의식(講讀儀式)이란 지극히 예제적인 원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좌우 각 1칸의 실과 결합되어 전체 4칸으로 구성되는 형식이 <마루+온돌>이라는 전통건축의 최소단위와 그 병렬 결합을 통해 이루어 졌다는 것은 바로 그 같은 형식 결합이 강당이란 강학공간을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는 최소이자 최대의 장치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사대부의 개인 서실건축이 당 1칸, 실 1칸의 최소 2칸 형식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여기서 강독의 의식이 발생하는 <당>과 연처(燕處)공간인 <실>이 강학공간을 구성하는 최소단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남계서원의 4칸 강당은 제자들의 최소 2칸 <堂+堂>구성과 스승의 최소 2칸 <室+室>구성이 강독의식이란 예제적 원칙 하에 당 중심으로 결합된 건축형식이었음이 분석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로부터 결과된 좌우 협실의 구성이 주희의 ‘회당고사(晦堂故事)’로부터 다시금 그 근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희 자신은 그의 「명당실기(名堂室記)」에서 다음과 같이 이를 언급하고 있다.

당 옆의 두 협실에서 한가한 날에 묵묵히 앉아 그 사이에서 책을 읽었다. 그 왼쪽을 이름하길 경재라 하고 오른쪽을 의재라 하였다. 대개 내가 주역을 읽었을 적에 그 두마디 말을 얻었으니, 공경으로 안을 곧게 펴고, 의리로써 밖을 방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학문하는 요체로 삼는 것은 이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힘쓰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이다.<sup>83)</sup>

즉 경(敬)과 의(義)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이를 자신이 연처하는 당우의 좌우 협실에 편액하고 있다. 역동서원, 돈암서원 등 후대의 여러 서원에서도 유사한 편액이 발견되고 또 그 전거로 ‘회당고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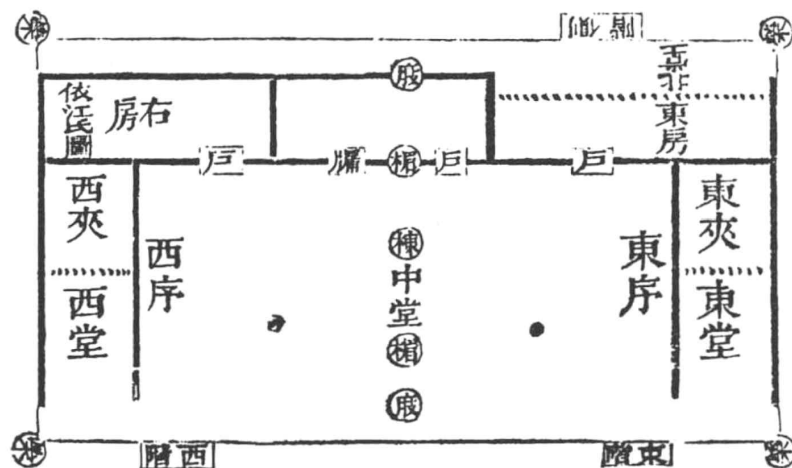
83) 주자대전(중), 명당실기, 권78, p829-830

서원의 강당 좌우 협실을 거경재(居敬齋), 집의재(集義齋)로 편액한 것은 이 같은 전례(典例) 준행(遵行)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마루로 구성된 2칸의 당 뿐만 아니라, 그 좌우의 협실까지도 철저한 전거를 가지고 계획한 것이고, 기존 전통에 대한 단순한 인습이나 우연의 결과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기존 학궁에서 그 규모가 개인 서실 이상의 집단 강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강당 평면은 최소 정면 5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성균관이나 나주향교처럼 본채 좌우에 익랑채가 부설되어 전체 5칸 이상이 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 좌우 익랑채 대신 협실을 두어 정면 5칸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공통적인 것은 중앙의 당이 3칸 마루로 구성된다는 사실이다. 중앙부가 3칸이란 사실은 당이 균등하게 분할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칸의 중심성이 강하게 부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식의 주공간인 당이 3칸인 것은 오랜 연유를 지닌 것이다. 이는 고대 중국, 특히 주대의 예제 건축인 ‘묘침제(廟寢制)’에서 비롯된 것이다. 묘침제의 당은 중앙부 전면의 두 기둥으로 분할되어 3칸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여칸은 의식의 주체인 군주가 남면하거나 중요 의기(儀器)가 위치하는 중심 장소가 된다. 따라서 당에 여칸을 설정하여 최소 3칸 이상을 구성할 때, 의식주체들의 위계와 행례절차를 좀 더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그러나 이 같은 배경에서 발생한 3칸의 당 형식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기존 건축전통의 단순한 인습대상으로 변질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3칸 당 형식에 대한 이해는 묘침제의 근거경전인 「의례(儀禮)」에 대한 강조와 그 실행의식이 전제되지 않으면 새롭게 진전될 수 없었다. 이는 향촌의 예치(禮治)를 이상으로 한 주자성리학과 그 예학에서 가장 날카롭게 의식되었다.



[그림 III-53] 大夫士房室圖(江永에 의거한 張惠言의 복원)

남계서원이 창건된 16세기 중반은 주자성리학이 본격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한 단계였다. 예학의 인식수준에 있어서는 예치를 통한 향촌질서 확립의 필요성이 점차 의식되고 있었으나, 고례(古例)의 강행보다는 속례(俗禮)와의 절충이 시도되고 있던 시기였다. 남계서원의 4칸 강당은 이 같은 시대적 배경 하에 주자성리학에서 추구된 위기지학의 학문관을 건축형식으로 구현한 물리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강당 형식인 5칸제의 인습과 묵수 대신 새로운 학문관과 예로써 절제하는 강독의식을 근거로 스승과 제자의 양대 축으로 균등하게 분할되는 4칸 강당의 형식이 새롭게 안출되었다. 그러나 예치의 일상화가 진전되고 이에 따른 강례의 필요성이 대두될수록 4칸 강당의 중앙 2칸 당은 명확한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테면 향음주례(鄉飮酒禮)를 강습한다고 할 때, 당은 3칸으로 구성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따라서 남계서원의 4칸 강당형식에는 주자학 인식의 한계, 즉 강독의식이나 회당고사 등의 간접적인 계획 원칙을 넘어설 수 없었던 시대적 한계가 드리워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자성리학에 대한 근본적 이해와 그에 따른 예학 인식의 깊이 있는 진전이 이루어진 17세기 초반에 이르러서야 강례의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계획원칙이 모색되고 물리적으로 구현될 수 있었다.

### 3) 남계서원 건축공간의 새로운 개념 : 장수(藏修)와 유식(遊息)<sup>84)</sup>

동·서재의 각 1칸의 헌(鮮)과 연지(運池)의 추후 첨설을 통해 남계서원에 부여된 것은 성정(性情)을 쉬며 기르는 ‘유식(遊息)’의 공간이다. 팽팽한 긴장 속에서 강론하고 학습하는 ‘장수’의 개념과 더불어 이러한 유식공간의 추설(追設)은 기존 전통의 향교와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새로운 건축공간을 창출하였다.

장수·유식이란 표현은 원래 「예기(禮記)」 학기편(學記篇)에 나온 것으로, 항상 학문을 마음속에 품고 이를 쉽 없이 닦아야 하며 또 쉬 때나 소요할 적에도 항상 학문에 뜻을 두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후대의 용례에서는 이 보다 좀 더 확장된 뜻으로 변모된다. 즉 장수는 학문을 닦는 과정으로, 유식은 학문을 닦는 과정에서 집중된 정신과 마음을 풀어내는 과정으로 재해석된다. 공부할 때나 쉬 때나 항상 학문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경전의 뜻이 ‘집중하고’ ‘풀어주는’ 두 개의 학문 방법으로 설정된 것이다.

따라서 학문-단순히 경전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성정(性情)까지 닦고 기르는 공부는 시위를 팽팽히 당기는 '장수'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시위를 풀어내는 '유식'하는 과정 역시 포함하는 것이 된다. 조선 후기에 쓰여진 남계서원 풍영루(風詠樓)의 기문(記文)은 이 재해석된 장수와 유식의 개념이 어떻게 서원건축과 관련

84) 정기철, 앞의 책, pp.414~418

되는지를 보여준다.

증점의 기수가의 풍영(風詠)과 안자(顔子)의 누추한 거리에 살면서 어리석은 사람같이 보이는 것은 그 규모와 기상이 비록 같지 않은 점이 있으나, 배우는 자들이 하나라도 폐해서 강론하지 않아서는 안됨이 분명하다. 이 서원에는 거경재와 집의재가 있으니, 대체로 증자와 맹자의 뜻을 미루어 체용의 학문으로 일삼고자 한 것이다. 이는 이른바 안자가 배운 바를 배우는 것이다. 그런데 시위를 당기되 놓지 않는다면 문왕과 무왕도 다 스릴 수 없을 것이니, 정신을 일으켜 펴고, 성정을 쉬며 기르는 데에, 어찌 한쪽 편을 일을 없앨 수 있겠는가?<sup>85)</sup>

즉 학문의 대체를 ‘안자(顔子)가 즐긴 바’로 대표되는 거경, 집의 공부와 ‘증점의 기수가 기상’으로 대표되는 발서(發舒),휴양(休養)의 공부로 대별하고 한쪽을 폐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장수’는 ‘거경·집의’로 ‘유식’은 ‘발서·휴양’으로 각각 대응된다.

결국 거경·집의의 공간뿐만 아니라 발서·휴양의 공간도 서원건축에 구비되어야 한다는 이같은 주장은 서원의 공간이 기본적으로 장수하는 공간과 유식하는 공간으로 대별되어야 하고, 이것이 조화롭게 합일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환언하면 서원건축의 근본적인 계획원칙으로 장수와 유식의 개념이 설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계획원칙으로서 두 가지 개념은 다음과 같이 서원건축에 적용될 수 있다.

거경과 집의로 상징되는 장수의 공간은 강당과 사우로 집약될 수 있다. 이 공간은 ‘팽팽히 당겨진 활시위’ 같이 몸가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긴장과 공경의 공간, 따라서 철저하게 예(禮)로 한정된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정신과 성정을 풀어내고 기르는 유식의 공간은 서원의 주변 절승이 될 수도 있고, 서원 마당 안의 연못을 비롯한 조경시설이 될 수도 있으며, 자연 경관을 건축화시키는 누각공간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이 공간은 팽팽히 당겨졌던 활시위를 풀어내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이 두 공간 사이의 위계는 어느 하나가 지나침이 없는, 장수하는 공간은 유식하는 공간으로 그 긴장이 풀어지고, 유식하는 공간은 장수하는 공간으로 그 흐트러짐이 절제되는 ‘中’의 계획정신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예(禮)와 화(和)의 개념에 방불해야만 한다.

결국 서원의 중심 공간인 강당과 사우는 ‘예’로써 절제되어야 하고 서원 주변의 조경이나 또 다른 건축장치-예를 들면 누각은 ‘화’로써 조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계서원의 경우 ‘장수공간’인 강당과 사우는 강독의식이나 주자가례 사당규

85) 일두집 속권, 권3, 풍영루중수기(기정진), 한국고문서집성



정 등의 예제(禮制)를 근거로 그 건축형식이 구체화되었다. 동·서재가 추후 영건되면서 함께 설치된 연지 등의 ‘유식’ 공간은 단순히 연못이란 조경의 차원에만 한정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단히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풍부한 건축적 장치가 구현되고 있는데, 그것은 동·서재의 각 1칸 현(軒)이라 불리는 공간에서 발견된다. 이 현은 누마루로 구성된다. 그 이름조차 애련현(愛蓮軒), 영매현(詠梅軒)으로 ‘유식’의 공간임을 직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더욱이 기단은 동·서재의 실 하부에서 끝나고 있을 뿐 현 하부로는 확장되고 있지 않다. 그 때문에 현의 공간은 높은 지면으로부터 돌출되어 떠 있는 듯한 효과를 지닌다. 이로 인해 현 부분의 상하좌우를 감싸고 있는 개방성이 강화되고 주변의 경관과 합일되는 건축적 효과가 창출되고 있다. 여기서 유식의 공간은 최소의 단위로써 최대의 효과를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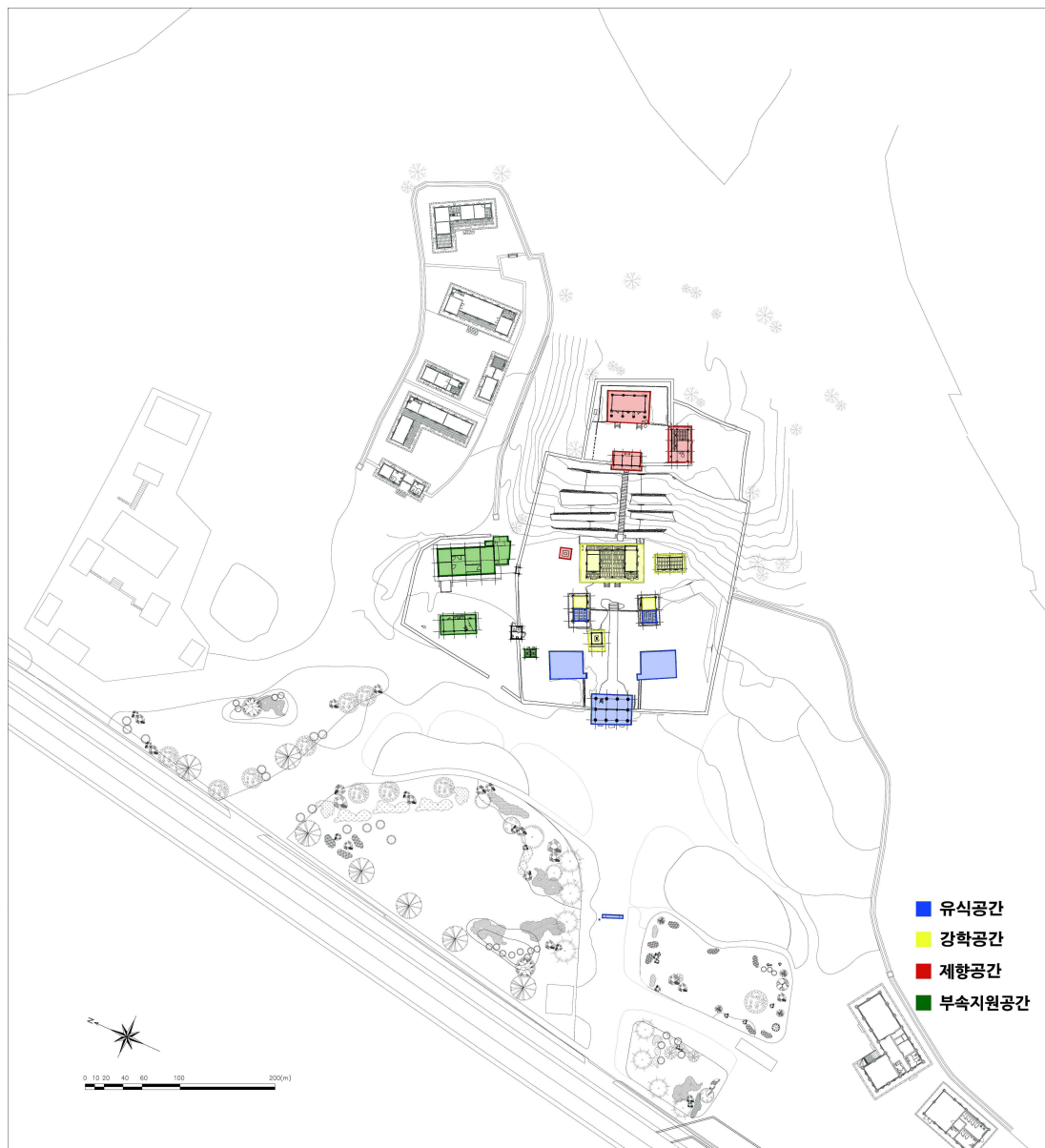
서원의 전체 공간에서 보면 ‘유식의 공간’을 상징하며 공중에 들려있는 동·서재의 1칸 ‘마루’ 현은 강당과 등진 채 그 기단에서 분리되어 외부 자연으로 연장되고 있고, ‘장수의 공간’을 상징하며 별도의 기단 위에 서 있는 강당의 2칸 ‘마루’는 문에서 동·서재까지의 전체 공간을 하나로 통합하고 있다. 이에 반해 현과 결합되면서도 강당의 기단 전단부와도 연결된 동·서재의 1칸 ‘온돌’은 ‘유식과 장수의 기능’을 겸하면서 강당의 당과 동·서재의 현을 매개하고 있고, 또한 강당 좌우의 각 1칸 ‘온돌’ 역시 ‘장수와 유식의 기능’을 겸하면서 2칸의 ‘마루’로 구성된 강당의 당이 지닌 중심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동·서재의 현이 애련(愛蓮)과 영매(詠梅), 동·서재의 실이 양정(養正)과 보인(輔仁), 강당 좌우의 실이 집의(集義)와 거경(居敬), 강당의 당이 명성(明誠)이라 편액된 것은 이 같은 공간의 위계설정과 깊은 관련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본연의 성(誠)을 ‘탐구하는’ 근본 방법인 거경(居敬)·집의(集義)의 ‘장수’와 그 탐구된 것을 ‘기르는 방법’인 애련·영매의 ‘유식’은 두 가지의 독자적인 학문 방법이며 양정·보인은 그 사이를 연결하는 중간개념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이는 강당과 동·서재의 각 공간에 설정된 위계에 상응된다. 또한 명성은 이러한 학문의 방법을 통해 도달하는 최고의 지점이란 점에서 강당의 2칸 당이 지닌 공간의 중심성과 일치된다.

결국 이 같은 공간의 위계를 통해 예제적 엄격성은 강당으로 수렴되고 이는 다시 현과 연지를 거쳐 외부 자연으로 확산되는 예와 화가 조율된 공간이 창출된 것으로 정리된다.

### 3-2-3. 현재의 남계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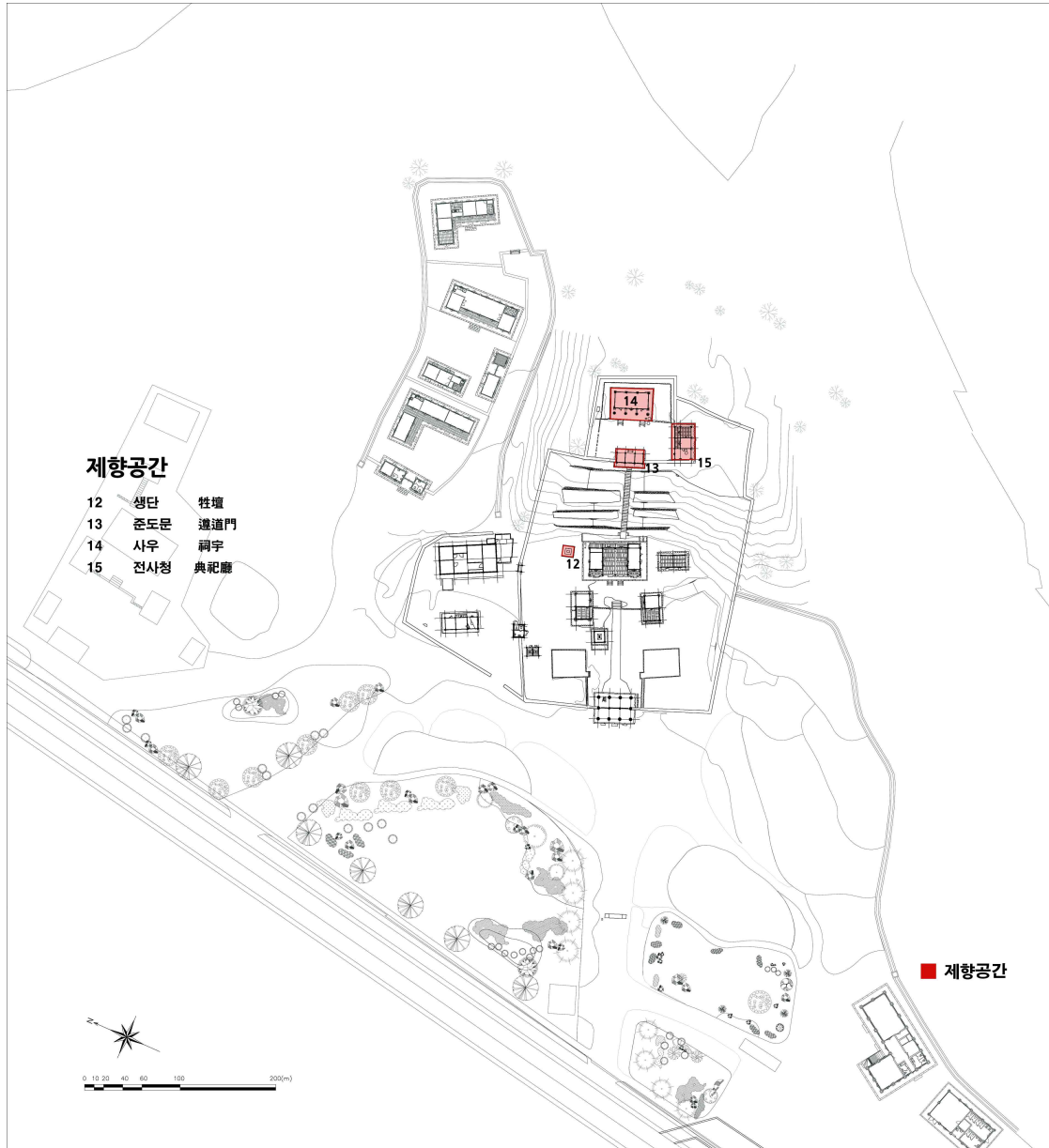
남계서원은 제향공간, 강학공간, 유식공간, 부속지원공간으로 구분된다. 강학공간인 강당와 양재가 앞쪽에 위치하고, 제향공간인 사당이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전학후묘의 배치를 보이는데, 특히 조선 성리학의 본산이자 성리학의 최초 시발점인 소수서원에 이어 지어진 함양 남계서원은 서원배치의 전형이 되는 중요한 선례이며, 내부의 건축물들은 전체적으로 간결, 검소하게 꾸며져 학문을 공부하는 선비의 자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림 III-54] 함양 남계서원의 공간구성

## 1) 제향공간

제향공간은 후학들이 선현의 학덕을 기리고자 지은 사당과 그에 따른 부속건물로 이루어지며 남계서원은 사당, 전사청, 내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III-55] 제향공간

## ① 사당

### ■ 개요

남계서원의 사당에는 조선전기의 유학자로 동방 오현(五賢) 중의 한분인 일두 정여창을 주벽(主壁)으로 하여, 좌우에 강익과 정온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사당은 강당 뒤 남계천이 바라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한 칸 반의 아담한 맞배지붕의 건물로, 대부분의 서원 사당에는 당호(堂號)가 있으나 남계서원의 사당과 내삼문에는 당호를 새긴 현판이 걸려 있지 않다. 사당에 오르는 동계(東階) 옆에는 관세대와 정료대 및 제향 때 잔을 씻을 때 받침으로 쓰는 작세대(爵洗臺)가 자리 잡고 있다. 사당의 좌측 편에는 제향 후 축(祝)과 폐백을 사르는데 사용되는 예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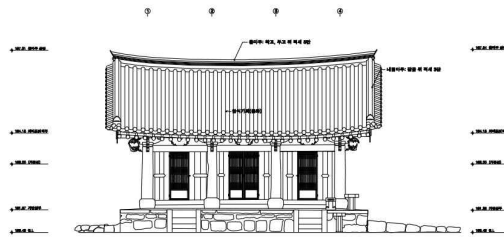
사당의 기단은 다듬은 장대석을 세로로 놓아 첫 단을 형성하고, 그 위에 다시 가로로 장대석을 1~2단을 추가로 놓아 조성하였다. 단, 배면 기단은 근래에 만든 기단석을 사용하여 조성한 것이다. 사당 안으로 출입을 위해 양 협칸 전면에 3단의 계단석을 두었으며, 계단의 양 측면에는 방형의 소맷돌을 계단석 상부에 맞추었다. 기단 상부의 주초는 모두 다듬은 돌을 사용하였다. 초석의 형태는 정면만 원형이고, 간주(間柱)의 하부와 배면에는 사각뿔 형태의 초석을 사용했다. 사각뿔 형태의 초석은 막돌초석 위에 놓여 있다. 전면의 원형 초석은 운두가 매우 높고 상부가 하부보다 넓은 형상이다. 전반적으로 초석의 석질, 색상, 치석(治石) 상태 등으로 보아 20세 기 중후반에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 ■ 현황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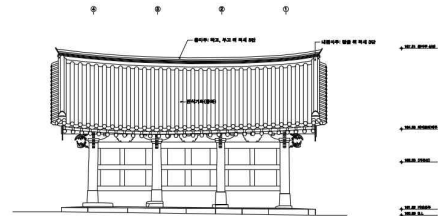


[그림 III-56] 사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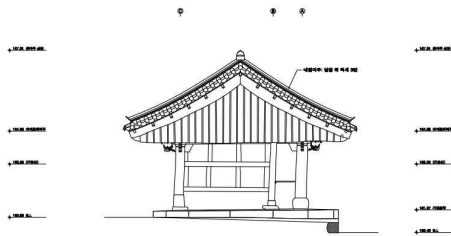
## ■ 현황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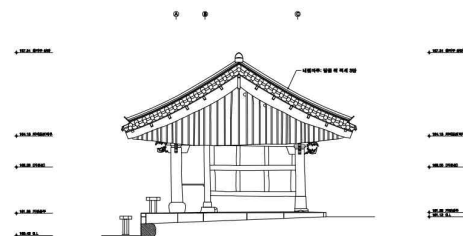
사당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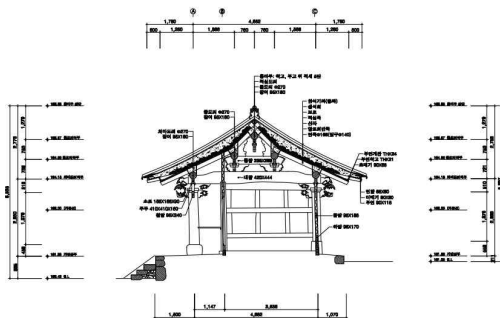
사당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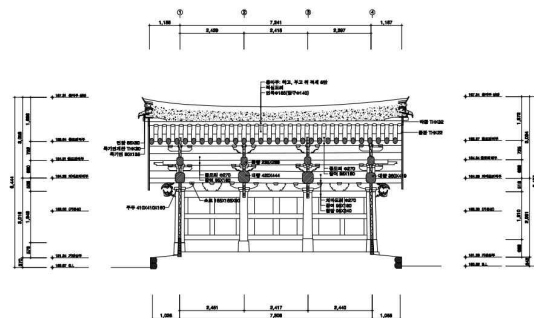
사당 좌측면도



사당 우측면도



사당 종단면도



사당 횡단면도

전면적인 해체 수리를 하면서 부식된 기둥 하부를 잘라내고 운두가 높은 주초를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인다. 기둥은 정면과 배면의 기둥만 원주이고, 간주에는 각주를 사용하였다. 간주의 굵기는 원주에 비해 가늘어 보이는데, 이것은 통보를 사용하면서 상부 하 중의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비교적 굵은 기둥은 전면에 배치하고 있다. 전면 기둥의 높이를 낮게 처리하는 사묘건축의 특성 상 전면 기둥이 더욱 굵게 인식되며, 이로 인해 사당을 정면에서 바라볼 때 견실한 느낌을 준다.

사당의 공포는 보의 머리에 봉두(鳳頭)를 끼워 장식한 이익공이다. 공포는 정면과 배면이 같은 형식으로, 초익공은 양서로 연화를 세졌으며 이익공은 수서로 하부에 연화로 꾸몄다. 익공의 내단은 보아지형으로 처리했는데, 세부 조식을 살펴보면 초익공은 연화, 이익공은 연잎으로 장식했다. 박공 쪽의 창방뿔목과 주심첨차도 익공과 같은 모습으로 조식했다. 사당의 익공은 조선후기의 형식을 따르고 있으나 보수기록이 없어 확신할 수 없다. 다만 1779년에 건립된 묘정비와 1849년에 중건된 풍영루의 익공과 세부 특징을 상호 비교해 보면 풍영루의 익공이 묘정비의 익공보다 장식적인 반면 묘정비의 익공은 풍영루보다 더 섬세하다. 이는 사당의 익공이 조선후기 형식이며, 1820년에 유호인(兪好仁)과 정홍서(鄭弘緒)을 배향하기 위한 별사(別祠)를 지을 때 사당을 대대적으로 수리했을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각 주칸의 중앙에 있는 당초문으로 조각한 화반은 양각으로 조식하여 고식(古式)의 기풍이 있다.



【그림 III-57】 사당의 공포

남계서원 사당의 가장 두드러진 건축 특징은 종량의 머리를 삼분두로 마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삼분두는 조선중기의 대표적인 건축 유형으로 알려져 있으며, 종량의 치목수법 또한 고식의 비례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삼분두와 파련대공, 중대공과 전후면 화반에 보이는 고식기법들은 남계서원 사당의 역사적 변천을 방증하는 요소이다. 반면 전후면의 기둥 상부에 보이는 이익공의 형식은 조선후기의 수법으로 보인다. 섬약한 익공의 형상과 초각이 치밀하지 못하고 간략화 되는 점, 익공에 부가되는 연화의 형식화 등은 조선후기 공포의 대표적인 수법이다. 또 1940년에 민병승이 쓴 풍영루 중건기에 “정사(正祠)와 강당(講堂) 및 동·서재(東西齋)의 작은 집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새롭게 만들었다.”<sup>86)</sup>고 한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풍영루를 중수하면서 사당과 강당 등 서원의 대대적인 중수와 정비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나 당시의 수리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옥개부의 보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제향공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전사청<sup>87)</sup>도 이 시기에 수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당의 오른쪽 전사청 배면에는 현재 평지로 조성되어 있는데 1868년에 훼손된 별묘의 영역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86) 閔丙承, 「風詠樓重修記」, 自正祠講堂以及東西齋之小廬者 并皆一新

87) 현재 전사청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공포의 형식이 이익공으로 구성되어 있고, 화려한 화반과 단청의 유구로 볼 때, 1868년 별묘가 훼손되면서 전사청으로 개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 ② 전사청

### ■ 개요

사당 앞 우측에는 제사의 편의를 제공하고 제관의 대기실을 겸한 전사청이 있다. 정면 3칸, 측면 1.5칸의 맞배집으로 겹처마 3량집이다. 좌측 1칸은 우물마루 바닥이고 중앙칸은 온돌을 두었으며, 우측의 한 칸은 부엌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루방과 온돌방 전면의 반칸은 우물마루를 깔았고, 우측 칸은 부엌을 늘려 넓게 사용하고 있다. 정면기단은 외별대의 화강석 장대석기단을 두고 있으며, 배면과 좌측면의 기단은 자연석기단을 설치하고 있으나, 우측의 기단부분에는 담장이 있어 기단을 대신하고 있다.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겹처마이며 양측에는 박공판과 풍판을 설치함으로써 격식을 갖추어 마감하였다. 지붕마루는 착고·부고 위 적새5단, 내림마루는 당골막이 위 적새3단을 쌓고 위에 수키와를 얹었다. 벽체는 4면과 중간칸막이벽 모두 판벽(두께 30mm)이며, 마루방과 온돌방의 전면에는 각각 2짝의 세살문을 설치하였고, 부엌의 전면에는 2짝의 판문을 설치하였으며, 부엌과 온돌사이에는 1짝의 판문을, 마루방과 온돌사이 판벽 중간에는 전면과 같은 세살문을 두었다. 천장은 연등천장이고 당골은 회벽으로 마감하였으며, 단청은 모로단청이다.

### ■ 현황사진



[그림Ⅲ-58] 전사청

### ③ 내삼문

#### ■ 개요

내삼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집으로 3량가이며, 홀처마의 삼문이다. 기단은 경사지형을 이용하여 설치하고 있는데, 전면기단은 화강석장대석으로 낮은 두벌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배면에는 사당과의 높이차에 의거 형성된 축대형식으로 설치하여 역으로 화강석장대석 두벌대로 둘러져 있다. 전면부와 배면의 기단에는 각 1단의 화강석 층계를 두었다. 기단바닥은 현재 콘크리트로 마감되어 있고 주초는 화강석을 가공하여 사용하였는데, 전면부의 기둥 4개는 4각뿔대형으로 낮게 설치하였고, 배면에는 4각의 기둥형으로 가공하여 높게 설치하였다. 주초위에는 4각의 기둥을 세우고 보아지 형식으로 아주 간략화한 초익공과 같은 보아지를 두었고 기둥의 양측에는 창방을 설치하고 주두를 얹었으며, 그 위에 자연스럽게 만곡된 대량을 올렸다. 전·후면의 기둥사이에는 하방을 설치하고 있는데, 양측면의 하방은 전면 쪽은 나무기둥에 결구하고 배면 쪽은 화강석 장주초의 중간에 결구하고 있으며, 어칸의 하방은 양측보다 설치된 위치가 높아 전·후면 모두 나무기둥에 결구하고 있어 양측 협칸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전면 3칸에는 각각 2짝씩의 널문을 설치하였으며, 문의 양측에는 판재로 벽을 형성하고 있다.

#### ■ 현황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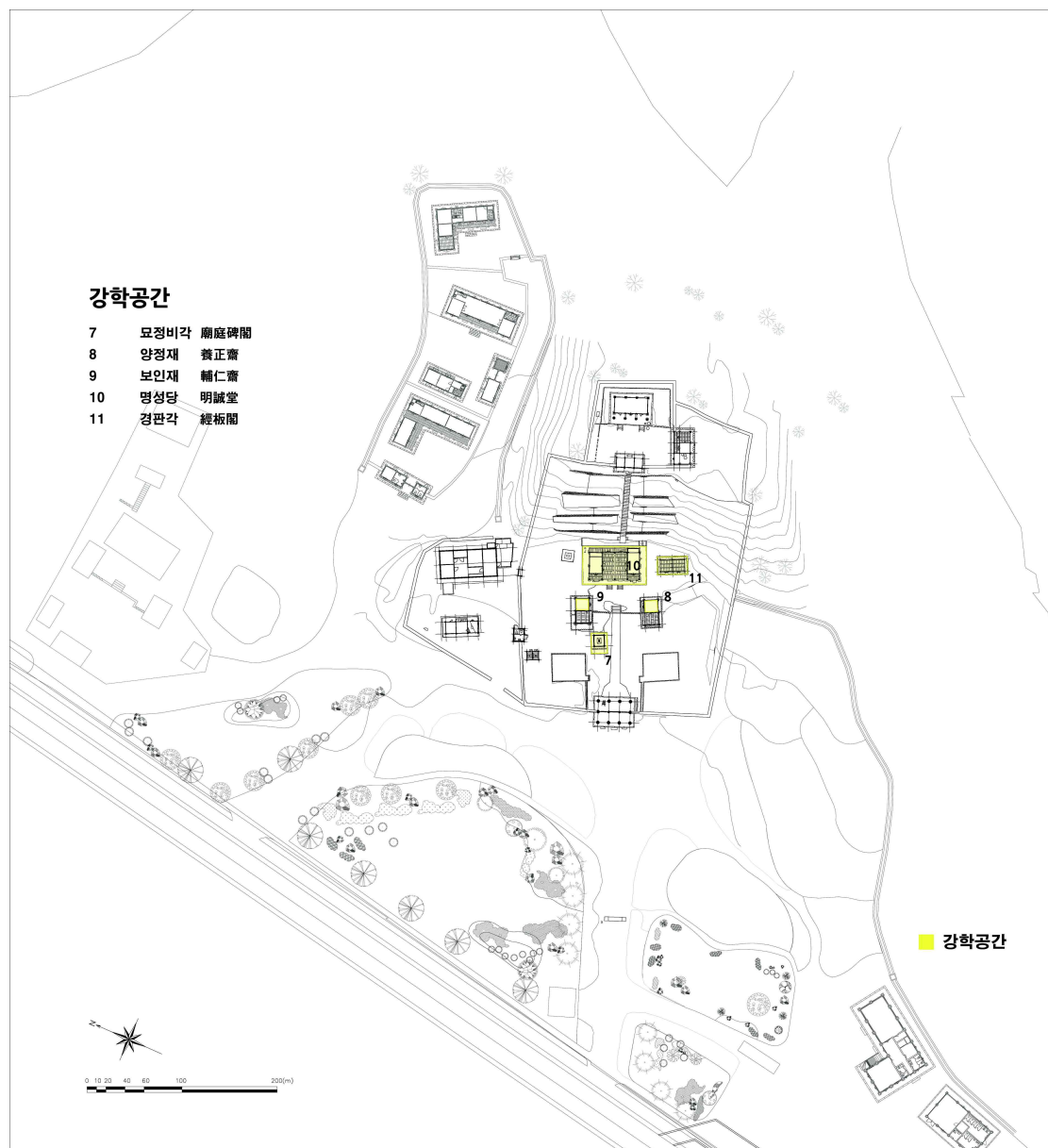


[그림Ⅲ-59] 내삼문



## 2) 강학공간

강학공간은 서원이 사학이라는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공간으로, 교육의 중심공간으로 강독에 활용된 명성당, 유생의 숙소인 양정재와 보인재, 보조건물인 경판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묘정비각은 서재 앞쪽에 배치되었다.



[그림Ⅲ-60] 강학공간

## ① 명성당

### ■ 개요

명성당은 강학공간의 중심으로서 전면 좌우 양쪽에 있는 동재·서재와 함께 강학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강당의 평면은 대부분 정면 5칸의 구성에 중앙 3칸을 마루로 두고, 양쪽을 방으로 둔 형식이 가장 보편적이나, 명성당은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의 팔작집으로 일반적인 정형에서 벗어나 있다. 마루 2칸을 중앙에 두고 양쪽에는 온돌방을 배치하였으며, 전면에 퇴칸을 중앙의 마루보다 한 단을 높여 마루로 구성하였다. 배면에는 쪽마루를 두었고, 우측 온돌방의 배면에는 쪽마루 위에 벽장을 달아내었으며, 좌측 온돌방의 뒤흔쪽에는 반침이 시설되어 있다.

정면 4칸으로 강당을 구성된 사례는 소수서원이나 도산서원, 이산서원, 우저서원, 삼계서원 등으로 비교적 초기 서원에서 주로 나타는데, 서원의 설립이 활성화 되는 시기에 이르러 뚜렷하게 감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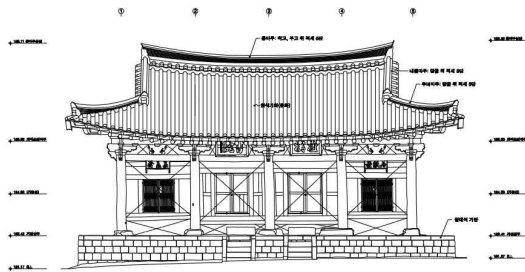
강당의 대청 정면에 걸려 있는 남계서원의 현판은 ‘濫溪(남계)’와 ‘書院(서원)’을 두 자씩 떼어 별도 현판으로 만들었다. ‘書院’이라고 새긴 현판의 끝에 새겨 놓은 ‘嘉靖四十五年丙寅七月日宣賜’라는 기록으로 보아 1566년(가정 45년 병인)에 사액 받았음을 알 수 있다.

### ■ 현황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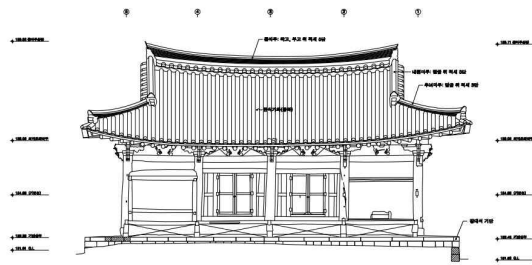


[그림 III-61] 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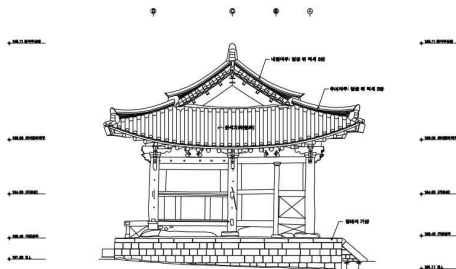
## ■ 현황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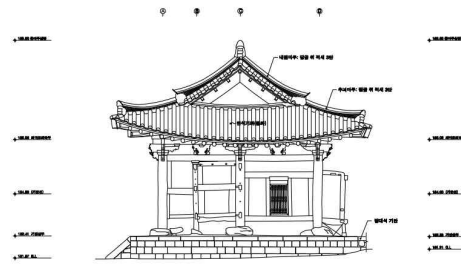
강당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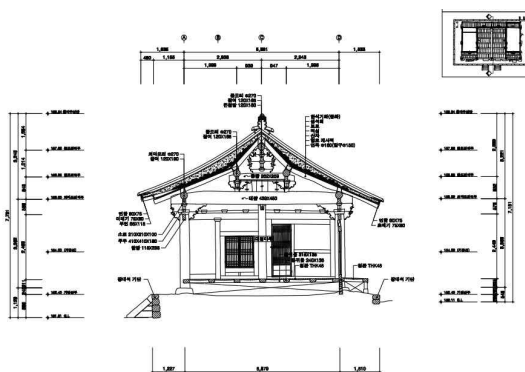
강당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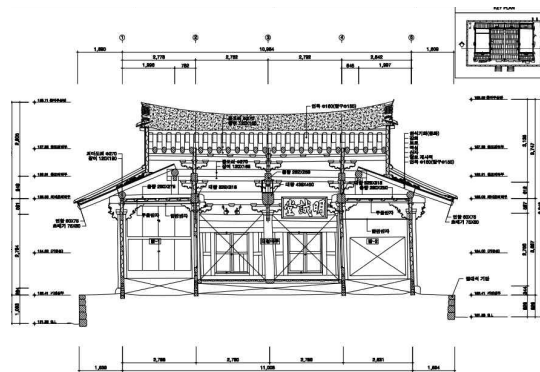
강당 좌측면도



강당 우측면도



강당 종단면도



강당 횡단면도

강당의 당호인 ‘明誠堂(명성당)’ 이라고 새긴 현판은 2칸 대청 중 우측 칸의 뒷벽 상부에 걸려 있고 대청 좌우의 온돌방 앞에는 ‘居敬齋(거경재)’와 ‘集義齋(집의재)’ 라고 새긴 현판을 걸어 놓았다. 현판의 글씨는 남명의 제자로 당시 명필로 이름난 조식이 쓴 것이다. 강당의 당호와 실 명칭의 뜻은 강익이 서원을 창건하고 직접 쓴 ‘남계서원기’에 잘 나타나 있다.<sup>88)</sup>

88) 講堂(강당)을 “明誠(명성)”이라한 것은 中庸(중용)에서 “明則誠(명즉성)”이란 뜻을 가져와 쓴 것이고, 堂(당)의 夾室(협실) 중 왼편을 “居敬(거경)”, 오른편을 “集義(집의)”라 한 것은 程訓(정훈)의 居敬窮理(거경궁리)와 孟子(맹자)의 集義以生(집의이생)의 뜻이다.

강당의 기단을 살펴보면 전면 기단은 사괴석을 4단 쌓고, 그 위에 얇은 장대석을 놓아 마감했으며, 배면 기단은 한 단의 사괴석 위에 장대석을 놓아 마감한 형태이다. 기단은 기단석의 형태와 세부 치석기법으로 보아 근래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강당에는 원주와 각주를 함께 사용하였다. 외부에 노출된 곳에는 원주를, 간주(間柱)와 보조기둥으로는 각주를 사용하였다. 기둥은 높지 않으나 이익공의 구조와 전면(前面)의 높은 기단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축부가 길어 보인다.

공포는 이익공으로 전·후면이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익공은 조선 중기 건물인 안동 임청각 군자정과 하회 양진당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초익공과 이익공이 파련대공과 같이 초각으로 일체화하였다. 주심첨차는 첨차의 춤과 같은 부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첨차의 사용은 고식(古式)의 기법에 속한다. 매 주간의 중앙에는 파련문과 연봉(連峰)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형태의 화반(花盤)을 놓아 처마도리 받침장여를 받도록 했다.

강당의 구조는 무고주 5량가이며, 사당과 같이 3분변작법에 가깝게 종량의 길이를 설정하고 상부구조를 형성했다. 대청의 중앙에는 굽은 통보를 가로질러 걸었는데, 대량의 등에는 책과 문서 등을 보관할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작은 함이 설치되어 있다. 강당의 가장 큰 구조적 특징은 종도리의 귀솟음을 들 수 있다. 종도리는 가운데가 낮고, 양 끝으로 가면서 휘어 오른 형태로 고식의 기법을 보인다. 또 남계서원 강당에 보이는 초각 첨차와 익공, 대공의 형식은 통일성과 규칙성이 강하며, 전체적으로 조선중기의 건실한 구조미를 보여준다. 강당에는 겹처마와 홑처마가 함께 사용되었는데, 전면만 부연이 시설되었는데, 부연과 서까래의 비례가 맞지 않고, 부연의 치목의 수법이 간략한 점으로 보아 근대 이후 부연이 후설(後設)된 것으로 보인다. 지붕의 용마루 형태는 일반적인 용마루보다 높이를 한 단 더 높인 층단마루 형식을 구성하였다.<sup>89)</sup>



[그림III-62] 강당 처마1



[그림III-63] 강당 처마2

89) 1940년에 쓴 민병승의 ‘풍영루중건기’에서 ‘정사(正祠)와 강당에서부터 동, 서재의 작은 집들에 이르기까지도 모두 새롭게 만들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풍영루 중수 시 사당과 강당 등의 건물을 비롯하여 서원 경내 건물의 대대적인 중수와 정비가 있었으며, 이 때 강당의 정면 처마 부연과 지붕 용마루의 층단마루도 이때 후설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창호 구성을 살펴보면 대청의 배면과 온돌방 앞쪽은 머름 없이 창호를 달아, 조선후기의 일반적인 창호 구성을 보이거나, 청방간(廳房間)의 창호는 아래에 머름을 꾸미고 상부에 두짝여단이세살창을 달았으며, 그 외에도 울거미에 베푼 쇠시리 형태나 창살의 나누기를 볼 때 다소 고식(古式)의 기법으로 판단된다. 또 청방간 문 상방에는 돌쩌귀 흔적이 배면 쪽 두 곳에 남아있는데, 현재 문이 있는 곳에는 문이 시설되지 않았고, 반면에 현재 벽체로 되어 있는 곳에 가벽형의 들문이 달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창호 유형은 도산서원과 도동서원의 강당 창호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조선중기 건물의 청방간 들문 구성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또 창호의 중간에 중간설주가 설치된 흠 등도 강당이 조선중기에 중건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근거가 되는데, 동·서재의 전면 창호에도 나타나고 있어 통일성을 보인다. 양 문전에는 돌쩌귀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울거미 판문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을 뜻한다. 비록 현재 마루 배면에 설치된 울거미 판문은 근래에 보수된 것이지만, 울거미 판문을 명성당의 중건시기인 17세기 초기의 유구로 보기에 의문이 있다. 문상방과 하인방에서 둔테를 고정했던 철물을 박았던 흔적을 확인할 수 없어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시기의 보편적인 유형은 울거미 판문이 아닌 둔테를 둔 판문이기 때문이다.



【그림 III-64】 문설주 흔적

강당의 또다른 특징은 온돌방의 천장을 우물반자로 처리한 데 있다. 전면에 퇴칸을 둔 온돌방의 경우 대개 전면 퇴칸과 방의 상부를 구분하여 반자를 시설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명성당에서는 온돌방 앞의 퇴칸과 방의 내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식으로 우물반자를 꾸며놓아 상부마감이 매끄럽지 못한 점을 볼 때, 원평리로 옮기기 전 나촌에서 명성당을 중건할 당시 온돌방은 뒤틀마루가 없는 형식이었으나 현 위치로 이건하면서 온돌방 전면에 뒤틀마루를 시설하였고, 천장은 그대로 설치하게 되면서 뒤틀마루에서 온돌방 상부에 걸쳐 일체형으로 된 우물반자가 지금까지 남아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강당의 기둥에서는 많은 수장재의 흠들이 남아 있는데, 규칙적이고 통일성이 있어 벽장을 내 달았던 흠으로 추정된다.

명성당은 몇 차례의 중수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남계서원의 중심 건물로 서원이 중건된 후 경내에서 가장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건물이라 할 수 있다. 명성당은 평면이나 상부가구의 구성, 공포와 대공, 화반, 반자, 창호 등 전체 건축구성에서 17세기 강당건축의 특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② 동재

### ■ 개요

강당 앞의 경사지형에 축대를 쌓고 그 양측에 대칭되도록 동재와 서재를 배치하였다. 동재는 강당 앞 우측에 있으며, 온돌방 앞에는 양정재(養正齋)란 현판이 있고 누마루 위에는 애련헌(愛蓮軒)이란 현판이 있다. 정면 2칸, 측면 1칸의 맞배집으로 3량가이며, 면적은 16.78㎡(5.07평)로 정면 5.5m, 측면 3.05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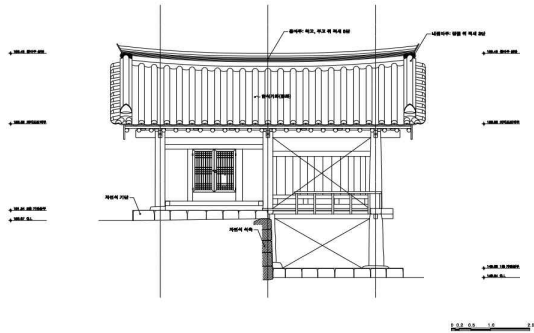
내측의 한 칸은 온돌방이고 외측의 한 칸은 마루를 두었는데, 2칸 중 온돌방의 1칸은 축대위에 두었고 마루의 1칸은 축대 아래에 주초를 설치하고 하부기둥을 설치한 위에 마루를 두어 누각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온돌방의 앞에는 작게 뒷마루를 설치하였는데 우물마루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기둥을 두지 않고 낮은 고막이 위에 설치하였다. 기단은 자연석기단으로 축대위의 기단은 낮게 1단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배면의 기단은 축대와 겹하여 기단을 두고 있으며, 마루가 있는 축대하부는 3면을 낮게 2단의 기단을 두고 있다. 기단바닥은 생석회다짐으로 되어 있다. 자연석주초위에 두리기둥을 세우고 창방과 초익공을 두고 그 위에 주두를 얹었다.

### ■ 현황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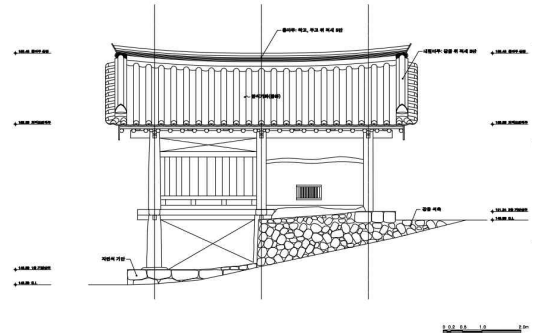


[그림 III-65] 동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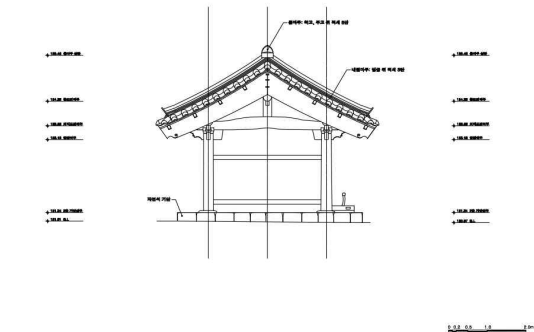
## ■ 현황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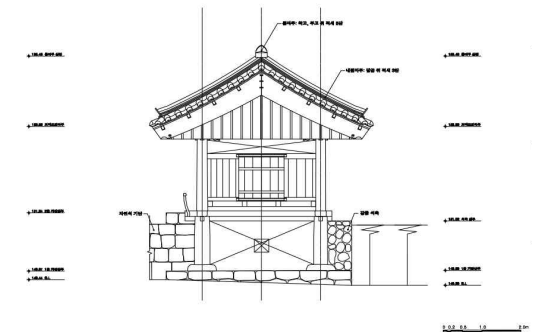
동재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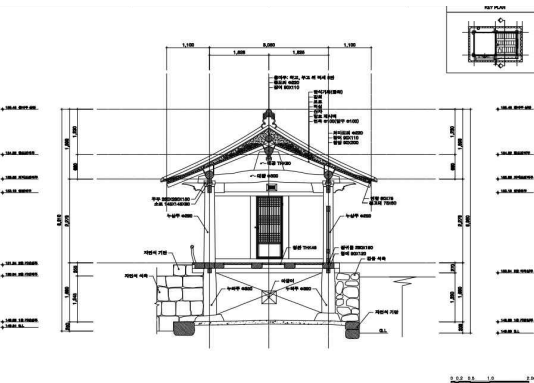
동재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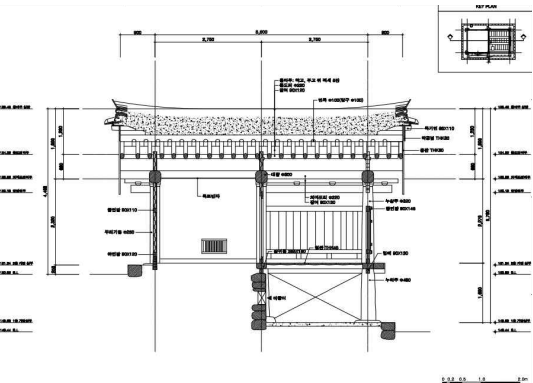
동재 좌측면도



동재 우측면도



동재 종단면도



동재 횡단면도

내측의 한 칸은 온돌방이고 외측의 한 칸은 마루를 두었는데, 2칸 중 온돌방의 1칸은 축대위에 두었고 마루의 1칸은 축대 아래에 주초를 설치하고 하부기둥을 설치한 위에 마루를 두어 누각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 ③ 서재

#### ■ 개요

서재는 강당 앞에 동재와 마주보고 있으며 동재와 거의 같다. 보인재(輔仁齋)란 현판이 있고 누마루 위에는 영매헌(凝梅軒)란 현판이 있다. 정면 2칸, 측면 1칸의 맞배집으로 3량가이며, 면적은 16.67㎡(5.04평)로 정면 5.5m, 측면 3.03m로서 동재와 규모 및 양식이 거의 동일하나 간략하게 되어 있다.

배면의 중간기둥은 팔각기둥으로 되어있어 특이하다. 온돌방 앞의 뒷마루의 폭이 동재보다 좁게 설치되어 있고 2장의 두꺼운 널마루로서 동재의 우물마루와 다르다. 누마루 전면의 계자난간의 계자각도 4개로 간략하다. 온돌방의 강당측벽부분에는 예전에 문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 같은 벽선이 있고 배면에는 동재와 달리 광창이 없으며, 마루와의 사이에 설치된 세살문의 위치도 동재와 달리 앞쪽으로 치우쳐 설치되어 있다. 누마루 상부 익공의 뒷부분도 직결하여 간략하다. 굴뚝은 우측 강당쪽 기단에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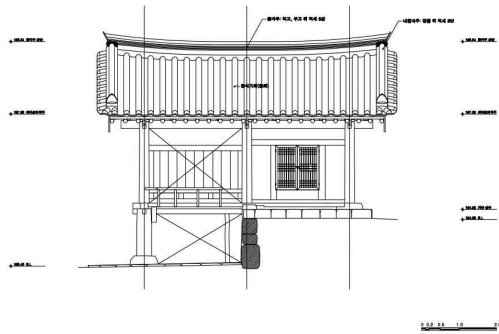
#### ■ 현황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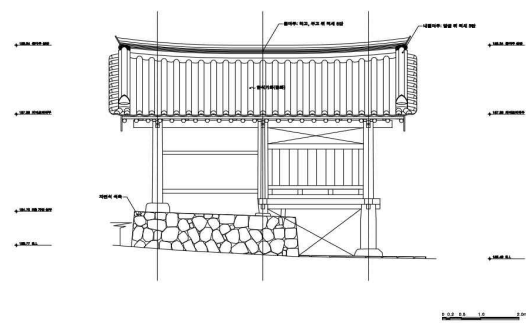
[그림Ⅲ-66] 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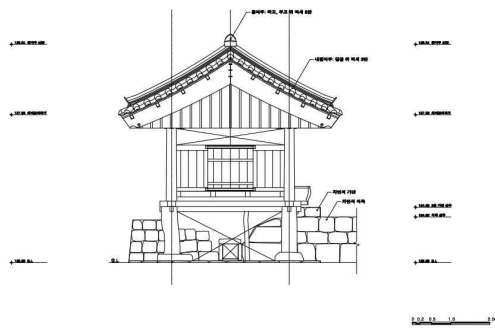
## ■ 현황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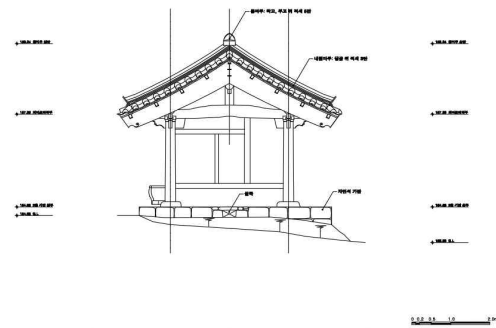
서재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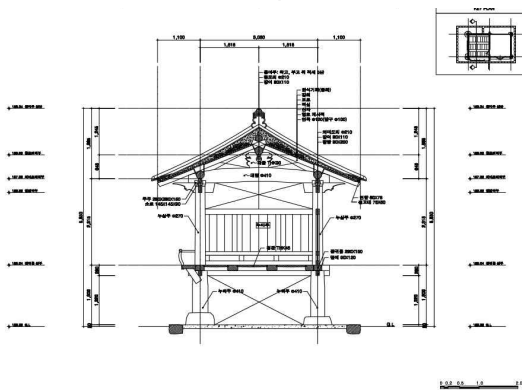
서재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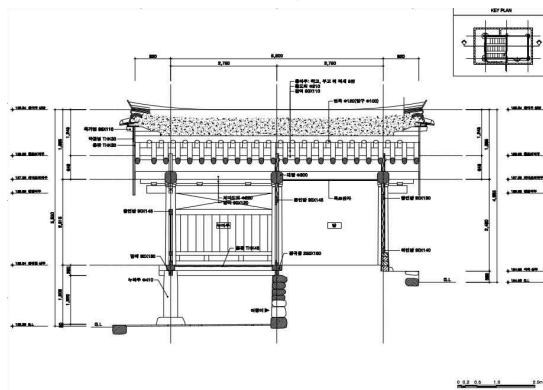
서재 좌측면도



서재 우측면도



서재 종단면도



서재 횡단면도

#### ④ 경판각

##### ■ 개요

강당의 우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면 2칸 및 측면 각1칸의 우진각집으로 정면 5.36m, 측면 2.68m이고 면적은 14.36㎡(4.35평)이다. 바닥은 우물마루를 설치하였는데 하부는 4면 모두 터놓아 습기를 차단하고 공기의 유통이 자유롭게 하여 판각의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벽체도 판벽으로 설치하였다. 전면 상부 판벽에는 호랑이 민화가 그려져 있는데 흐려지고 일부는 지워져 보존상태가 좋지 않다. 층랑에는 상량문이 있는데 “壬戌正月二十七日壬戌寅時立柱同日午時”라고 기록된 바, 1982년도 음력 1월 27일 인시(寅時)에 기둥을 세우고 그날 오시(午時)에 상량(보이지 않는 글자는 “上樑”으로 추정됨)한 것으로 보인다. 수리기록에 의하면 1992년 10월에 기단, 지붕, 판벽 등을 수리하였다. 추녀는 층랑 중앙부의 휘어지는 윗부분에 동자기둥 없이 추녀뿌리를 올려 꺾기둥 쪽으로 걸치고, 추녀의 양측에는 말굽서까래를 두어 지붕의 골격을 잡고 있다. 연목, 말구위에는 평고대를 두고 연합을 설치하였으며, 그 위에 산자를 깔고 기와를 얹었다. 구부재는 간략한 모로단청이 되어 있으나 근래에 보수하여 교체한 부재에는 단청이 되어 있지 않다.

##### ■ 현황사진



[그림 III-67] 장판각

## ■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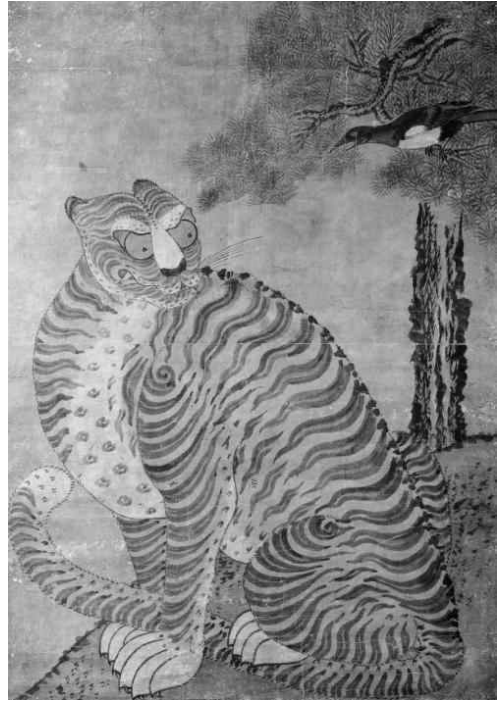
남계서원 경관각에는 전면 상부 판벽에 호랑이와 까치가 등장하는 '호작도(虎鵲圖)'가 그려져 있다. 사찰의 불전이나 서원의 경우 사당과 강당 등 주요 건물의 경우 벽화나 부재 중간에 계풍을 그려넣기도 하는데, 이처럼 경관각 판벽에 민화(虎圖)를 그린 경우는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 판벽화는 흐려지고 일부는 지워져 보존상태가 좋지 않으나 주요 소재인 호랑이와 까치, 소나무를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호작도에는 호랑이와 까치, 소나무가 등장하는데, 설화의 내용에 따라 까치가 약하면 서도 가장 힘세고 무서운 호랑이를 끌려 주는 해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그림들은 서민층을 대변하는 약자들을 상징적으로 크게 그리고, 절대권력의 강자는 바보같은 얼굴이나 얼빠진 모습으로 묘사하여 억압받은 사회를 풍자한 내용으로 보고 있다. 이를테면 민화 속의 호랑이는 산중의 왕인 무서운 호랑이가 아니라 약간은 바보스러운 표정으로 그려지며, 혹은 빙그레 웃음을 머금고 있거나 점잖게 입을 다물고 있어 다정하고 친숙하다.

또한 과거에 매년 정초가 되면 궁궐을 비롯하여 일반 민가에서도 호랑이의 그림을 그려 대문에 붙여 사악한 것의 침입을 막는 풍속이 있었다. 《동국세시기》에서는

“민가의 벽에 닭이나 호랑이 그림을 붙여 재앙과 역병을 물리치고자 한다.”

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벽사의 염원은 호랑이 삼재부적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삼재는 풍(風)·수(水)·화(火)에 의한 재난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정초의 세화(歲畵)나 부적에 호랑이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호랑이의 용맹성을 이용하여 벽사행위의 완성을 꾀하려는 의도라고 생각된다. 대나무 숲과 함께 그려지는 호랑이도 벽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담문록 談聞錄》에 의하면 서방 산중에 인간에게 병을 주는 키가 큰 산귀가 살았는데, 대나무를 잘라 불 속에 던져 대나무가 터질 때 나는 큰 소리로 그 귀신을 쫓아 버렸다는 것이다. 이것이 폭죽(爆竹)의 연원이 되었지만, 어쨌든 민화 죽호도(竹虎圖)에 등장하는 호랑이는 사악한 존재를



【그림Ⅲ-68】 호작도, 조선 후기

물리치고 기쁨을 가져다주는 벽사의 주재자인 것이다.

결국 경판각은 서원의 중요한 문서나 판각 등을 보관하는 중요한 장소이나 목재로 조성되므로 화재 등의 위험에 극히 취약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벽사의 의미를 가진 벽화를 그려 넣음으로써 경판각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조선후기에 그려졌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민화에 대해서는 문양모사도를 제작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박물관에 따로 보관하는 등의 보존처리 방안을 수립토록 한다.



[그림 III-69] 경판각 호작도

## ⑤ 비각

### ■ 개요

풍영루를 들어서면 왼쪽으로 서재의 남측에 위치하고 있다. 정면 및 측면이 각 1칸의 맞배집으로 전면이 2.37m, 측면이 2.22m이고, 면적은 5.26㎡(1.59평)이며 동향을 하고 있다. 내부에는 남계묘정비(溪廟庭碑)가 있다. 한 단의 낮은 자연석기단위에 8각으로 잘 다듬어진 화강석주초를 세우고 두리기둥을 세웠다. 기단바닥은 생석회다짐 마감이다. 기둥위에는 창방과 초익공을 걸치고 주두를 올리고 그 위에 이익공을 얹었으며, 전·후 방향으로는 대량을 걸치고 좌·우 방향으로 는 장여와 도리를 올렸다. 전면과 후면의 도리하부에는 중간에 화반을 1개씩 받쳤다. 기둥은 두리기둥으로 지름이 330mm이고, 대량은 330mm×450mm, 도리는 지름이 240mm이다. 보는 자연스러운 곡재로서 양 옆을 가공하여 사용하였고, 그 위에 대공을 두지 않고 장여와 중도리를 설치하였으며, 처마도리와 중도리위에는 장연을 걸치고 부연을 올려 3량집 겹처마를 구성하고 있다.

익공은 초익공은 양서형으로 위에 연꽃을 초세김하였고 내부로는 물익공형의 당

초문에 연꽃을 초세김하여 사용하였으며, 좌·우의 초익공은 창방의 뺨목으로 초익공을 초세김하였다. 이익공은 수서형으로 하부에 연꽃봉오리를 초세김하였으며, 대량의 머리에는 봉두를 초세김하여 끼워 넣었다.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겹처마이며, 양측에는 풍판을 두고 박공판을 설치하였다. 하방의 하부 바닥과의 사이에는 화강석을 가공하여 만든 고막이석을 설치하였다. 비석 위 대량사이의 천정은 판재로 연목경사를 따라 빗천정을 설치하였는데, 전면 쪽으로는 황룡(黃龍)을 그렸고 후면 쪽으로는 청룡(靑龍)을 단청하였다. 단청은 모로단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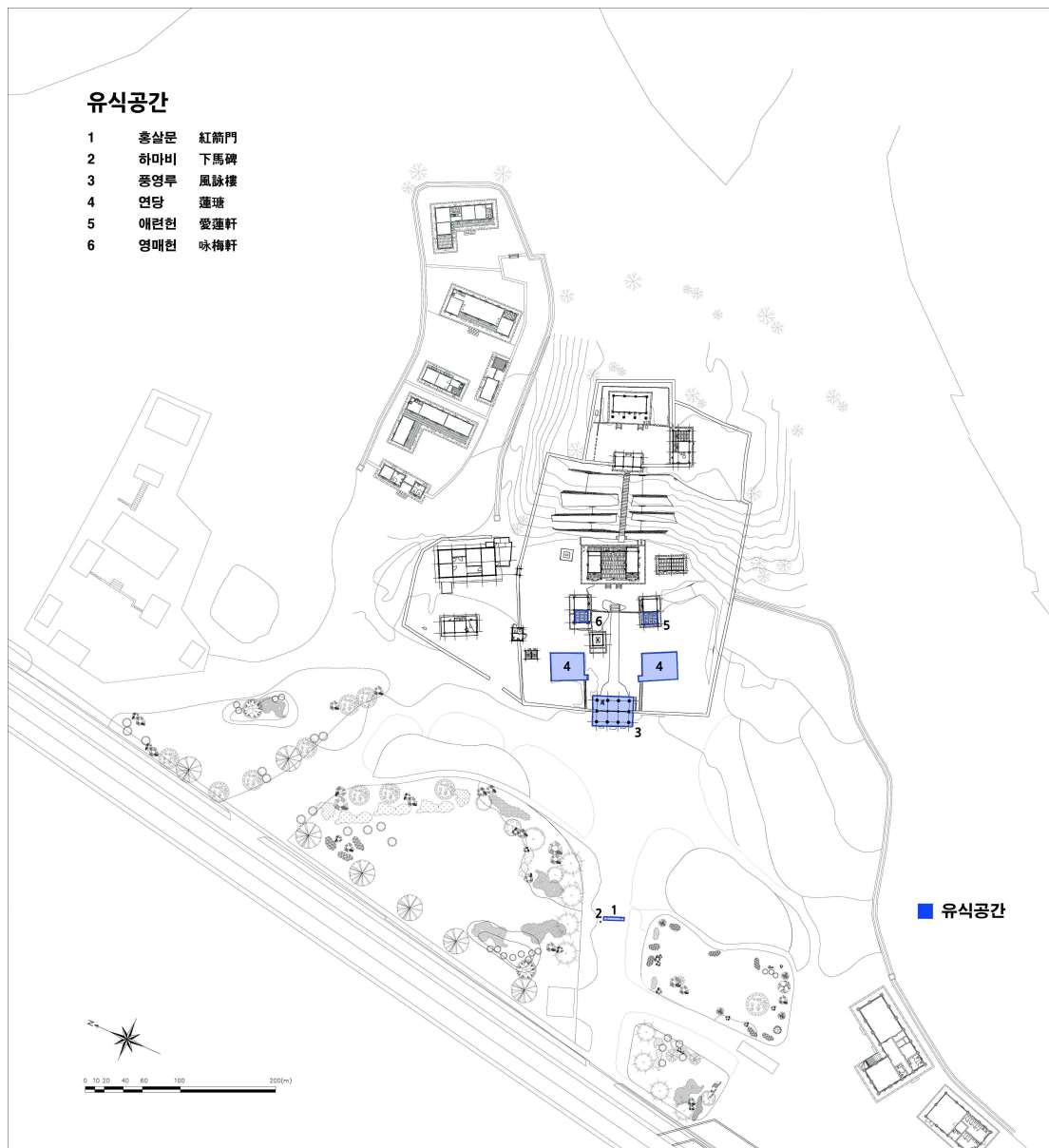
#### ■ 현황사진



[그림 III-70] 묘정비각

### 3) 유식공간

남계서원은 유식공간의 개념을 구현한 최초의 서원이다. 그런 면에서 양재의 현과 연지는 남계서원의 중요한 내부 경관 요소이다. 풍영루는 후대에 조성된 것으로 건립 당시의 유식공간 개념과 차이는 있으나, 누각의 본래 기능이 유식공간임을 감안하여 동일한 공간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III-71] 유식공간

## ① 풍영루

### ■ 개요

서원의 정면에 자리 잡고 있는 누각은 영남지역 서원의 특징이라 할 만큼 호남 지역보다 영남지역에 많이 건립되어 있다. 이런 지역적 특성은 향교의 누각건축에도 적용되는데, 이것은 산지가 발달한 영남지역의 지형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원의 누각은 장수와 유식의 개념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서원 교육의 한 모습을 보여 준다.

풍영루 정면 어칸 상부처마 밑에는 ‘風咏樓(풍영루)’라고 쓴 현판이 걸려 있고, 누각의 배면에는 ‘遵道門(준도문)’이라 쓴 작은 현판이 어칸 상층의 처마 밑에 걸려 있다. 강익의 ‘남계서원기’에는 대문의 이름을 ‘준도문’이라한 것으로 보아 임란 이전에는 누각이 아닌 삼문 형식의 건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풍영루에 관한 기록은 1841년에 오담(梧潭) 정환필(鄭煥弼)이 지은 「풍영루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모두들, 보기에 아름답게 하려고 누각을 새로 짓기보다는 차라리 우리의 가슴을 탁 트이게 하도록 옛 건물에다 새로운 건물을 붙여서 짓는 것이 낫다고 하였다. 그래서 서원 정문인 준도문(遵道門) 위에다 작은 누각을 붙여서 짓게 되었으니, 누각은 상하 10여 칸 이고, 이듬해 신축년(1841, 현종 7) 6월 20일에 낙성하였다.<sup>90)</sup>

위에 적은 정환필(鄭煥弼)의 「풍영루기」에 따르면 당시 풍영루는 서원의 출입문인 준도문을 누각으로 증개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현 풍영루는 1847년에 화재로 소실된 것을 1849년에 중건한 것이며, 그 후 1937년에 풍영루를 대대적으로 수리했다. 이때 지은 민병승의 「풍영루중수기(風詠樓重修記)」에는 1937년에 풍영루 수리 시 사당과 강당(講堂), 동서재(東西齋) 등 전면적인 서원의 정비 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으나<sup>91)</sup> 자세한 공사 기록을 남기지 않아 수리범위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남계서원의 풍영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겹처마 팔작지붕 건물로 일반적인 누각의 건축구성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층의 두 번째 기둥 옆에 대문을 달았으며, 대문의 좌우로 담장을 설치하였다. 어칸의 문미(門楣)에는 ‘중문불입(中門不入)’이라 쓴 방을 붙여 출입을 금(禁)하고 있다. 하층기둥은 팔각의 받침돌 위에 팔각으로 다듬은 석재 기둥을 세운 것이며, 다만 중앙 기둥은 팔각의 목재

90) 咸以謂與其創立層櫺徒取觀美 曷若因舊貫增新制 恢拓我胸次也 遂就遵道門上 葺之以小樓 樓凡上下十許間 以翌年辛丑六月二十日落之

91) 閔丙承, 「風詠樓重修記」, 自正祠講堂以及東西齋之小廬者 并皆一新

기둥으로 처리했다. 석재 팔각기둥은 흘림이 약한 형태이며 규격은 통일되어 있고, 석재의 색상이 밝은 것으로 보아 근래에 만들어 세운 것으로 보인다. 누각의 상층으로 오르는 계단은 뒤쪽 좌측의 기둥 내부에 기대어 시설했다. 상층의 외곽에는 판문을 달지 않고 모두 개방하였으며, 밖을 바라보면 멀리 남계천이 보인다. 상층 마루 주위에는 계자난간을 둘렀으며, 난간의 네 모서리는 모를 접어놓았다. 이 같은 기법은 함양지방의 정자건축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풍영루의 기둥은 주칸의 길이에 비해 다소 굵지만 개방적인 누각의 입면 특성상 견실하게 보인다. 공포는 기둥 상부의 첨차가 소첨차와 대첨차로 구성된 삼익공이다. 두공의 형상은 평주와 우주(隅柱)가 다른데, 평주의 두공은 화반과 비슷한 형태이나 우주의 두공은 첨차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익공의 형상을 보면, 초익공과 이익공은 양서 위에 만개(滿開)한 연화(蓮花)가 있으며 삼익공은 수서에 연꽃 봉오리를 초새김하였다. 수서 상부의 보머리에는 봉두(鳳頭)를 조각하였다. 익공의 내부는 단순한 초새김을 반복적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조각의 수법이 단순하고 치밀하지 않아 조선후기 이후의 익공형식을 보여준다.

#### ■ 현황사진



[그림 III-72] 풍영루



This architectural drawing shows the main hall (Daejeon) of the Gyeongju National Museum. It is a detailed elevation of a traditional Korean wooden building. The structure features a multi-tiered, curved roof with ornate eaves. The main body is supported by a complex system of wooden pillars and beams, including a central support and diagonal bracing. The drawing includes various labels in Korean, such as '정자각주식고 주교 및 처마 8단' (정자각주식고 주교 및 처마 8단), '바탕마루: 앞줄 및 뒷줄 3단' (바탕마루: 앞줄 및 뒷줄 3단), '정자각주식고 뒷줄 처마 3단' (정자각주식고 뒷줄 처마 3단), '두리기틀 48단' (두리기틀 48단), '계단간대' (계단간대), '틀마기틀 24단' (틀마기틀 24단), '틀마기틀 24단' (틀마기틀 24단), '바탕마루 24단' (바탕마루 24단), and '바탕마루 24단' (바탕마루 24단). The drawing is a technical representation of the building's structure and design.

[illegible]

Technical drawing of a traditional Korean pavilion (Seogeomjeong) showing its structural components and dimensions. The drawing includes the following labels:

- 내림마루: 내를 뒀다 3단 (Inner veranda: raised 3 steps)
- 외마루: 외를 뒀다 3단 (Outer veranda: raised 3 steps)
- 후리기둥: 430 (Rear pillar: 430)
- 제자리간 (Main body space)
- 플라 기둥: D435 (Plank pillar: D435)
- 층사포의 단상 (Platform of the second floor)
- 플라 기둥: D485 (Plank pillar: D485)
- 층대의 기단 (Platform base)

This architectural drawing shows a detailed cross-section of the main hall (Daejeon) of the Gyeongju National Museum. The structure is a traditional Korean wooden building with a multi-tiered, curved roof. Key components labeled include the roof tiles (Gwancheon), the main roof structure (Daejeon), the supporting pillars (Daejeon), and the base (Daejeon). The drawing also shows the internal structural elements like the beams and the foundation.

210

#### 4) 부속지원공간

부속지원공간은 고직사와 화장실, 협문 등이 있으며, 서원 외부에는 최근에 준공한 관리사무소가 있다. 부속지원공간은 서원의 관리 및 관람편의, 정보제공을 담당한다.



[그림 III-73] 부속지원공간

## ① 고직사

### ■ 개요

서원의 좌측 담장에 협문을 설치하고 외부에 관리사를 두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집으로 정면을 향하여 있다. 5량집으로 중앙에 거실을 두고 주변으로 방3개와 화장실을 두었으며 우측의 한 칸은 부엌으로 사용하고 있다. 부엌의 우측에는 덧달아내어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부엌의 배면에는 작게 보일러실을 달아내었다. 현재 고직사 건물에 대한 복원 및 보수가 진행 중이다.



[그림Ⅲ-74] 고직사

## ② 협문

### ■ 개요

관리사와 경내를 구분하는 담장에 협문을 두었다. 협문은 자연석주초 위에 4개의 각주를 세우고 4방으로 도리를 둘러대어 상부틀을 짠 위에 수평으로 짧은 연목을 건 일반적인 형식이다. 연목의 앞·뒤로는 평고대를 걸었고 양 옆면에는 박공판을 대었으며, 연목의 사이에는 개판을 길이 방향으로 깔고 그 위에 적심을 얹고 기와를 이었다. 관리사 쪽의 기둥사이에는 하방과 상방을 설치하고 상하에 문둔테를 설치하고 2짝의 널문을 달았다. 경내 쪽으로는 빗장을 설치하였으며, 관리사 쪽으로는 문고리를 달았다.

### ③ 화장실

#### ■ 개요

경내에 화장실은 2동이 있는데 모두 근래에 수리(1992년)된 것이다. 채래식 화장실은 정면 및 측면이 각 1칸이며, 홀처마 우진각집으로 북향을 하고 있다. 바닥은 마루형태에 그 중간을 뚫어 변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부에는 땅을 파고 사방으로 석축형식으로 간략하게 둘러 사용하고 있다. 근래 수리 시 폭이 좁아 약간 더 넓혀지었으며, 당초 수리 후에는 낮은 기단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 흔적을 알 수 없다. 자연석 주초위에 각주를 세웠으며, 4방으로 납도리를 설치하고 그 위에 추녀를 올렸다.

### 5) 기타

#### ① 현판

#### ■ 개요

풍영루(風咏樓), 준도문(遵道門), 명성당(明誠堂) 동·서재인 보인재(輔仁齋), 영매헌(詠梅軒), 양정재(養正齋), 애련헌(愛蓮軒) 등이 있다. 영매헌과 애련헌은 각각 그 앞에 조성된 방지(方池)와 관련된 명칭이다. 강당 명성당 건물 전면에 ‘瀟溪’, ‘書院’ 두 현판이 좌우로 분리되어 걸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명성당 좌측 방에는 ‘居敬齋’, 우측 방에는 ‘集義齋’ 현판이 걸려 있다. 기문으로는 강당에 걸린 강익의 『瀟溪書院記』, 풍영루에는 정환필의 『風咏樓記』, 기정진(奇正鎭)의 『風咏樓重建記』 기문이 걸려 있다. 기문에 인근의 경치에 대한 기술이 자세하고, 이 경치를 즐길겸 증점이 풍영하는 즐거움과 같을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풍영루는 남계서원 앞에 전개된 경치를 바라보는 느낌과 통하고 일두가 지리산 유람을 다녀오며 지은 두류시(頭流詩) 내용과도 상통한다.<sup>92)</sup> 남계서원의 문루 현판은 ‘風咏樓’이다. ‘風咏’이란 『논어』에 나오는 “기수에 떡감고 무에 올라 바람을 쐬고 노래하며 돌아오겠습니다.”<sup>93)</sup>라는 말에서 딴 것이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를 알아준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냐? 고 질문하자 위와 같이 증점이 대답하였다. 이에 대해서 “공자께서 탄식하면서 나는 점과 함께 하겠노라.”<sup>94)</sup> 하였다. 주자는 증점의 이 말에 대하여 “마음이 유연하여 곧바로 대자연과 혼연일체가 되어 심오한 경지를 얻으니 이는 은연중 말로써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sup>95)</sup>라고 해석하였다. 또 程顥는 “음풍농월하며 돌아와 나는

92) “風蒲泛泛弄輕柔，四月花開麥已秋，看盡頭流千萬疊，孤舟又下大江流”

93)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

94) 夫子喟然嘆曰 吾與點也

증점과 함께 하리라.’ 는 뜻을 지니게 되었다.” 96)라 하였다.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 를 줄인 ‘諷詠’ 이란 말은 대자연과 하나가 되는 경지를 말한 것이다. 풍영루에 오르면 이러한 천인합일의 경지를 의미하는 내용이 풍영루 기문에 보인다. 정여창의 후손 정환필의 ‘풍영루기’ 에 “사방으로 바라보이는 경치가 들판이 평평하게 넓고, 냇물이 감돌아 얹히듯 했는데, 먼 숲은 푸르고 저녁노을이 아름답다.” 97)하였다. 또 “이 다락에 오르면 넓어지는 마음과 편안한 정신이 자연 속에 자맥질하여서 유연히 스스로 얻은 것이 있는 뜻이 있다. 두류산의 만첩 봉우리와 화림천 아홉 구비의 흐름에서 거의 선생의 풍표를 보고 선생의 기상을 우러러 볼 수 있음이니, 흡사 선생이 계신 자리에 뒹고 서서 증점이 쟁그렇하고 비파를 밀쳐놓던 뜻이 있는 듯하여 풍영루(風詠樓)라 이름 하였다.” 98)고 하였다.

기정진의 풍영루 기문에는 정여창의 기상을 증점에 비유한다. “정여창 선생 심오하신 학문과 독실했던 행실이 어떠하였던가. 또한 ‘외로운 배로 큰 강을 내려간다.’ 라는 글귀를 음미하니, 은연중에 무우(舞雩)에 바람 쏘이고 근수(沂水)에서 목욕하곤했다던 기상이 있다. 이는 어찌 멀리 사모하고 바람으로써 얻어진 것이리오. 지킴이 오래되면 절로 이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99) 하였다. 풍영루에 올라서 느껴지는 기상은 남계서원이 제향하는 정여창의 기상이란 것이다.

풍영루에서 남계서원 앞에 전개된 경치를 바라보는 감회는 일두 정여창이 지리산 유람을 다녀오며 지은 두류시 “風蒲泛泛弄輕柔, 四月花開麥已秋, 看盡頭流千萬疊, 孤舟又下大江流” 에 보이는 기상이란 것이다. 결국 문루 풍영루는 “마음이 유연하여 곧바로 대자연과 혼연일체가 되어 얻게 된 심오한 경지” 를 의미한다. 이 경지는 남계서원에서 바라보는 전망 경관에서 느껴질 수 있다. 이는 또한 남계서원의 제향 인물 일두 정여창의 기상이기도 하다. 문루 풍영루에서의 경관은 남계서원의 전망경관, 이미지와 대자연과 하나가 되는 천인합일의 경지, 그리고 일두 정여창의 기상을 하나로 상징하는 기호 경관이 된다.

남계서원 창설을 주도한 강익은 ‘남계서원기’ 를 통해 서원의 강학공간과 제향 건물들의 당호가 품은 의미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 강당 이름을 명성(明誠)이라 함은 중용의 ‘명즉성의 (明則誠矣)’란 뜻을 취함이요. 강당 협실(夾室)을 좌는 거경(居敬)이라 하고 우는 집의(集義)라 함은 정자의 말씀 ‘거경궁

95) 其胸次悠然 直與天地萬物, 上下同流各得其所之妙, 隱然自見於言外- 『論語集註』, ‘先進’

96) 吟風弄月以歸, 有吾與點也之意- 程顥, 『二程全書 遺書』

97) 臨有四望之攸同郊坰平曠川澤縈洄遙林蒨晚靄

98) 登斯樓也則心廣神怡涵泳灑落悠然有自得這意矧乎頭流萬疊之峰花林九曲之流庶可以覽先生之清風抑先生之氣象恰若列侍函筵有點也鏗爾舍瑟之趣故因名之風

99) 一蠹先生淵源實學。雖非後生之所蠡測。集諸先生之尚論而想像之。蓋所謂不動而敬。不言而信者。其深厚篤實何如也。及味孤舟下江數句。則隱然有風浴氣象。此豈懸慕企望而得之哉

리(居敬窮理)’와 『맹자』 ‘집의이생(集義以生)’이란 뜻을 취함ियो. 재실의 동을 양정(養正)이라 함은 『주역』의 몽이양정(蒙以養正)에서, 서(西)를 보인(輔仁)이라 함은 증자의 말씀인 ‘이우보인(以友輔仁)’에서 취함ियो. 동헌을 愛蓮이라 하고 서헌을 영매(詠梅)라 하고 대문을 준도문(遵道門)이라 하였으니 모든 명칭이 각각 의의가 있는지라 액(額)을 선사하기를 濂溪書院이라 함은 서원이 濂溪水 위에 있음이로다...”

남계서원 강당 현판은 명성당(明誠堂)이다. 『중용(中庸)』, 제21장 1절에는 “참됨으로 말미암아 밝아지는 것을 본성이라 하고 밝힘으로써 참된 것을 가르침이라 하니 참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참된 것이다.”<sup>100)</sup> 하였다. 가르침을 통해 참된 본성을 밝히는 것을 남계서원의 교학 이념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강당의 동쪽 협실 현판은 거경재(居敬齋)이다. 강익의 서원기에 거경이란 정자의 ‘거경궁리(居敬窮理)’에서 뜻을 취한 것이라 하였다. 즉, “학자의 공부는 오직 거경과 궁리 두 글자에 있으니 이 두 가지 일은 서로 계발한다. 능히 리를 궁구하면 거경의 공부가 점점 나아지고 능히 거경하면 궁리의 공부가 날로 더욱 정밀해진다.”<sup>101)</sup> 하였다. 강당의 서쪽 협실 현판은 집의재(集義齋)이다. 집의는 『맹자』의 ‘집의소생(集義所生)’의 뜻을 취한 것이다. 즉 호연지기는 도와 짝이 되는 의를 축적해서 생기는 것이지 갑자기 엄습하듯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교학이념 명성은 꾸준한 거경 공부와 오랫동안 의를 축적해서 생겨나는 호연지기 함양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는 공부론을 현판이라는 기호 경관으로 상징화한 것이다.

남계서원 서재의 현판은 ‘보인재(輔仁齋)’이다. 서원기에 ‘이우보인(以友輔仁)’의 뜻이라 하였다. 『논어』 안연(顔然)편에 “군자는 글로써 벗을 사귀고, 벗으로써 인을 돕는다.”<sup>102)</sup> 하였다. 동재의 현판은 양정재(養正齋)이다. 서원기에 ‘몽이양정(蒙以養正)’의 의미라 하였다 『주역』 몽괘(蒙卦) 단사(彖辭)에 “교육함으로써 사람을 바르게 기르는 것은 성인의 공덕이다.”<sup>103)</sup> 하였다. 동서재의 현판의 의미 ‘몽이양정’과 ‘이우보인’은 유생이 서로를 깨우치며 공부에 매진해야 한다는 교학정신을 상징하는 기호경관이다. 특이하게 남계서원 동서재는 앞에는 작은 방지가 있다. 이 연못을 완상하는 마루 애련헌과 영매헌이 양정재와 보인재에 붙어 있다. 문루 풍영루와 어울리는 남계서원의 풍영하는 기상을 나타낸다.

서원 문루 풍영루 내측에 ‘준도문(遵道門)’이란 외삼문 현판이 걸려 있다. 정환필의 ‘풍영루기’에 “준도란 이로 말미암아 행하면 도가 여기에 있다.”<sup>104)</sup>

100) 自誠明 謂之性 自明誠 謂之教 誠則明矣 明則誠矣

101) 學者工夫，唯在居敬、窮理二事。此二事互相發。能窮理，則居敬工夫日益進；能居敬，則窮理工夫日益密

102) 曾子曰，‘君子以文會友，以友輔仁’

103) 蒙以養正，聖功也

라는 뜻으로 풀이했다. ‘준도’는 『중용』 10장에 나오는데,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군자가 도에 좇아 행하다가 중도에서 그만두기도 하는데, 나는 그만둘 수 없다. 군자는 중용에 의탁하여 세상을 숨어 살아 알아주는 이 없어도 뉘우치지 않으니, 오직 성자라야 그렇게 할 수 있다.”<sup>105)</sup> 남계서원 대문 현판 ‘준도문’은 군자는 세상이 알아줄까 근심하지 않고, 힘들더라도 중도에 그만두지 않고, 중용에 의탁하여 도를 실천궁행해야 한다는 교학정신을 상징한다.

#### ■ 현판사진



강당현판 (남계)



강당현판 (서원)



풍영루 현판 (풍영루)



풍영루 현판 (준도문)



강당현판 (명성당)



강당현판 (거경재)

104) 遵道者由是而行道在斯焉

105) 君子遵道而行，半塗而廢，吾弗能已矣。君子依乎中庸，遯世不見知而不悔，唯聖者能之

## ② 석각

### ■ 개요

서원 경내에는 비각 안에 묘정비(廟庭碑)가 있으며, 서원 앞에는 최근에 건립한 <문헌공일두정여창선생추모비>가 거대한 규모로 서 있다. 비각 안에는 남계묘정비(濫溪廟庭碑)가 있다.

추모비 바로 옆에는 근래에 만들어진 하마비가 있었는데, 홍살문 오른쪽 앞에 있었던 것을 공사하면서 방치하여 위치를 알 수 없었다가 최근 남계서원 주변을 새로이 정비하면서 과거 사진 등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여 홍살문 좌측에 세웠다. 사당 앞 전사청 쪽에는 관세대, 작세대, 정료대가 있고 사당 좌측에는 예감이 있는데 화강석을 다듬어 사용하고 부분적으로 시멘트로 보수하여 사용하고 있다. 강당의 좌측에는 제향 때 제수로 쓰이는 생물을 검사하기 위해 세운 단인 성생단(省牲壇)이 있다. 거칠게 가공한 자연석을 이용하여 총 3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석재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III-75] 정여창선생추모비



### ③ 홍살문

#### ■ 개요

도로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근래에 세워진 홍살문이 있다. 주초는 화강석으로 위로 뚫린 ㄷ자로 가공한 후 그 사이에 기둥을 세우고 위아래로 축을 꽂아 고정하였다.



[그림Ⅲ-76] 홍살문

### ④ 조경

#### ■ 개요

남계서원은 1552년(명종 7) 건립 논의가 되어 1555년에 강당건립을 시작하였으나 1559년에야 겨우 완성하였고 1561년에 사당을 건립하였다. 1564년에는 동·서재를 건립하고 재(齋) 아래에 작은 못을 파고 못 주변에 매죽(梅竹)을 심고 못 가운데는 홍백련을 심는 것으로 기숙시설과 조경을 마무리하고 각 건물마다 편액을 걸면서 서원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현재 남계서원 내부에는 식재된 조경수가 많지 않으며 그 종류도 단순하다. 대부분 소나무와 단풍나무이며 일부 주목과 향나무가 식재된 정도인데, 일부 수종이 일본 수종인 가이즈까향나무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존치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식생현황도



[그림 III-77] 조경현황도

■ 식생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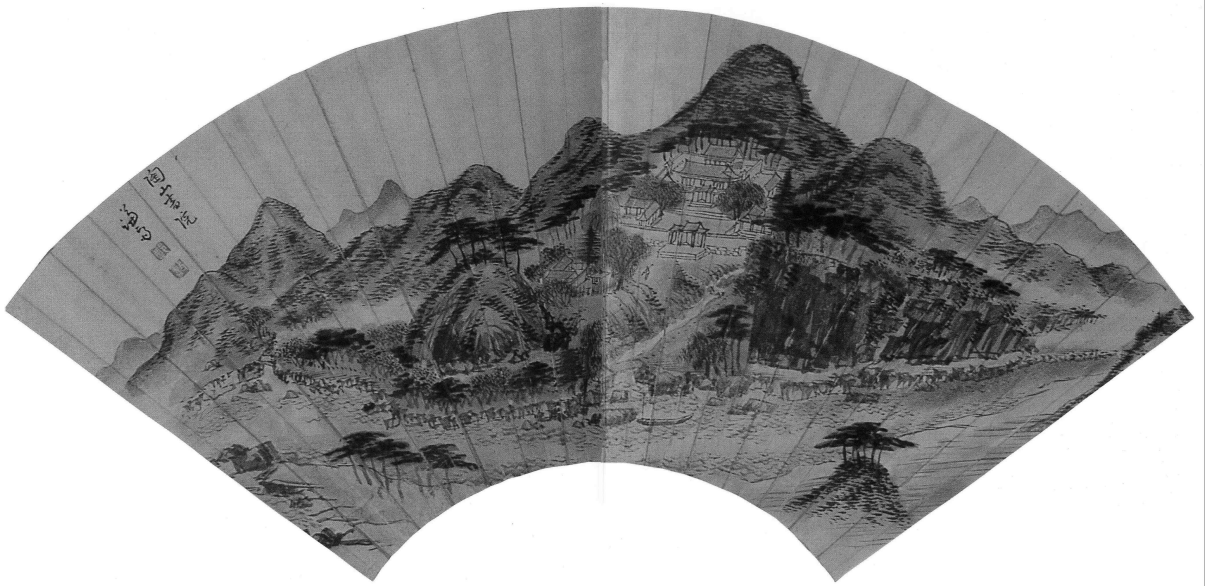
[표Ⅲ-6] 식생 목록

번호	수목명	규격	단위	수량	번호	수목명	규격	단위	수량
1	매실나무	H5.0*R2.0	주	1	24	단풍나무	H3.0*R15	주	1
2	소나무	H2.5*R15	주	1	25	단풍나무	H3.0*R15	주	1
3	소나무	H.23*R15	주	1	26	배롱나무	H6.0*R30	주	1
4	소나무	H.23*R15	주	1	27	배롱나무	H6.0*R30	주	1
5	주목	H1.5*R10	주	1	28	둥근향나무	H0.6*W0.8	주	1
6	주목	H1.5*R10	주	1	29	둥근향나무	H0.6*W0.8	주	1
7	소나무	H2.5*R15	주	1	30	배롱나무	H5.0*R25	주	1
8	단풍나무	H5.0*R15	주	1	31	배롱나무	H6.0*R30	주	1
9	단풍나무	H3.0*R20	주	1	32	소나무	H7.0*R35	주	1
10	매실나무	H4.5**R20	주	1	33	소나무	H10*R50	주	1
11	단풍나무	H3.0*R20	주	1	34	소나무	H10*R50	주	1
12	단풍나무	H4.5*R25	주	1	35	소나무	H7.0*R60	주	1
13	치자나 무	H4.5*W2.0	주	1	36	소나무	H10*R55	주	1
14	감나무	H7.0*R20	주	1	37	소나무	H9.0*R45	주	1
15	주목	H1.8*R8	주	1	38	소나무	H10*R50	주	1
16	배롱나무	H6.0*R25	주	1	39	소나무	H10*R50	주	1
17	무궁화	H2.5*R13	주	1	40	소나무	H10*R55	주	1
18	주목	H4.0*R15	주	1	41	소나무	H7.0*R40	주	1
19	주목	H1.6*R8	주	1	42	소나무	H10*R45	주	1
20	매실나무	H2.5*R10	주	1	43	소나무	H9.0*R50	주	1
21	주목	H1.8 *R8	주	1	44	소나무	H10*R55	주	1
22	주목	H1.8*R6	주	1	45	감나무	H7.0*R20	주	1
23	소나무	H10*R100	주	1					

### 3-3. 서원의 입지 경관<sup>106)</sup>

우리나라 서원 입지의 가장 큰 특징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있는 곳에 입지한다는 자연성이다. 전면에 경지, 강 그리고 산이 있어 개방적이고 시원한 전면 경관과 여기서 마을에 다가오는 푸른 산색과 반짝이며 굽이쳐 흐르는 물색에서 생의 활기를 깨닫고 마음을 넓히며 지혜를 함축하도록 하는 아름다운 산수경관이 서원의 필수적 입지 요소이다.

또 서원은 앞이 낮고 뒤가 높은 전저후고의 경사지형에 입지하며, 강당을 앞에 두고 사당을 뒤에 두는 입지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서원의 전저후고의 입지 경관은 첫째 안에서 외부를 조망할 때 개방적 자연 경관시계를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장소에서 ‘천인합일’을 정감적으로 체득하는 것이 우리나라 서원의 중요한 특성이고 장점이다. 자연적 지형 경사를 따라 자신의 신체조건에 맞추어 올라가는 방식으로 서원에 진입하도록 하고 앞에서부터 외삼문-안마당-강당-사당의 순으로 건물을 배치함으로써, 진입과정에서 느끼는 상승감이 존경 경관에 대한 외경심과 자연스럽게 결합될 수 있다.



[그림 III-78] 겸재 정선(謙齋 鄭敼 1676~1759), <간송미술관 소장>

106)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 문화재청, 2011, p22-30

이러한 입지적 성격 때문에 서원은 공공적 종교적 시설에서 흔히 나타나는 폐쇄성과는 반대로 매우 개방적이다. 낮은 담장과 벽 없는 기둥으로 외부와 차단되지 않는 마루 공간, 자연지형 지세에 순응하는 상대향과 복합적 축선 등으로 나타난 개방성과 자연성은 폐쇄적인 중국서원과 다르다. 풍수적 자연관과 관련된 위요경관도 시각적·심리적으로 장소를 내부화하는 것이지 출입을 통제하거나 시계를 제한하기 위한 위요경관이 아니다.

### 3-3-1. 전망경관

전망 경관은 서원의 문루나 강당에서 전면의 대자연을 내다보는 경관으로 인간과 대자연이 마주보는 천인대대의 경관이다. 풍수에서는 안대라고하고 유교적 관점에서는 자연과 생의를 감통 감응함으로써 천인합일의 경지(인仁)를 마음과 정신으로 느끼고자 하는 경관이다. 서원의 구체적 입지 유형과 서원 창설자들의 지향하는 바에 따라 천인감통을 느끼는 방식이 다양하다. 서원 문루의 이름과 기문이나, 관련된 인물의 시문을 통해서 전망 경관의 유형을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표Ⅲ-7】 서원경관의 분류

입지	서원
야경(野景)	확연대공(廓然大公, 필암서원), 음풍영귀(吟諷詠歸, 남계서원)
산경(山景)	취병만대(翠屏晩對, 병산서원)
강경(江景)	추월한수(秋月寒水, 도동서원)
계경(溪景)	관수유술(觀水有術, 구연서원)

- 남계서원 : 풍영루(風詠樓)는 평지에 자리 잡아 낮은 산과 들이 평온하게 생기 있게 보이는 야경입지 경관이다.

“다락집의 제도가 매우 굉장하지는 않지만 빛나고 날듯 함이 잠시 동안 다시 보게 되었다. 높이가 백자도 되지못하나, 멀리 임해서 사방으로 바라보이는 경치가 들판이 평평하게 넓고, 냇물이 감돌아 얹히듯 했는데, 먼 숲은 푸르고 저녁노을이 아름답도다. 백암산의 두어 집이 저문 빛속에 들어 반쯤이나 숨었고, 석뢰계(石雷溪)의 한쪽은 아침 햇볕에 온전히 드러났도다. 대나무와 잣나무 우거진 앞마을에는 우는 새들이 봄을 재촉하고, 논에서는 늙은 농부가 가을 농사를 짓치도다.

풍월(風月)이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구름과 아지랑이가가 재주를 드리우는데, 한번 슬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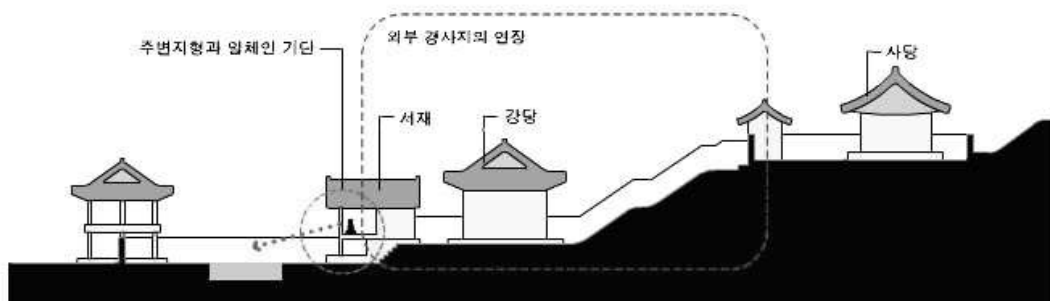
보아도 천가지 기이함이 황홀하여 형상하기 어렵도다. 이 다락에 오르면 넓어지는 마음과 편안한 정신이 자연 속에 자맥질하여서 유연히 스스로 얻은 것이 있는 듯 뜻이 있다. 두류산(頭流山)의 만첩 봉우리와 화림천(花林川) 아홉구비의 흐름에서 거의 선생의 풍표(風標)를 보고 선생의 기상(氣象)을 우러러 볼 수 있음이니, 흡사 선생이 계신 자리에 뒤흔치고 서서 증점(曾點)이 쟁그렁하고 비파를 밀쳐놓던 뜻이 있는 듯하여 풍영루(風詠樓)라 이름 하였다.”

-남계서원(濫溪書院) ‘풍영루기문(風詠樓記文)’

### 1) 전저후고의 풍수적 위요 경관

서원은 주위 산세와 조화를 이루면서 생기를 타고 갈무리 하도록 둘러싸인 풍수 경관을 이루며, 유교적 관점에서는 서원이 산줄기의 맥을 타는 것으로 연원이 이어짐을 상징한다. 위요경관은 바람을 막아 기를 안정시키는 미기후 효과 뿐 아니라, 공간을 내부 장소화 함으로써 보호되는 편안한 장소로 인식하게 심리적·상징적 효과가 크다. 사신사(四神砂)라고 부르는 풍수적 위요 경관은 주위 산세(山勢)와 담장과 대문, 강당과 동·서재로 둘러싸인 안마당(중정, 中庭)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한국 전통건축에서 담장은 주로 돌이나 흙 혹은 돌과 흙을 섞어 울타리를 두르는 방식으로 서원 내부에서 외부 자연경관을 관망하는 서원의 개방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만들어진 다. 낮은 담장을 통해서 서원 외부의 자연 경관을 끌어들이면서 서원의 인위적 경관을 담장 너머 대자연과 합일시킨다. 서원을 비롯한 한국 전통건축의 위요 경관은 내부를 완전하게 폐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상징적으로 둘러싸서 내부자(insider)라는 지각적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므로 산과 담장은 높지 않고, 안마당을 둘러싼 건물도 틈새가 크다.



[그림 III-79] 남계서원의 단면구성(노재현, 신상섭, 치(置)와 화(和)의 개념으로 분석한 남계서원의 경관짜임)

## 2) 위계적으로 분절(分節)된 예(禮)경관

예를 실천하는 서원경관은 서원의 내부 경관 구조에서 자연스러운 차별화가 느껴지도록 개별 장소로 분절된 공간으로, 전저후고의 경사 지형을 활용하여, 아래 그림처럼 서원의 장소들은 상승축을 따라서 좌우대칭적 구조에 기능별로 분절적으로 배치함으로서, 입구에서부터 지형경사를 따라 차례로 보다 높은 권위를 가진 장소로 진행하도록 한다.

## 3) 서원의 연못 경관

서원경관에서 수경관(水景觀)은 풍수적, 취수 집수 기능과 유교적 관조의 대상이라는 상징적 성격이 중복된 연못으로 나타나며, 형태는 방형(方形)이 많다. 서원 연못은 풍수적 맥락에서 보완경관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서원의 연못도 취수, 집수, 수구로서 우기 때 집수 장소가 되어 서원 내부의 배수를 원활하게 하여 마당 토양의 유실을 막아주고 오염물질을 분해시키며 화재 때는 수원의 역할을 한다.

## 4) 비움과 인간적 규모의 안마당(中庭)경관

서원 내부는 기능에 따라 많은 분절된 장소가 형성되는데, 서원의 중심인 강당 앞에는 보통 안마당(중정)이 만들어져 있다. 안마당은 비움의 공간으로 화초나 수목을 심지 않는데, 비움으로써 마당은 양기를 충전하는 장소가 되고, 수양의 성찰을 돕도록 침묵의 공간이 된다. 비워진 마당은 여름에는 서원 후면의 숲으로부터 바람을 유도하여 강당을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마당의 복사열이 강당과, 동, 서재에 반사되어 따뜻하게 하는 미기후 조정 기능이 있다. 안마당의 규모는 보통 건물사이의 거리가 20~25m 정도이며, 마당 폭과 건물높이 사이의 비례는 2-3 배이고, 마당한쪽 끝에서 반대편 건물 꼭대기를 바라보는 시선의 양각은 18~27° 이다. 이는 건너편 건물에 있는 사람의 얼굴 표정을 읽고 육성으로 대화할 수 있는 간격이며, 건물이 사면을 둘러싸 자신이 보호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답답하지는 않을 정도의 가장 편안한 폐쇄감을 느끼게 하며, 바라보는 사람이 편안하게 느끼게다. 또 중정의 사면을 막는 건물들 사이 모서리는 연결되지 않고 벌어져 있는데, 그 각도는 20~25° 로, 중정 사면의 공간은 개방성과 폐쇄성 사이에 적절한 균형감을 느끼게 하는 크기이다.

## 5) 수목식재 경관

서원은 산수가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입지하므로 의도적 수목 식재는 제한적이다. 식재 수종의 특성을 서원 경외는 진입 공간과 담장주위, 서원 내는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서원 경외의 진입과정의 공간의 공통적인 수목은 소나무와 느티나무 그리고 행단과 관련된 은행나무가 대표적이고 노거수가 많다. 느티나무와 은행나무는 유식 여가장소인 정자나무 역할을 한다. 담장 주위와 서원 뒤에는 소나무와 대나무가 대표적이다. 경내에 식재되는 나무는 강학공간에는 은행나무, 매화나무, 배롱나무 등이 대표적이다. 강학공간은 안마당이 중심장소가 되기 때문에 비어 있어 나무나 초본의 식재가 적다. 제향공간은 상대적으로 수목식재가 많은 편이다. 목백일홍(배롱나무)과 무궁화 및 모과나무, 단풍나무, 향나무, 측백과 회화나무(괴목, 槐木) 등이 있다.

### 3-3-2. 남계서원의 경관

#### 1) 성리학적 경관

함양은 남계서원의 제향자 정여창의 고향이다. 남계서원은 언덕 경사면에서 서쪽을 보고 섰는데, 앞 들판을 흐르는 남계와 먼 안산(案山)으로 백암산(白巖山)이 아련히 전망된다. 서원 앞을 흘러 함양읍에서 나오는 위천과 합류하는 남계는 자주 범람하여 함양군 지역에서 가장 큰 평야를 만들었다.

남계(濫溪)라는 시내이름 뿐 아니라, 연화산(蓮花山), 수동면(水東面), 원평리(院坪里) 등이 모두 물과 관련된 이름으로 둘러싸인 남계서원은 풍수에서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으로 불린다.

#### 2) 천인합일적 경관: 야경(野景)

주변에 산이 높지 않고 넓은 시내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평야가 펼쳐져 있어, 시야가 개방적이고 편안하며 활발한 느낌이다. 안대(案對) 경관의 유형은 경사지 언덕 위에서 시내와 들판, 그리고 먼 산을 전망하는 야경(野景)이 된다.

남계서원 앞에 펼쳐진 경치를 전망하기에 적당한 장소는 문루 풍영루와 서원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사우 앞이다. 풍영루는 남계서원의 전망경관, 대자연과 하나가 되는 천인합일의 경지, 그리고 정여창의 기상을 하나로 묶어 보여주는 누각이다.

#### ■ 풍영루에서 바라본 조망경관

남계서원 앞에 펼쳐진 경치를 전망하기에 적당한 장소는 문루 풍영루와 서원에서 가장 높은 사당 앞이다. 풍영루는 19세기 전반에 서원규모를 갖추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남계서원에서 바라보는 경관의 특징은 「風詠樓記」에 잘 설명되어 있다. 정여창의 후손이 쓴 기문에는 “사방으로 바라보이는 경치가 들판이 평평



하게 넓고 뱃물이 감돌아 얽히듯 했는데 먼 숲은 푸르고 저녁노을이 아름답다” 하였다. 또 이 다락에 오르면 넓어지는 마음과 편안한 정신이 자연속에 자맥질하여 유연히 스스로 얻은 뜻이 있다고 하였다. 문루 풍영루에서 탁 트인 들과 아지랑이 낀 시내 그리고 구름 속에 아득한 산들을 바라보는 감회에서 증점의 풍영하는 기상을 떠올리게 된다. 마음이 유연한 군자는 남계서원의 전망 경관에서 “마음이 유연하여 곧바로 대자연과 혼연일체가 되어 얻게 된 심오한 경지”로 주자가 평가한 증점의 기상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이 정여창의 기상이며, 정여창을 함모하는 남계서원의 선비들이 추구하는 경지라고도 할 수 있다. 문루 풍영루는 남계서원의 전망경관, 대자연과 하나가 되는 천인합일의 경지, 그리고 정여창의 기상을 하나로 묶어 보여주는 누각이다.



[그림 III-80] 풍영루에서의 전망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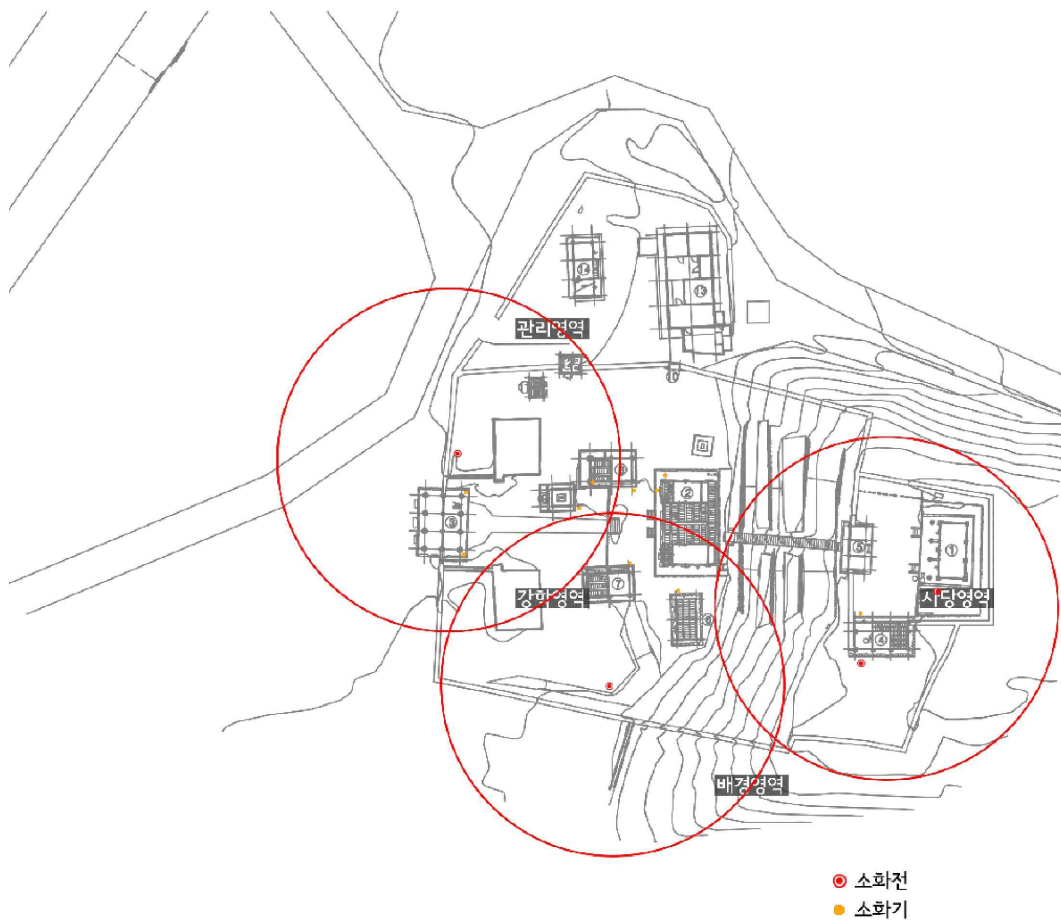
[그림 III-81] 사당에서의 전망경관

### 3-4. 방재시설

#### ■ 소방시설 현황

현재 소방시설은 서원 내에 옥외소화전, 방수총, 소화기, 피뢰침, CCTV, 화재감지기, 화재경보기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건물별로 각 1개소씩 비치하였으며, 강당의 경우 모서리에 2개소의 분말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으며, 사당의 경우에는 소화전 1개와 분말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서원 전체에 총 20대의 소화시설이 비치되어 있으며 각 소화기의 관리상태는 양호하다. 옥외소화전 3개소는 진입부에 1개소, 강학영역에 1개소, 제향영역에 2개소가 비치되어 있다.

- 함양소방서(6.6km) : 함양읍 → 남계서원 (10분)
- 안의안전센터(8.3km) : 안의면 → 남계서원 (15분)



[그림Ⅲ-82] 방재시설 현황

### 3-5. 주변 토지이용계획

함양남계서원 주변 지역은 500m 이내의 구역의 경우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구분되며, 그 외 보전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주변에 분포하고 있다.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의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도시지역 외 지역으로 50%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대상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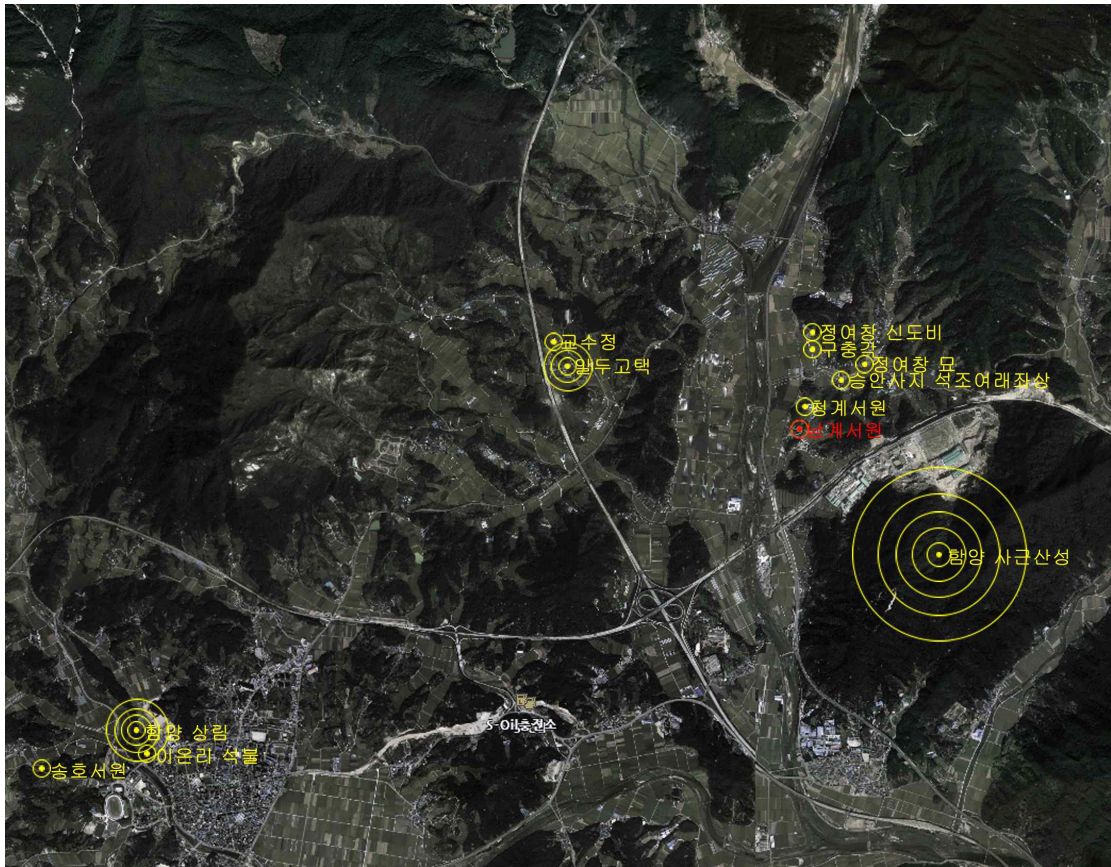
생산관리지역은 용도지역 중 하나로,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거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된다.



[그림 III-83] 남계서원 주변 토지이용계획 현황




### 3-6. 주변문화재 현황



[그림Ⅲ-84] 함양 남계서원 주변 문화재 위치도

함양 남계서원 주변의 문화재로서 청계서원, 교수정, 일두고택, 승안사지석조여래좌상, 함양상림, 송호서원, 이은리석불 등이 있다.

[표Ⅲ-8] 함양 남계서원 주변 문화재

종목	사적 제152호	
명칭	함양 사근산성(咸陽 沙丘山城)	
분류	유적건조물/정치국방/성/성곽	
수량 / 면적	93,808	
지정(등록)일	1699.09.08	
소재지	경남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산60번지	
시대	-	<p>문화재개요</p> <p>경상남도 함양군 하산리 사근장터 뒤 연화산에 있는 돌로 쌓아진 산성이다. 이곳은 조선시대 경상도 지방 14개의 역길을 총괄하던 중심역인 사근역이 있던 곳이다. 성을 쌓은 시기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산성의 규모와 이곳이 신라와 백제 사이의 분쟁지역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삼국시대에 세워졌다는 것이 추측된다.</p>
소유자	-	
관리자	함양군	

종목	중요민속문화재 제186호	
명칭	함양일두고택(咸陽一蠹古宅)	
분류	유적건조물/주거생활/주거건축/가옥	
수량 / 면적	일곽	
지정(등록)일	1984.01.14	
소재지	경남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262-1번지	문화재개요  조선 성종 때의 대학자 정여창(1450~1504)의 옛집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조선 후기에 다시 지은 것이다. 사랑채는 현 소유자의 고조할아버지가 다시 지었다고 하며, 안채는 약 300년 전에 다시 지은 것이라고 전한다. 이 집의 터는 500여년을 이어오는 명당으로도 유명하다.
시대	조선시대	
소유자	정의균	
관리자	정의균	
관리자	정의균	
종목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제76호	
명칭	교수정(敎授亭)	
분류	유적건조물/주거생활/조경건축/누정	
수량 / 면적	1동	
지정(등록)일	1983.07.20	
소재지	경남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문화재개요  교수정은 두문동 72현 중 한 분인 덕곡 조승숙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태조 7년(1398)에 지은 정자이다. 교수정 앞에는 선생의 충직함과 굳은 절개가 어려웠던 고사리와 국화라는 뜻의 '미국(薇菊)'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시대	-	
소유자	-	
관리자	함안조씨문중	
관리자	함안조씨문중	
종목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56호	
명칭	청계서원(靑溪書院)	
분류	유적건조물/교육문화/교육기관/서원	
수량 / 면적	1동	
지정(등록)일	1983.07.20	
소재지	경남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669-1번지	문화재개요  조선 연산군 때 학자인 문민공 김일손(1464~1498)을 기리기 위한 서원이다. 구경재와 동재, 서재, 홍남문, 솟을삼문 등의 건물이 남아 있고, 봄·가을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시대	-	
소유자	-	
관리자	청계서원	
관리자	청계서원	

종목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3호	
명칭	승안사지석조여래좌상(昇安寺址石造如來坐像)	
분류	유물/불교조각/석조/불상	
수량 / 면적	1기	
지정(등록)일	1972.02.12	문화재개요
소재지	경상남도 함양군 구라동구길 4-107(수동면)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우명리에 위치한 승안사지에 있는 불상으로 승안사지 3층 석탑에서 20m 가량 떨어진 곳의 개천 주위에 있는 불상이다. 오른팔 등에 파손이 있고, 하체가 묻혀 있으나 상체의 상태는 비교적 좋은 편이다.
시대	-	
소유자	-	
관리자	-	
종목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09호	
명칭	송호서원(松湖書院)	
분류	유적건조물/교육문화/교육기관/서원	
수량 / 면적	5동	
지정(등록)일	1994.07.04	문화재개요
소재지	경남 함양군 병곡면 송평리 503번지	조선 전기 학자 고은 이지할(1434~?)을 기리기 위해 경상도 유림에서 세운 서원이다. 경내에는 대표적인 건물로 경양사, 대문 격인 승사문, 서원이 있다. 교육 기능은 없어지고 현재 해마다 봄, 가을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시대	조선시대	
소유자	-	
관리자	송호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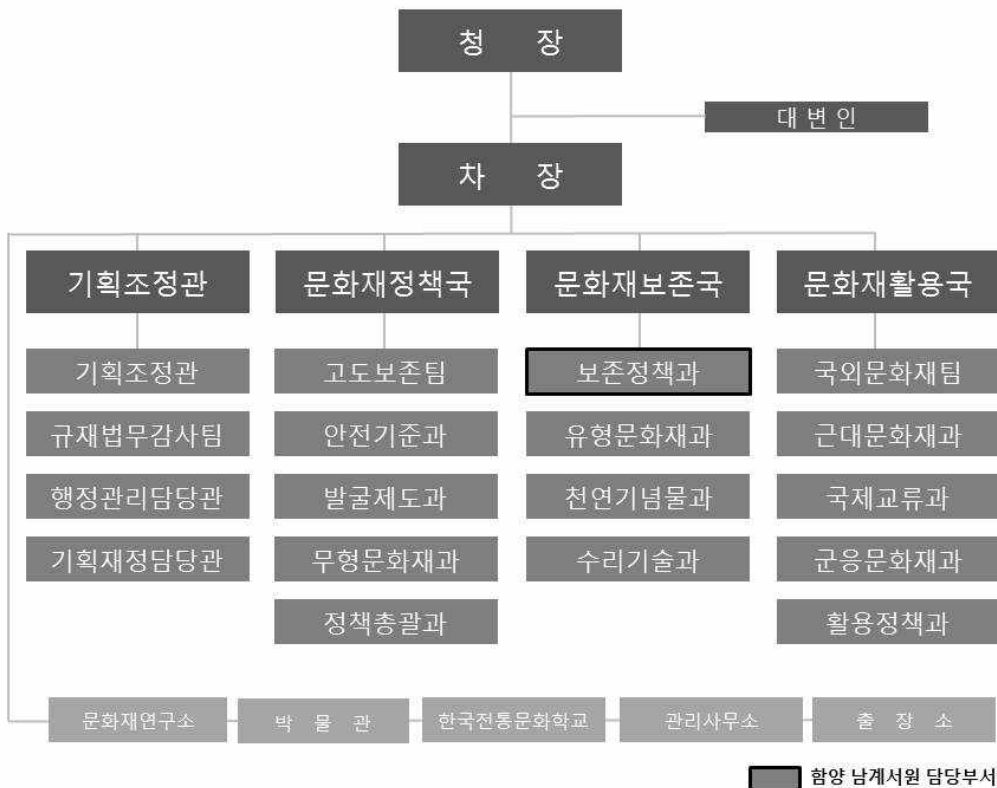
## 4. 관리현황

### 4-1. 관리조직 및 현황

#### 4-1-1. 문화재청

사적으로 지정된 함양 남계서원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차원의 관리주체는 문화재청의 보존정책과로 남계서원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 사적의 보존·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사적의 지정·해제·보호 및 관리
- 사적의 보수 및 정비를 위한 설계심사·점검·시공평가 및 수리기준 제정에 관한 사항
-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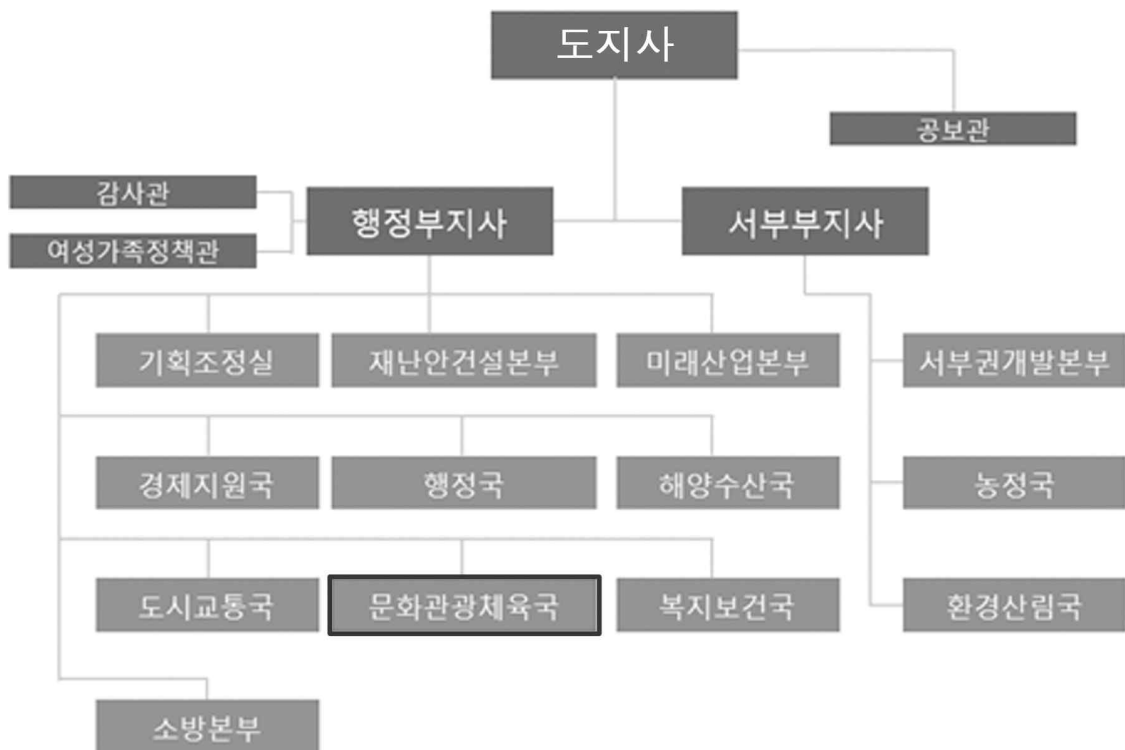


[그림 III-85] 문화재청 행정조직도

#### 4-1-2. 경상남도

경상남도는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재 관리 및 지역개발, 도시계획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광역자치단체이다. 행정조직 중 특별히 남계서원의 보존관리를 관장하는 부서는 문화예술과이다. 해당과의 업무 중 사적지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련된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문화, 자연유산, 문화재 지정 및 보존관리
-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
-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및 안전관리
-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 및 관리



[그림Ⅲ-86] 경상남도 행정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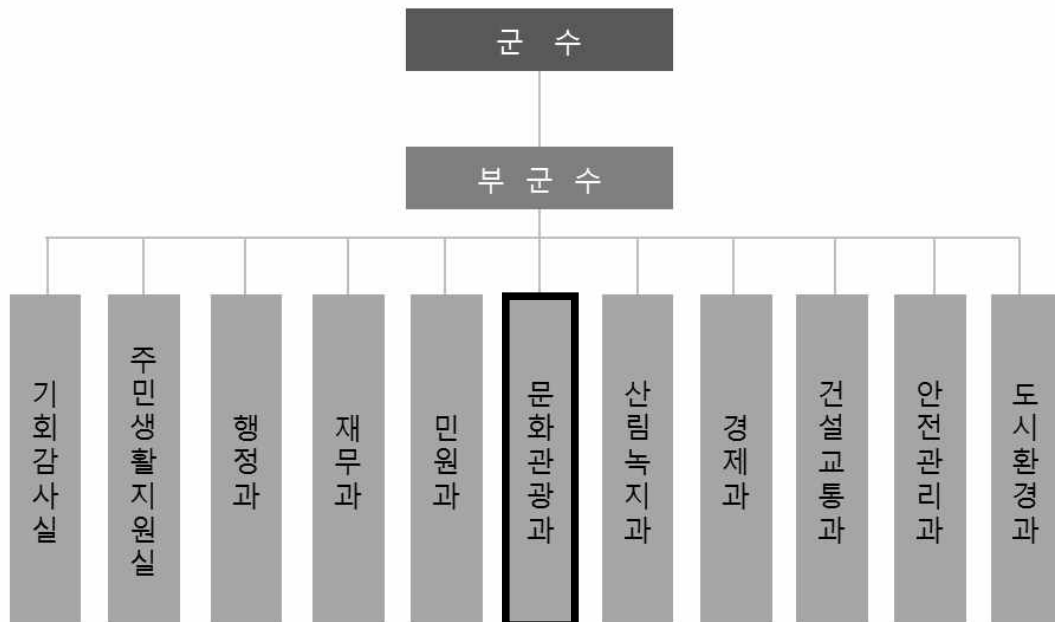


#### 4-1-3. 함양군

함양군 문화관광과는 남계서원의 원형보존을 위해 조사 및 보수사업, 현상변경 및 불법행위 단속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남계서원 관광 자원화 사업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함양군 문화관광과의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 문화재 보호 및 보존관리
- 문화유산 관리
- 문화유산 관련 도서발굴 및 편찬 발간
- 그 밖에 문화재관련 행사 및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림Ⅲ-87] 함양군 행정조직도

## 4-2. 건축물 관리현황

### ■ 함양 남계서원 건축물 보수내역

[표Ⅲ-9] 함양 남계서원 건축물 보수내역

년 도	내 용
1984	제실 보수
1992	경판각, 화장실보수
1994.	사당, 내삼문 보수
1996	보인재, 양정재 보수 홍살문 해체 후 신설
1997	별사, 비각 보수
2004	보인재, 풍영루 좌측담장 보수 연지석축 보수, 연지배수로 보수 양정재 기단 보수9미장철거, 강희다짐)
2006	남계서원 주변 송림 보호공사 - 재선충 방제, 대나무 등의 잡목제거
2006	담장보수 L=75.8m
2010	남계서원 소화시설설치공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옥외소화전 : 자탐시설8개소, 펌프실 및 물탱크 설치1식
2011	남계서원 cctv설치공사(방재시스템 구축사업) - cctv9대 설치, 감시 및 제어 녹화시스템 1식 (관리사에 비치)
2011-2013	남계서원 보수공사 -풍영루 1식, 경판고 1식, 담장보수 L=44m, 화장실 정비1식

## 5. 활용현황

### 5-1. 남계서원 운영 프로그램

- 현재 남계서원 내에서 항시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없다.
- 함양군에서 주관하는 단체 방문객들을 위한 문화해설사 프로그램이 있으나 적극적으로 활용되는데 한계가 있다.
- 남계서원이 가지는 향촌의 교화기능적인 측면의 프로그램은 없으며 제향기능만이 존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 5-2. 서원 문화 관광 자원화 사업과의 연계

서원 문화 관광 자원화 사업의 결과로 신축된 한옥마을의 활용과 관련된 프로그램 발굴과 관련한 용역이 진행 중이다.





## IV 기본구상





## IV. 기본구상

### 1. 기본방향

#### 1-1. 기본개념

##### 1-1-1. 기본원칙

- 서원의 역사성, 사회적 역할, 기능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존·관리·활용 방안을 수립한다.
- 유적의 가치보존에 중점을 두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복원은 지양한다.
- 관련계획 및 관련법 검토 등 제도적, 재정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재원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 계획수립 과정에서 관계전문가, 관계기관의 자문, 검토 및 협조를 받아 계획을 수립한다.
-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문화유산 등재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제시하고, 진정성(Authenticity)과 완전성(Integrity)에 부합되는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 세계문화유산 등재기준 중 서원에 적용될 등재 기준 해당 항목은 (ii), (iii), (iv), (vi)이다.
- 기준(ii) : 한국의 서원은 유교 성리학이 조선 사회에 정착한 후, 성리학의 보급에 합당한 한국특유의 서원 건축 형식을 형성한다.
- 기준(iii) : 한국의 서원 건축은 조선시대 사학(私學)교육의 가장 전형적인 증거(Testimony)를 보여준다.
- 기준(iv) : 한국의 서원 건축은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특유한 공간 유형을 창출하였다. 서원의 전면 경관은 성리학자들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산수 자연미의 전형이다. 이는 자연과 인간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는 유가(儒家)의 천인합일 사상을 반영한다.
- 기준(vi) :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지방 문화와 교화의 중심지로서 많은 문집과 문헌을 남겼다. 이들 서원은 향촌사회의 여론과 공론을 집약하는 지성들의 집회소 역할, 제향과 강학기능을 통한 사회교육의 장소, 그리고 도서관과 출판기능을 수행한다.



[표Ⅳ-1]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준

구분	기 준		사 례
문화유산	I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호주 오페라 하우스
	II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	러시아 콜로멘스코이성당
	III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태국 아유타야 유적
	IV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한국 종묘
	V	특히 반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와 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	리비아 가다메스 옛도시
	VI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다른 기준과 함께 적용 권장)	일본 히로시마 원폭돔
자연유산	VII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할 것	케냐 국립공원, 제주용암동굴·화산섬
	VIII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상의 지질학적 주요 진행과정, 지형학이나 자연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 주요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	제주 용암동굴·화산섬
	IX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케냐 국립공원
	X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고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	중국 쓰촨 자이언트팬더 보호구역
공통	문화유산은 진정성(재질, 기법 등에서 원래 가치 보유) 필요 문화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완전성을 보유 법적 또는 행정적으로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완충지역(buffer zone) 설정 등을 통한 보호 및 관리체계 수립		

#### 1) 서원 건축물과 경관의 원형 유지

- 서원의 수리공사는 반드시 그 원형을 유지하면서 시행한다.
- 원형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였을 때 시행하며, 원형을 알 수 없을 때는 현 상태를 지속
- 추정하여 문화재를 수리하는 것은 원형훼손을 초래한다.
- 원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나중에 원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하고 변형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복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 2) 서원의 기록유지

- 서원의 건축물을 수리함에 있어서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확인 가능한 모든 사항을 조사, 기록해두어야 한다.
- 기록이나 자료가 잘못되거나 오류를 묵인할 경우 원형은 영원히 회복될 수 없으며 오히려 왜곡 가능성이 높다.
- 특히 재난과 같은 불의의 사태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훼손된 서원을 복원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서원의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 3) 건축양식 유지

- 서원의 건축물 수리 시 반드시 전통적인 건축양식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기존 건축양식을 바꾸거나 변형하는 것은 안된다.
- 양식이 불확실하다고 추정하여 수리할 경우 원형이 변형될 뿐만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양식에 맞게 철저한 고증을 통해 수리한다.

#### 4) 건축기법과 기술 유지

- 서원건축물 수리는 양식과 함께 당대의 기술과 기법도 수호해야 한다.
- 기술자 집단의 기술과 기법, 가공수단, 건축도구를 충분히 재현하여 당대의 기법과 기술이 유지되도록 수리하여야 한다.

#### 5) 건축재료 유지

- 서원건축물을 수리할 경우 가능한 원래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건축 재료의 변화는 곧, 물적 특성의 변화를 초래하고, 서원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 따라서 수리는 가능한 한 원래의 재료를 유지하면서 이루어져야 하며, 부득

이한 경우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6) 서원의 장소성 유지

- 문화재는 원칙적으로 처음 만들어진 장소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
- 동산문화재는 특수 장소로 옮겨 수장할 수 있으나, 부동산문화재는 원위치에 존재할 때 그 가치가 발휘된다.
- 건물의 경우 건물을 에워싼 자연환경을 비롯하여, 풍수지리의 좌향 같은 철학적 배경이 있으므로 해서 그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되도록 원래 장소를 떠나지 않도록 장소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서원 주변 자연경관 유지

- 서원 및 주변 경관이 도시개발, 특히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산업화에 따라 도시가 확대되면서 개발행위가 서원의 주변 경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 문화가치가 산업 가치와는 비교하기 어려운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재인식하고 문화재는 물론 서원 주변경관까지도 보호, 유지되어야 한다.
- 서원 주변 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사전에 서원 주변에 대한 현상변경기준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

1-1-2. 계획의 기본방향

- 유적 정비
  - 구조, 양식, 기법 등 핵심적인 사항은 변형되지 않게 하여 진정성을 부각시키도록 한다.
  - 건축물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재평가 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 경관 정비
  - 자연과 풍경을 배려하고 역사·문화·자연 경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 조경계획은 과거 기본적인 원형은 유지하되, 주변 경관이 보존되는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 시설물 정비
  - 도입시설은 기존 시설 보호를 전제로 하여 기존 건축물의 시각적 차단을 최

소화 시켜 조화로운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도입시설의 기능은 기존 건축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 1-1-3. 계획의 지표설정

- 기존 서원 건축물의 전통 구조, 양식을 변형시키지 않는다.
-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기존 부재를 최대한 재활용하여 전통기법을 기본으로 하여 정비한다.
- 변형된 부분은 고증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 마당의 표면은 흙바닥이나 마사토 등으로 정비하여 전통적인 옛 모습을 유지하도록 한다.
- 배수로는 자연재해 우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위적으로 직선화하거나 폭을 넓히지 않고 자연 그대로 정비한다.

## 1-2. 경관 정비에 관한 구상

### ■ 조경 및 식재에 관한 구상

- 서원의 경관과 주변경관은 서원의 입지와 의미를 보여줄 수 있도록 진정성이 보존되어야 한다.
- 서원 내외의 경관은 전통적인 경관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외래수종 식재를 배제하고 경관 상 어울리지 않거나 전통조경과 맞지 않는 수종들은 제거하거나 이식한다.

### ■ 주변경관 보전에 관한 구상

- 주변 경관은 현재 경관구조를 유지하고 인위적으로 변형된 자연경관은 가능한 한 원형으로 회복되도록 계획한다.

### 1-3. 시설물 정비에 관한 구상

#### ■ 관람편의시설에 관한 구상

- 간이의자, 이정표, 안내표지판 등의 관람편의시설은 서원의 특성을 감안 하여 간결하고 친환경적으로 정비한다.
- 안내판의 설치 수량은 최소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종합안내판과 권역안내판, 기능성 안내판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 안내판은 서원의 특색을 반영하되 전체적인 디자인 시스템에 있어 일관된 분위기는 유지하도록 계획한다.

#### ■ 소방방재시설에 관한 구상

- 소화전은 가능한 외부에 돌출되지 않도록 하며, 소화전 함은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재료와 형태로 정비한다.

#### ■ 기타시설에 관한 구상

- 서원주변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하 매장유구 조사를 실시하고, 가능한 한 현대식 재료 사용은 최소화하고 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건축물의 외형은 전통한옥 형태로 한다.
- 계량기, 난방시설, 전기 통신시설 등 외부에 설치되는 기기나 도구는 가능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전통재료를 이용하여 차단시키도록 한다.
- 조명등의 수는 최소한으로 설치하고, 가능한 한 담장 내에 매립하거나 담장 높이 이하로 노출을 최소화 하여 서원의 특성에 어울리는 형태 및 재질로 정비하여야 한다.
- 화장실·주차장 등의 어느 정도 규모가 요구되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적지정지 밖에 건설해야 한다. 이러한 시설은 사적지 내부에서 조망되는 경관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고, 시설의 규모 및 의장이 과대해지지 않아야 한다.

## 2. 기본구상

### 2-1. 기본구상

-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대상인 남계서원의 완전성과 진정성을 찾는다.
-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인위적, 자연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파악하여 원형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 변형이 이루어진 부분은 최대한 원형으로 환원하며, 원형복원이 불가능한 부분은 대체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여 남계서원의 완전성과 진정성을 회복한다.

#### 2-1-1. 서원 정비

- 건축물의 훼손된 부위를 파악하고, 옛 사진을 참고하여 본래의 모습으로 환원하여 남계서원의 진정성을 찾는다.
- 시설물과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방안을 제시하고 현황과 비교 검토한다.

#### 2-1-2. 경관정비

- 코어존과 버퍼존을 설정하여 주변경관 보존 및 훼손방지 방안을 마련한다.
- 서원내부의 식재에 관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내부경관의 진정성 있는 회복방안을 마련 한다.

#### 2-1-3. 주변정비

- 주차장을 정비하여 주차대수를 확보하고 바닥 마감재를 정비한다.
- 남계서원 전면의 공간에 대한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경관회복을 도모한다.

### 2-2. 활용계획

#### 2-2-1. 기본원칙<sup>1)</sup>

- 관리단체는 서원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지역 주민 등을 위한 적절한 활용방안을 강구한다.
- 관리 단체는 서원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 전시, 체험, 출판, 도록 등 지속 가능한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 서원 내 건물을 직접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관리단체는 구체적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의 승인 등 적정한 절차를 이행한다.
- 지속가능한 활용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리체계 구축 방안 마련한다.

1) 문화재청,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 2011, 129쪽

### 2-2-2. 활용계획

■ 서원의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한번 상실한 원형은 형태를 재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갖고 있던 고유한 역사성은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활용보다 더 중요한 건 보존관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단체는 서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 건축물의 전체적인 형태는 서원의 경관에 어울리도록 한다.
- 외부로 노출되는 기단부와 초석은 반드시 석재를 사용하되 건축물의 기능과 용도, 규모에 맞게 하여야한다.
- 건물 외부로 현대재료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한다.
- 서원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지역 주민 등을 위한 적절한 활용방안을 강구한다.
- 서원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 전시, 체험, 출판, 도록 등 지속 가능한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 서원 내 건물을 직접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관리 단체는 구체적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의 승인 등 적절한 절차를 이행한다.
- 지속가능한 활용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리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한다.

### 2-2-3. 서원문화의 본질, 종합성 활용

- 서원문화의 본질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활용한다.
- 서원문화의 본질인 지성사, 정신사적 성격을 파악한다.
- 서원문화의 진정성을 보이는 건축물을 보존한다.
-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민속·인문학적 내용을 발굴하여 스토리텔링 발굴을 시행한다.
- 인물, 문학, 정신사적 콘텐츠의 자료정리에 충실한다.
- 고품격, 선택된 철학적 의미와 경관요소를 최대한 특화한다.
- 소규모를 지향하되, 도제식 전문 인력의 도움으로 운영되는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한다.
- 효과적인 교육 자료집의 제작 등 수요층과 주제별 보조아이디어 개발을 추가한다.
- 국민적 문화향수 욕구에 충족되는 서원 관리운영체계를 정립한다

#### 2-2-4. 다양한 콘텐츠의 확보와 개발

■ 서원의 주변 경관과 건축물은 인류의 삶의 흔적이 잘 표현되어 있다. 장소성, 역사성, 경관성에 진정성과 완전성이 잘 표현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화유산적 가치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활용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대사회에 지속가능한 서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서원의 특징과 개성을 살린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지역의 지성사적 전통, 학문, 강학 유서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2-2-5. 역동적, 체험적 프로그램의 접목

■ 서원이 현대사회와 괴리되지 않고 주류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서원 활용 프로그램이 시대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직접 옛 조선시대 서원의 구성원이 되어 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연령, 성별, 수요자의 성격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차별성과 경쟁력 있는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 지성들의 집회소, 사회교육의 장소, 도서관 및 출판기능
- 조선사회를 이끌었던 지성인들의 삶과 생활문화를 자원으로 재생 활용한다.

#### 2-2-6. 경쟁력 있는 문화 체험공간 활용

■ 서원이 지역문화 브랜드로서 가치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서원 활용은 서원만의 가치와 의미를 살려내야 한다. 사찰, 민가와 다른 건축적 공간을 지니고 있다는 특징과 문화를 표현해 낼 수 있는 또 다른 문화체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한다.

- 강학 전통의 복구와 계승, 덕성·인성교육의 대안, 지속가능한 교육방침을 제공한다.
- 과거공간으로의 완벽한 이동(철저한 과거식 교육방식)을 체험한다.
- 서원 품위에 맞는 활용법(문학·사상·역사 특강, 이벤트)을 모색한다.

#### 2-2-7. 적극적인 활용 지원정책

■ 서원이 역사 문화 장소적, 경관적, 공간적 가치가 우수하다는 사실에 비해 서원 활용 지원정책과 예산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며, 적극적인 활용 지원정책이 필요하고 다음과 같은 실천이 요구된다.

- 문화재 원형 및 주변 경관에는 큰 영향이 없는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서원 활용계획과 예산지원을 심의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우수한 활용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하도록 한다.
- 일률적인 활용계획보다는 서원 활용의 성과가 우수한 서원, 서원문화 재생산



에 기여한 서원에 선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 활용에 지원된 예산은 집행과 기대효과를 평가하여 추후 예산지원에 반영한다.

[표Ⅳ-2] 서원 문화의 활용 및 프로그램의 개발유형

프로그램 유형		주요내용
체험	교육의례	· 서원제향의례 등 유교의례 이벤트 프로그램 · 유림과 대화, 의미와 해설 체험 · 교육의례 : 강학, 시회 등
	전통교육	· 향약, 향음례, 향사례, 향회, 새로운 의례의 발굴 개발 · 고강(시험), 동서재 기숙 등 서원생활 문화체험 · 유림과의 토론 · 교육 및 학문 체험프로그램 : 교육과정, 교과서, 규약 체험 등
답사	문화유적	· 유교문화 성격별, 권역별 코스 개발 · 건물, 전적, 목판, 고문서, 금석문, 생활사 유적 유물 답사 · 관련 역사 사건이나 인물 일화의 저술, 업적, 유적 답사 · 관련유적 : 서당, 종가, 누정, 재실, 정려 등
	인물사상	· 인물연구, 교육 프로그램으로 특화 · 시대, 인물, 주제(의병 도학, 사림 정치)교육 · 인물 유적 탐방, 인물 관련 유적 유물(저술, 생애, 일화 등) · 주요 인물 관련, 서원 탐방 및 종가체험 · 서운의 고문서 조사와 번역
관광 및 홍보	공간활용	· 학교 교육과 연계, 문화 교육행사장으로 적극 활용 · 기존 문화유적 최대 활용, 주제별 답사와 체험 · 고전 강독, 한문, 족보 특강, 정신 학술 교육 등 · 대학연구소, 학술행사 유치, 교육청과 연계
	전시홍보	· 유물 및 소장자료 전시 · 인물유품, 유교문화재, 고문서 전적, 금석문 · 정려 특별전시회 개최, 기증 및 위탁 전시기능 · 자료 종합 정리(교양서 안내서 발간), 학술세미나

### 2-3. 단계별 정비

- 서원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 활용을 위하여 정비계획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 향후 예산 범위 내에서 실행 가능하도록 단기적으로 시행할 사업과 이후 단계별로 추진할 공정을 구분하여 계획 수립한다.
- 다양한 사업에 동시다발적인 진행은 현실적으로 불가함으로 시기별, 단계별 추진을 통해 재정을 부담·분산한다.

# V 종합정비계획





## V. 종합정비계획

### 1. 서원정비계획

#### 1-1. 개요

■ 함양남계서원은 크게 진입공간, 강학공간, 제향공간, 지원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간은 서로 담장 등으로 구획되어 있다. 풍영루를 거치면, 동·서재와 명성당으로 구성된 강학공간이 나타나며 가파른 계단을 두고 서원의 후면부에 제향공간이 배치되어 있으며 서원 좌측으로 지원공간인 고직사를 두고 있다.

■ 정유재란 이후 재건된 함양남계서원의 건물구성 등은 당시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될 따름이다. 당시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사료가 불분명한 상황 하에서 선부른 복원계획 등은 서원 경관보존측면에서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성급한 복원계획에 앞서 복원을 위한 고증자료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자료수집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현황을 우선하도록 한다.

■ 기록 등에 따르면 서원 내 건물들은 형식과 규모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 원형 추정이 가능한 자료는 수집되지 않으므로 현황 보전·정비를 위한 보수 위주의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 건축물 정비는 구조, 양식 기법 등은 변형하지 않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만 문화재 수리 원칙에 의거하여 전통기법을 기본으로 정비하도록 한다.

#### ▪ 문화재 수리 원칙

1. 문화재수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원형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 기존의 양식으로 수리한다.
- 기존의 기법으로 수리한다.
- 기존의 주변 환경도 보존한다.

2. 재료의 교체 또는 대체, 보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 기존의 재료를 그대로 두어 당해 문화재가 붕괴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보강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위험을 초래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존의 재료가 변경된 것이거나 당해 문화재의 양식에 맞지 않는 경우

3. 수리대상물은 수리 전의 상태와 사용재료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4. 과거에 행해진 수리 중 역사적 증거물과 흔적은 모두 기록·보존하고, 훼손하거나 변형, 가식함은 물론, 하나라도 제외되지 않도록 한다.
5. 수리는 최소한으로 한다.
6. 모든 손질은 원형유지의 원칙을 준수하되, 수리방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과학적 보존처리는 필요할 때 언제나 처리 전 상태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 문화재에 간직된 모든 증거(역사적, 미술사적, 기술사적 등) 자료는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손질이 필요할 때라도 색조, 결, 외관과 짜임새 등이 조화되도록 한다.
  - 문화재는 문화재수리기술자, 기능자에 의하여 수리한다.

## 1-2. 건축물 정비

### 1-2-1. 사당

#### 1) 현황

■ 함양남계서원의 제향공간은 내삼문을 통해 진입하면 사당과 전사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사청은 제향영역 밖 독립된 영역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으나 함양남계서원은 제향영역 내에 위치하여 실질적인 제향 준비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 근래 보수하는 과정에서 사당 영역 마당을 시멘트로 마감하였으나 현재 일부가 파손되거나 떨어져 나가 경관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전통경관과 조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향공간을 구획하는 담장 일부가 파손되어 방치되어 있다.

#### 2) 정비 방안

■ 제향공간 마당의 시멘트 마감은 전체 철거 후 마사토다짐으로 마감하여 전통경관을 보존토록 하며 훼손된 담장은 주변과 동일하게 보수토록 한다.



[그림 V-1] 시멘트 바닥 마감



[그림 V-2] 사당 담장 파손

## 1-2-2. 강당

### 1) 현황

■ 명성당은 강학영역의 중심건물로서 1559년에 완성되었으며, 정면4칸, 측면2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 2칸은 대청마루이고 양쪽 각 1칸은 온돌방으로 되어 있다.

■ 1937년 풍영루 중수 시에 기록으로 보아 강당을 비롯하여 동·서재 등의 건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중수가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는데, 당시의 공사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강당의 정면 처마의 부연과 용마루의 층단마루도 이때 후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현재에도 서원관련 행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건물인데 반해 외부 회벽 박락이나 천장의 훼손 등이 퇴락 등이 관찰된다.



[그림 V-3] 외벽 박락



[그림 V-4] 천장 훼손 및 퇴락

## 2) 정비 방안

■ 긴급을 요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은 보이지 않으나 건물의 좌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외부 회벽 박락, 창호 문살 등 일부 부위에 대한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물천장 등 일부 단청이 퇴락되어 있어 차후 보수 시 단청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현재 단청 문양을 기록하고 개채하도록 한다.

■ 전술한 현황에서의 정면 처마의 부연 및 용마루의 층단마루에 대한 부분은 건립 당시의 강당의 원형 회복 차원에서 향후 지붕보수 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수범위와 방법 등을 결정토록 한다.

### 1-2-3. 동·서재

#### 1) 현황

■ 동·서재는 각각 2칸의 건물로 1칸은 온돌방이며 나머지 1칸은 누마루로 되어 있다.

■ 현재 동·서재의 보존상태는 양호하며 특별한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벽체 마감의 박락이나 문살의 파손 등이 관찰되며 CCTV 설치로 전선이 외부로 노출되어 경관을 해치고 있다.



[그림 V-5] 외벽 박락 및 문살 파손



[그림 V-6] 방재시설 전원공급장치 노출

## 2) 정비 방안

■ 동·서재의 벽체 박락 및 창호 문살 파손은 구조적인 문제는 없으나 경관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CCTV 문제는 전선지중화 및 설치위치 이전 등을 통해 경관을 개선토록 한다.

#### 1-2-4. 풍영루

##### 1) 현황

■ 풍영루는 창건 당시 준도문이라고 하는 출입 삼문이었으나 후에 다락집을 올려 오늘에 이르고 있다. 출입은 사당의 내삼문과 함께 동쪽으로 들어가고 서쪽으로 나가는 형태로 누각내부에 기문과 중수기가 남아있다.

■ 청판 일부가 틀어져 귀틀과 벌어지거나 바닥이 고르지 못하여 관람객의 부상이 우려되며 내부 단청 등의 퇴락이 관찰된다.



[그림 V-7] 내부 단청 퇴락



[그림 V-8] 청판 뒤틀림

##### 2) 정비방안

■ 현재 관찰되는 문제점은 구조적인 문제점은 아니며, 청판의 틀어짐은 미미한 정도이므로 경미한 경상보수를 요하며, 내부 단청의 경우 현황을 문양모사한 후 보수범위와 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한다.

#### 1-2-5. 묘정비각

##### 1) 현황

■ 남계서원에 향사를 올리고 있음에도 송덕비가 없음을 안타까워하다 남계서원 건립 200년이 지난 1779년에 세워진 묘정비를 보호하는 비각이다.

■ 현재 단청의 퇴색을 비롯하여 비각 기둥 하단의 백화의 정도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음이 관찰되며 기타 균류 혹은 충(좀, 흰개미, 벌 등)에 의한 부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V-9] 부재 열화



[그림 V-10] 기둥 하단 부후

## 2) 정비 방안

■ 열화된 기둥부위의 부후와 관련하여 구조적 문제는 미약하나 미관상 좋지 못하므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동바리 등 보수방안과 범위를 결정한다.

### 1-2-6. 고직사

#### 1) 현황

■ 현재 남계서원 고직사의 경우, 1998년 전후하여 철거되고 난 뒤 조적식 주택으로 개축하여 남계서원의 경관과 조화롭지 못하다.

■ 또한 고직사의 익랑인 창고 건물은 1990년대 철거되어 원형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현재 전면 시멘트블럭 담장을 철거하고 새롭게 담장을 조성중이다.

#### 2) 고직사 정비관련 자문의견

■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이상해 (2015.05)

- 현재 고직사를 1998년 전후에 기존 고직사 본체와 사당 서측의 창고를 철거하고 신축한 것으로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신청과 연관해서 남계서원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현재 고직사를 철거하고 기존 고직사와 창고를 복원할 필요가 있음.

- 기존 고직사와 창고는 남계서원지, 한국의 서원건축, 고직사에 관한 연구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복원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현 고직사 맞은편에 있는 익랑은 기존 건물을 정비, 수리하여 원래 모습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권고함.

- 경상대학교 교수 고영훈(2015.05)
- 현재 고직사는 1998년경 벽돌 목구조로 개축되어 서원의 진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해체보수가 필요함.
- 옛날 사진과 남계서원지의 서원도, 그리고 고직사에 거주하였던 조부둘씨의 증언을 참고로 최대한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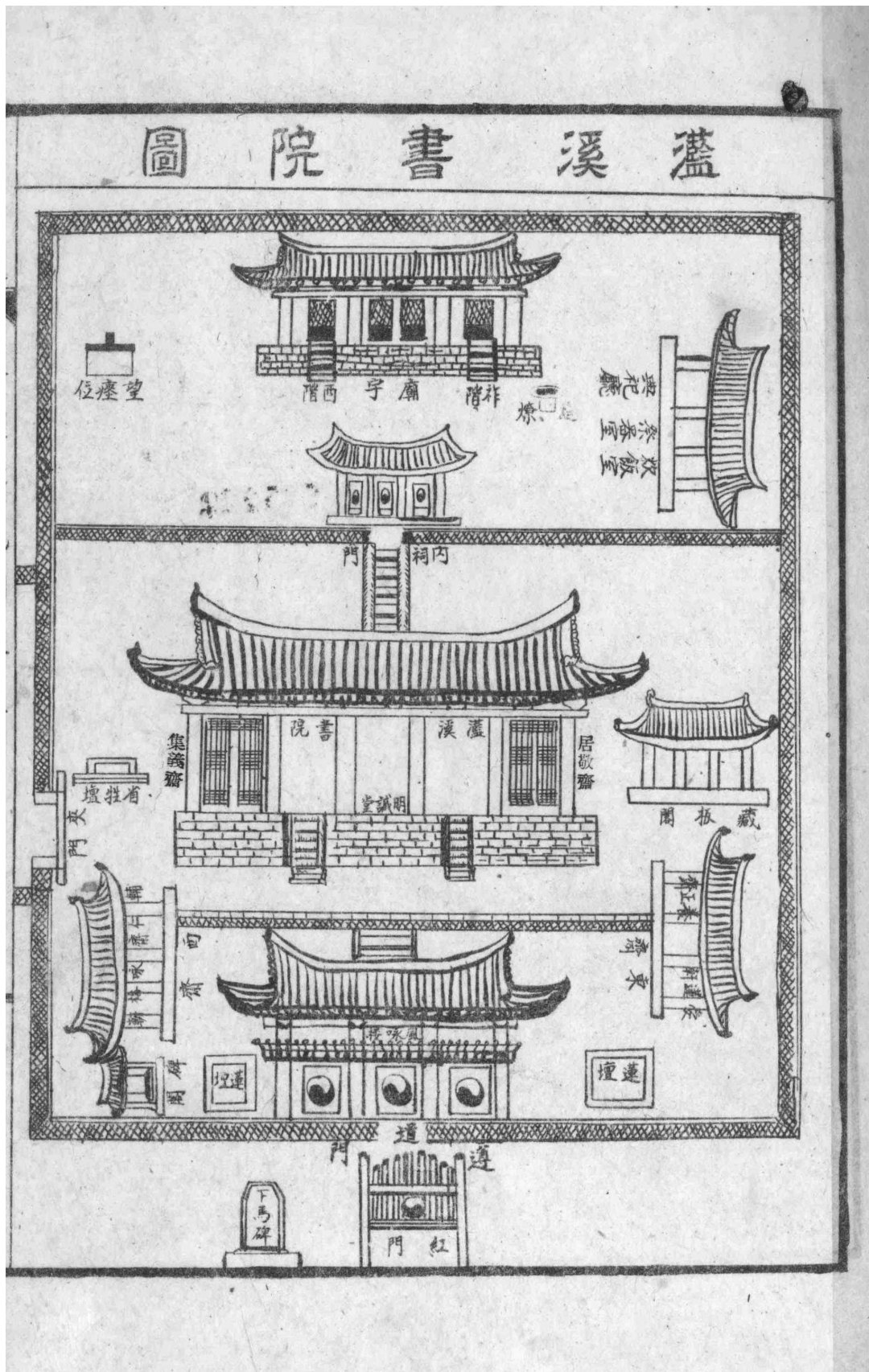
### 3) 방안

■ 관련 논문자료 및 문헌을 보면 과거 철거 전 고직사의 모습은 대문간은 2칸으로 서재인 보인재와 마주하여 배치되어 있었고 마당을 건너 곳간채 3칸이 대문채와 마주하여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현황건물은 서원 경관에 조화되지 못하므로 원형에 대한 철저한 고증 후 점진적인 원형 복원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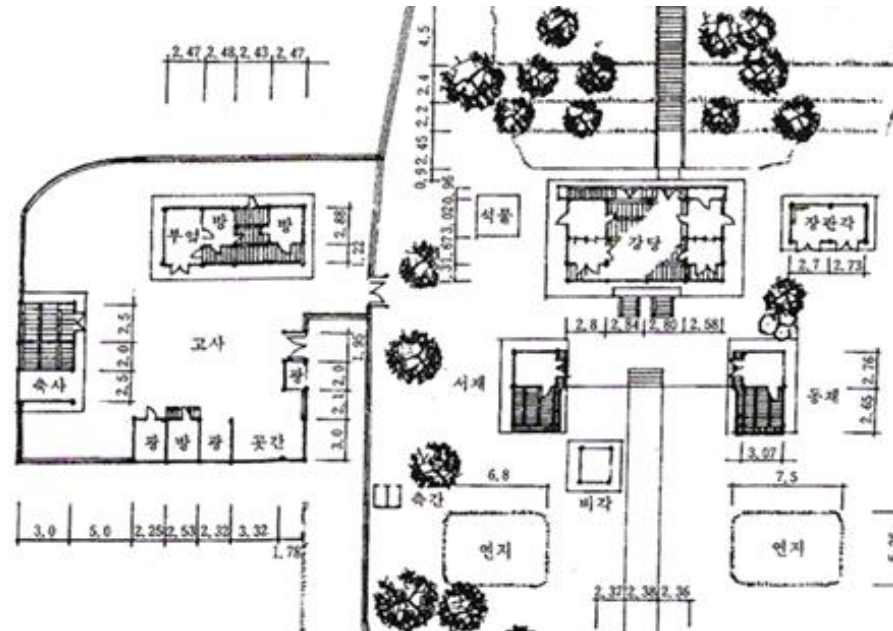
[표 V-1] 고직사복원 계획

고직사 정비 관련 현황	향후 정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면 시멘트 담장의 해체 보수공사</li> <li>- 고직사 건물의 복원을 위한 설계</li> <li>- 고직사 마당 마사토 다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원 설계를 기준한 고직사 복원</li> <li>- 과거 자료를 기준한 담장 복원</li> <li>- 곳간채 복원</li> <li>- 고직사 맞은편 익랑 보수 정비</li> <li>- 화장실 설치(광 복원 후 내부 개량)</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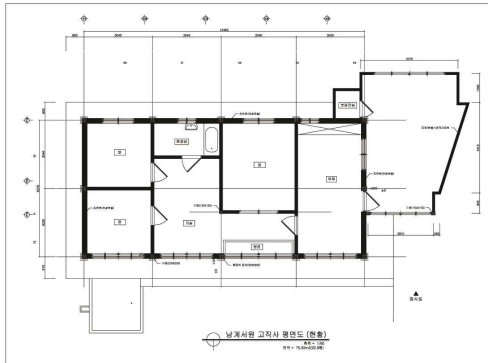
[그림 V-11] 남계서원도(남계서원지)

■ 고직사 복원 문헌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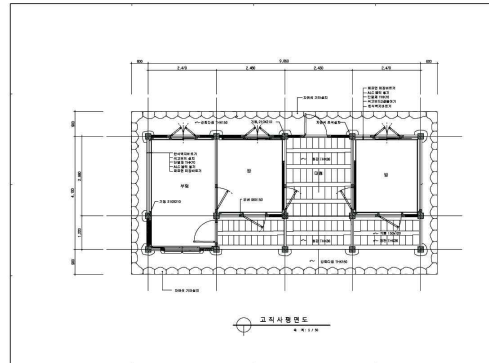


[그림 V-12] 한국의 서원건축, 김은중,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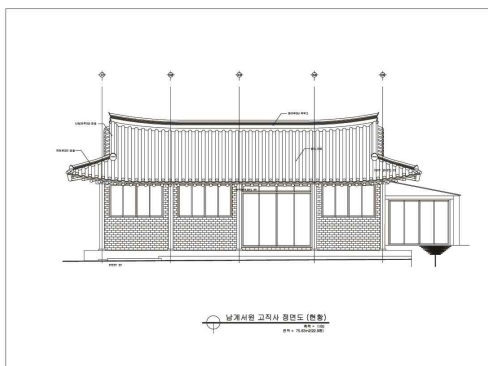
■ 고직사 복원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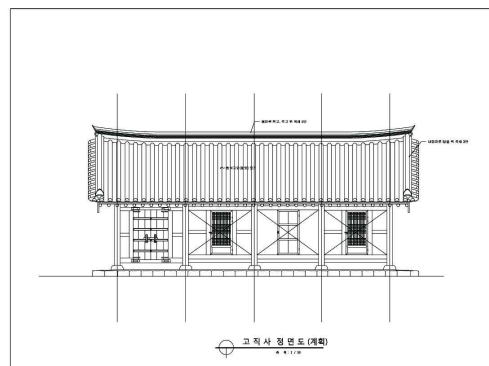
[그림 V-13] 고직사 평면도(현황)



[그림 V-14] 고직사 평면도(보수)



[그림 V-15] 고직사 정면도(현황)



[그림 V-16] 고직사 정면도(보수)

## 2. 경관 정비계획

### 2-1. 경관정비의 방향 및 체계

#### 2-1-1. 서원의 경관 가치

##### ① 고유성

■ 서원의 기원은 중국 당나라 때부터 시작되어 송·원·명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수되나, 조선조에 이르러 그 성립과정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기는 하였지만, 기능과 성격 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그 영향은 중국의 서원이 관인양성을 위한 준비기구로서의 학교의 성격을 고수하였으나 조선의 서원은 사림의 장수처(藏修處)이면서 동시에 향촌사림의 취회소(聚會所)로 정치적·사회적 기구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 조선시대의 서원은 인재를 키우고 선현·향현을 제사지내며 유교적 향촌 질서를 유지, 시정(時政)을 비판하는 사림(士林)의 공론(公論)을 형성하는 등 정치·사회적으로 조선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이는 중국의 서원과 다른 고유성을 확보하였다 할 수 있다.



[그림 V-17] 중국 백록동 서원(당나라)



[그림 V-18] 중국 송양서원(후주)

##### ② 조화성

■ 서원의 역사경관에서 인지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연환경과 인문사회경관의 조화이다. 초기의 서원은 강학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서원의 제향

기능(祭享機能)과 책의 출판과 보급, 열람 등의 출판·장서(藏書)기능으로의 발전에 따라 서원의 건축적 변화도 피해졌다. 이러한 건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자연경관에 최대한 조화·순응하면서 자연경관과 인문·사회적 경관들이 상호 조화되어 표출하는 서원 경관을 이어오고 있다.



[그림 V-19] 중국 아호서원 입지



[그림 V-20] 도산서원 입지(겸재 정선)

## 2-1-2. 서원 경관의 보전관리 방향

### ① 전제조건

■ 서원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경관 자체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 이러한 활력은 조망자가 현재의 서원 경관을 통해 과거 조선시대 사람의 성리학적 근거지였던 서원의 인문·사회학적 특성, 성리학적 세계관에 근거한 자연과의 조화 등 서원경관의 가치와 의미를 함께 공유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서원의 경관보존은 당시의 자연관에 의거하여 택지, 좌향, 건축물 배치 및 유식, 강학, 제향 공간의 위계와 각 공간의 질서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와 현재의 경관을 동일시 할 수 있도록 조망자에게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것은 미래 한국 서원의 경관보존 방향과 직결되며, 미래까지 한국 서원경관의 고유한 가치와 중요한 의미들을 온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와 같이 서원경관의 보존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서원에 대한 기록과 자료들을 유추하여 정립하기 위한 고찰이 필요하다.<sup>2)</sup>

2) 한국의 역사마을-화회와 양동,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보전관리 계획, 2010, p131



[그림 V-21] 내부에서 외부를 바라보는 경관(남계서원)

## ② 보존 방향

- 사라지거나 과거에 비해 약해진 경관을 보완하는 것
  - 한국의 서원은 500여년의 세월동안 정치·사회·문화사적 변화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나, 1871년 서원 철폐령 이후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었으며, 근·현대기를 거치면서 경제성장 및 산업화에 따른 개발과정 속에서 서원 및 주변 자연경관들이 사라지거나 약해진 경관들을 재현, 보완하여 서원경관의 원형적 가치를 회복한다.
- 현재에도 강하게 인지되는 경관들을 지키는 것
  - 서원 철폐령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원들은 살아남았으며, 이후 흥선대원군의 섭정이 끝나자 비록 사회적 변화에 따라 그 위상은 다소 하락하였으나, 성리학적 질서를 토대로 일정기간 동안 향촌사회의 정신적 기반을 제공하였으며, 현재에까지 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변화된 주변 자연경관과 더불어 선조들이 과거에 인지하던 경관들을 지켜 서원의 경관 가치를 지속시킨다.

### 2-1-3. 보존영역의 설정

#### 1) 서원경관의 보전 범역

■ 서원의 경우 대부분 비도시지역에 입지하며, 주변 자연경관에 순응·조화하여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 서원경관의 완전성과 진정성의 보전을 위해서는 주변 자연경관의 보전 또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현재까지 유지되어 온 서원 경관과 더불어 주변 자연경관의 보호와 관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위계별 경관보존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림 V-22] 보존 범역

■ 서원의 역사경관의 핵심인 서원 영역과 서원의 역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을 맺고 있는 사물 혹은 자연환경은 경관보존의 ‘코어존’ (core zone)으로 설정하고, 서원경관의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변(자연, 생산, 주거 등) 환경을 ‘버퍼존’ (buffer zone)으로 설정한다.

#### 2) 서원경관의 보존 위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원의 경관은 역사경관의 핵심인 서원 영역과 서원의 역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을 맺고 있는 자연환경까지 결합하여 형성되어 있다.

■ 그러므로 문화재구역 이외에 서원과의 역사·경관적 관계를 고려하여 보전 위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보전위계는 ‘절대보존지’, ‘강보존지’, ‘약보존지’, ‘조정지’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 3) 세계문화유산 등재 9개 서원 완충구역 설정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등재추진단에서 9개 서원 완충구역 설정(안)에 대한 검토 및 확정(남계서원의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 일시: 2014.05.08.

■ 완충구역범위를 바탕으로 하여 내부 영역을 설정한다.





[그림 V-23] 한국의서원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완충구역 설정



[그림 V-24] 경관보존구역 설정(위성)

## 2-2. 경관 보존구역 설정

### 2-2-1. 경관보존구역 설정

#### 1) 코어존(Core Zone)과 버퍼존(Buffer Zone)의 설정

▪ 완충구역의 경우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함양남계서원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참고하여 구역을 설정함으로써 법적 규제를 활용한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한다.

▪ 현상변경 허용기준 1, 2, 3구역을 참고하여 코어존을 설정한다. 그 외 구역을 버퍼존으로 설정한다.

#### ▪ 코어존

－ 함양 남계서원을 기점으로 남계서원의 경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역으로 남계서원에서 조망되는 최대한의 구역을 설정하여 동결·보존한다.

－ 함양 남계서원의 가시·조망권에 들어오는 남계천 및 함양 남계서원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까지 일괄 코어존으로 설정하여 함양 남계서원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입지조건을 보존하도록 한다.

#### ▪ 버퍼존

－ 함양 남계서원 경관의 간접영향권으로 500미터 범위 내에서 코어존의 범위에 해당하는 현상변경 허용기준 1, 2, 3구역이외의 구역을 버퍼존으로 설정한다.



[그림 V-25] 함양 남계서원과 주변 경관

## 2) 코어존 내부의 구역설정

### ▪ 절대보존구역

- 현상변경 허용기준상에 고시된 바와 같은 문화재구역을 절대보존구역으로 설정하여 직접적인 경관을 동결 보존하도록 한다.

### ▪ 강보존구역

- 경관 저해 요소 발생 시 치명적 타격은 발생하지 않으나 서원의 경관적 가치를 높여주는 보완적 공간으로 현재 남계서원 현상변경 허용기준상에 고시된 2, 3구역을 강보존구역으로 설정한다.

### ▪ 약보존구역

- 절대보존구역과 강보존을 제외한 전체 코어존으로서 서원과 일정 거리가 이격되어 서원전체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역으로 보존의 강도 다소 완화될 수 있으나 서원의 고유한 입지조건에 포함되어 서원 경관의 완전성 형성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역이므로 약보존구역으로 설정한다. 전면 경작지가 형성되어 있고, 도로를 따라 일부 개발이 이루어진 영역을 포함하여 약보존구역으로 설정한다.



[그림 V-26] 코어존 경관

## 3) 버퍼존 내부의 구역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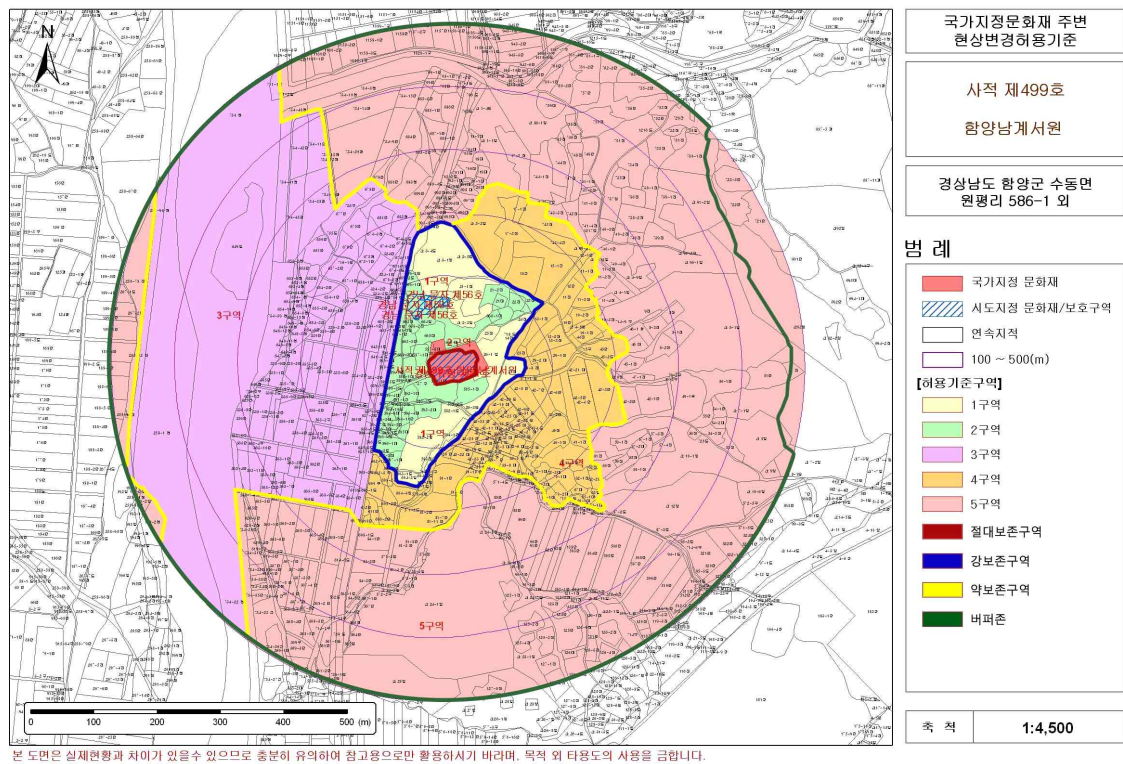
- 현상변경 허용기준 5구역에 위치한 곳으로 남계서원 경관의 간접 영향권으로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1차적으로 방어하는 완충하는 공간이다.

- 구역설정은 세계문화유산 등재팀과 함양군청,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조율 및 협의가 요구되는 사항이며, 나머지 등재신청대상 8개 서원도 함께 부합될 수 있는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그림 V-27] 버퍼존 경관



[그림 V-28] 구역설정과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교

## 2-2-2. 현행 현상변경 허용기준 검토

### 1) 문제점

현행 남계서원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경우, 서원 관광자원화 사업의 추진을 배경으로 구역 내 현상변경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마을이 이전되고 전면의 정비가 이루어진 현 시점과는 괴리가 있고 등재대상 여타 서원들의 구역설정과도 다소 거리가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또한 등재추진을 위한 경관보존구역 설정과도 맥락이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 2) 검토기준

새롭게 개정된(2015.06.30. 시행) 국가지정문화재 허용기준 마련 지침에 따르면 문화재 유형별로 검토기준을 제시하는 바, 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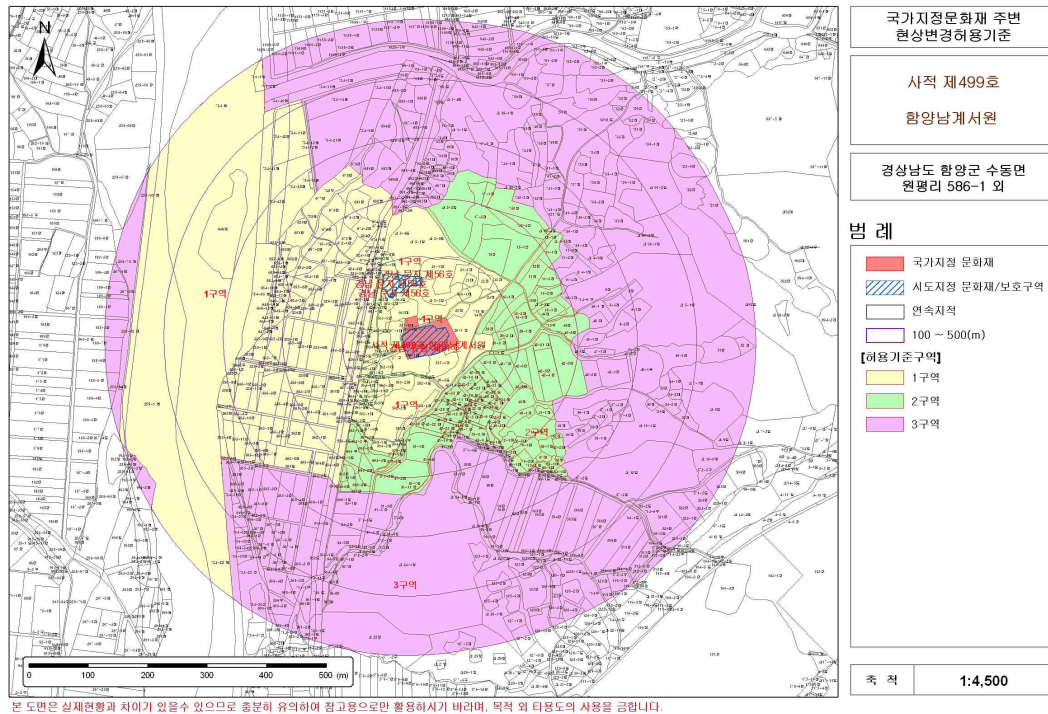
### 3)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 제시안

상기한 문제점 및 검토기준을 토대로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안을 제시하고 주민공청회를 통해 취지를 납득시키고 조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기존 1, 2, 3구역을 1구역으로 재조정함.
- 기존 4구역을 2구역으로 재조정함.
- 기존 5구역을 3구역으로 재조정함.

[표 V-2]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안)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개별심의구역	
2구역	○ 남계서원 관련 사업에 한함 - 사업 변경시 개별 심의	
3구역	○ 최고 높이 5m 이하 - 농가 창고 용도의 건물만 허용	○ 최고 높이 7.5m 이하 - 농가 창고 용도의 건물만 허용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내에서 재·개축 허용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농가 창고 외관 색상은 무채색, 저채도 계열로 하여 돋보이지 않도록 한다.	



[그림 V-29] 한양남계서원 현상변경허용기준 재조정(안)

## 2-3. 광역 경관 관리

### 2-3-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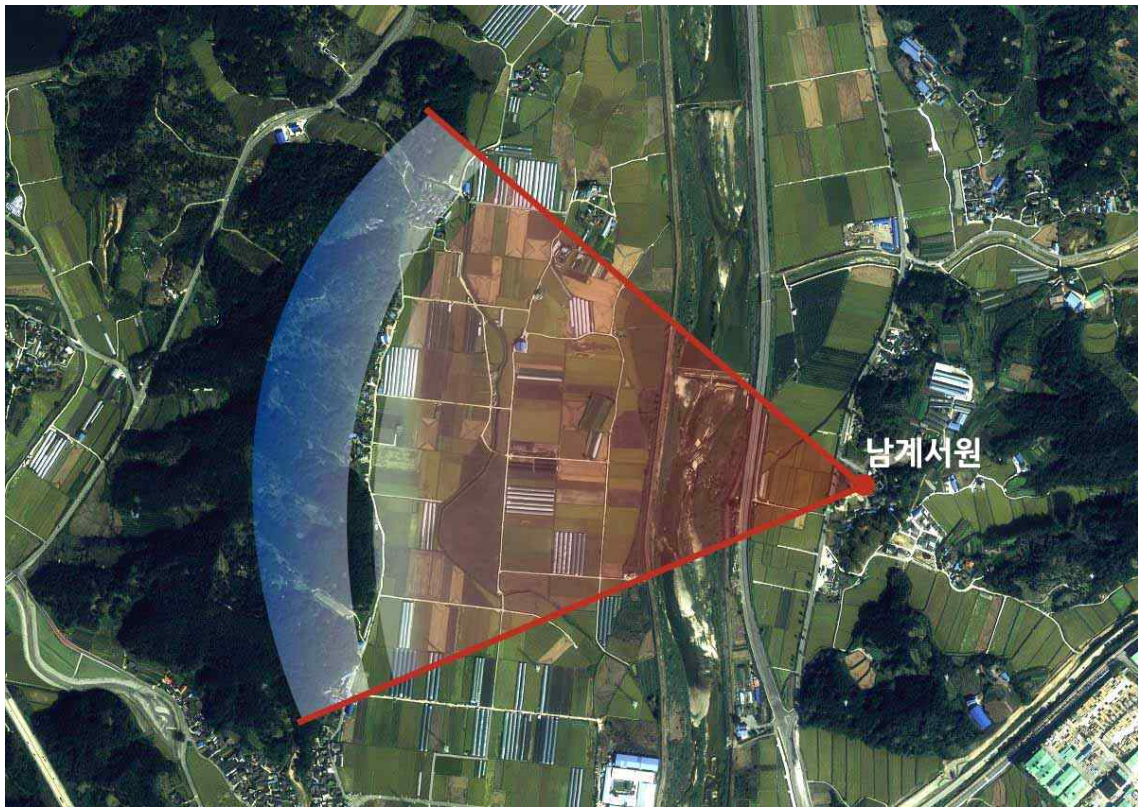
남계서원 전방으로 조망되는 근거리의 경관을 확장하여 전체적으로 가시범위에 속하게 되는 경관인 광역 경관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범위를 도식하면 아래와 같다.

### 2-3-2. 관리 방안

서원의 입지경관은 산경(山景), 계경(溪景), 야경(野景)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남계서원은 야경 입지를 대표하는 서원이다. 수려한 산수를 배경으로 하지 않는 입지의 특성 상 전면으로 조망되는 야경에 대한 유지 관리는 경관의 진정성 있는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 서원에서 확장되는 구역인 농경지 구역에는 시설농업의 확대에 의한 경관 저해가 없도록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농경지구역이 끝나는 지점부터 맞닿아 있는 산경에 대한 보존 및 유지 또한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등의 규제를 통해 현 상황을 유지하도록 한다.





[그림 V-30] 함양 남계서원 광역경관

## 2-4. 식생 정비

### 2-4-1. 현황

식생 조사결과 서원 내에는 10여종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며, 연지 내에 수련과 창포가 식재되어 있고 그 주변에 주목, 반송,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이는 문헌상 서원 입구와 사당 후면에는 송림이 울창하였다고 하는 기록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 2-4-2. 방안

함양 남계서원 식생에 대해 일부 확인이 가능한 《개암집》에는 ‘제사 아래 좌우에는 작은 연못을 파서 주변에 매화와 대나무를 차례로 심었으며 연못 한에는 연꽃을 심었다’ 하는 기록이 있다. 또한 국립문화재연구소(2010)에 의하면 서원이나 성리학자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소나무, 배롱나무, 은행나무, 향나무, 느티나무, 매화나무, 회화나무, 측백나무, 무궁화 등이 서원 조경에 사용되는 주요 수종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수종별 식재 위치 등에 대한 정확한 고증자료가 없으므로, 일반적인 방식의 조경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서원의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또한 남



계서원 조경은 성리학적 공간 개념인 비움의 개념이 적용된 사례이므로, 추가적인 조경 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현 상황의 식생에서 외래종의 제거와 같은 소극적인 정비부터 시행토록 한다. 즉 가이즈까 향나무 등 외래종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수목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득한 후 처리방안을 결정한다.

경외는 자연산림으로 서원의 배경경관이 되어야 하므로 노거수의 훼손방지 및 보식 위주의 보완을 시행토록 한다.



[그림 V-31] 서원 주변 축사



[그림 V-32] 보식 대상지

### 3. 주변 정비계획

#### 3-1. 서원 전면공간 정비

##### 3-1-1. 현황

현재 풍영루 전면공간은 함양군의 서원관광자원화사업에 따라 기존 건물을 모두 정비하여 광장으로 조성한 후 홍살문 및 하마비 등 부속시설물을 보수·정비하고 있다. 이후 서원 경관 회복을 위해 광장조성을 중단하고 농경지로 환원하고 있는 중이며, 체계적인 경관 정비 및 보존을 위한 계획을 수립중이다.



[그림 V-33] 풍영루에서 바라본 서원 전면 (우, 좌)



[그림 V-34] 농경지 조성 공사 중



[그림 V-35] 농경지 조성 공사 완료

### 3-1-2. 문헌 속 야경(野景)입지 경관

풍영루에서 남계서원 앞에 전개된 경치를 바라보는 감회는 일두 정여창이 지리산 유람을 다녀오며 지은 《두류집》에 일부 표현되고 있는데, ‘風蒲泛泛弄輕柔, 四月花開麥已秋, 看盡頭流千萬疊, 孤舟又下大江流’ 라는 기록으로 경관에 대한 관점을 일부 추정해 볼 수 있다. 문루인 풍영루는 ‘마음이 유연하여 곧바로 대자연과 혼연일체가 되어 얻게 된 심오한 경지’ 를 의미한다. 이 경지는 남계서원에서 바라보는 전망 경관에서 느껴질 수 있으며, 이는 남계서원의 제향 인물 일두 정여창의 기상이기도 하다. 풍영루에서의 경관은 남계서원의 전망경관, 이미지와 대자연과 하나가 되는 천인합일의 경지, 그리고 일두 정여창의 기상을 하나로 상징하는 기호 경관이 되는 것이다. 풍영루에 오르면 이러한 천인합일의 경지를 의미하는 내용이 풍영루 기문에 보인다. 정여창의 후손 정환필의 ‘풍영루기’에 ‘사방으로 바라보이는 경치가 들판이 평평하게 넓고, 냇물이 감돌아 얹히듯 했는데, 먼 숲은 푸르고 저녁노을이 아름답다(臨有四望之攸同郊垌平曠川澤縈洄遙林蒨晚靄).’ 라고 하여 주변을 찬한 내용에서 당시의 경관을 유추해 볼 수 있다.

### 3-1-3. 방안

주변 경관에 대한 기록이나 문헌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구전으로 전하는 내용과 일부 사진 기록 등에 남아 있는 자료 및 고문헌 속에 보이는 야경입지와 관련된 기록에 따르면 남계서원 주변은 경작지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광장으로 조성된 전면공간을 경관 환원 차원에서 논과 밭 등 경작지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서원 전면을 경작지로 조성하여 기존의 경관을 재현하고, 나아가 남계천까지 형성되어 있는 기존 농경지와와의 조화 및 야경입지 경관을 보존하여 광역 경관을 보존한다.

서원경관의 이미지화 및 인지성 증대를 위해 시기에 따라 단일 작물로 경작하여 통일감을 주도록 하며, 이후 경작지 및 작물 등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즉 보리(5월 까지), 수수(11월 까지)등의 작물을 시기에 맞추어 단일 작물로 경작하도록 하고, 파종체험, 수수꽃밭 걷기 및 겨울에는 보리 파종 후 보리밟기 등의 행사와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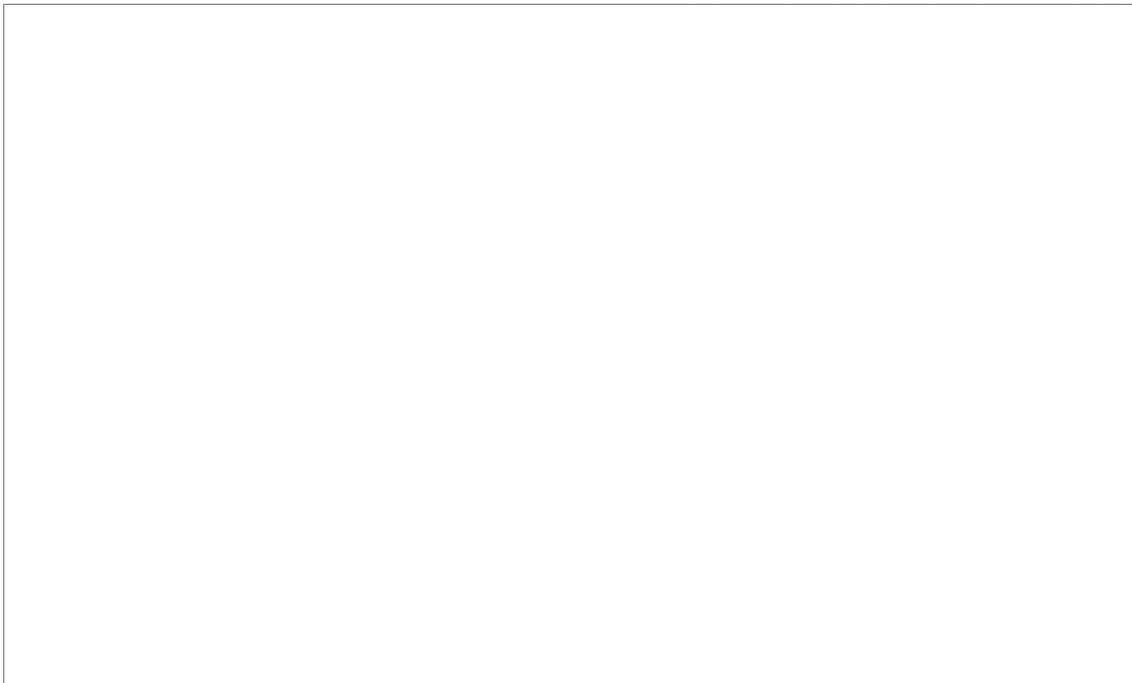
다만 근래에 설치된 추모비와 우물 등의 석물은 서원 경관 상 조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경작지 범위 확대를 위해 관광안내소 구역 등 서원경관에 영향이 낮은 곳으로 이전하도록 한다.

## ■ 현황 배치



[그림 V-36] 전면공간 현황도

## ■ 경작지 조성안



[그림 V-37] 전면공간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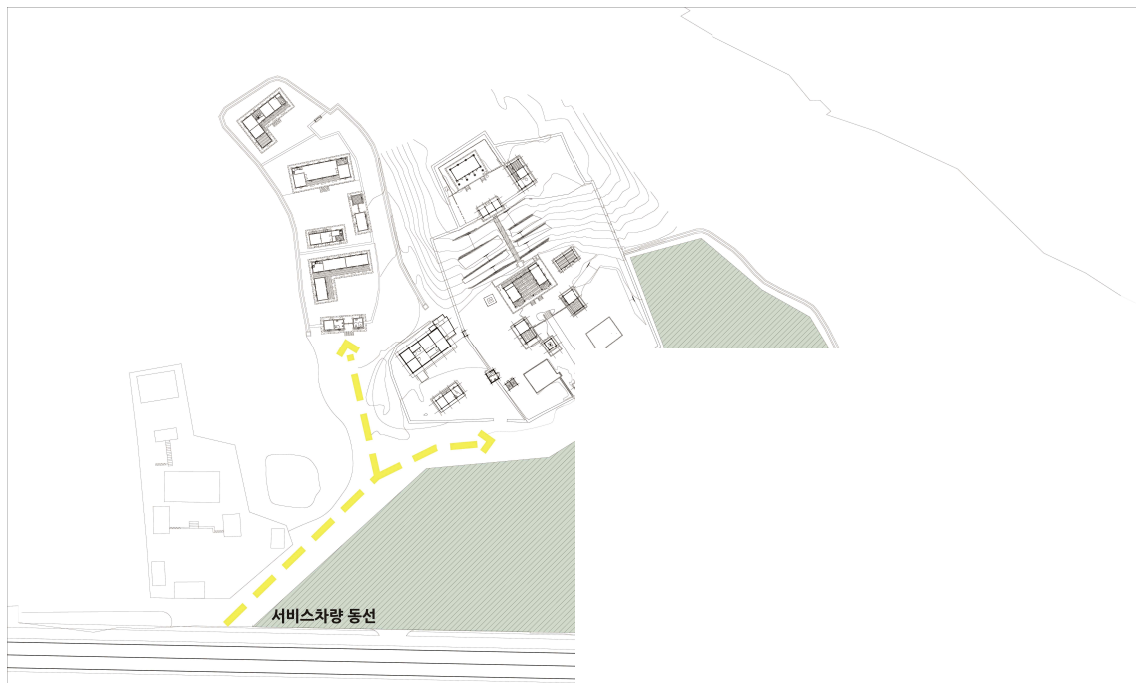
### 3-2. 동선 계획

현재 남계서원 전면이 광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풍영루 전면까지 차량 진출입이 자유로워 차량동선과 보행자 동선 및 서비스차량 동선이 혼재하며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남계서원 광장과 연결된 차량진출입로가 4곳으로 명확한 진입동선이 인지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차공간과 관람공간의 구분이 없어 동선의 혼선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서원 전면 공간을 경작지로 조성하면서 공간을 구분하고 동선을 명확히 정리하도록 한다. 즉 주차공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서원전면 공간에 차량 진입을 경작지로 차단하여 관람동선을 정리하도록 하며, 서원 전면에서 바라보는 서원경관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주차장에서 홍살문, 풍영루에 이르는 관람동선을 새로이 정비한다.

서원 보수 및 정비 등을 위한 서비스동선은 주관람 동선과 분리하여 관람객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차량진출입로는 주차를 위한 방문객용 및 서비스차량의 진출입로 두 개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 ■ 동선 계획



[그림 V-38] 동선 계획안

### 3-3. 주차장 정비

#### 3-3-1. 현황

현재 조성중인 주차장 부지는 새롭게 조성된 관광안내소 전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서원 경관 축에서 벗어난 위치이므로 배치 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원 관광자원화 사업계획 당시 주차소요 면적은 1,126㎡로 산정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조성되어 있어 향후 활용 상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주차장 진입로가 명확치 않고 직선도로구간에서 곧바로 직각으로 진입하게 되어있어 입구를 지나치게 되거나 급감속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의 위험이 높다.

[표V-3] 서원관광화자원사업 기본계획 시 산정된 주차소요 면적

구분	교통수단별이용율	이용인원	회전율	대당승차인원	주차대수	대당소요면적	부지면적
계	100	342			42		1,126
승용차	70	239	0.5	3	40	25	1,000
버스	30	103	0.5	30	1.8	70	126

#### 3-3-2. 방안

주차장 바닥은 잔디블럭 등으로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경관 상 이질감을 낮추며, 주차장 주변은 조경으로 차폐하여 서원 전면에서 조망 시 관리사무소와 주차장이 최대한 조망되지 않도록 한다.

주차장 진입부의 사고 위험 감소를 위해 가감속 차선을 설치한다. 또한 가감속 차선 시작점에는 주차 및 진출입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토록 한다.



[그림 V-39] 주차장 정비 계획안

#### ■ 차폐 조경 및 바닥 잔디블럭 설치



[그림 V-40] 차폐조경 예시



[그림 V-41] 잔디블럭 예시



### 3-4. 화장실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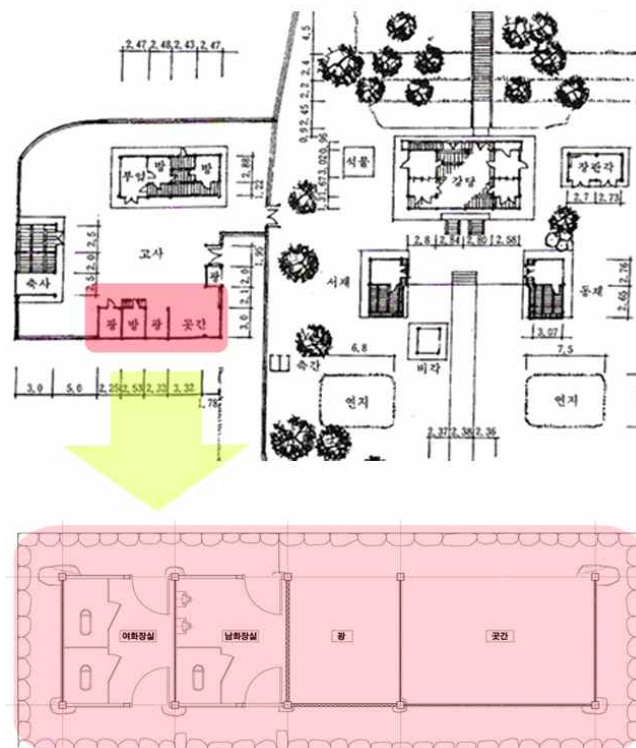
#### 3-4-1. 현황

서원과 고직사 사이의 담장 중간에 설치되었던 외부화장실은 서원경관 원형 보존을 위해 철거였으나, 내부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남아 있으나, 남계서원도 등 고증자료에는 화장실에 대한 내용이 없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인지는 확인이 불가하다. 이외에도 관광안내소에 최근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였으나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에 한계가 있다.

#### 3-4-2. 방안

내부의 재래식 화장실에 대한 고증자료가 없는 점, 진정성 있는 서원 내부경관 보존을 고려할 때 격식에 맞지 않는 점, 화장실로서의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역할이 미비한 점 등을 이유로 내부 화장실은 철거하도록 한다.

서원 관람 시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없으므로 관람동선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서원 배치 형식에 문제가 없는 장소에 수세식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한다. 서원 배치에 영향이 적으면서 이용에 편의를 고려하여 고직사 복원 시 공간채로 추정되는 건물의 일부를 화장실로 개조하되, 고직사 내·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그림 V-42] 화장실 계획안



### 3-5. 서원 주변 기타 정비

#### 3-5-1. 현황

남계서원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의 경관 위해요소로는 서원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축사를 들 수 있다. 축사의 건축재료와 규모 등은 서원의 경관과 전혀 조화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 3-5-2. 방안

대상지는 수동면 원평리 15, 15-1, 17-1, 17-3번지 그리고 우명리 743, 743-3, 743-4번지이며 면적은 약 5,000평에 달한다. 서원 경관 보존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매입 후 철거토록 한다. 매입부지는 주변 식생과 동일한 수목을 식재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활용 방안을 마련토록 한다.



[그림 V-43] 서원과 축사 이격 현황

### 3-6. 경관 범위 내 시설물 정비

#### 3-6-1. 현황

풍영루 및 서원 내부에서 조망되는 전면경관의 저해요소로는 국도변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을 들 수 있다. 방음벽으로 인해 이후 전면 경관이 대부분 조망되지 않기 때문에, 시설 자체의 높이나 규모에 비해 시야범위 내에서의 저해요소로서의 영향은 큰 편이라 할 수 있다.

#### 3-6-2. 방안

경관 보존 구역 범위내의 방음벽(약 1km)에 대해서는 철거를 추진하되, 철거가 어려울 경우에는 투명재질로 교체하여 최대한 조망을 확보토록 한다. 또한 방음벽 철거구간은 소음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화림교에서 남계삼거리 사이의 국도 구간 제한 속도 조정 및 표지판 설치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한다.



[그림 V-44] 방음벽 철거 계획안

### 3-7. 기타 시설물 정비

#### 3-7-1. 현황 및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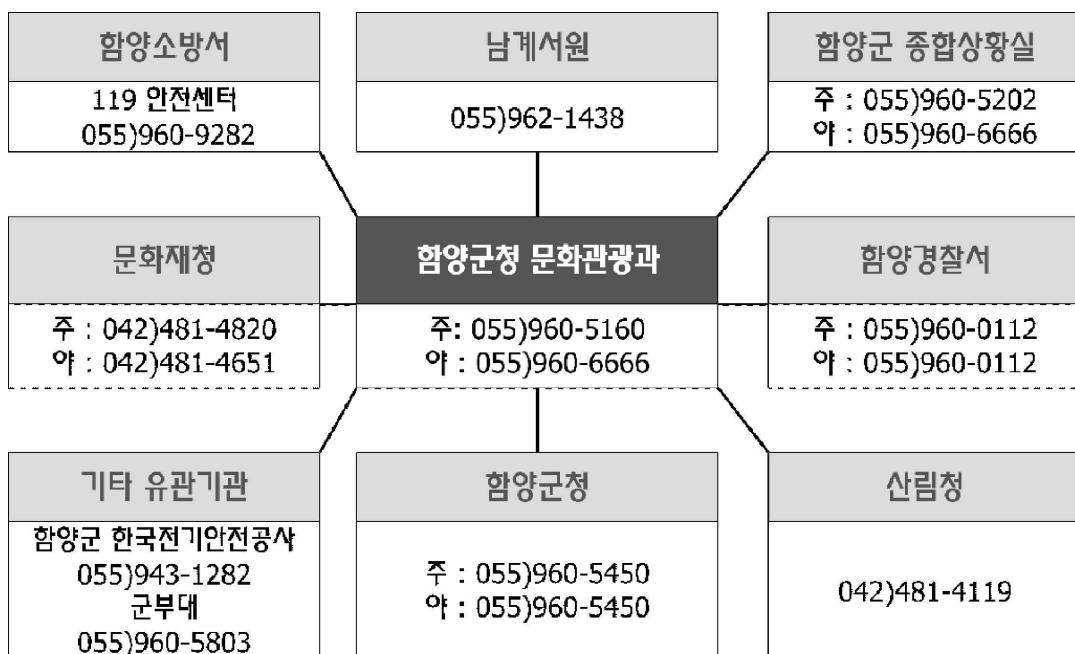
문화재 관람의 최소한의 편의시설인 안내판이나 가로등 및 표지판 등은 비교적 양호하게 정비되어 있는 상황이며 향후 추가적인 필요에 의한 편의시설에 관해서는 세계유산 등재대상 9개 서원의 통합보존관리단이 수립하는 가이드 라인을 기준으로 정비하도록 한다.

### 3-8. 소방방재시설 정비

#### 3-8-1. 현황

남계서원의 소방 방재시설은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시 초동진압을 할 수 있는 설비 및 장비 등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주기적으로 소방훈련을 통하여 화재진압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CCTV와 화재감지기 등으로 24시간 감시를 통한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현 체계를 유지·보완한다.



[그림 V-45] 재난 감시 연락망

### 3-8-2. 방재 시설 강화에 대한 법적 검토

관련 법규 강화를 통해 문화재 방재와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수단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표 V-4] 방재시설 법규 검토

법적 검토 안	법적 검토 적용 안	
	방재 시설 부분	방재 교육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안 수립</li> <li>• 화재대응 지침서 마련</li> <li>• 지정문화재 도난방지장치 설치</li> <li>• 문화재 안전점검, 방재훈련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의 방재의 날(2월 10일) 활용</li> </ul> </li> <li>•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용 설비 보완</li> <li>• 화재감지기 설치</li> <li>• 출화방지 대책 마련</li> <li>• 도난방지장치 설치</li> <li>• 피난경로 확보</li> <li>• 정기적 건물 유지관리</li> <li>• 방염대책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재교육 실시</li> <li>• 관광객 화재안전교육</li> <li>• 방재 매뉴얼 구축</li> </ul>

### 3-8-3. 정기적 안전점검·교육 필요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재의 특성상 아궁이, 연통, 전기배선의 사용상의 부주의로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후 설비는 교체하고 방재에 취약한 부분을 정기적으로 보수한다.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소방훈련을 여러 기관과 연계하여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진압을 통해 문화유산을 보존한다.

### 3-8-4. 방재용 첨단 설비 도입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염이 다른 건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막설비, 협소한 탐방로나 소화전의 분사범위를 초과할 때 사용하는 이동식 소방장비 등의 시설물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3-8-5. 소화전함 외관정비

현재 남계서원의 방재시설은 충분히 구비되어 있다고 판단되나 소화전함의 외관이 전통서원 경관과 이질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소화전함 외관은 디자인 가이

드라인을 참조하여 정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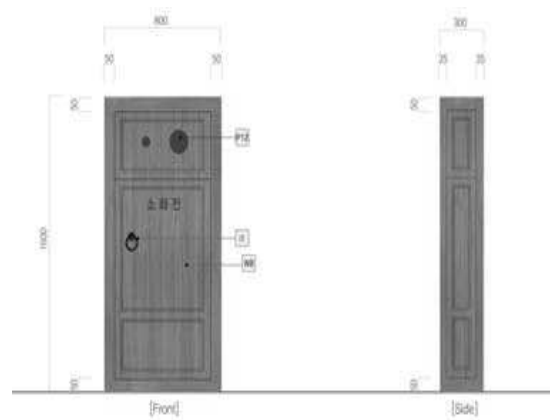
[그림 V-46] 수막설비



[그림 V-47] 이동식 소화장비



[그림 V-48] 소화전함 현황



[그림 V-49] 소화전함 정비 예시



## VI 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





## Ⅵ. 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

### 1. 서원문화의 활용 필요성과 현황

#### 1-1. 서원문화의 특성과 계승가치

조선시대 서원은 400여 년을 존속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교육기관이다. 서원은 성현들을 제향하는 사묘의 역할과 더불어 성리학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지역의 교육, 문화, 지성사의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 하였다. 유교문화는 인물과 사상, 철학과 정신, 학문과 가치관을 중시하는 문화이다. 따라서 한국서원의 가치도 유형의 건축물과 함께 주변 경관, 그 곳에서 생활하며 향유했던 사람과 정신, 그리고 문화적 시스템이 전승되는 곳이다. 이 같은 서원의 전통적 가치는 현대사회에도 계승, 활용해야 할 가치와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 1-1-1. 한국의 문화브랜드

서원은 한국지성문화의 요람으로 400여 년을 지속 해 온 전통문화유산이다. 서원에 전해지는 역사, 교육, 제향, 건축, 경관, 기록유산 등 유·무형의 문화유산들은 한국 유교문화의 다양성과 특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서원별 독특한 강학, 의례, 도서출판, 문화예술, 정치 등 복합적 문화요소까지 포괄하고 있다. 서원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같은 문화전통과 교육기능을 되살리고, 성리학의 상징경관과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현대적 교육공간으로 거듭난다면 한국의 ‘문화브랜드’로 그 어느 것에도 뒤지지 않는 가치를 발휘할 것이다.

##### 1-1-2. 지성사의 거점

서원은 인물과 학맥, 그리고 지성문화를 대표하는 유교문화 유산이다. 서원은 저명 성리학자를 제향하는 곳으로 각 지방의 고급 인재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접촉, 교류했던 거점공간이자 상징적 기구였다. 서원 내에서 젊은 인재들과 그들의 선배들은 일방적 지식의 전수교육이 아닌 강론과 학문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고, 여론과 공론을 결집하는 집회소로서 지성사적 전통과 정신문화적 유서가 서려있다.

또 제향 인물에 대한 이해는 한국의 역사, 철학, 문화를 이해하는 데 유용할 뿐 아니라, 교육과 학문의 전당으로서 서원은 한국지성사의 모든 모습을 느끼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1-1-3. 전통교육공간

서원 본연의 교육적인 기능면에서 보면, 각 서원마다 독특한 교육 방식과 운영의 모습들이 존재했던 개성적 공간이었다. 지역별 학맥, 사상, 교육방식 등은 각 서원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서원은 이러한 교육사상과 철학을 토대로 한 적절한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있어 전통교육(강학)문화의 체험공간으로 활용가능성 또한 높다.

### 1-1-4. 제향의례

서원은 유교의 禮가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의례화 된 곳이다. 중국이나 일본의 서원과 비교하여 볼 때 한국의 서원은 진정성을 보존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인물 ‘제향’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특성이 있다. 서원은 이들 의례를 통하여 선현의 학덕과 행의를 추앙하고, 예를 중요시 하는 유교의 정신과 문화를 널리 확산, 정착시키는 사회교육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서원에서 이루어지는 제향의례나 강학의례, 기타 여러 형태의 생활의례들은 서원이 사회교육의 실현처였음을 보여준다.

### 1-1-5. 도서관과 출판기능

서원에는 원생들의 교육을 위해 經書를 비롯하여 역사서, 그리고 서원의 제향인물이나 그의 학맥을 잇는 인사들의 문집류 등의 자료들이 보존되었다. 한편 여러 서원에서는 경쟁적으로 서적을 출판하기도 하였는데, 서원이 서적의 출판과 배포라는 기능도 겸하였다. 또한 서원의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고문서 자료들도 많이 보관되어 있는 자료의 보고였다.

※ 이처럼 한국의 서원은 단지 저명한 성리학자를 추송하고 제향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교육과 의례의 거점 공간인 동시에 지성사적 문화전통을 대표하는 곳이었다. 즉 조선시대 선비의 학문성과 도덕적 실천성, 개성을 보여주며, 지역 문화의 역사성과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곳이 바로 서원인 것이다. 나아가 서원에는 유·무형의 다양한 문화유산(역사, 교육, 제향의례, 건축, 기록, 경관, 인물 등)들이 존재하며, 도서 출판, 문화예술, 정치 등 복합적인 문화사가 이루어졌던 거점이었던 것이다.

## 1-2. 활용 현황과 과제

### 1-2-1. 발전적, 적극적 활용의지의 부족

- 제향(인물)중심, 보존(건축)중심 → 서원문화의 종합성 부족
- 활용빈도 떨어짐,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모색의 소극성
- 서원문화의 다양한 원형콘텐츠 발굴, 활용의지 부족
- 활용자원의 발굴, 정리, 활용 모색 부족

### 1-2-2. 祭享, 保存, 門中 중심의 인식, 활용

- 서원문화의 축소이해 : 총체적 의미, 기능 이해 필요
- 정치, 교육, 의례, 도서 출판, 창작예술 등 종합적 서원의 문화 이해 부족
- 제향, 의례 중심의 강조로 서원문화를 축소
- 건물 복원(보존) 중심 → 지속가능한 발전, 의식적 노력 필요
- 인물(추송), 후손 중심 운영 → 공익성, 공공이해 확대

### 1-2-3. 활용의 전문성과 프로그램의 차별성 부족

-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집단이 서원 기본 콘텐츠에 대한 이해 부족
- 각 서원의 특징을 살리지 못한 유사, 동일한 프로그램 진행 → 특화, 지원 노력, 투자
- 프로그램의 기법만 중시한 채 각 서원의 특성(자생력) 살리지 못함
- 유·초년생 → 엘리트 지성인 대상
- 지역성, 지역 지성사적 연계 노력 저조

다양한 서원활용 프로그램의 부족 : 현재는 ① 제향, 각종의례, 문중행사 등으로 활용층의 제한 ② 예절, 한문, 인성교육,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의 천편일률적 운영 ③ 수직적 교육중심의 정적인 분위기 형성 ④ 고건축 중심의 서원문화이해 등이 대부분이다. 이는 서원이 지역의 지성사적 전통, 학문, 강화 유서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도 서원문화 소재의 적극적 활용이나 아이디어 개발 측면에서 숙제가 많다고 하겠다.

## 2. 서원문화자원의 활용 방향

### 2-1. 서원문화 콘텐츠 활용 방향

- \* 서원문화의 특성, 종합성을 최대한 활용(경관, 지성, 교육 의례)
- \* 수요자 특징에 대응할 다양한 프로그램(연령, 그룹, 주제별 유기적 개발)

#### 2-1-1. 고품격과 지성적 가치 재생

우선 서원, 유교문화 관련 인적자원과 품격에 관한 우리의 의지와 인식의 신장이 절실하다. 현재의 향교·서원에서 과거 조선시대의 품격과 권위, 그리고 스승과 학생의 수준을 찾기 힘들다. 무론 시대가 달라졌으니 직접 비교는 곤란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에 비하여 부족하고 열악함을 모두 인정할 것이다. 이는 활용의 활성화에 앞서 먼저 생각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어쩌면 활용과 선후로 짝을 이루면서 공동으로 추구하여야 할 과제도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나는 수요층과 대상에 대하여도 좀 더 적극적이고 적합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초등학생보다는 대학생과 청장년이, 사자소학이나 천자문 강의 보다는 인문학 강좌나 학술세미나, 그리고 서원에서 현대 사회이슈인 환경, 정치, 여성문제, 시사토론회 등도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서원의 품격에 더 맞는다. 또 대를 이어 유교문화의 내면적 가치를 이어갈 인력양성의 자체 시스템, 관련 전문인력의 광범한 적극적 동원(연계, 유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 고품격 인물/학풍 활용 문화브랜드의 정립 필요. 현대적으로 계승할만한 아이템 찾기.

예) 김장생, 이언적 등의 대표 배향인물을 부각. 브랜드로 정립.

#### 2-1-2. 도덕성, 공공성 기반의 확보

서원이 도덕성과 공공성, 공익성을 기반으로 하여야 활용, 계승도 활성화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자평과 자성이 필요하다. 그동안 서원문화는 권위적 건축물의 복원과 정비, 특히 가문 선조의 추숭이나 경쟁 모습으로 홍보되고 활용되었다. 인물 추숭은 객관적이지 못할 때가 많았고. 때문에 그 인물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가치와 의미도 퇴색해 버리는 역효과를 초래했다. 아무리 의미와 가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특정 가문이나, 집단의 이해와 직결되는 것으로 비쳐질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유교문화자원은 무엇보다 도덕과 지성, 교육의 장이었다는데 가치가 있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저변에 물질과 경쟁 중심의 의식이 팽배한 상태에서 유교-서원문화 유산은 도덕성 결여나 교육과 정신문화의 황폐화 등 현실을 극복하고 도덕, 인성, 사회교육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자원인 것이다.

### 2-1-3.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 특화

서원은 한국 유교문화의 다양성과 지역적 특성이 집약된 문화유산이다. 서원은 저명 성리학자 추송, 제향하는 공간인 동시에 지역 교육, 의례의 거점 공간인 동시에 지성사적 문화전통을 대표하는 곳이며 유·무형의 역사, 교육, 제향(의례), 건축, 경관, 문학, 인물 등 다양한 문화유산 종합 보존처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를 콘텐츠화하면 현대적, 지성적, 교육적, 정적, 동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도 많아 문화적 복합기능을 지닐 수 있다. 아울러 여기에 서원별 독특한 문화성격을 자원화 하여 활용하고, 수요층과 주제별 효과적인 교육자료집 제작 등 보조 아이디어를 개발한다면 효과는 극대화 될 것이다.

\* 경쟁력 있는 교육과 체험, 참여 프로그램

- 서원이 지역문화 브랜드로서 가치가 매우 큼을 이해
- 소규모를 지향하되 전문 인력의 도움으로 운영되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 효과적인 교육자료의 제작 등 수요층과 주제별 보조 아이디어 개발
- 다양한 콘텐츠의 확보와 개발

： 서원문화의 본질, 종합성 활용

； 해당 서원의 특징, 개성적인 문화소재를 활용한 프로그램의 개발

； 지역의 지성사적 전통, 학문, 강학 유서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 연령, 성별, 수요자의 성격 등을 고려한 맞춤형, 유기적 프로그램 개발

### 2-1-4. 다양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서원문화의 전파

서원은 “고리타분”, “제사 지내는 곳”, “한자 공부하는 곳”, “비슷한 건물 배치” 등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이는 서원 활용에 있어서의 최대 난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바꾸어 생각하면 오히려 장점으로, “지성사의 거점으로서 고품격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아늑한 공간(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더라도 몇몇의 사람들이 한적하게 서원 문화를 느낌)”, “서원의 보편성과 특수성(인물/제향 등)이 함께하는 재미있는 이야기” 등의 가치를 보다 일반인들에게 다가가기 쉽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흥미도”에 대한 부분도 결코 간과하여서는 안 되며, 흥미와 가치 전달을 적절하게 배분해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 2-2. 서원문화 특화 프로그램 유형(예시)

- 1) 서원의 지역지성사 관련 다양한 문화기능 활용
- 2) 서원의 개별적 특성 고려한 경쟁력(차별화) 고려
  - 고품격, 철학적 의미 특화 : 서원문화의 본질인 지성사. 정신사적 성격
  - 서원문화와 지성사 : 인물, 정신, 문학 콘텐츠 자료정리 필요
  - 대규모 보다는 소규모 지향, 특화된 교육·체험 프로그램개발
  - 서원의 특화된 아이টে을 찾아 고풍스러운 문화공간이자 지성적 근거지로 만  
들.

[표VI-1] 서원문화의 활용, 프로그램 개발유형

프로그램	주요 내용 예시
교육의례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원제향의례 등 유교의례 이벤트 프로그램.</li> <li>- 단순제례→전통과 현대의 만남, 유림과 대화, 의미 해설체험</li> <li>- 교육의례 : 상읍례, 정읍례, 사상건례, 경독 등</li> <li>- 향약, 향음례, 향사례, 향회, 새로운 의례의 발굴 개발</li> </ul>
전통교육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원교육 및 학문활동과 관련한 프로그램 . : 교육과정, 교과서, 운영 실제, 재정, 규약(고문서, 현판 자료)</li> <li>- 거접, 거재, 통독, 강회, 백일장, 순제</li> <li>- 유생의 하루 일과 등 서원생활문화 체험</li> <li>- 유림과의 토론(대화)</li> </ul>
문화유적 (답사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교문화 성격별, 권역별 코스 개발</li> <li>- 건물, 전적, 목판, 고문서, 금석문, 생활사 유적 유물 포함</li> <li>- 관련 유적 : 서당, 종가, 누정, 재실, 정려 등 포함</li> <li>- 서원경관 해설: 서원의 입지 특성, 풍수형국, 전망 경관, 장소 경관</li> <li>- 관련 역사 사건이나 인물 일화와 저술, 업적, 유적 등 포함</li> </ul>
인물사상 (교육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물연구, 교육 프로그램으로 특화</li> <li>- 시대, 인물, 주제(의병 도학, 사림 정치) 교육</li> <li>- 인물유적 탐방, 인물관련 유적 유물(저술, 생애, 일화 등)</li> <li>- 주요 인물관련 (동족)마을 탐방 및 종가체험</li> <li>- 서원의 記文, 詩文 자료의 조사와 번역</li> </ul>
공간활용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교육과 연계, 문화 교육행사장으로 적극 활용</li> <li>- 기존 문화유적 최대 활용, 주제별 답사와 체험</li> <li>- 고전 강독, 한문, 족보 특강, 정신 학술 교육 등등</li> <li>- 대학연구소, 학술행사 유치, 교육청과 연계</li> </ul>
자료관 (전시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물 및 소장자료 전시(학습장화)</li> <li>- 인물유품, 유교문화재, 고문서 전적, 금석문</li> <li>- 정례 특별전시회 개최, 기증 및 위탁 전시기능</li> <li>- 자료 종합 정리(교양서 안내서 발간), 학술세미나</li> </ul>

## ● 교육, 유교의례의 문화 체험

[자원특성과 경쟁력]

-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서원의 교육프로그램 홍보
- 유교의례방식을 돌아보고 현대사회에서 유교의례의 의미를 생각

[개발내용]

### (1) 전통의례와 현대의 만남

- 서원제향 등 유교의례 이벤트관련 프로그램으로 특화
- 보여주기 식 제례로 화석화 경계, 유림과의 대화를 통한 현대적 의미 생각
- 새로운 의례의 발굴 개발

### (2) 방문자가 직접 의례체험

- 교육의례 : 강학, 시회, 향시, 급제유가행차
- 전통제향의례 : 춘추향사, 삭망분향례, 정알례 등 서원제향의례
- 사족행사의례 : 향약, 향음례, 향사례, 향회

## ● 경관, 건축자원 활용한 문화공간 활용

[자원특성과 경쟁력]

- 문화공간으로서 충분히 정취 있는 공간이 이미 구성되어 있음
- 약간의 관리시스템만 구축된다면 소규모 문화교육행사장으로 최적
- 서원 주변의 자연경관과 명소를 함께 활용 가능

[개발내용]

### (1) 문화 교육행사장으로의 적극 활용방안

- 서원의 가장 중요한 교육과 문화교류의 기능과 부합
- 접근성과 위치 고려
- 강당 앞마당을 이용하여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  
: 도시 또는 도시지역에 인접된 서원. 음악회, 문학회 등
- 기존 문화유적 최대 활용, 주제별 답사와 체험 프로그램 공동운영 가능

### (2) 연구, 교육과의 연계 방안

- 관련 지역대학의 인문학 학술연구회, 학술대회 개최 활용
- 다양한 활용방안 강구, 교육청과 연계
- 고전 강독, 지역문화, 인물사상 특강 등

### (3) 書院山水 講會 및 山水實景 극장

- 특화된 서원 주변의 경관과 자연환경 동시 활용
- 서원의 강회는 세계적인 전통학문 심포지엄

도산서원 : 天光雲影, 옥산서원 : 風月無邊, 필암서원 : 廓然大公,  
 도동서원 : 秋月寒水, 남계서원 : 吟諷詠歸, 병산서원 : 翠屏晚對,  
 구연서원 : 觀水有術

- 서원의 산수 경치를 실경 무대와 배경으로 하는 가설(假設) 산수환경 극장
- 서원의 서사(敍事)와 경관을 결합

## ● 인물 사상과 학문, 정신사

[자원특성과 경쟁력]

- 서원은 저명인물의 제향을 기본조건으로 하고 있음
- 지역 내 저명인물에 관한 홍보를 통해 자긍심 고취
- 인물에 대한 콘텐츠는 서원문화콘텐츠의 새로운 개발 가능성

[개발내용]

- (1) 서원제향 인물 관련 프로그램으로 특화
  - 시대, 인물, 주제(의병 도학, 사림 정치)
  - 관련유적의 복원·정비(생가, 유허지, 활동유적 등)
- (2) 인물유적 탐방, 인물관련 유적 유물 전시 - 정신, 저술, 생애, 일화, 전설 등
  - 주요 인물관련 (동족)마을 탐방 및 종가체험
  - 생애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교양서 안내서 발간), 전시
  - 인물사상의 교육장
  - 지역 배출인물 선정 학술세미나 년 1회 이상 정례화

## ● 서원문화 유적답사체험코스 개발

[자원특성과 경쟁력]

- 여가를 활용하는 학생 및 일반인들의 의식수준의 향상
- 문화유적 방문 시 효율적인 코스와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게 됨
- 서원문화와 해당지역(방문지역)의 역사 문화적 특성을 알릴 기회
  - : 기능과 문화 성격별 유교문화재 및 유물의 재인식

[개발내용]

- (1) 지역별 · 의미별 · 주제별 코스 개발
  - 개발 잠재력과 가능성, 경쟁력 고려(차별화)
  - 인물 · 성씨별 / 문화유적 기능별 / 특화된 주제와 체험, 이벤트별 개별 프로그램
  - 연결되는 관련 유적도 연계 : 서당, 종가, 인물유적, 일화, 전설, 동족마을 등

(2) 체험과 탐방을 겸한 테마(예시)

- 서원에서의 유교교육, 의례 체험 : 향교 서원 재실 사당 고택
- 인물유적 탐방 : 서원에 제향된 저명 인물들의 생애와 관련 유적 탐방
- 유교문화 유물의 재인식 : 전적, 목판, 고문서, 금석문, 생활사 유적·유물 포함
- 전통(동족)마을의 탐방 및 체험 : 주요 성씨와 인물의 고향
- 운영의 실제 모습 : 관련자료(고문서) 동원  
: 관련되는 역사적 사건이나 배출인물 일화와 저술, 업적, 유적 등등을 포함
- 유물 및 역사자료 중심의 서원 : 소장자료 전시 및 학습장화.

● 자료관·전시관 설립, 운영

[자원특성과 경쟁력]

- 도서관과 장판각의 기능을 했던 서원의 고유기능과 부합
- 확실한 유물 관리시스템만 구축된다면 전시관으로 최적
- 이미 각 서원에 고문서·전적 등 상당량의 유물 확보

[개발내용]

(1) 자료관 및 전시관 구축 후 활용

- 도시지역 서원의 경우 서원전체를 하나의 전시공간으로 활용  
: 서원의 역사와 인물을 전시주제로 기존 건축물을 이용하여 전시장 화 방안
- 자료가 많은 향교·서원 집중 지원 : 전시·홍보 기능 확보
- 지역유교문화 자료의 시대와 계열, 체계화 시도
- 소장자료 ; 지역 문중(인물) 유적 유물, 전적, 장판, 기타 고문서
- 정례 특별전시회 개최, 기증 및 위탁 전시기능
- 문화유산별 : 인물, 유교문화재, 고문서 전적, 금석문, 일화, 전설, 동족마을

(2) 전국 유일의 특성화 박물관으로 육성도 가능

- (1안) 별도 건립, (2안) 위 교육연구원에 병설 ; 향교, 서원, 재실, 고택 활용 고려
- 유교문화 자료의 시대와 계열, 체계화 시도
- 문중(인물) 유적 유물, 전적, 장판, 서원 향교 정려의 건립과 운영관련 자료,  
: 정례 특별전시회 개최, 기증 및 위탁 전시기능
- 인물사상의 교육장  
: 위의 교육과정, 문화재 정비계획과 철저한 병행 필요  
: 교수 프로그램과 현장자료 접합



## ● 서원문화제 개최

### [자원특성과 경쟁력]

- 인물, 혹은 유교문화 종합축제 (상설운영 프로그램의 종합적 개최)
- 정해진 기간과 장소를 완벽하게 조선시대로 재구성 가능
- 단기간에 집약적으로 유교문화를 체험 해 볼 수 있는 이벤트 효과
- 정적인 서원문화의 이미지를 다소 탈피할 수 있는 기회

### [개발내용]

#### (1) 조선시대 서원의 재구성(전통교육 및 강학 체험 이벤트)

- 서원의 생활모습전반 재구성(규약, 교육과정, 시험, 의례 등)
  - : 서원에서의 교육 및 학문활동과 관련한 프로그램 특화함.
  - : 관련분야 대학 등과 연계
  - : 교육과정과 교과서 : 운영의 실제 ; 재정 인적구조, 규약(고문서, 현판 자료)
- Staff가 서원의 원장과 임원으로 참가
  - : 서원의 역할과 의무, 생활양식, 규약 등을 알려주고 수행하게 도와줌
  - : 정신교육 중심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쉽게 구성하여 대 중적 관심을 유발

#### (2) 상설 프로그램의 종합운영 및 특화 이벤트

- 기존에 운영되던 서원 안내프로그램 및 서원답사기행을 진행하는 가운데
- 특별한 이벤트를 한시적으로 운영

#### ex) 원생의 서원생활 Real Story 보여주기(영상, 연극)

- : 강학, 시회, 제례, 의례, 과거, 종가, 시제, 사당제, 가례  
향시, 급제유가행차, 사직, 성황, 석전제, 서원제향  
향약, 향음례, 동약, 향회, 동계, 세일사(시제), 회갑진찬연
- 각종 의식행사를 공개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

#### (3) 서원관련 문화유적을 최대한 활용한 주제별 답사기행

- 관련유적 : 향교, 타 서원, 재실, 사당, 정자, 종가 등을 활용
- 참가자의 그룹별, 연령별, 목적별로 적합한 답사프로그램의 유연한 운영
- 짧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서원 및 유교문화의 정수 홍보 기회

#### (4) 전국규모 학술회의 개최

- 선비문화제의 정체성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그램
- 전국에 있는 서원 관련 연구자의 적극적 참여
  - : 결국 관련연구자 부티가 적극적인 홍보대사 역할 수행
- 강당이 별도로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 : 집단학습, 동아리활동, 강연회 등

(5) 유교·서원문화 퀴즈대회

- 일반인들의 관심을 일으키는 목적
- 기본적인 유교의례와 생활의례를 문제로 출제
- 쉽고 재미있게 서원과 전통유교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 3. 남계서원 문화자원의 특성과 활용 경쟁력

#### 3-1. 남계서원의 특성화 자원

##### 3-1-1. 사람이 건립한 최초의 서원

###### 가) 사람의 성장에 기반한 남계서원의 설립

소수서원에 이어 설립된 남계서원의 설립과 사액 과정은 몇 가지 점에서 소수서원과 그 형식을 달리하며, 사람세력의 성장과 발전 과정을 집약적으로 드러낸다. 남계서원의 설립은 표면적으로는 함양 유림들의 발의에 의해 촉발되었으나, 서원출현의 역사적 배경은 성종조 이후 사람의 성장과 문묘종사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남계서원에 제향된 정여창은 김종직의 제자이자 김굉필과 함께 훈구세력에 대항하는 새로운 학풍으로 이미 사람의 일원으로 주목받았고,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를 거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문묘 종사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피화된 정여창이 중종반정으로 복관되자,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사람세력은 사화로 희생된 인물들에 대한 복권운동의 일환으로, 김굉필과 정여창에 대한 문묘 종사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문묘 종사를 반대하는 조정 훈구대신과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새로운 형식의 사우와 제향의식이 요청되었고, 그 대안의 하나가 곧 ‘선현이 도를 강론하던 곳에 사당을 세워서 치제’ 하는 형식이었다. 남계서원은 이러한 중앙정계의 움직임에 촉발된 함양 사람들의 주도로 건립된 것이었다.

소수서원이 풍기군수 주세붕과 경상감사 안현에 의해 그 설립과 운영기반을 확보함으로써 관학과 사학의 절충적 형식을 취하였다면, 남계서원은 성종조 이후 꾸준히 성장한 사람이 그 설립 주체로 등장함으로써, 남송대 주자의 사학 이념이 사람세력들에 의해 현실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 나) 서원의 설립과 운영 주체로 등장한 사람

남계서원의 건립 과정에서, 소수서원과 다른 또 하나의 특징은 관의 지원이 현저하게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강익을 포함한 함양 사람들은 쌀과 곡식을 부조하

면서 건립을 위한 여론을 환기하였다. 그러나 관의 지원은, 소수서원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미미하였다. 당시 함양군수 서구연도 물력을 지원하였으나 지원의 규모는 전반적으로 볼 때 소수서원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하였으며, 소수서원에서 발견되던 관찰사의 파격적인 지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서원의 설립과 운영 주체로 적극적으로 나선 세력은 바로 함양의 사람들이었다. 당시 함양 지역은 막 남명 문도들이 영향력을 확대해 가던 시기였다. 당시 서원 설립을 주도하던 풍천 노씨, 하동 정씨, 진주 정씨, 진주 강씨, 진주 하씨 등은 모두 넓은 범위에서 남명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 즉 초창기 남계서원의 건립과 운영은 지방관이 아니라, 당시 함양 지역 사림세력의 핵심을 이루던 남명문도들의 주체적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초기 소수서원을 창설하고 사액을 하면서 ‘국상’으로 의미를 격상하고 관학에 준하는 지원책을 모색하던 시기를 지나, 이제 서원이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손에 의해 관리되는 시점으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 3-1-2. 한국 서원의 배치형식 정립

남계서원은 조선시대 서원 건축의 배치형식을 정립함으로써 이후 한국 서원의 건축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는 서원의 입지 및 건물 배치, 공간 구성 등에 잘 나타난다.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은 사우, 강당, 재사 간의 상호 관계가 뚜렷하지 않아 건물의 배치 형식이 명쾌하게 정립되지 못했다. 그러나 소수서원보다 약 10년 뒤에 세워진 남계서원은 많은 측면에서 소수서원과 다른, 초창기 서원 건축의 배치형식을 확연히 정립하였다. 들판을 바라보는 곳에 자리한 야경(野景) 입지, 앞이 낮고 뒤로 갈수록 점점 높아지는 전저후고의 지형, 강학공간을 앞에, 제향공간을 뒤에 배치한 전학후묘 및 동서재를 앞에, 강당을 뒤에 배치한 전재후당의 건물 배치가 그것이다. 소수서원에서 볼 수 없었던 이러한 배치형식은 남계서원에서부터 시작되어 이후 많은 서원 건축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 3-1-3. 성리학의 교육원리가 철저히 구현된 강학공간

#### 가) 건축과정에 드러난 강학이념

남계서원에서는 유생들이 학문할 강당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일두 정여창의 위패를 모실 사우를 지었다. 이 점이 사우를 먼저 짓고 강당을 그 다음에 지은 소수서원과 다르다. 이는 남계서원의 강당이 사묘 건물에 부속되어 유생들의 독서처에 머무는 시설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남계서원에서는 도학을 강구하는 강학

을 중시하였다는 사실을 건축과정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 나) ‘장수’ 공간과 ‘유식’ 공간의 유기적 결합

성리학에서는 활시위를 팽팽히 당긴 듯한 긴장감 속에서 경전을 읽고 수양하는 ‘장수(藏修)’ 뿐 아니라, 긴장된 몸과 마음을 풀어 성정을 쉬며 기르는 ‘유식(遊息)’의 과정 역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매우 중시되었다. 따라서 장수와 유식은 서원교육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서원에는 장수와 유식의 공간이 조화롭게 마련되어야 했다. 남계서원은 장수를 위한 강학공간과 유식공간을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성리학의 교육원리가 철저히 반영된 교육공간을 조성하였다.



[그림VI-1] 누마루에서 보이는 연지

남계서원에서 ‘거경’과 ‘집의’로 상징되는 장수의 공간은 곧 강당 영역이다. 강당인 명성당은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긴장과 공경의 공간이자 철저히 예로 지배되는 공간이다. 반면 긴장된 몸과 마음을 풀어내는 유식의 공간은 누각인 풍영루, 서원안의 연못, 그리고 동재와 서재의 누마루로 된 애련헌과 영매헌이

이에 속한다. 지면이 높은 곳에는 온돌 방을, 낮은 곳에는 누마루를 조성하여 좋은 조망을 확보함으로써, 동·서재의 공간이 외부 자연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다. 이 누마루를 통해서 동·서재 아래 누문 쪽으로 각각 조성되어 있는 연못의 연꽃과 주변의 매화를 감상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남계서원의 누마루가 유식공간의 기능을 하였음을 입증한다. 이 누마루는 강학공간에 유식공간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남계서원의 독특한 공간 구성을 잘 보여준다. 남계서원의 유식공간은 후일 주변 경관을 관망할 수 있는 풍영루가 조영되면서 더 적극적으로 나타난다.



[그림VI-2] 양정재(동재)와 애련헌



[그림VI-3] 보인재(서재)와 영매헌

#### 다) 다양한 편액에 반영된 성리학적 교육이념

남계서원의 건물들과 방, 현에는 성리학적 교육이념으로 무장된 이름과 편액이 걸려 있다. 이들은 유가 수양론의 핵심적 교육방법과 이를 통해 나아가고자 하는 성인의 경계를 압축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성리학의 교육이념이 서원 건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먼저, 강당 이름인 ‘명성’은 『중용』의 “밝으면 성실하다[明則誠]”에서 취한 것이다. 명성당의 왼쪽 방에는 ‘거경재’, 오른쪽 방에는 ‘집의재’라고 쓴 편액이 걸려 있다. 거경은 『정훈』의 ‘거경궁리(居敬窮理)’에서, 집의는 『맹자』의 ‘집의소생(集義所生)’에서 취한 말이다.

강당 앞에는 동재인 양정재(養正齋)와 서재인 보인재(輔仁齋)가 있다. ‘양정’은 『주역』에 나오는 “순수한 상태의 인간에게 바른 것을 길러준다”는 뜻의 ‘몽이양정(蒙以養正)’에서, ‘보인’은 『논어』의 “벗으로써 인을 돕는다[以友輔仁]”는 구절에서 취한 것이다. 동재와 서재의 누마루에 걸려 있는 ‘애련헌(愛蓮軒)’과 ‘영매헌(咏梅軒)’은 연못에 핀 연꽃을 사랑하는 군자와 뜰에 핀 매화를 읊조리는 선비의 기상과 풍치를 나타낸 것이다.

누각인 풍영루(風詠樓)는 “기수에 가서 목욕하고 무우대에 올라가 바람을 쐬고 노래하며 돌아오겠다[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는 『논어』 증점의 고사 중 ‘풍호무우’와 ‘영이귀’에서 따온 것이다. 또한 풍영루의 누문인 ‘준도문(遵道門)’은 『중용』에서 공자가 “군자는 도를 좇아 행하다가 중도에서 그만두기도 하지만 나는 그만둘 수가 없다[君子遵道而行 半途而廢 吾弗能已矣]”는 구절에서 취하였다.

### 3-1-4. 함양, 거창 일대의 풍부한 관련 유적과 문화 자원

남계서원이 소재한 함양과 인근 거창 일대에는 제향 인물과 관련된 유적이 매우 풍부하게 남아 있다. 남계서원 뒤에는 주향인 정여창의 묘소가, 풍영루에서 원경으로 보이는 곳에는 정여창이 살았던 개평마을과 일두 고택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정여창의 안의현감 시절 행적과 관련한 다양한 유적도 있다. 안의향교 및 안의현감 시절 정여창이 중건한 광풍루가 남아 있고, 역시 현감 시절 그가 유식하던 바위를 기리기 위해 지은 정자인 군자정, 또 화림동 계곡의 남쪽에 정여창이 자주 찾던 영귀대(詠歸臺)라는 바위가 있던 곳에 후일 세운 정자인 영귀동 등이 있다.



[그림VI-4] 개평마을 일두 정여창 고택



[그림VI-5] 안의현감시 중건한 광풍루



[그림VI-6] 군자정

정여창 관련 유적 외에 함양에는 지금도 옛 선비가 풍류를 즐겼던 정자와 누각이 100여 개나 남아 있는데, 이 정자와 누각을 엮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2년 3월 ‘선비문화탐방로’를 만들고, 이 길을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로 지정했다. 1구간은 ‘정자탐방로’, 2구간은 ‘선비탐방로’로 이루어져 있다. 1구간은 군자정-거연정-영귀정-동호정-경모정-황암사-농월정에 이르기까지 총 6km 구간이며, 2구간은 농월정-월림마을-구로정-오리숲-광풍루에 이르는 4km 구간이다. 선비문화탐방로 가운데 정여창 관련 유적은 군자정과 영귀정, 광풍루가 포함되어 있다.

남계서원에 배향된 개암 강익 관련 유적으로는 함양 휴천면에 강익의 묘소가 있으며, 남계서원에서 간행했던 개암집의 목판도 현존한다.

동계 정온 관련 유적으로는 거창에 정온의 생가와 묘소 및 용천정사 등이 있다. 그중 거창군 위천면 감천리에 있는 정온 생가는 중요민속자료 제 205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림VI-7] 동계 정온 생가

## 4. 남계서원 특화 프로그램 계획안

### 4-1. (1안) - 남계서원의 정신과 문화유산 체험

#### 4-1-1. 주제 : 남계서원 역사와 경관 건물의 가치 이해

- 남계서원은 일두 정여창을 제향한 서원으로, 두번째 사액을 받은 서원
- 사람들의 주도와 적극 참여로 건립된 서원, 초창기 활발한 강학활동
- 정여창의 뜻에 따라 학문을 장려하고 향촌사회를 이끌어간 함양 지성사의 거점
- 남계서원은 덕천서원과 함께 경상남도 지역의 핵심 서원으로 자리 잡음
- 조선 서원건축의 전범 마련, 성리학 교육 공간구성의 모범을 제시한 서원

#### 4-1-2. 자원특성과 경쟁력

- 자원특성
  - 강학공간에 유식공간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독특한 공간 구성
  - 성리학적 교육이념이 건축에 반영된 다양한 편액들과 관련 기록 현존
  - 각 건물별 이벤트를 경험하여 건물의 기능 등을 파악할 수 있음.
- 프로그램의 경쟁력
  - 일두 정창의 학문과 정신, 서원창건의 과정 이해
  - 남계서원의 현판, 기문 및 건물 배치, 경관 등을 보며 그 뜻을 이해함
  - 장수, 유식 공간을 활용한 강학 및 경관 체험
  - 남계서원 서원스테이와 연계 운영(1박)

#### 4-1-3. 대상층 : 30명 내외

- 대학생(문사철), 혹은 문화 동아리
- 일반인 지역모임, 답사 동아리, 기업체 동호인 등
- 교사
- 유림 : 선현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서원, 향교, 문중단체

#### 4-1-4. 활용 기본 방향

- 연 12회 시행(월 1회, 토요일)
- 건물배치와 경관 특성 이해
- 건물이 기능과 간직한 고유 의미 ; 풍영루, 명성당, 양정재, 애련헌(동재) 및 보인재, 영매헌(서재)
- 주말 체험프로그램으로 서원스테이와 연계(1박 2일도 가능)
- 전문가 안내 및 해설

#### 4-1-5. 프로그램 일정계획

시 간	내 용	비고
09:00~09:20	상호 인사와 일전 소개	운영자
09:20~10:30	알묘와 서원 경내 답사	서원장의
10:30~12:00	남계서원 인문특강 (1) 일두 정여창의 학문과 사상 (2) 남계서원의 역사와 문화유산 가치	전문강사
12:00~13:00	점심식사 및 휴식(일두 묘소 참배)	
13:00~15:30	전문가 해설 및 안내 - 남계서원의 건물 배치 - 남계서원 당호와 기문 - 풍영루와 시문학	전문강사
15:30~17:00	남계서원 답사 후 소감 글짓기 및 발표회	운영자
17:00~17:20	정리 해산	

#### 4-1-6. 교육자료 개발

- 서원 기본 연혁 자료(공통 : 10면 내외)
- 건물별 기능과 관련 자료(10면 내외)

#### 4-1-7. 인력 동원

- 전문강사 2인
- 보조강사 및 진행요원 2인

#### 4-1-8. 예산, 기자재, 기타 사항

- 팜플렛 및 자료집 제작, 인건비(강사, 보조인력)
- 중식, 음료 등 지원

항목	내용	수량	예산(천원)
기본 준비	팜플렛	500장 X 2천원	1,000
	중식비	36명 X 10천원 X 12회	4,320
	자료비(상세설명자료)	500장 X 4천원	2,000
인 건 비	전문강사	2명 X 200천원 X 12회	4,800
	보조강사 및 진행요원	2명 X 80천원 X 12회	1,920
기 타	간식비	1식 X 50천원 X 12회	600
	운영비(예약, 진행 등)	1식	2,000
	홍보, 예비비	1식	2,000
합계			18,640



#### 4-2. (2안) - 일두 정여창의 자취를 따라서

##### 4-2-1. 주제 : 남계서원과 일두선생 관련 유적 탐방

- 사림의 상징적 존재가 된 정여창의 생애와 사상
- 남계서원과 일두 관련 유적을 찾아 떠나는 문화답사, 기행

##### 4-2-2. 자원특성과 경쟁력

- 자원특성
  - : 함양과 인근 거창 일대에는 정여창, 강익, 정온의 관련 유적이 매우 많음
  - : 정여창 묘소, 개평마을과 일두 고택, 안의향교, 광풍루, 군자정, 화림계곡과 영귀대, 영귀정, 학사루 등을 엮어 '코스' 조성.
  - : 제향인물인 강익, 정온의 생가와 묘소 및 용천정사
- 프로그램의 경쟁력
  - : 남명 문도를 중심으로 한 함양 지역 사림의 활동
  - : 함양 '선비문화탐방로'와 연계, 일두 정여창의 행적 교류 조명
  - : 남계서원 서원스테이와 연계 운영(1박)

##### 4-2-3. 대상층 : 30명 내외

- 대학생(문사철), 혹은 문화 동아리
- 일반인 답사층:: 지역모임, 답사 동아리, 기업체 동호인 등
- 교사
- 유림 : 선현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서원, 향교, 문중단체

##### 4-2-4. 활용 기본 방향

- 월 1회, 1일 체험(연 12회)
- 주말 체험프로그램으로 서원스테이와 연계(1박 2일도 가능)
- 전문가 안내 및 해설
- 남계서원을 필두로 하는 함양 시티투어 활용 가능

#### 4-2-5. 프로그램 일정계획

시간	답사내용	비고
09:00~09:20	상호 인사와 코스안내	운영자
09:20~10:00	남계서원의 역사와 문화사적 특징(강의)	전문강사
10:00~11:00	남계서원 답사와 안내해설 - 연혁, 제향인물, 건물, 기문 현판 등 설명	전문강사 (서원장의)
11:00~12:00	개평마을과 일두 고택	
12:00~13:00	점심식사 및 휴식	
13:00~16:00	향교, 광풍루, 군자정, 영귀정, 학사루 등 강의, 정온의 생가와 묘소 및 용천정사 답사	전문강사
16:00~17:00	남계서원 복귀, 소감 발표	운영자
17:00~17:20	정리 해산	

#### 4-2-6. 교육자료 개발

- 남계서원의 소개, 홍보 자료
- 정여창의 일생 : 항목별 5페이지 내외
- 탐방, 답사 유적관련 자료집

#### 4-2-7. 인력동원

- 전문 강사(안내 해설) 1인
- 운영요원 : 2인 (준비 및 진행 총괄)

#### 4-2-8. 예산, 기자재, 기타 사항

- 참가자(비) : 버스 임차료, 중식비

항목	내용	수량	예산(천원)
기본준비	팸플렛	500장 X 2천원	1,000
	자료비(상세내용)	500부 X 4천원	2,000
인 건 비	전문강사	1명 X 200천원 X 12회	4,800
	보조강사 및 진행요원	2명 X 80천원 X 12회	1,920
기 타	간식비	1식 X 50천원 X 12회	600
	운영비(예약, 진행 등)	1식	2,000
	혜택 지원	30명 X 선비촌 5천원 X 12회	1,800
	예비비, 홍보비	1식	2,000
합 계			16,120

### 4-3. (3안) - 남계서원 유생의 하루

#### 4-3-1. 주제 - 남계서원 유생의 하루 체험

- 서원 유생들의 일상을 체험
- 서원 각 건물의 고유 기능과 남계서원의 활동 연계
- 제향, 강학, 유식의 과정을 체험
- 서원 유생의 체험으로 서원과 사람간의 관계, 서원의 기능, 유생의 생활 모습 등을 알 수 있음.

#### 4-3-2. 자원특성과 경쟁력

- 자원특성
  - 남계서원의 현판, 기문 및 건물 배치, 경관 등을 보며 그 뜻을 이해함
  - 성리학적 교육 공간 구성과 그 실재를 체험
  - 장수, 유식 공간을 활용한 강학 및 경관 체험
  - 남계서원 서원스테이와 연계 운영(1박)
- 프로그램의 경쟁력
  - 남계서원 건물의 기능별 체험
  - 다양한 남계서원 활동과 역사를 이해
  - 생생한 체험으로 일반 프로그램과 차별화
  - 장소별 체험, 각 건물의 고유 기능과 남계서원의 실제 활동상 연계

#### 4-3-3. 대상층 : 30명 내외

- 대학생(문사철), 혹은 문화 동아리
- 일반인 지역모임, 답사 동아리, 기업체 동호인 등
- 교사
- 유림 : 선현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서원, 향교, 문중단체

#### 4-3-4. 활용 기본 방향

- 월 1회, 1일 체험(연 12회)
- 주말 체험프로그램으로 서원스테이와 연계(1박 2일도 가능)
- 3개조 분담, 조별 상이한 서원유생 체험을 선택하고 공유하는 프로그램
  - 입원 - 명성당, 심원록 작성
  - 제향 - 사당
  - 강학 - 동·서재, 명성당(토론)
  - 유식 - 풍영루 (시, 다과)

- 전문가 안내 및 해설
- 서원 유생들의 생활 체험

#### 4-3-5. 프로그램 일정계획

시간	답사내용	비고
09:00~09:20	상호 인사와 일정 소개	운영자
09:30~10:30	유생복 갈아입기, 방명록(심원록) 작성하기, 상읍례	
10:30~10:20	남계서원의 역사와 일두 정여창(강의)	전문강사
10:30~11:30	제향의례 준비 및 체험, 참여(공통)	서원장의
11:30~12:00	분반 조별 모임 안내(주제, 내용)	운영자
12:00~13:00	점심식사 및 휴식	
13:00~15:30	3조로 분반 유생 생활체험 - 1조(풍영루) : 경관과 시문학(제영 기문) - 2조(명성당) : 강학, 토론, 발표 - 3조(양정재와 보인재) : 원생 생활 체험	전문강사조별
15:30~16:30	조별 유생체험 소감 발표, 정리(조장)	조별
16:30~17:00	조별 정리된 소감 발표와 종합	운영자
17:00~17:20	정리 해산	

#### 4-3-6. 교육자료 개발

- 서원 기본 연혁 자료(공통 : 10면 내외)
- 건물별 기능과 관련 자료(10면 내외)
- 체험용 보조 자료 제작(팜플렛 등)

#### 4-3-7. 인력 동원

- 전문강사 3인(각조 1명)
- 보조강사 및 진행요원 3인(각 1조씩)

#### 4-3-8. 예산, 기자재, 기타 사항

- 팜플렛 및 자료집 제작, 인건비(강사, 보조인력)
- 중식, 음료 등 지원

항목	내용	수량	예산(천원)
기본준비	팜플렛	500장 X 2천원	1,000
	중식비	30명 X 10천원 X 12회	3,600
	자료비(상세설명자료)	500장 X 4천원	2,000
인 건 비	전문강사	3명 X 200천원 X 12회	7,200
	보조강사 및 진행요원	3명 X 80천원 X 12회	2,880
기 타	간식비	1식 X 50천원 X 12회	600
	운영비(예약, 진행 등)	1식	1,000
	예비비, 홍보비	1식	2,000
합계			23,000

## 5. 연계 프로그램 계획안

### 5-1. 연계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한국의 9개 서원은 각각의 탁월 문화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9개 서원은 400여 년의 지속된 역사와 전통, 제향, 조직, 활동 등의 측면에서 한국 유학과 서원문화 전반을 대변하는 중요 유산이다. 특히 한국서원은

- 세계에서 가장 완비된 형태로 재현되는 서원 제향의식
- 지역 내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문화 활동의 중심역할
- 서원의 위치와 배치공간의 특수성 및 건물 건축의 우수성
- 다양한 도서와 책판, 고문서, 현판과 기문 등등의 문화유산이 보존된 곳

의 측면에서 그 가치와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9개 서원들은 각각의 독특한 문화특성들을 간직하고 있다. 9개 서원의 대표적인 특징과 성격은 대개

- 소수서원 : 1543년 건립. 안향(安珦) 제향, [최초 사액서원, 경관, 제향(도동곡), 자료 문서]
- 남계서원 : 1552년 건립. 정여창(鄭汝昌) 제향, [경관, 건축배치, 의병(향촌)활동, 단청]
- 옥산서원 : 1573년 건립. 이언적(李彦迪) 제향, [건축, 고문서, 옥계구곡]
- 도산서원 : 1574년 건립. 이황(李滉) 제향, [퇴계학맥, 경관, 별시와 강회, 장서 출판]
- 필암서원 : 1590년 건립. 김인후(金麟厚) 제향, [호남수원(운영인맥), 하서, 자료문서, 현대강학]
- 도동서원 : 1605년 건립. 김굉필(金宏弼) 제향, [건축디테일, 소학, 경관]
- 병산서원 : 1613년 건립. 류성룡(柳成龍) 제향, [경관, 건축, 서애, 제향],
- 무성서원 : 1615년 건립. 최치원 등 제향, [마을속, 지방관과 흥학, 병오의병]
- 돈암서원 : 1634년 건립. 김장생(金長生) 제향, [호서수원(학맥), 예학, 예서 출판]

등으로 요약된다.

본 절에서는 바로 이러한 9개 서원의 공통점과 특수성을 연계, 상생하여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여 보고 그 대안을 간략하게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즉 서로 다른 역사 배경과 학문, 사상적 기반을 지닌 9개 서원들이 독자성(특성)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여기에 더하여 유사하거나 비교되는 다른 서원들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한국의 서원문화를 보다 가치 있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계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를 통하여 각 서원들이 지닌 특징과 성격을 올바르게 알리고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5-2. 연계 프로그램 운영의 기본 방향

세계유산 한국서원의 연계, 통합 프로그램 운영의 기본 방향은

- (1)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9개 서원만의 특수성을 발현, 알리고 이해하기 위한 활용 프로그램 설정하고
- (2) 9개 서원 문화가 다른 일반서원과 다른 독보성, 특수성이 있음을 알리고 발현하며 이를 일반인에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 (3) 다음의 5개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한다.

- (1안) - 한국의 서원문화 투어
- (2안) - 테마별 서원 연계 프로그램
- (3안) - 9개 서원 유생의 교류
- (4안) - 한국의 서원문화축제

## 5-3. 연계 프로그램 예시

### 5-3-1. (1안) - 한국의 서원문화 투어

- 30명-35명 투어그룹
- 월 1회 3개월 연속 ; 9개 서원 답사
- 1박 2일 3코스 : 자료집 제작
  - (1코스) 영주 소수서원, 안동 도산서원, 병산서원
  - (2코스) 경주 옥산서원, 대구 도동서원, 함양 남계서원
  - (3코스) 장성 필암서원, 정읍 무성서원, 논산 돈암서원
- 서원전문가(통합관리단, 전문위원) 인솔, 특강
- 서원별 안내해설(전문가, 서원장의), 안내 자료 준비
- 소감 및 기행문, 사진, 영상 공유

### 5-3-2. (2안) - 테마별 서원 연계 프로그램

- 한국서원의 특성을 테마로 한 연계 프로그램
- 30명~35명 투어그룹
- 연중 6개 테마로 전·후반기 12회 운영
- 매월 1회 6개 주제 연속

- 1박 2일(대상 서원은 동선과 주제에 따라 재 선택)
- 주제별 특별 강사 및 인솔자
- 자료집 제작
- 학맥, 건축과 경관, 전통 강학과 교육, 제향과 의례, 장서·책판과 고문서
  - 교육 강학 : 도산, 소수, 옥산, 도동, 무성서원 등 연계
  - 경관(구곡) 문학 : 소수, 도산, 도동, 옥산, 병산서원 등 연계
  - 건축 당호 : 옥산, 도동, 필암, 남계, 병산서원 등 연계
  - 제향 의례 : 소수, 도동, 병산, 돈암, 무성서원 등 연계
  - 인물사상 학맥 : 도산, 옥산, 필암, 도동, 돈암서원 등 연계
  - 도서출판 : 소수, 옥산, 도산, 필암서원 등 연계

[표VI-2] 서원별 특화 프로그램 연계

서 원	예시된 서원별 특화 프로그램들
소수서원	제향의례문화 체험, 거재유생 강학 체험, 답사기행
남계서원	서원 정신과 문화유산, 일두 정여창의 자취, 서원 유생의 하루
도동서원	서원 제대로 답사하기, 사액봉행제, 소학이 주는 메시지
도산서원	퇴계학 지성캠프, 서원생 체험, 예던길 유적답사
돈암서원	인물 예학 실천의 돈암, 강학, 교육 체험, 서원 유적답사
무성서원	교화와 흥학의 터전, 서원 관련 유적 답사, 강학과 병오창의
병산서원	류성룡 리더십, 병산서원을 거닐다, 상소 소통의 한마당
옥산서원	서원유생의 생활문화, 서원문화 경험하기, 문화보존회
필암서원	하서의 생애와 학문, 필암서원 바로알기, 하서의 교육방법

(예) 書院山水 講會 및 山水實景 체험

- 특화된 서원 주변의 경관과 자연환경 동시 활용
- 서원의 강회는 세계적인 전통학문 심포지엄
  - 도산서원 : 天光雲影, 옥산서원 : 風月無邊, 필암서원 : 廓然大公,
  - 도동서원 : 秋月寒水, 남계서원 : 吟諷詠歸, 병산서원 : 翠屏晚對,
- 서원 경관과 역사 인물을 노래한 시문을 정리, 소개하고 참여자들의 창작 발표회

### 5-3-3. (3안) 9개 서원 유생의 교류

- 9개 서원의 원임과 유생들의 교류, 연계 프로그램(9개 서원연합회 주관)
  - 1박 2일로 연수와 답사

- 서원별 역사문화 특성과 보존 관리, 계승, 활용의 방향 교류, 협의
- 지역간 교류 년 2회, 통합 교류 2회
  - 영남권 / 호서 호남권 - 주최 서원 선정
  - 통합 년 2회 - 9개 서원 분담 개최
- 교류는 서원별 5-6명으로 30-40명 내외
- 담당 서원은 안내해설(전문가, 서원장의), 안내 자료 준비비
- 공통의 연수 주제와 초청특강, 발표자, 토론회 준비
  - 제향과 의례
  - 강학과 교육
  - 인문강회(원고 철학, 문학, 역사, 교육학자 특강)
  - 현대적 의미 계승(지성인 분임토론) - 인성, 현대생활

#### 5-3-4. (4안) 한국의 서원문화축제

- 정해진 기간과 장소를 완벽하게 조선시대로 재구성 가능
  - 단기간에 집약적으로 유교문화를 체험 해 볼 수 있는 이벤트 효과
  - 정적인 서원문화의 이미지를 다소 탈피할 수 있는 기회
- 매년 1회 개최(지역 교체)
- 한국서원의 특성을 테마로 매년 특화된 주제로 이벤트와 축제 개발
- 문화브랜드 가치 활용, 전통교육의 의미와 현대적 가치 조망
- 문화관광부, 문화재청의 예산지원 확보 필요
- 전국규모 서원, 인물관련 학술회의 개최
- 9개 서원 관련 유생들의 참여
- 서원관련 문화 답사, 기행
- 특화된 서원문화 이벤트 개발
  - 도산 별시, 강학거점례, 사액봉행제, 제향의례, 상소활동, 출판 등

## 6. 서원자원 활용 활성화와 지원책

### 6-1. 지원 정책과 지원체제의 확립

- 문화재청, 문화체육부, 지자체의 협력과 공조
- 관리주체인 서원자체의 노력과 의식 전환 유도(교육, 지원, 인센티브)
- 다양한 서원 스테이 활용연구 지원(내용, 주제)



## 6-2. 후속 세대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력 풀

- 운영 방향, 활성화 연구, 교육사업 지원
  - 문화재 보존관리, 기초자원 조사와 정리, 스테이 운영 교육 등
- 문화재 관리 인력의 비전문화, 고령화 ⇒ 전문화, 보존대책 필요
  - 해설사, 프로그램 운영요원 배치
- 서원관련 연구자, 전문가, 자원봉사자의 인력 풀 형성, 교육, 지원

## 6-3. 적극적인 활용 지원정책

- 종합정비계획 중에 반드시 활용 포함토록 명문화
- 문화재 원형 및 주변 경관에 큰 영향이 없는 경우 활용을 허락
- 자원 활용의 성과와 서원문화 재생산에 기여한 서원 우선 지원.
- 서원 활용계획과 예산지원을 심의하는 소위원회 설치
- 서원 활용에 지원된 예산은 반드시 집행과 기대효과를 평가

## 6-4. 평가, 교육, 지원 연계

- \* 문화재청(국제교류, 보존정책, 활용과), 지자체 문화재, 문화관광과  
9개 서원연합회, 서원세계유산추진단  
전문연구기관, 연구회, 연구자 / 교사, 해설사, 도움이, 지킴이 / 후손, 유림,  
지역민
- \* 모델 개발(사업 선정) 분담 -연구비, 사업비 우선 지원  
성과와 정보의 공유, 환류  
예산, 인력, 행정  
평가, 교육, 지원 연계

## VII 사업추진계획





## Ⅶ. 사업추진계획

### 1. 사업추진방향

#### 1-1. 기본방향

남계서원은 조선시대 미훼철 서원 중 하나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온 한국의 대표적인 서원으로, 건립 당시의 정신, 역사적 가치, 문화재적 가치, 그리고 현재의 역할까지 복합적인 고민을 반영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문화재 보존을 우선하되 특히 정비사업과 실생활을 하면서 변화된 부분을 원형으로 최대한 환원하도록 하며,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남계서원 일대의 자연경관의 가치를 높이고, 남계서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주변경관을 정비해야 한다.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 수립을 통해 함양군의 재정 부담 완화를 도모함은 물론 향후 여건의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본 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예산지원이 필수적이므로, 해당 세부사업추진에 있어서 문화재청 및 관련기관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1-2. 단계별 추진방향

계획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정비의 우선 순위 및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토록 한다.

[표Ⅶ-1] 단계별 추진방향

구 분	내 용
단 기	사우 바닥, 고직사, 담장 보수
	전선 지중화 사업
	소화전 차폐시설 설치
	수목 정비
	단청 보수
	서원 앞 경작지 회복
	홍살문 이전
	화장실 철거
	담장 설치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
중 기	고직사,강학단 기단, 풍영루 보수
	수목 정비
	동,서재 기와 정비
	주차장 정비
	차량 진입로 정비
	영어 안내판 정비
장 기	주변환경 정비 전문가 용역
	마을 및 경관 정비
	진정성을 위한 주변 정비
	한옥 활용사업 전문가 용역
	방음벽 철거

### 1-2-1. 단기

#### － 정비 선정 기준

- 진행 중인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을 통해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경관보존을 위한 제도적 법률적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 대상 사업과 추진방안

- 건축물정비 : 현재 진행중인 사당 마당 정비와 담장 보수 정비
- 경관정비 : 개정 현상변경 허용기준 지침적용을 통한 법률적 기반 마련
- 주변정비 : 서원 전면 공간정비를 통해 남계서원이 가지는 야경입지를 확보

### 1-2-2. 중기

- 정비 선정 기준
  - 1단계 사업의 연장
  - 내부 건물 정비완료를 위한 사업
- 대상 사업과 추진방안
  - 건축물정비 : 풍영루, 동·서재 및 강당을 보수함에 있어 상기 내용으로 정비 하되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근대에 와서 침설되었을 것으로 추정 되는 부분 등에 대한 정비를 추진함
- 주변정비
  - 주차장 정비와 아울러 시선차단을 위한 차폐조경을 설치하고 진입로 부분에 가감속 차선을 설치하여 보다 안전한 차량진입을 유도함

### 1-2-3. 장기

- 정비 선정 기준
  - 서원 내외부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진 후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업
  - 소요 재정 규모가 크고, 보다 면밀한 사전 검토를 요하는 사업
- 대상사업과 추진방안
  - 방음벽 철거 : 전면 경관을 조망함에 있어서 시각적 분절을 가져오는 방음벽 을 철거하여 거스름이 없는 조망을 구현하고자 함
  - 서원주변 경관 정비 : 축사, 주변 노후 건축물에 대한 매입 및 정비

## 2. 사업투자계획

### 2-1. 사업내용별 투자계획

- 총사업비는 종합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상기의 선정 기준에 따라 분배하였다.
- 정비공사에 대한 사업비는 유사사례 등을 참조하여 산출하였으며, 물가변동을 및 기타 제요소는 반영치 않았다. 또한 각 공정 및 시설의 방식이나 규모 등은 변경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다.
- 계획에 반영된 사업비는 추정치이므로 사업 범위 및 제반 환경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클 수 있다.

[표Ⅶ-2]사업내용별 투자계획

(단위:천원)

구분	내용	금액	비고
단기	사우 바닥, 고직사, 담장 보수		완료
	전선 지중화 사업		완료
	소화전 차폐시설 설치		완료
	수목 정비		일부 완료
	단청 보수		
	서원 앞 경작지 회복		일부 완료
	홍살문 이전		완료
	화장실 철거		완료
	담장 설치		완료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	20,000	
중기	고직사,강학단 기단, 풍영루 보수	500,000	
	수목 정비	100,000	
	동·서재 기와 정비	100,000	
	주차장 정비	100,000	
	차량 진입로 정비	80,000	
	영어 안내판 정비	50,000	
장기	주변환경 정비 전문가 용역	50,000	
	마을 및 경관 정비	100,000	
	진정성을 위한 주변 정비	100,000	
	한옥 활용사업 전문가 용역	50,000	
	방음벽 철거	100,000	
총계		1,350,000	

## 부 록







## 자문위원 의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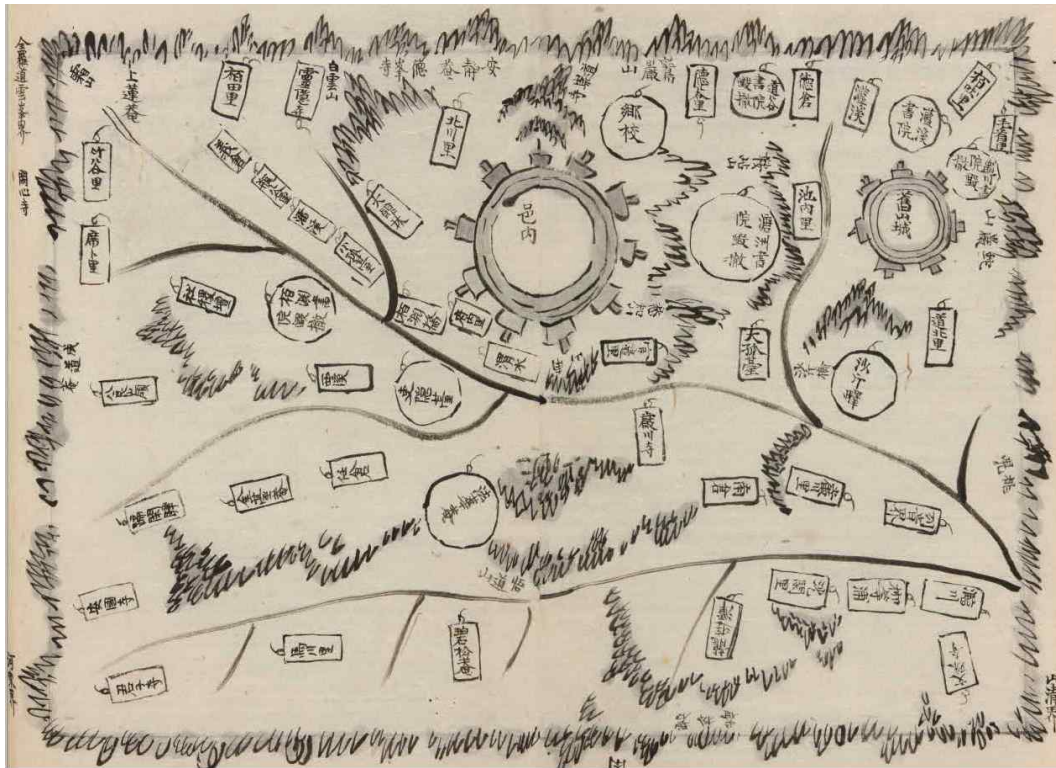
사 업 명	함양 남계서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사 업 기 간	2015. 4. 14 ~ 2015. 07. 22		
사 업 내 용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남계서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자 문 위 원 의 견		1. 서원 및 주변 경관 현황자료 및 타 서원 정비 계획 사례를 검토하여 조사하도록 함	
		2.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내용을 반영함	
		3. 서원내 시설 복원 내용을 확인하고 적용함	
		4. 서원 주변 경관정비 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 보고하도록 함	
		5. 정비계획연구용역 진행과정을 잘라이 맞춰 진행하도록 함	
		6. 특히 서원앞 공터에 대한 정비계획을 시공사에 진흥하도록 함	
2015. 06. 21			
자문위원 소속 :	성균관대학교	성명 :	이 상 해 (서명) 상 해
자문위원 소속 :	공주대학교	성명 :	이 해 준 (서명) 해 준
자문위원 소속 :	목원대학교	성명 :	이 황 기 (서명) 황 기

## 자문위원 의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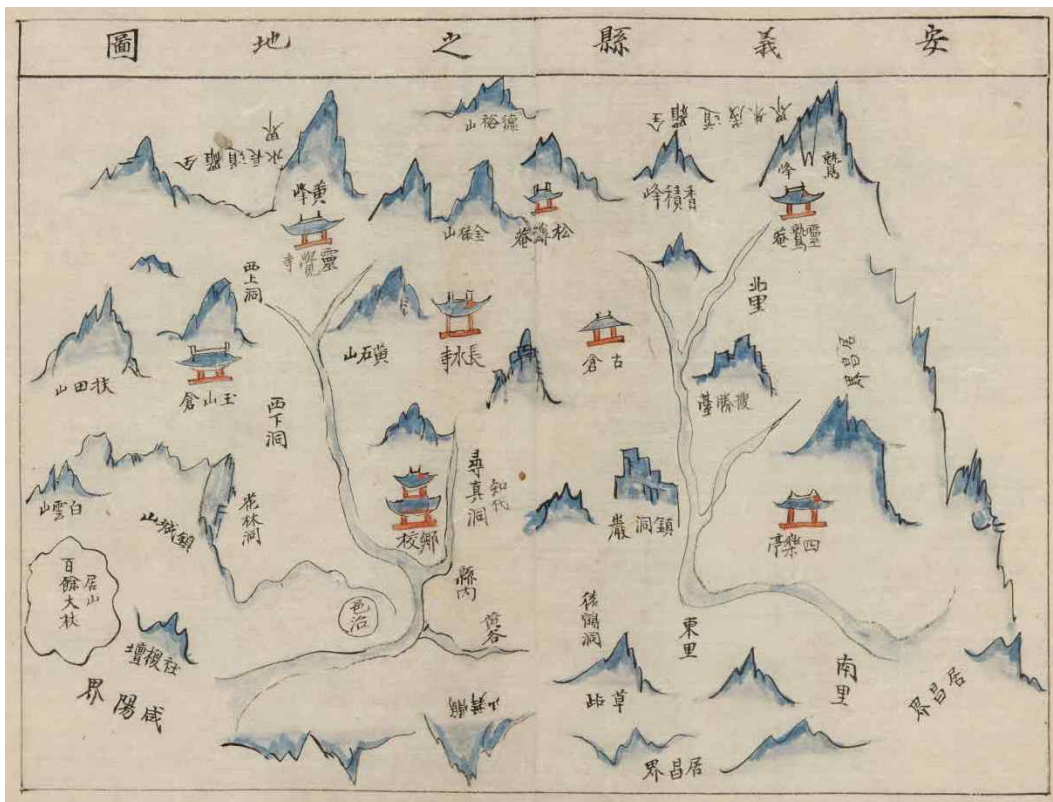
사 업 명	함양 남계서원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지정별	사적 제499호
위 치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남계서원길 8-11		
사업 내용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남계서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검토의견	<p>· 남계서원의 종합정비 기본계획은 세계유산 등재를 염두에 두고 포함시켜서 수립할 필요가 있다.</p> <p>· 서원의 영역구분은 유적, 강학, 생활영역으로 나누어 언급, 계획할 것을 권장</p> <p>· 남계서원의 임지는 세계유산 신청서에 언급된 바둑돌 바둑으로 기술하도록 하고, 이를 바둑으로 주변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p> <p>· 주변 경관관리계획은 강학, 복지로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현재 없었던 시소불, 예닐 줄머리 연지, 정자공로 등이 잘 나타나야 할 것임.</p> <p>· 세계유산 신청을 한 9개 서원의 통합보존관리와 일부 비용을 종합정비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p>		
상기와 같이 문화재 정비사업의 설계 검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8월 일			
문화재위원 소속:		성명 : 이 상 하(인)	







『嶺南邑誌』(1871년, 奎 12173), 함양



『嶺南邑誌』(1871년, 奎 12173), 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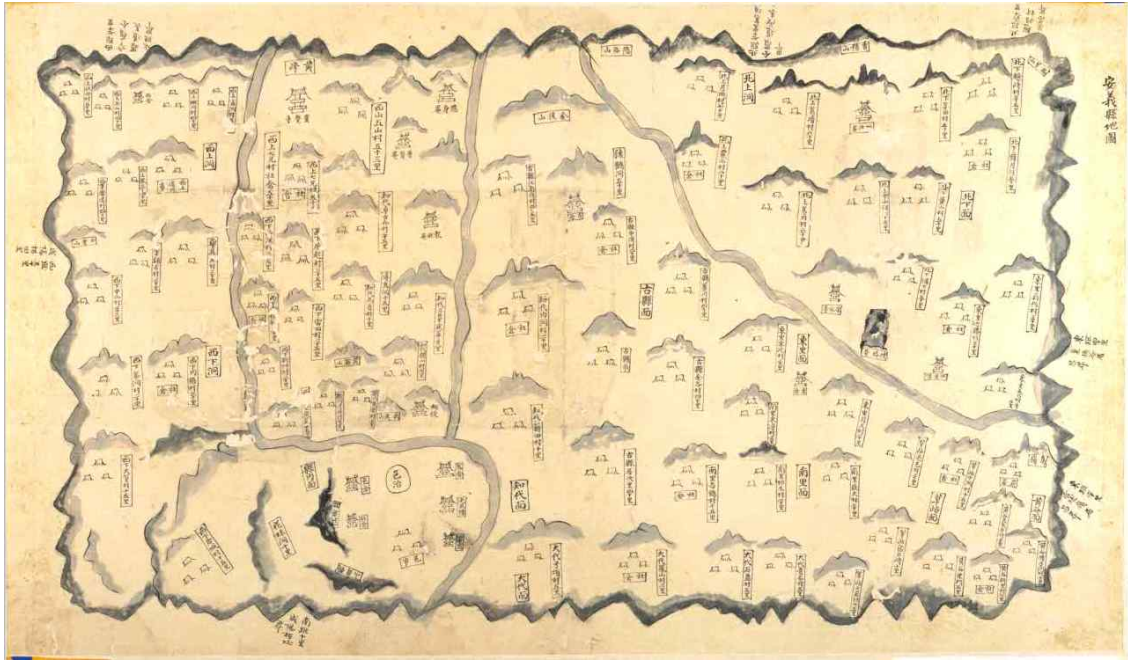
해동지도, 함양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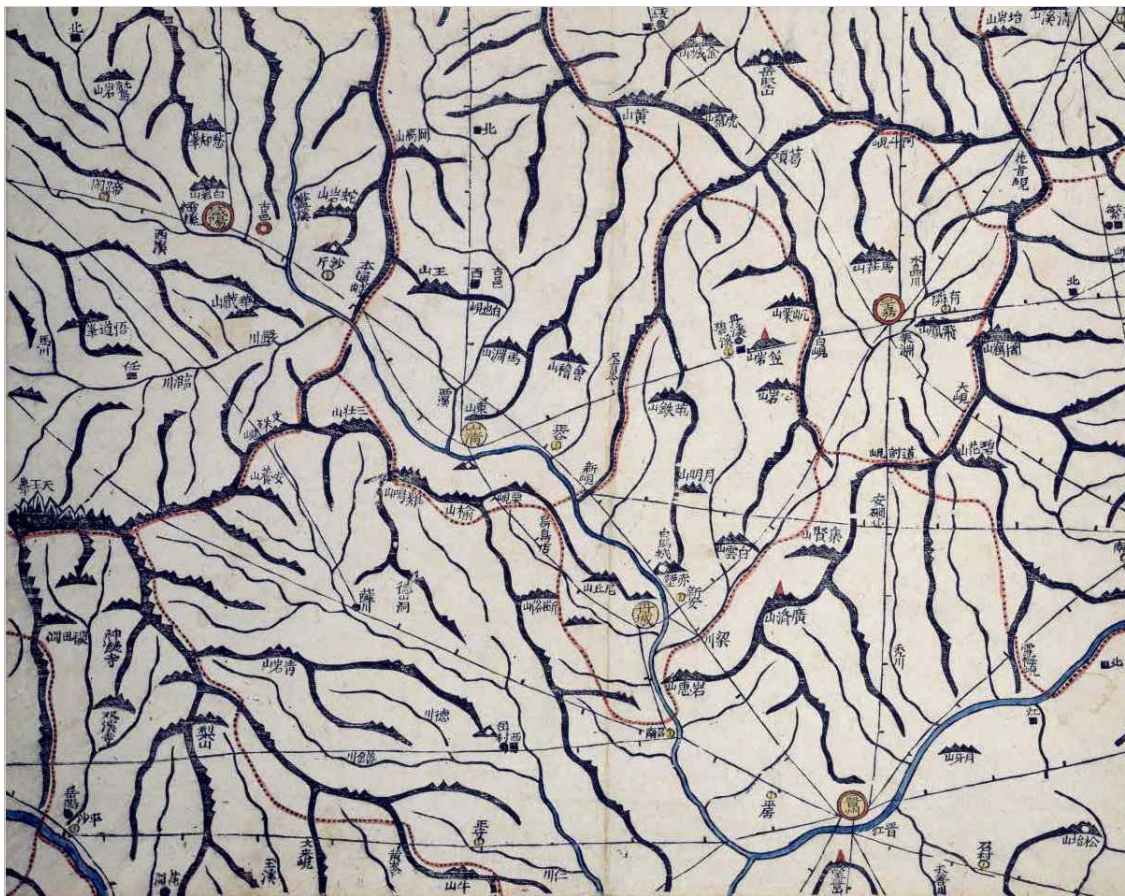


1872년 지방지도, 咸陽郡之地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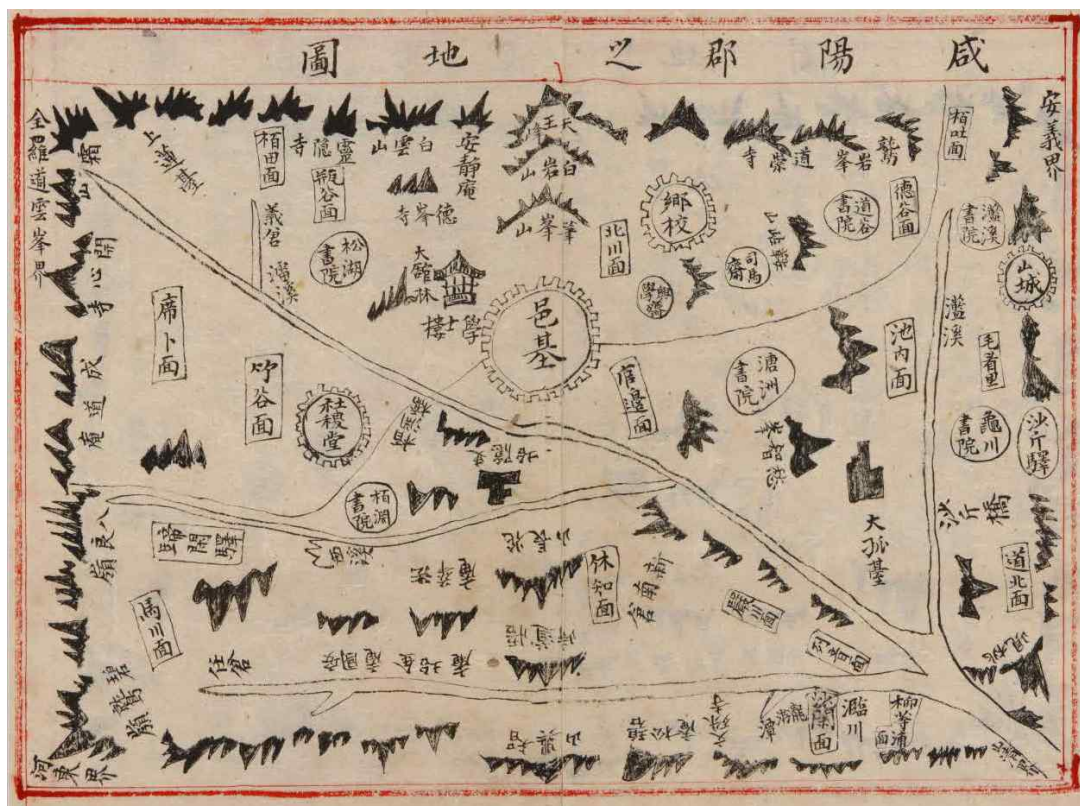


1872년 지방지도, 安義縣地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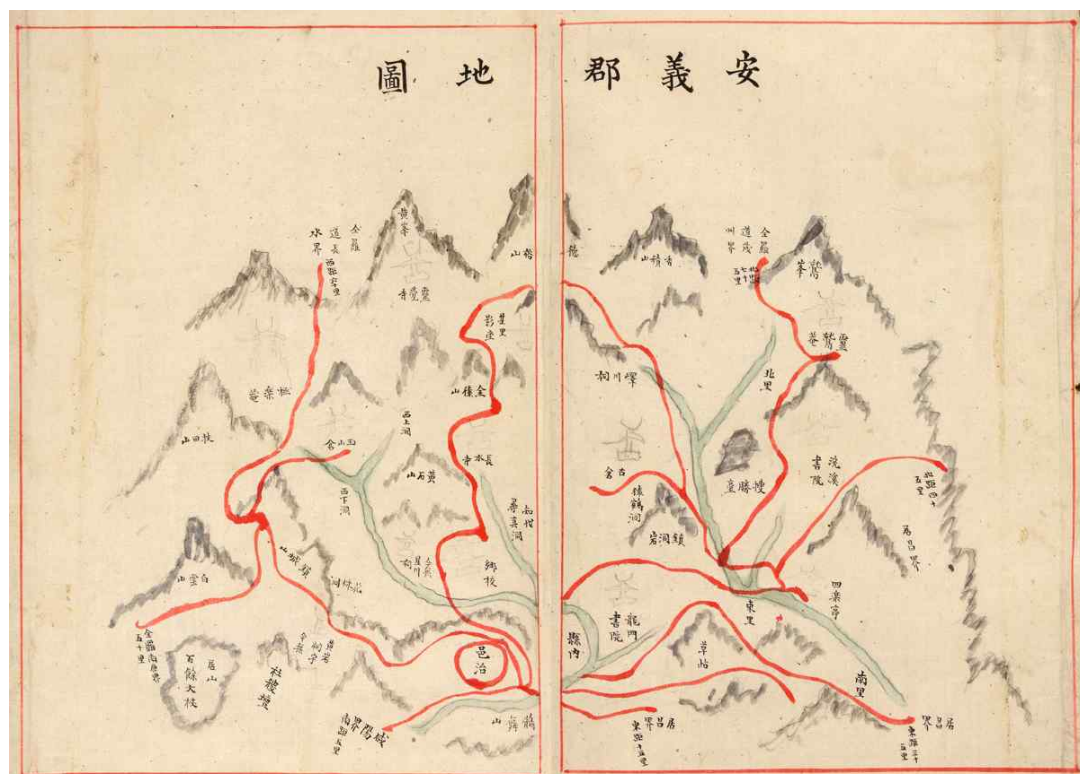


대동여지도, 18첩 3면





『嶺南邑誌』(1895년, 奎 12174), 함양



『안의읍지』, (奎 10853)

# 함양 남계서원

## 종합정비 기본계획

---

발 행 일 : 2015년 8월

발 행 처 : 경상남도 함양군청

조사기관 :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Tel. (055)772-0213

인 쇄 : 대도기획

Tel. (055)757-5808

---

(비매품·한정판)